Exposition of Genesis

Creation, Fall, Flood, Promise of Redemption, and Israel



창세기 강해

정동수 지음

창조, 타락, 홍수, 구원 약속, 이스라엘

창조에서 바벨탑까지 | 아브라함의 생애와 이스라엘
이삭의 생애 | 야곱의 생애와 이스라엘 열두 지파

그리스도예수안에

그리스도예수안에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창세기 강해

지은이 / 정동수

Copyright ©

2026년 9월 1일 발행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25,000원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는 것 이상으로
무단으로 인쇄해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position of Genesis

Creation, Fall, Flood, Promise of Redemption, and Israel

— D. S. Jung —



Contents

서문 6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며 12
창세기 서론 34

제1부 | 창조에서 바벨탑까지(창세기 1-11장) 46

창세기 1장: 하나님의 6일 특별 창조 48
창세기 2장: 에덴동산과 사람의 안식 118
창세기 3장: 사람의 타락과 여자의 씨 약속 156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두 길의 시작 192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와 에녹의 동행 208
창세기 6장: 사람의 부패와 방주 예비 220
창세기 7장: 전 지구적 홍수 심판 256
창세기 8장: 홍수의 종료와 새로운 시작 276
창세기 9장: 노아 언약과 무지개의 약속 292
창세기 10장: 민족들의 계보와 분산 310
창세기 11장: 바벨탑과 언어의 혼란 328

제2부 | 아브라함의 생애와 이스라엘(창세기 12-25장) 346

아브라함의 생애 348
아브라함 언약과 멜기세덱 366
아브라함의 칭의: 믿음과 할례 384
믿음과 행위: 로마서와 야고보서 오해 풀기 402
여호와이레 418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역사 434

제3부 | 이삭의 생애(창세기 24-28장) 454

제4부 | 야곱의 생애와 이스라엘 열두 지파(창세기 28-50장) 468

부록 1: 간극 이론의 오류와 교리적 위험 518
부록 2: 안식일과 안식교 538
부록 3: 영과 혼과 몸 578
부록 4: 천사들과 영의 세계 602
부록 5: '믿다'와 '믿음'에 대한 오해 612
부록 6: 성경 연대기 624



서문

저는 수십 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경을 가르치는 한편,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이 책은 창세기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 위에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강해한 결과물입니다.

먼저 제가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뒤,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청장년부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을 함께 공부할지 고민하며 성도들의 의견을 들었고, 제 전공이 공학인 만큼 관련된 주제들도 함께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진화론이 매우 널리 퍼져 있으며, 심지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창세기를 확신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를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을 보며, 저는 창세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겠다는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약 1년 반 동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자세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한 이들은 대학원생들과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 창세기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았고, 성경 말씀에 대해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창세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해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 열매가 이 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과대학 교수로서 37년 동안 기계공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창세기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사실을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실제 경험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과학을 더 깊이 연구할수록 창세기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진화론은 순수한 과학적 사실이라기보다 하나의 세계관이자 철학에 더 가깝습니다. 반면 창세기가 기록하는 창조와 홍수의 역사는 다양한 과학적 증거들과 충분히 조화를 이룹니다. 미국의 창조연구소(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와 '앤서즈 인 제네시스'(Answers in Genesis) 같은 창조과학 단체들이 오랜 세월 축적해 온 연구 역시 성경기록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며, 이 책 전체에서 하나님의 특별 창조를 믿는 관점으로 창세기 본문을 강해하였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창세기'라는 이름 자체가 '기원'을 뜻하듯이, 이 책은 우주와 생명, 인간과 죄, 구원, 민족들과 언어들과 국가들의 기원을 다룹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 홍수와 민족들의 분산,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이삭과 야곱, 나아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형성까지 기록하면서 동시에 성경의 주요 교리와 핵심 주제들을 응축하여 보여 줍니다.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 역시 온전히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일관된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선명하게 연결되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창세기의 사건들을 실제 역사로 인용하셨으며, 사도 바울과 베드로, 히브리서의 저자 등 신약의 기록자들 역시 창세기를 신학적 논증의 중요한 기초로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창세기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토대입니다.

이 책이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집중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것의 기원을 다루는 영역으로서, 오늘날 가장 많은 오해와 왜곡이 집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주의 나이, 진화론, 홍수의 역사성, 인류의 단일 기원과 같은 주제들은 현대인들이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 쟁점들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날-시대 이론'이나 '재창조 간극 이론'과 같은 절충적 해석을 통해 성경과 세속 과학을 조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러한 타협적 접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약 6,000년 전에 이루어진 특별 창조라는 역사적 사실을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책이며, 그 안의 기록은 실제 과학적 증거들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발견되는 해양 생물 화석들, 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공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홍수 전승, 그리고 세계 4대 문명이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실 등은 모두 창세기의 기록과 연결되어 이해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창세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실제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신화나 문학적 상징으로 보기 시작하면, 죄의 기원과 사망의 기원,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까지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동성결혼의 합법화, 낙태의 확산,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같은 오늘날의 사회적 혼란 역시 그 뿌리를 찾아 내려가면 결국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데서 나옴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는 사실,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단지 성경의 첫 책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과 가정과 사회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성도들과 교회들만이 이러한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학문적 주석서가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바로 서도록 돕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가능한 한 절마다 본문을 자세히 강해하였습니다.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교리적으로 중요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본문 안에서 추가 설명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창세기 1–11장을 강해하는 과정에서는 죄론, 은혜론, 회개론, 천사론과 같은 핵심 교리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주제들을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충분히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분량상 본문에 모두 담기 어려운 내용들은 별도의 부록에 수록하여 독자들이 필요에 따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열두 아들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강해하였습니다. 각 족장의 생애 속에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과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을 중심으로 설명하되, 전반부보다는 보다 간결한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종교 개혁 이후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손을 거쳐 전승되어 온 프로테스탄트 다수 본문 전통 위에 서 있는 성경입니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 존 칼빈(John Calvin), 존 번연(John Bunyan), 존 웨슬리(John Wesley), D. L. 무디(Dwight Lyman Moody), 찰스 스펄전(Charles Spurgeon), 캠벨 몰

간(G. Campbell Morgan),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와 같은 신앙의 선진들 역시 이러한 본문 전통 안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반면 1970년 이후 등장한 NIV와 같은 현대 역본들은 천주교 계열의 소수 사본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전통적인 프로테스탄트 본문 계열과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오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강해 전체 역시 그 성경을 기준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였습니다.

강해의 방식은 가능한 한 본문 자체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신약과 연결되는 구속사적 관점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매튜 헨리(Matthew Henry), 존 길(John Gill), 존 맥아더(John MacArthur), 헨리 모리스(Henry Morris) 등 신뢰할 수 있는 주석가들의 견해도 참고하고 인용하였습니다.

이 책은 유튜브의 창세기 강해 영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침례교회 유튜브 채널에는 창세기를 비롯한 다양한 성경 강해 영상이 수록되어 있으며, 독자들은 책과 영상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말씀을 더욱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 읽는 강해와 영상으로 듣는 강해가 서로 보완되면서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이 창세기를 처음 공부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고,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해 온 이들에게는 창세기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실패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와 죄악 속

무료 킹제임스 성경 PDF 책 QR 코드

무료 증정 킹제임스 성경 신청 QR 코드

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창세기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도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 계시며 함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격려해 준 교회 성도들과, 강해 영상을 통해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출판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지훈 형제님과 여러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인내하며 곁에서 격려해 준 아내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수고를 기쁘게 받아 주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6년 8월
인천에서
정동수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며

창세기 강해에 앞서, 먼저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지, 왜 구약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히 왜 창세기를 공부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는 것이 창세기 강해의 올바른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기초가 바로 서야 이후의 성경 이해도 흔들림 없이 세워진다.

또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성경 해석의 문제이다. 같은 본문이라도 해석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충실히 드러내는 해석을 목표로 하며, 문맥과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조화롭게 이해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나아가 우리는 성경이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시며 역사 속에서 보존해 오신 책이

라는 사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확신 가운데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창세기를 공부하는 일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들을 때 그 안에서 분명한 은혜와 확신이 주어진다. 이 강해는 독자가 성경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왜 성경을 연구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성경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요 5:39)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성경 전체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뒤 반드시 영원한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을 나타낸다.

>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요 17:17)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롬 10:17)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생겨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딤후 2:15)

이 말씀은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게 된다.

성경의 전달 과정

이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계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분이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계획, 뜻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다. 이러한 계시가 없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

는 이 과정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른다.

2. 영감

그러나 계시가 말로만 전달되고 기록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소실되거나 왜곡될 위험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를 말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글로 기록되게 하셨다.

>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를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고, 그 방식은 '영감'이었다. 영감이란 성경의 모든 단어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졌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숨을 내쉬며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단어들을 주실 때 그 안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 결과 성경의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살아 있는 말씀이 되었다.

3. 보존

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들을 지금까지 보존해 오셨다. 이 과정을 '보존'이라 한다.

>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시 12:6–7)

이 말씀에 따라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의 모든 단어들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보존되어 왔다.

4. 번역

이렇게 보존된 성경은 이방 민족들에게 전파되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묶여 '홀리 바이블'(The Holy Bible)이라는 단일한 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주후 14세기 말 영국에서 영어 성경을 통해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성경으로 엮는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성경을 번역하려면 반드시 원문이 되는 대본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대본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갈래로 전해 내려왔다. 하나는 소수 사본 계열로 전해진 로마 카톨릭 본문 전통이며, 다른 하나는 다수 사본 계열로 보존된 프로테스탄트 본문 전통이다. 이러한 차이는 성경 번역과 해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카톨릭 계열의 소수 본문은 제한된 소수의 사본들에 기초하여 본문을 재구성하려는 특징을 가지며, 학자들의 판단에 따라 본문이 수정되거나 변경될 여지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히브리어 구약 본문인 키텔의 히브리어 성경(Biblia Hebraica, 흔히 Kittel 본문으로 불림)을 보면, 페이지마다 약 10개에서 20개에 이르는 비평 장치(critical apparatus)가 달려 있다. 이 비평 장치는 다양한 사본 비교와 학자들의 수정 제안을 기록한 것으로, 본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구조를 보여 준다. 결국 이러한 체계는 주어진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더 나은 본문을 재구성하려는 인본주의 학자들의 시도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 프로테스탄트 본문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존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 있으며, 특히 '다수 본문' 전통 위에 서 있다. 여기에서 다수 본문이란, 소수의 제한된 사본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사용되어 온 많은 사본들의 일치를 중시하는 본문 전통을 가리킨다. 즉, 특정 학자들의 판단에 의해 본문을 재구성하기보다, 수많은 사본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보존되어 온 말씀을 신뢰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성경 본문을 인간이 수정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

님께서 교회 역사 속에서 보존해 오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공적으로 사용되어 온 전통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켜지고 전달되어 왔다는 역사적 연속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이 창세기 강해에서는 프로테스탄트 다수 본문에서 나온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사용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성경 역본들이 존재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프로테스탄트 본문 전통 위에 서 있는 대표적인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개혁신학의 기초를 세운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John Bunyan, 1628–1688),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 복음 전도자 D. L. 무디(Dwight Lyman Moody, 1837–1899),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Charles Haddon Spurgeon, 1834–1892), 복음주의 설교자이자 성경 주석가 캠벨 몰간(G. Campbell Morgan, 1863–1945), 20세기 복음주의 설교의 모범인 로이드 존스(David Martyn Lloyd–Jones, 1899–1981)와 같은 인물들도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본문, 즉 킹제임스 성경과 동일한 종교 개혁 본문을 사용했다.

다수 본문 성경을 사용하여 창세기 강해를 진행하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지난 400여 년간 영어권 세계와 세계 여러 나라의 성경 번역 작업에서 기준이 되어 온 대본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이다. 영미권에서 'Holy Bible'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사실상 킹제임스 성경을 가리켰다. 이 성경은 가장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교회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 400여 년 동안 신학과 교리의 발전과 계승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1970년 이후 NIV 등 천주교 소수 사본에 근거한 새로운 영어 성경들이 등장했지만 그 이전까지 대부분의 교리와 신학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형성되었다. 다수 본문은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실제로 사용하며 전승해 온 본문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 실제적인 흐름을 반영한다. 이것

은 소수 사본들을 기초로 재구성된 본문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의 손을 거치며 살아 있는 말씀으로 유지되어 온 공인(수용) 본문이다. 창세기와 같이 성경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책을 강해할 때에는 이러한 안정되고 검증된 본문 위에 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성경으로 창세기를 강해하다 보면 왜 근본주의자들과 보수적인 성경 신자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고백하는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5. 해석

성경 번역 이후에는 반드시 해석의 과정이 따른다. 성경 해석은 여러 단계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작업이다. 본문의 문맥을 살피고 단어의 의미를 확인하며,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조화롭게 이해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을 더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충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창세기 강해는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보존하신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본문 위에서 바르게 나누어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신약 시대이므로 신약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또 어떤 이들은 굳이 구약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첫째, 구약 성경이 없으면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전서는 구약과 신약이 함께 담긴 한 권의 책이

다. 구약이 없다면 신약은 결코 온전히 이해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를 읽다 보면, 사람이 죄인이며 죄 가운데 태어나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며 "왜 나를 죄인이라 하는가?", "왜 죄인이 지옥에 간다고 하는가?", "왜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지만, 그 근거와 배경은 대부분 창세기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구약의 토대 없이 신약의 내용을 이해하려 하면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도 정통해야 한다.

집을 지을 때 기초 없이 지붕부터 올릴 수는 없다. 누구나 먼저 기초를 단단히 닦고 기둥을 세운 뒤 지붕을 얹는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 기초가 부실하면 잘못된 교리나 이단 사상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기초이므로, 구약을 공부하는 일은 곧 신앙의 토대를 세우는 일이다. 구약은 죄와 사망, 그리고 구속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을 제공한다.

또한 아무리 신약이 중요하다고 해도, 신약이 구약을 폐기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신약과 구약은 서로 분리된 책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함께 이해되어야 할 하나의 계시이다. 구약이 기원과 예언, 곧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기대를 담고 있다면,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과 완성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눅 2:25)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자요 구원자로 오신

다는 사실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 또한 안나라는 여대언자도 등장한다.

그때에 그녀가 와서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눅 2:38)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예언을 따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뿐만 아니라 침례자 요한을 본 사람들이 혹시 그가 그리스도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매 (눅 3:15)

이처럼 신약의 사건과 메시지는 모두 구약의 예언과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구약 없이는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둘째, 구약 성경 없이는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셔야 했는지, 장차 다시 오실 때는 왜 왕으로 오시는지, 이 모든 내용이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마 15:24)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을 말씀하신 것은 배타적 선언이 아니라 구속사의 단계적 전개를 의미한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되었으나(요 4:22; 롬 1:16),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방인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된다.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지만, 메시아가 죽은 뒤에도

살아야 한다는 사실, 즉 메시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나눌*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노략물을 나누리니 이는 그가 죽기까지 자기 혼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사 53:10–12)

이처럼 구약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는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구약은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셋째, 구약 성경은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을 제공한다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먼저 존재했고, 그 뒤를 이어 기독교가 등장했다. 이 역사적 흐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갈 4:4–5)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롬 15:8–9)

이 구절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할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

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사역하시고, 동시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둘째로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셨다. 그러므로 유대교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는 예수님께서 이방 민족을 위해 행하신 사역 역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카톨릭에서 나왔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프로테스탄트, 곧 개신교는 역사적으로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왔지만, 기독교의 뿌리 자체는 유대교에 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바르게 볼 때, 유대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해지며, 그것이 곧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신약 성경은 중요한 장면마다 구약을 인용한다. 마태복음 4장은 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대비〉



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시험을 모두 구약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으며, 매번 "기록된 바"(It is written)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인용하셨다. 이는 구약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확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최종적인 권위이며 유일한 무기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다음은 이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예이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마 4:3)라고 시험하였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It is written),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 4:4)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인용이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 8:3)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후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 이 시험을 받으셨다. 사탄은 예수님의 육체적 필요를 이용하여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스스로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시험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욕구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분명히 하셨다. 이는 인간이 단순히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임을 보여 주신 것이다.

이어서 마귀는 자신도 성경을 인용하며(시 91:11–12)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기록된 바(It is written),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 4:7)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기록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신다.

너희가 맛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 것같이 너희는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신 6:16)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시험의 도구로 삼는 것은 불신앙임을 분명히 하셨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증명을 요구하는 교만한 행위이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자 마귀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자신에게 절하면 그것을 모두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시험이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it is written),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 4:10)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기록을 통해 하나님 외의 어떤 대상에게도 절하거나 순종할 수 없다는 절대적 예배의 원리를 선포하신다.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신 6:13)

하나님만이 경배와 섬김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며, 어떤 대가나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외의 다른 것에 절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넷째, 구약 성경은 역사 기록으로서 중요한 계시들을 담고 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사람, 천사, 사탄 마귀, 하나님의 율법, 죄에 대한 선언과 심판, 그리고 찬양과 기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폭넓게 담겨 있다. 신약 성경이 교회를 위한 규칙과 교리를 중심으로 제시한다면, 구약 성경은 다양한 인물들의 실제 삶과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 준다. 그래서 사무엘기상·하와 열왕기상·하 등을 읽다 보면, 그 안에 등장하는 왕들과 인물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닮은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각 인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시편을 통해 위로를 얻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아모스서, 호세아서와 같은 대언서를 공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 메시아 사역의 전개와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구약 성경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쇠막대기(철장)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의로 통치하시는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우리는 그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게 된다.

이제부터 성경을 바르게 읽고자 한다면 먼저 창세기를 여러 차례 정독해 보기를 권한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창세기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의 기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 여기에 더해 출애굽기 1-20장도 여러 차례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양식이다

많은 성도들이 요한복음, 로마서, 요한일서 등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 대부분의 교회들도 신약 위주의 본문을 다루거나 성경 읽기 순서

에서 신약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경기록'은 당시 상황에서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기록할 때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정경으로 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기록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 위의 말씀은 이 구약 성경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데 필요한 도구임을 보여 준다.

>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롬 15:4)

이 구절에서 말하는 '전에 기록된 것들' 역시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

> 한편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고전 10:11–12)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불순종 사례들을 예로 들며, 그것들이 후대의 믿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한다(고전 10:1–13). 이는 구약 성경이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과 경고를 주는 살아 있는 말씀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다음 여섯 가지는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이다.

1. 구약 성경은 죄에 대한 선고와 심판을 보여 준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상 죄의 기원을 밝히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죄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시작된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스스로 판단의 주인이 되려 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는 단지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분리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직접 죄의 선고를 내리셨다. 뱀에게는 저주가,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남자에게는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고난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여자의 씨를 통한 구속의 약속도 주어졌다. 이처럼 죄에 대한 심판과 은혜의 약속이 함께 나타난다.

2.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보여 준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낸다. 십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동시에, 그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다. 율법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게 하는 거울과 같다. 따라서 율법은 단순한 도덕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며, 죄인이 구속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3.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기도를 보여 준다

시편 107편은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기도를 잘 보여 준다. 사람들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 시편은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구원을 경험하게 됨을 강조한다.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응답하신다. 이처럼 구약 성경

은 인간의 죄와 고난, 그리고 회복과 감사의 과정을 함께 보여 준다.

4.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 준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한다.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목자로 세워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인간의 불법과 불순종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를 분명히 보여 준다.

5.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을 보여 준다

스가랴서 14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의 회복을 동시에 예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브 산에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 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가 되리라."(겔 48:35)라는 선언과 "그분께서는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계 19:16)라는 말씀은 그 성취를 보여 준다.

이때에는 첫째, 땅의 회복이 일어난다(슥 14:8). 예루살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시며 자연 질서가 새롭게 변화된다(겔 47:1–12; 욜 3:18). 둘째,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게 된다(슥 14:16). 이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이 온 땅에 확장됨을 의미한다. 셋째, 천년 왕국의 특징은 거룩함이다. 이전에는 제한된 영역에만 적용되던 '주께 거룩한 것'이라는 구별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된다(슥 14:20–21).

이처럼 스가랴서 1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과 통치, 그리고 거룩한 왕국의 모습을 보여 준다. 주께서 친히 온 땅의 왕

이 되시며 모든 창조물이 그분의 이름 아래 복종하게 된다.

6. 구약 성경은 천년 왕국과 메시아를 알려 준다

사무엘기하 7장 4-17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으로,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을 약속한다. 이는 단순한 왕조의 지속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는 약속이다. 이사야서 11장 6-9절과 65-66장은 메시아의 통치 아래 회복될 세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사자와 어린양이 함께 거하고, 창조 세계 전체가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예레미야서 30장 9절과 에스겔서 34장 23-24절, 37장 24-25절은 한 목자, 곧 메시아가 그들을 다스릴 것을 예언한다. 에스겔서 40-48장은 그 왕국의 질서와 성전의 회복을 상세히 보여 준다.

이 모든 계시는 죄로 인한 심판에서 시작하여, 율법을 통한 죄의 인식, 회개와 찬양을 통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궁극적인 통치로 이어진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죄와 심판, 구속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 왕국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있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창세기를 공부하는 이유

창세기는 유대교 신앙의 기초일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다. 창세기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 없이는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세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동시에 우리 몸의 부활도 믿는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자들이 채여 올라가서 두 그룹 모두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된 그대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을 지니신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이나 휴거,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도 설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창조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진화론적 사고에 눌려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창세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창조 신앙을 단지 종교적 감정이나 교회 문화로 받아들이는 모습도 나타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분명하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으며, 사람이 타락하여 죄에 빠졌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영화로운 몸을 입히신다.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곧 구속자 하나님이시며 심판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창세기를 바르게 믿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온전히 믿기 어렵고,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바로 발견하기도 어렵다.

올바른 성경 해석

성경 해석이란 진리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해석은 성경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각 구절은 단 하나의 뜻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디트로이트 침례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맥큔(Rolland D. McCune, 1934–2019)은 그의 저서 조직신학 1권에서 성경의 명료성 교리를 설명하면서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다. 성경에 관한 한 어떤 신비주의적 해석도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이 강해는 성경의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을 따르며 이런 해석 방식을 따르는 사람은 성경 신자(Bible Believer)라고 불린다.

문법적 해석이란 문맥을 따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의 6일은 실제 24시간씩의 여섯 날로 본다. 하나님께서 다른 의미

를 암시하신 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므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창 5:27)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 기준과 동일하게 실제 969년을 산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문자적 해석이다. 요한계시록 20장 2-7절에서 '천 년'이라는 표현이 여섯 번 반복되는 것도 그대로 실제 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이해한다. 에스겔서 40-48장은 그분의 통치 아래 세워질 성전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상세히 보여 주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왕국의 질서가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이 역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장차 이루어질 실제 왕국으로 이해한다.

이제 문자적 해석과 비유적 해석의 차이를 살펴보자.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예언을 기록한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시작된 물이 점점 깊어져 마침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고(겔 47:5), 그 강 양쪽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며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 심지어 사해와 같은 죽은 바다까지 소생하게 된다(겔 47:7-9). 이 예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문자적 해석을 따르는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천년 왕국에서 실제로 성취될 사건으로 본다. 곧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온 땅을 새롭게 하여 사해까지 되살리고, 그 지역 전체가 풍요로운 땅으로 변화된다고 이해한다. 이 관점은 에스겔의 예언을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반대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 이러한 문자적 성취를 부정한다. 이 사상은 천주교의 어거스틴에게서 시작되어 칼빈 등을 거쳐 중세 신학과 근세의 개신교 신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 관점은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보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흐리게 만드는 오류로 볼 수 있다.

역사적 해석이란 본문이 기록된 시대와 수신자, 목적, 배경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

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은 당시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주어졌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그 시대적 배경과 기록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해된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었다가 결국 멸망하여 왕국과 성전을 모두 잃은 상태였다. 바빌론 포로 이후 유다의 일부가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했지만, 본문이 묘사하는 완전한 회복과 통일은 역사 속에서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언자 에스겔은 죽어 있던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분열된 민족이 하나로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 준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사건으로 이해된다. 이 예언은 이미 부분적으로 1948년 이스라엘의 국가적 재건을 통해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임하는 최종적인 회복은 아직 남아 있다. 그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된다(슥 12–14장). 따라서 에스겔의 환상은 상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실 민족적 회복과 통일을 보여 주는 말씀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영의 양식은 말씀을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찾는 데서 나온다. 이는 본문을 임의로 영적으로 바꾸는 것, 즉 영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43장 1–3절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

>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네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사 43:1)

이 구절의 '구속'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유다(이스라엘)의 회복

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속을 의미한다. 구속(redemption)은 값을 치르고 물러서 구원한다는 뜻이고 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레 25:23–28).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유다로 돌아가게 되고(사 43: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면서 그 대가로 이교도 국가, 즉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스바를 대신 희생물로 내주셨다(사 43:3).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속죄 값을 치르고 바빌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분이시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로 노예 시장에 팔려나갔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롬 3:23–24)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물러 주셨다는 의미이다.

>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벧전 1:18–19)

이처럼 성경 신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문법적, 역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 이러한 해석 방법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 오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공부할 때도 말씀 그대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창세기 서론

창세기를 본격적으로 강해하기에 앞서, 먼저 창세기라는 산을 멀리서 바라보듯 그 전체 구조와 흐름을 크게 조망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창세기의 전반적인 윤곽과 핵심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다섯 권의 책, 곧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다. 18–19세기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문서 가설'(Documentary Hypothesis)이라는 억측을 제시하며 모세가 오경의 저자임을 부정하였는데 이것은 성경의 증언과 전혀 맞지 않는다. 성경은 반복해서 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밝히고 있으며(출 24:4; 신 31:9; 눅 24:27; 요 5:46),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세가 이 기록들을 남겼음을 인정하셨다(요 7:19).

따라서 우리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믿는다. 기록 시기는 대략 주전 1450년경으로 본다. 성경은 인류 역사를 약 6,000년으로 설명하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과 역사 기록은 모세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쯤 창세기를 기록한 것으로 본다. 창세기가 다루는 역사는 아담의 창조(주전 4004년

경)부터 시작되므로,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인 고조선 건국(주전 2333년)보다 1,600년 이상 앞선다.

창세기는 실제 역사를 다루는 책이다. 연대나 사건의 흐름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역사적 기록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닌다. 창세기에는 약 2,300년에 걸친 역사가 담겨 있다. 아일랜드의 대주교이자 연대기학자인 어셔(James Ussher, 1581–1656)가 저술한 「구약 연대기」(*Annales Veteris Testamenti*, 1650)에 따르면 아담부터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는 사건까지의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창세기의 1차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롬 15:4)라는 말씀처럼, 이 책은 신약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다.

창세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어 가신다는 것이다.

창세기의 이름

창세기의 원래 이름은 '기원'이다. 기원이란 어떤 일의 시작을 뜻한다. 창세기는 사람과 우주를 비롯한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유대인들은 이 책을 히브리어로 '베레쉬트'(Bereshith)라고 부르는데, 이는 '처음에'라는 뜻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영어 'Genesis'는 그리스어 게네시스에서 라틴어를 거쳐 전해진 말이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 책 제목을 Genesis로 두고, 그 위에 '기원이라 하는 모세의 첫째 책'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율법, 대언서, 성문서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

째인 율법(The Law)이 바로 토라(Torah)이며,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 전체를 토라라고 불렀다. 두 번째 대언서(느비임, Nevi'im)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의 전기 대언서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및 열두 소대언자의 후기 대언서이고, 세 번째 성문서(케투빔, Ketuvim)는 시편, 잠언, 욥기, 다니엘, 역대기 등 나머지 책이다. 이 세 부분의 히브리어 머리글자 T, N, K에 모음을 붙여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타나크'(Tanakh)라고 부른다.

창세기의 목적

창세기의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창세기는 사람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 준다. 사람은 타락하여 죄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대신 속죄하시고 자신의 가족으로 회복시키려는 구속의 계획을 창세기에서부터 드러내신다.

둘째, 창세기는 우주와 생명, 인간의 기원과 목적을 보여 준다. 죄의 기원, 결혼 제도, 인간 정부의 시작, 민족의 형성 등 모든 근본적인 주제가 창세기에 담겨 있다.

셋째, 창세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계시를 드러낸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였다.

넷째, 창세기는 히브리 민족의 초기 역사를 기록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히브리인들이며, 그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 장차 이루어질 천년왕국 또한 다윗의 씨를 통해 세워질 것이므로, 이스라엘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해는 창세기의 역사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섯째, 창세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모습이 예표와 그림자의 형태로 처음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메시아를 계시하시며, 궁극적으로 그분을 통한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창세기의 특징

창세기는 창조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기원을 다루는 책이다. 우주와 인간의 창조, 가정의 형성, 죄와 타락, 마귀의 등장, 희생 헌물과 화해, 여자의 씨로 오실 메시아의 약속, 노아의 대홍수와 바벨탑 사건 등이 모두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특히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의 혼잡과 민족의 분산이 시작되었고, 오늘날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세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나, 그 안에 죄가 들어와 사람이 타락하였고, 그 결과 죽음과 저주가 세상에 들어왔음을 보여 준다. 또한 사람이 왜 죽는지, 세상이 왜 쇠퇴해 가는지를 설명해 준다. 나아가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며, 족장들의 믿음과 요셉을 통한 이집트 이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민족과 구속의 길이 준비되어 간다. 이처럼 창세기는 죄, 죽음, 심판, 구속, 회복이라는 큰 흐름을 제시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다. 온 창조물이 지금 신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롬 8:19-21). 창세기는 "사람이 왜 죽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공한다.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1장은 창조와 생명을, 50장은 요셉의 죽음을 기록한다. 이 구조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곧 죽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된다.

창세기는 총 50장, 1,533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핵심적인 장은 1장과 12장이다. 1장은 창조를, 12장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다루며 구속사의 전환점을 이룬다. 또한 창세기는 신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신약 성경 17권에서 60회 이상 인용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에서 이미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여자의 씨'(창 3:15), '아브라함의 씨'(창 12:7), '실로'(창 49:10),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창 49:24)로 나타나신다.

여기에서 얻는 교훈은 분명하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사업이든, 학문이든, 결혼이든, 인생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길을 인도하신다.

다음에서는 창세기의 네 가지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창세기는 생명의 기원을 설명한다

창세기는 모든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다른 창조물과 구별된 존재로 세워졌다. 이처럼 생명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또한 창세기는 생명의 기원과 더불어, 그 생명이 어떻게 타락하고 변질되었는지도 함께 설명한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죽음과 저주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분으로서 타락한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여자의 씨를 통한 구속의 약속을 주심으로 생명을 회복하시려는 계획을 창세기에서부터 드러내신다. 따라서 창세기는 생명의 기원뿐 아니라 타락과 회복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의 출발점을 보여 주는 책이다.

둘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들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네 가지 기관, 곧 제도를 세우셨다.

첫째는 가정이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통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창 2:24).

둘째는 정부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후 사람들에게 정부를 통한 치리 권

한을 주셔서 인간 사회 안에 질서와 공의가 유지되도록 하셨다(창 9:1–17).

셋째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선택하셨다(창 12:1–3).

넷째는 교회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며(고후 5:17; 갈 3:28),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교회를 세우실 것을 선포하셨다.

이 가운데 신약에서 계시된 교회를 빼고 가정, 정부, 이스라엘의 기원은 모두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창세기가 모든 기원을 다루는 책이기 때문이다.

셋째, 창세기는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창세기에는 첫 사람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들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며,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셋이 등장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으며,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시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창 5:24; 히 11:5). 므두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 가장 장수한 사람이다(창 5:27). 노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창 6:8) 대홍수 때 그의 가족 여덟 명이 구원을 받는다(창 7:13).

이후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고(창 11:1, 9),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한다(창 12:1).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창 11:29), 조카 롯(창 12:5),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창 19:24–25) 등 다양한 사건이 이어진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의 삶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며(창 32:28),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후손들이다. 이스라

엘은 오랜 세월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다가 1948년 5월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고, 이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된다. 그의 아내는 라헬과 레아였으며, 아들들 가운데 유다와 요셉이 특히 두드러진 인물이다. 요셉이 형제들을 구원한 사건 때문에 메시아가 요셉의 계통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말한다(창 49:10). 장차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창세기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넷째, 창세기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언약을 제시한다

첫째는 아브라함 언약(Abrahamic covenant)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과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창 12:1–3). 이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며,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는 구속의 약속을 포함한다.

둘째는 다윗 언약(Davidic covenant)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의 씨를 통해 메시아가 오시고 그의 왕국이 영원히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다(삼하 7:9–16). 이는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기초가 되는 언약이다.

셋째는 새 언약(New covenant)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약속하셨다(렘 31:31). 이 언약은 신약 시대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게 하실 것이다.

이 세 언약, 즉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다. 이 언약들은 모두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신약과 마지막 시대까지 이어져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고 그들은 그 법을 온전히 지키게 될 것이다.

창세기와 다른 책들과의 관계

이제 창세기와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창세기는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참조된다. 예수님께서도 창세기의 사건들을 실제 역사로 언급하셨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 히브리서 저자 등 신약의 여러 기자들도 창세기를 신학적 논증의 근거로 삼았다.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의 많은 부분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중 창세기와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 신약의 책들을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든 시작과 끝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도 마찬가지이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보여 주는 두 기둥과 같다. 창세기는 인류의 첫 반역을 기록하고(창 3:1-6),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마지막 반역을 기록한다(계 20:7-10). 창세기는 죄의 시작을 보여 주고(창 3:1-6), 요한계시록은 죄의 종식을 선포한다(계 20:10; 21:4-8). 창세기는 저주의 선포를 기록하고(창 3:9-19), 요한계시록은 저주의 완전한 제거를 보여 준다(계 22:3). 창세기는 죽음의 시작을 기록하며(창 3:19), 요한계시록은 죽음의 종식을 선언한다(계 21:4).

또한 창세기는 현재의 하늘과 땅의 창조를 기록하고(창 1:1),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보여 준다(계 21:1). 창세기에서는 사탄이 활동하지만(창 3:4), 요한계시록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 사탄이 불 호수에 던져진다(계 20:10).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히지만(창 3:24),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속받은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계 22:14).

이처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시작과 완성, 타락과 회복, 저주와 구속의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 전체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

2. 로마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육적 조상으로 등장한다(창 17:4-5). 반면 로마서에서는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모든 자들의 영적 조상으로 제시된다(롬 4:16). 즉,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이며,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브라함을 육적 계보와 영적 계보 양쪽의 조상으로 함께 설명하고 있다.

또한 창세기에는 첫 사람 아담이 등장하고(창 2:7), 로마서에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롬 5:14). 로마서 5-6장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을 분명하게 비교한다.

3. 요한복음, 요한일서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일서는 모두 '처음'이라는 동일한 표현으로 시작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 1:1)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 1:1)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일 1:1)

창세기의 '처음'은 창조의 시작을 가리키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처음'은 창조 이전, 곧 시간의 시작 이전의 영원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 이전에도 계셨고 시간 이후에도 계시는 영원한 존재이심을 보여 준다.

4. 갈라디아서

창세기와 갈라디아서는 모두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창 15:6)은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원리를 보여 주며, 갈라디아서도 동일하게 이 진리를 반복한다(갈 3:6).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창 12:2-3), 갈라디아서는 이 약속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구원의 계획임을 설명한다(갈 3:8). 이는 성경 전체가 믿음을 통한 구원과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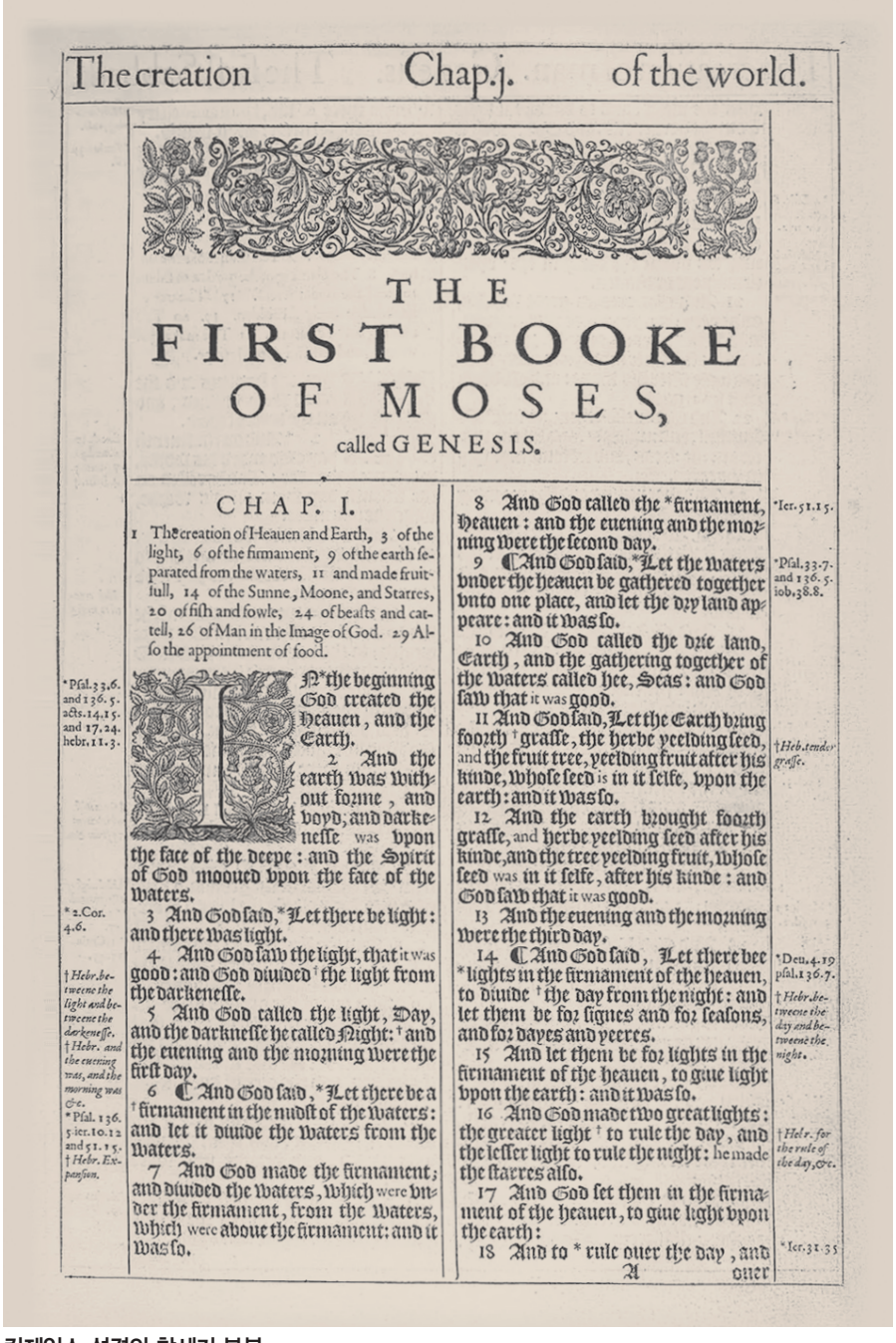
창세기 개요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문이자 열쇠와 같은 책이다. 성경의 모든 중요한 교리와 주제가 이 책에서 시작되며, 이후 성경 전체는 이를 전개하고 완성하는 구조를 가진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1-11장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전체에 관한 보편적 역사이다. 이 부분에는 창조(창 1:1-2:3), 에덴동산(창 2:4-25), 사람의 타락(창 3장), 가인과 아벨 사건(창 4장),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창 5장), 노아의 대홍수(창 6-9장), 바벨탑 사건(창 11:1-9), 그리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창 11:10-32)가 포함된다. 이 구간은 인류 전체를 다루며 죄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기초를 보여 준다.

둘째, 12-50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족장들에 관한 특별 역사를 기록한다. 아브라함(창 12:1-25:10), 이삭(창 25:11-27:46), 야곱(창 28-36장), 요셉(창 37-50장)의 생애가 중심을 이룬다. 이 네 족장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고,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이 드러난다.



The creation Chap. j. of the world.

THE
FIRST BOOKE
OF MOSES,
called GENESIS.

CHAP. I.

1 The creation of Heauen and Earth, 3 of the light, 6 of the firmament, 9 of the earth separated from the waters, 11 and made fruitfull, 14 of the Sunne, Moone, and Starres, 20 of fish and fowle, 24 of beasts and cattell, 26 of Man in the Image of God. 29 Also the appointment of food.

*Pſal.33.6. and 136.5. acts.14.15. and 17.24. hebr.11.3.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uen, and the Earth.

2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e, and voyd; and darkenesse was vpon the face of the deepe: and the Spirit of God mooued vpon the face of the waters.

*2.Cor. 4.6.

3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Hebr. betweene the light and betweene the darkenesse. †Hebr. and the euening was, and the morning was &c.

4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and God diuided † the light from the darkenesse.

5 And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enesse he called Night: † and the eu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irst day.

*Pſal. 136. 5 ier.10.12 and 51.15. †Hebr. Expanſion.

6 ¶ And God said, *Let there be a † firmament in the midst of the waters: and let it diuide the waters from the waters.

7 And God made the firmament; and diuided the waters, which were vnder the firmament, from the waters, which were aboue the firmament: and it was so.

*Ier.51.15.

8 And God called the *firmament, Heauen: and the eu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second day.

*Pſal.33.7. and 136.5. iob.38.8.

9 ¶ And God said, *Let the waters vnder the heauen be gathered together vnto one place, and let the dry land appeare: and it was so.

10 And God called the drie land, Earth, and the gathering together of the waters called hee, Sea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Heb.tender grasse.

11 And God said, Let the Earth bring foorth † grasse, the herbe yeelding seed, and the fruit tree, yeelding fruit after his kinde, whose seed is in it selfe, vpon the earth: and it was so.

12 And the earth brought foorth grasse, and herbe yeelding seed after his kinde, and the tree yeelding fruit, whose seed was in it selfe, after his kinde: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13 And the eu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third day.

*Deu.4.19 pſal.136.7. †Hebr. betweene the day and betweene the night.

14 ¶ And God said, Let there bee *lights in the firmament of the heauen, to diuide † the day from the night: and let them be for signes and for seasons, and for dayes and yeeres.

15 And let them be for lights in the firmament of the heauen, to giue light vpon the earth: and it was so.

†Heb. for the rule of the day, &c.

16 And God made two great lights: the greater light † to rule the day, and the lesser light to rule the night: he made the starres also.

17 And God set them in the firmament of the heauen, to giue light vpon the earth:

*Ier.31.35

18 And to * rule ouer the day, and

A ouer

킹제임스 성경의 창세기 부분

이처럼 창세기는 인류 전체에서 시작하여 한 민족으로 초점이 좁혀지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구조를 보여 준다.

창세기의 중요 구절

"세대들은 이러하니라."(These are the generations of…)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총 10회 등장한다(창 2:4; 6:9; 10:1; 11:10; 11:27; 25:12; 25:19; 36:1; 36:9; 37:2).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톨레도트'(toledoth)는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들', 곧 생성되거나 이어져 나온 결과들을 의미한다.

창세기는 바로 이 톨레도트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구조로 전개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 무엇이 생성되었는지, 아담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 민족들이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 준다. 다시 말해 창세기는 세상과 인간의 '생성'과 '전개'를 기록한 책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책은 한 단어로 요약하여, '기원' 또는 '시작'을 뜻하는 그리스어 '게네시스'(Genesis)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는 창세기가 모든 것의 시작과 그 이후의 전개를 다루는 책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명칭이다.

요약하면, 창세기는 '기원'이라는 제목을 가진 모세의 첫째 책이다. 이 책은 모든 것의 시작, 특히 죄와 죽음의 기원을 설명한다.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따라서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Part.1

창조에서 바벨탑까지

창세기 1–11장

Exposition of Genesis

Creation, Fall, Flood, Promise of Redemption, and Israel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과 인류의 모든 기원을 다룬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타락하고, 그 결과 죽음과 수고를 짊어진 채 에덴동산에서 쫓겨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를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신다. 타락 이후 인류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 믿음과 불신의 두 길로 갈라지고,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방주를 예비하고 가족과 생물들을 보존하며, 홍수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다. 이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 이름을 높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을 온 세상으로 흩으신다. 이처럼 창세기의 첫 열한 장은 창조와 타락, 홍수 심판과 은혜, 바벨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질 토대를 마련한다.





| 창세기 1장 |

하나님의 6일 특별 창조

창세기 1장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우주)과 땅(지구)을 창조하신 사건을 기록한다. 창조의 첫째 날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영께서는 물들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며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새로운 질서와 생명을 만들어 냈다. 빛과 어둠이 나뉘어 낮과 밤이 생기고 궁창에 의해 물들이 위아래로 나뉘었으며 바다와 육지가 드러났다. 이어 땅에서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났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놓여 낮과 밤을 다스리며 계절과 날들과 해를 구분하게 되었다. 또 바다에는 물고기와 각종 생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 땅의 짐승들과 기는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으며, 마지막으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며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또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사람의 양식으로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공

급하셨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고 "매우 좋다." 라고 선포하셨다. 이 장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고 비어 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질서 있게 정돈하시고 빈 공간들을 채우시며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 안에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신 특별 창조의 완전한 기록이다.

1. 하나님의 특별 창조 첫째 날(1:1-5)

1:1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첫 장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1절에서 '처음에'라는 말은 유한한 시간이 시작되는 지점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 전의 상태'가 끝나고 '시간'이 시작되며, 시간이 끝나면 다시 '영원 후의 상태'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처음에'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의 시작을 뜻한다. 이 시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따라서 시간 밖에서 시간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 '창조했다'라는 말은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어로 '창조'를 뜻하는 '바라'(bara)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만 사용된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 때는 기존의 재료를 사용하여 형태를 바꾸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런 재료 없이 말씀만으로 존재하게 하신 것이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히 11:3).

그렇다면 이 무에서 유의 창조에서 말하는 '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재료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물질 자체가 없었다.

원자도, 양성자도, 그 안의 쿼크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어떤 물리적 실체도 없었다. 물질이 없었으므로 에너지도 존재하지 않았다. 현대 물리학은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곧 물질과 에너지가 함께 창조되었음을 시사한다.

공간도 없었다. 우리는 공간을 텅 빈 그릇처럼 생각하여 아무것도 없어도 공간 자체는 존재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 공간 자체가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이 바로 그것으로, 첫째 하늘인 대기권과 둘째 하늘인 우주 공간이 이때 창조되었다. 창조 이전에는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현대 과학의 발견은 오히려 우주 공간 자체가 창조의 산물임을 뒷받침한다.

시간도 없었다. 이것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는 창조 이전이라고 말하지만, '이전'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시간을 전제한다. 그러나 시간 역시 창조되었다. 창조 이전에는 '이전'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고 묻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만 계셨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시니라"(출 3:14).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존재이심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신다. 시간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서 시간 전체를 한눈에 보시는 분이시다.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이렇게 말했다.

"창조물은 무에서 무언가를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창조자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다. 그것이 창조자와 창조물의 결정적 차이이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홀로 계시다가 시간이 시작되는 그 순간,

온 우주 공간과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 창조의 선언이다.

창세기 1장 1절의 '땅'은 곧 지구를 가리키므로 이 구절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지구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 공간과 지구를 동시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텅 빈 상태 속에 우주 공간이 형성되고 그 안에 지구가 창조된 것이다.

이 구절은 영어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라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정관사 the가 붙은 heaven은 단순한 하늘 하나가 아니라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포함한 전체 우주 공간을 가리키고, earth는 지구를 의미한다. 히브리어 문맥 역시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과 지구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따라 우주 공간과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총체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절의 '하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이 점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이를 단수로 번역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하늘들'(heavens)로 번역하지 않고 '하늘'(heaven)로 번역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이 반드시 여러 개의 개별 대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전체를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을 나타내기도 한다. 바로 이 경우가 그러하다. 여기에서 '하늘'은 앞서 언급한 전체 우주 공간을 가리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단수형으로 번역한 것은 의미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묶어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창세기 2장 1절의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온 군대가 완성되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2장에서는 실제로 '하늘들'이라는 복수형이 사용되어, 1장 1절의 '하늘'이 여러 하늘을 포함하는 표현임을 확인해 준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은 번역의 오

류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방식을 반영하여 우주 공간 전체를 가리키는 단수적 총체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이와 같이 성경이 '하늘'을 총체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여러 하늘로 구분하여 설명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는 세 개의 하늘이 있다. 첫째 하늘은 구름이 있고 새들이 나는 대기권이며,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이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곧 천국이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채여 올라간 사람'(고후 12:2)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구분을 분명히 보여 준다. 현재 낙원을 포함하는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역이다.

이러한 구분은 창조의 순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빛이 있으라."(창 1:3)라는 말씀을 근거로 첫째 날에는 빛만 창조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늘과 땅, 곧 우주 공간과 지구가 이미 빛보다 먼저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빛의 창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간과 지구 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 사실은 창조 신앙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지구와 온 우주 공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존재하게 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이 내용을 믿는다면, 그 이후에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을 믿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처녀 탄생의 신비도 믿을 수 없다. 특히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부활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은 후 시간이 지나면 몸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다시 일으켜 영화로운 몸으로 만드실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

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시는 것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후 5:17)라는 말씀처럼,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도 믿고 처녀 탄생도 믿고 부활도 믿고 휴거도 믿게 된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다. 온 우주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되었다면, 우리의 생명과 구원 역시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일이다.

창세기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요한복음, 로마서, 요한계시록 등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신약은 믿지만 창세기는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를 부활시키실 수 있는 분으로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창조의 사실을 믿게 되면, 세상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 부가 설명: 세계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설명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세상을 이해하려 하다 보니, 인간은 여러 가지 대안적 세계관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진리를 대신하려는 인간적 해석에 불과하다.

결국 창조 신앙을 버리게 되면, 사람은 무신론이나 범신론, 다신론, 유물론, 진화론과 같은 다양한 세계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창조를 부정하는 순간, 사람은 반드시 다른 설명 체계로 이동하게 된다.

이처럼 세상이 주장하는 여러 이론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창조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면, 이러한 모든 이론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러한 대표적인 세계관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한다.

1. 무신론

무신론은 '신은 없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론이다. 이 사상은 우주와 인간의 존재를 설명함에 있어 어떤 초월적 창조자도 필요 없다고 보며, 모든 것을 자연적 과정이나 물질의 작용으로 설명하려 한다. 따라서 무신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며, 신앙 자체를 인간의 산물로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태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말한다(롬 1:19–21).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분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경은 논증을 길게 전개하기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를 논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것을 드러낸다.

이처럼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은 무신론을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린다. 만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며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면, '신은 없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사도 바울의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롬 3:4)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

는 인간의 모든 주장은 결국 거짓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무신론은 단순한 또 하나의 선택 가능한 사상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부정함으로써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앞에서 무신론은 더 이상 설 자리를 가질 수 없다.

2. 범신론

이것은 자연의 모든 것이 곧 신이며, 신이 곧 자연의 모든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즉, 창조자와 창조물의 구분이 없고, 우주 전체가 하나의 신적 실재라고 이해하는 사상이다. 이 관점에서는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며, 사자도 신이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특정한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 전체에 스며 있는 어떤 막연한 힘이나 에너지로 이해된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날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뉴에이지 사상이다. 이 사상은 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동양 종교의 영향을 받아, 인간 안에도 신성이 있으며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깨닫기만 하면 신이 된다고 말하며,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흐리게 만든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이 모든 생각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는 선언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하늘과 땅은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창조자와 창조물은 본질적으로 구분된 존재이며, 서로 뒤섞일 수 없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창조 세계는 그분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사람들은 무지한 가운데 해와 달과 별들을 신처럼 섬기며 그것들에게 기도하였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결코 신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말씀한다. 따라서 자연을 신격화하거나 모든 존재를 신으로 보는 범신론은 성경의 창조 선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결국 범신론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창조자 하나님과 창조물의 분명한 구분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곧 신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된다.

3. 다신론

이것은 범신론처럼 모든 것이 곧 신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즉, 하나의 절대적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능력과 영역을 가진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며 인간은 그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신을 선택하여 섬길 수 있다고 보는 사상이다.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 그리고 오늘날 일부 종교와 민간 신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신 개념이 이러한 다신론적 사고를 잘 보여 준다.

성경도 '신들'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고후 4:4)으로 불리며, 그의 천사들 역시 일종의 영적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신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시편에서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대상들을 '신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그들이 참된 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신들'은 참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창조물이나 타락한 영적 존재일 뿐이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구분한다.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고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사 45:5)라는 말씀이 보여 주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그분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다른 모든 존재들은 창조물이며, 아무리 강력한 영적 존재라 할지라도 창조자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는 선언은 다신론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그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 역시 창조된 것이며, 독립적인 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 결국 여러 신이 각각 존재하며 세계를 나누어 다스린다는 다

신론적 사고는 창조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은 신이 존재한다거나, 부처나 다른 존재들이 신이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창조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다신론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상이 된다.

4. 유물론

이것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이론이다. 즉,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질의 변화와 결합으로 모든 현상이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사상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의 정신이나 의식조차도 물질의 작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유물론은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의 근간이 되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물질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인간 사회를 오직 경제와 물질의 구조로 설명하려 한다. 그 결과 인간의 영혼과 도덕,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히 배제되고, 모든 것이 물질 중심으로 재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결국 인간을 단순한 물질적 존재로 축소시키며, 참된 가치와 목적을 설명하지 못한다.

성경은 이러한 유물론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고 선언함으로써, 물질이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원이심을 분명히 보여 준다. 물질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따라서 물질을 절대화하는 유물론은 창조 질서를 거꾸로 뒤집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물질이나 천체를 궁극적인 실재로 보는 모든 유물론적 사고는 성경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5. 진화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진화론이 성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하나님은 아주 명료하신 분이다. 성경을 펴자마자 하나님은 첫 부분에서부터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신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다. 약 200년 전만 해도 "원숭이에게서 사람이 나왔다."라고 말하면 모두 비웃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원숭이는 원숭이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말하면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는 세상이 되었다. 200년 사이에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그 이유는 진화론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목사들, 신학자들,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으로, 원숭이를 원숭이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진화론적 세계관의 근간 중 하나가 빅뱅 이론(Big Bang theory)이다. 빅뱅은 우주의 탄생을 가져왔다는 대폭발을 의미한다. 이들은 약 138억 년 전에 우주의 대폭발로 에너지와 물질이 생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 대폭발은, 온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콩알만 한 것 하나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터졌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구도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모든 것이 생겨났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물질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와 물질은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존된다. 이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5,000년 전이든, 심지어 138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우주의 총량은 동일해야 한다. 그

렇다면 이 엄청난 질량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질문에 대해 아무도 답하지 못한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을 따르면 빅뱅 이론은 성립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빅뱅이 138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옛날에는 100억 년이라고 했다가 맞지 않으니까 계속 연대를 늘려 온 것이다. 아무도 빅뱅을 본 사람이 없다.

또 이들은 지구가 약 50억 년 전에 생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50억 년 전에 지구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 또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이 수천만 년 전에 생겼다고 말하지만, 그것 역시 누구도 본 적이 없다. 또 사람은 백만 년 전에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그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 낸 생각일 뿐이다. 실제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상상이다.

진화론자들은 무생명에서 생명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즉, 죽어 있는 것에서 살아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무생명에서 생명이 생긴 사례는 단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학자이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저등 생명에서 고등 생명이 나온다고 주장한다. 아메바와 같은 단순한 존재에서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생명체로 발전하고 결국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종과 종 사이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 전혀 다른 종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개가 다른 동물이 되고, 결국 사람까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딤전 6:20)이라고 말씀한다. 이런 이론들은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짓말 체계일 뿐이다.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앞에서, 이러한 모든 주장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 부가 설명: 성경의 연대

많은 사람들은 지구와 온 우주가 언제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진화론자들은 약 138억 년 전 빅뱅(Big Bang), 즉 대폭발로 우주가 형성되었고, 그 이후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류 없이 주신 말씀에 따라 인류와 온 우주의 역사는 약 6,000년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4,000년 전인 BC 4004년경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등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보면 무한한 과거, 즉 '과거의 영원'이 있으며 '처음에'라는 말은 유한한 시간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후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후에는 '미래의 영원'이 이어진다.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약 6,000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한다.

이런 시간 개념은 정통 유대인들의 역사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인 AD 37년경 태어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로마 제국하에서 다양한 역사서를 남겼다. 그의 대표 저작인 「유대 고대사」(*Antiquities of the Jews*, AD 93년경)를 통해 정통 유대인들도 창조의 시점을 자기 시대(당시)로부터 약 4,000년 전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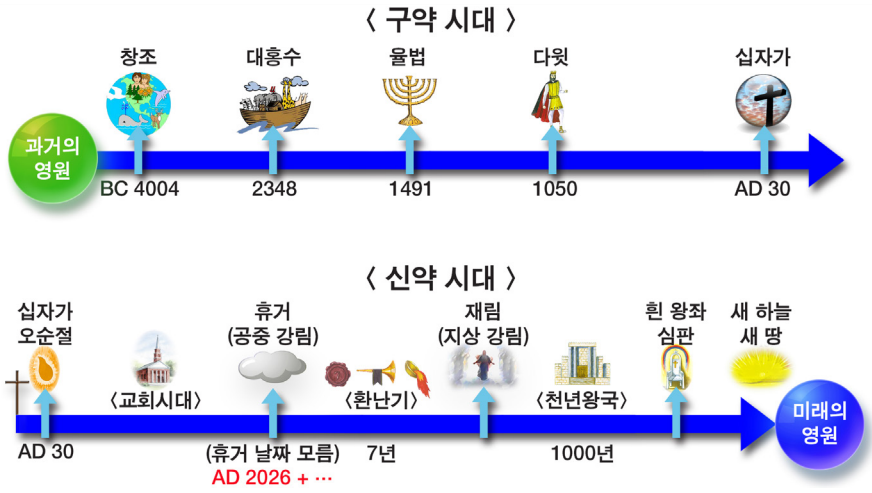
또한 영국의 대주교 제임스 어셔(Archbishop James Ussher, 1581–1656)는 구약의 족보와 역사를 종합하여 주전 4004년에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연대기를 정리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학자들은 성경이 약 6,000년의 연대만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믿는 성경 신자(Bible-believer)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 6,000년 전에 우주와 지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1]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연대기를 간단히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약 성경이 실제 역사임을 자세히 보여 주는 연대기는 부록 6을 참조하기 바란다.

– 아담부터 노아의 출생까지 약 1,000년
–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1,000년
–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
–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약 1,000년
– BC 4년경 예수님 탄생
– AD 30년경 예수님 부활
– AD 70년경 예루살렘 멸망
– 그 이후 현재까지 약 2천 년의 신약 시대 경과

〈인류 역사 타임라인〉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재림은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공중 강림이 있으며, 이때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는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서 남아 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채여 올라간다(휴거). 이후 7년의 환난기가 지상에서 이어진다. 그 후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 직접 강림하시며 양과 염소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신다. 일부는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고 보며, 일부는 부

활한 다윗이 예수님의 대리자로 통치할 것으로 본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며 그들이 또한 내 판단의 규범들 안에서 걷고 내 법규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행하리라.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의 자식들의 자식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겔 37:2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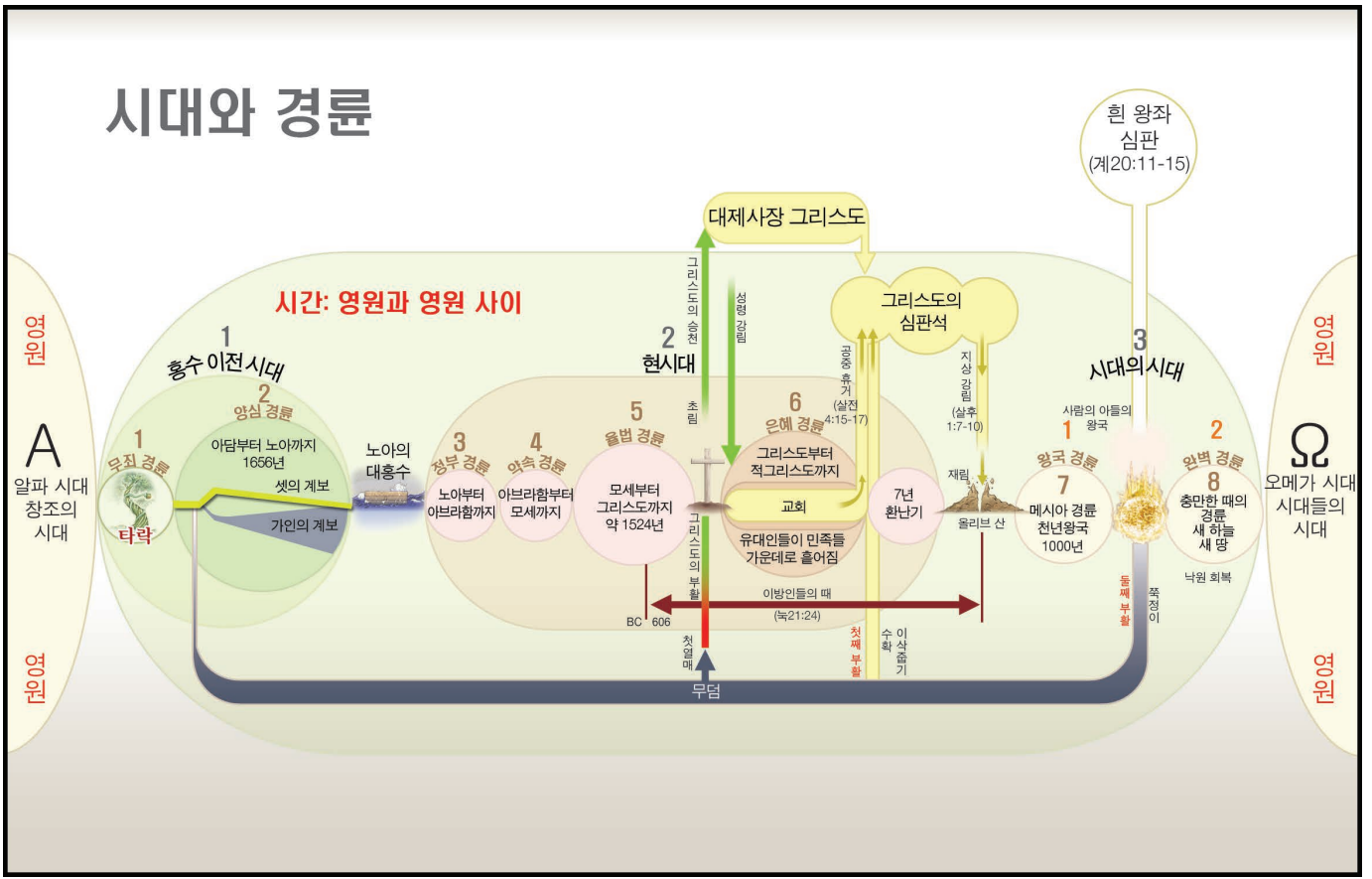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마귀와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계 20:7-10). 그 후 흰 왕좌 심판이 이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며 '미래의 영원'이 시작된다(계 20:11-21:8).

* 부가 설명: 땅(지구)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 공간에는 우리가 사는 지구와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수가 있으며 그 너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은하들이 존재한다. 인간의 지식과 관측 기술로는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공간은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중심에 지구를 두셨으며 지금까지도 그 위치는 유지되고 있다.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 갈릴레오(Galileo Galilei), 뉴턴(Isaac Newton) 이전의 고대와 중세 세계관에서는 대부분 천동설(Geocentricity), 즉 지구 중심설을 믿었다. 그러나 1543년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On the Revolutions of the Heavenly Spheres*)라는 책이 출간된 이후부터는 지동설(Heliocentricity), 즉 태양 중심설이 점차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천동설을 전제한다. 예를 들어, 해는 첫째 날이 아니라 넷째 날에 창조되었고(창 1:14-19), 해는 뜨고 질 때 자기가 떴던 곳으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다(전 1:5).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해와 달이 멈추는 장면은 지구가 아닌 해가 움직인다는 전제를 보여 준다(수 10:13).

종교 개혁자들도 이 성경적 우주관을 확증했다. 마르틴 루터(Martin


시대와 경륜
흰 왕좌 심판 (계20:11-15)
대제사장 그리스도
시간: 영원과 영원 사이
그리스도의 심판
영원
A
알파 시대 창조의 시대
1 무죄 경륜
타락
2 양심 경륜
아담부터 노아까지 1656년
셋의 계보
가인의 계보
노아의 대홍수
1 홍수 이전 시대
3 정부 경륜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4 약속 경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5 율법 경륜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약 1524년
그리스도의 승천
초림
그리스도의 부활
BC 606
첫열매
2 현시대
성령 강림
6 은혜 경륜
그리스도부터 적그리스도까지
교회
유대인들이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짐
이방인들의 때 (눅21:24)
공중 휴거 (살전 4:15-17)
첫째 부활
이삭 줍기 수확
7년 환난기
지상 강림 (살후 1:7-10)
재림
올리브 산
3 시대의 시대
사람의 아들의 왕국
1 왕국 경륜
7 메시아 경륜 천년왕국 1000년
둘째 부활
쭉정이
2 완벽 경륜
8 충만한 때의 경륜 새 하늘 새 땅
낙원 회복
무덤
영원
Ω
오메가 시대 시대들의 시대
영원

Luther, 1483–1546)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두고 "이 어리석은 자는 천문학 전체를 뒤집으려 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여호수아가 멈추라고 명령한 것은 해이지 땅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Table Talk, 1539).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도 고린도전서 설교에서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완전히 미친 자들'이라 비판하며, 시편 93편 1절을 근거로 지구는 굳게 서 있다고 강조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이 입장은 이어졌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약 사본학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에드워드 F. 힐즈(Edward F. Hills, 1912–1981)는 그의 저서 「킹제임스 성경 변호」(*The King James Version Defended*)에서 태양과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모델이 '아마도 옳을 것'이라고 밝히며, 성경의 천문학은 지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우주관임을 강조했다.


코페르니쿠스

현대 물리학은 상대 운동의 개념을 통해,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모두 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즉, 어떤 기준의 좌표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운동의 주체가 달라질 뿐, 계산 결과는 동일하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른스트 마흐(Ernst Mach) 역시 이런 상대성 개념을 강조하며 지구가 정지해 있고 우주가 움직인다고 보아도 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2]

이는 관측자 중심 좌표계에 따라 물리적 설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경의 지구 중심적 서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실제 운동 속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고 가정하면 그 속도는 초당 약 29.76킬로미터에 달한다. 이는 지구가 1초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약 30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셈이다. 또한 지구는 하루에

2. 지구 중심설에 대해서는 http://www.geocentricity.com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 바퀴 자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전 속도는 적도 기준으로 초당 약 463 미터에 이르며 이는 음속(약 340m/s)보다 빠르고 제트기 속도(약 240m/s) 보다도 빠르다. 이처럼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가 그 움직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 운동의 원리 때문이다. 우리는 지구와 함께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핵심이다. 우리가 운동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운동이 절대적 사실이 아니라 기준계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임을 보여 준다. 지구를 정지 기준계로 놓아도 물리적으로 동일한 설명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움직임이 가능할 수 있을까? 성경의 창조 구조 속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후, 그것들을 이 궁창에 두셨다(창 1:14–19). 궁창(퍼머먼트, firmament)은 단지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질서와 경계를 위해 배치하신 견고하고 단단한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퍼머먼트(firmament)라는 영어 표현은 펌(firm), 즉 단단하고 고정된 구조를 전제로 하며 이는 물리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고밀도의 질서 체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견고한 궁창 안에 배치되어 있으며, 특정한 질서와 궤도, 주파수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물리학적으로 궁창의 밀도를 플랑크 밀도 수준($5\times1096 kg/m^3$)으로 추정한다면 이는 물의 밀도($10^3 kg/m^3$)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값으로, 우주가 단순히 진공이 아니라 고밀도 에너지 구조를 가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다는 주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고밀도 구조하에서 해와 달과 별들의 지구 중심 궤도 운동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며 이는 물속 먼지와 같은 비유로 설명할 수 있다. 물이 회전하면 그 안의 먼지도 함께 회전하듯이, 견고한 궁창 안에 배치된 별들과 해와 달도 함께 회전할 수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가 회전하는 모델도 물리적·수

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흥미롭게도 현대 물리학은 이 성경적 우주관과 부합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우주 전체 질량·에너지의 약 96퍼센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dark matter)과 암흑 에너지(dark energy)로 이루어져 있다고 추정한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별과 행성, 지구를 포함한 모든 물질은 우주 전체의 4퍼센트에 불과하다. 나머지 96퍼센트는 여전히 정체불명의 보이지 않는 구조이다. 이는 우주가 단순한 진공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고밀도 에너지 구조로 채워져 있음을 시사하며, 성경이 말하는 견고한 궁창, 즉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재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 준다.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미켈슨-게일 실험(Michelson-Gale experiment)의 결과를,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재해석하며 지구 정지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만약 궁창이 상상할 수 없는 밀도와 질량을 지닌 구조라면 그 안에 배치된 별들과 태양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존재이며 이는 지동설 중심의 현대 과학 체계와는 다른 해석이지만, 물리적·수학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사 66:1)라는 구절은 하늘과 땅의 위치와 질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구조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정밀함과 목적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가 움직이고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물론 이것은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해석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창조 질서와 구조 속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원리와 설계가 담겨 있으며,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

하신 이 세계를 더 깊이 있고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3]

1:2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2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라고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토후 와보후'(tohu wabohu)로 되어 있다. '토후'(tohu)는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음'을 뜻하고 '보후'(bohu)는 '아무것도 없어 텅 빔'을 뜻한다. 이 구절은 두 단어를 함께 써서 땅이 아직 질서와 내용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강조한다.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과정을 통해 이 형태 없고 비어 있는 상태를 점차 질서 있고 충만한 상태로 변화시켜 나가셨다. 크게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형태를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형태를 채우셨다. 빛과 어둠의 구분, 궁창의 형성, 육지와 바다의 분리가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해와 달과 별들, 물고기와 새, 짐승과 사람의 창조는 그 구조를 채우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라는 이 표현을 근거로, 어떤 이들은 창세기 1장 2절이 원래 창조를 심판한 이후의 상태이며 3절부터 재창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문이 말하는 창조의 흐름

3. 저자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입장에서, 성경의 서술에 근거한 천동설적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견해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표명해 오지는 않았다. 오늘날 과학과 사회 전반이 지동설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앞세워 불필요한 논쟁을 자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신앙의 핵심 교리라기보다 성경 해석과 자연 이해의 방식에 관한 영역에 속한다. 논쟁이 확대될 경우 더 중요한 진리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이 문제를 공적 논쟁으로 끌어들이기보다 신중하게 다루어 왔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이 문제로 논쟁을 일으키지 않기를 권한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 만큼, 이 이슈로 관심이 분산되는 것은 득이 되지 않는다. 천동설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 두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과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해석이다. 이 구절은 파괴 이후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직후 아직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초기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흔히 '간극 이론'(Gap Theory)이라 불리는 가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매우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그 이후 어떤 심판과 파괴가 발생하였고,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파괴된 세상을 재정비하고 재창조하신 것으로 이해한다.

특히 이 견해는 진화론이 주장하는 수십억 년의 시간을 성경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즉, 창세기 1장 1절은 최초의 창조를 기록하고, 그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지질학적 변화와 진화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창세기 1장 2절의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 자체는 이러한 긴 시간 간격이나 파괴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창세기 1장은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라는 표현을 통해 연속적인 6일 창조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설명하고 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2절은 그 창조된 땅의 초기 상태를 보여 주며, 3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와 형태를 부여해 가시는 과정이 전개된다.

따라서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라는 표현은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곧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기 전의 준비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과 가장 일치하는 해석이다. 결국 간극 이론은 성경 본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외부의 시간 개념, 특히 진화론이 말하는 수십억 년의 틀을 성경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에서 나온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재창조 간극 이론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라는 표현을 재창조로 잘못 해석하면, 창조의 순서와 죄의 기원, 죽음의 시작, 6일 창조의 의미 등 여러 중요한 성경

교리에 혼란이 생기기 쉽다. 그러므로 본문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재창조 해석이 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뒤의 부록에 따로 정리하였다.[4]

이어지는 구절, 즉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에는 '깊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성경에서 '깊음'이라는 단어는 일정한 의미로 반복되어 사용된다.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바다의 깊은 곳이나 땅속의 물의 근원, 또는 창조 초기의 물과 같은 물리적 심연을 가리키는 데 주로 사용된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나며,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물의 영역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깊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테홈'(tehom)은 구약 성경에서 총 36회 등장하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주로 'the deep', 'the depth', 'the depths', 'the great deep' 등으로 번역된다. 신약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그리스어 단어로 '아뷔소스'(abyssos)가 사용되며, 이 단어는 신약에서 총 9회 등장한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것은 문맥에 따라 'the deep' 또는 'the bottomless pit'으로 번역된다.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어원에서 직접 파생된 것은 아니지만, 개념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구약의 테홈(tehom)이 가리키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은 곳,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심연'이라는 개념이 신약에서는 아뷔소스를 통해 계승되면서 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다만 사용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구약에서는 테홈이 주로 물과 관련된 물리적 심연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반면, 신약에서는 아뷔소스가 사탄과 악한 영들이 갇히는 장소, 곧 영적 감옥의 의미로 더 구체화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이 물리적인 창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깊음'을 신약에서의 영적 심연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문맥상 이 '깊음'은 창조 초기의 상태, 곧 하나님께서 아직 질서를 부여하시기 이전에 지구를 덮고 있던 물과 관련된 물리적 심연을 가

4. 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은 「재창조는 없다: 간극 이론의 오류와 교리적 위험」 무료 PDF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keepbible.com/Pds1/View/67F

리킨다. 따라서 이 '깊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 지구를 덮고 있던 원시적 물의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물은 이후 창조의 과정 속에서 점차 분리되고 정돈된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어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창 1:6-8), 셋째 날에는 아래의 물을 한곳으로 모으셔서 바다가 형성된다.

창세기 1장 2절의 '깊음'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표현과 연결되는 잠언 8장 22-3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창세기 1장 2절 본문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절은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라고 한 직후에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기록한다. 여기에서 '깊음의 표면'과 '물들의 표면'은 동일한 실체를 가리키는 '히브리식 평행 대구법 표현'이다.[5] 즉, 창세기 1장 2절 본문 자체가 이미 깊음을 물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 점을 먼저 확인한 후에 잠언 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일부에서는 이 깊음을 사탄의 타락과 연결된 영적 심연이나 어떤 형이상학적 혼돈 상태로 해석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성경 본문이 직접 지지하지 않는다. 성경은 깊음을 영적 존재나 악의 근원과 연결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물질적 실체로 일관되게 제시한다.

잠언 8장 22-31절은 창조 이전과 창조 과정 전체를 배경으로 전개되며,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과 창조가 시작되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보여 주는 중요한 구절이다.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그때에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5. 히브리식 평행 대구법 표현(parallelism)은 히브리 문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 방식으로, 비슷하거나 대조되는 의미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병행하여 강조와 의미를 드러내는 구조를 말한다. 한국어의 대구법과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단순한 문장 대칭을 넘어 반복·대조·확대·설명 등의 기능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시편과 잠언뿐 아니라 창세기 같은 서술 본문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잠 8:22, 30).

이 말씀들은 창조 이전의 상태와 창조의 시작을 분명히 드러낸다. 특히 잠언 8장 30절의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라는 표현은 창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존재, 곧 아들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 말씀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계셨고, 그분이 창조의 전 과정에 관여하고 계셨음을 보여 준다. 이는 요한복음 1장 1-3절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러한 전체 흐름 속에서 잠언 8장 24-25절이 등장한다. "깊음들이 없을 때에, 물을 풍성히 내는 샘들이 없을 때에 내가 드러났으며, 산들이 정착하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드러났으니".

이 말씀은 창조 이전 상태를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다. 여기에서 '깊음들이 없을 때'라는 표현은 이 깊음이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 준다. 즉, 깊음은 영원부터 존재하던 어떤 근원적 실체가 아니라 창조 과정 속에서 비로소 형성된 것이다(잠 3:19-20).

이어지는 '물을 풍성히 내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는 구절은 앞의 내용을 다시 풀어 설명하는 평행 대구법 표현이다. 히브리식 평행 표현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한다. 특히 '깊음들'과 '물을 풍성히 내는 샘들'이 나란히 언급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 평행 구조는 '깊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물과 관련된 실체를 가리킨다는 해석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잠언 8장 27-28절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이 깊음에 경계를 두시고 질서를 부여하셨음을 말한다. 깊음이 영적 심연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물리적 경계를 두신다는 표현은 어색하다. 그러나 깊음이 실제적인 물의 덩어리라면,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것은 매우 자연

스러운 표현이다.

시편 104편 역시 창조 과정을 묘사하는 시편이다. 1-5절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기초를 놓으신 것을 노래하고, 6절 이후에는 물이 땅을 덮고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육지를 드러내시는 과정을 묘사한다. 이 흐름 속에서 6절은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같이 깊음으로 땅을 덮으시매 물들이 산들 위에 섰으나"라고 기록하며, 원시적 물 덩어리가 지구 전체를 옷처럼 덮고 있던 초기 상태를 시적으로 보여 준다. 이어지는 7-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을 꾸짖으시자 물이 물러가고 골짜기로 내려가며, 경계가 정해져 다시는 땅을 덮지 않게 된다고 기록한다. 이는 창세기 1장 9-10절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한곳으로 모으시고 육지를 드러내신 사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시편 104편 6절의 '깊음' 역시 창세기 1장 2절의 '깊음'과 동일한 실체, 곧 창조 초기에 지구를 덮고 있던 실제적인 물을 가리킨다.

이처럼 창세기 1장 2절 본문 자체의 평행 대구법 구조, 잠언 8장 22-31절의 전체 문맥과 평행 표현, 그리고 시편 104편 6절을 종합하면, 창세기 1장 2절의 '깊음'은 창조 직후 지구를 덮고 있던 원시적 물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2절의 끝부분은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라고 말한다. 이 장면은 에스겔서의 마른 뼈 환상(겔 37:2-3)을 떠올리게 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여 주신 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자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붙으며 결국 하나의 살아 있는 큰 군대가 되는 모습이 묘사된다(겔 37:5, 10).

창세기 1장 2절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를 보여 준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기 전까지 온 우주는 어둠과 공허 가운데 있었고 생명도, 갖추어진 질서 체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면서 창조 사역이 시작되자 형태가 없던 것이 형태를 갖추고, 비어 있던 공간이 채워지며,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욥 26:7-10, 13; 시 33:6).

성령님의 일은 언제나 형태가 없는 상태를 형태를 갖춘 상태로 바꾸고, 공허를 충만하게 채우며, 죽은 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성령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겔 37:9-10; 고전 15:45; 요 3:5-6). '물들의 표면'이라는 표현은 당시 지구를 덮고 있던 많은 물을 가리키며, 그 물 위에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며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것은 성령님의 창조 사역이 우주 질서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후 전개되는 모든 생명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도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마음 깊은 곳에서 실제로 일하신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본래 죄들 가운데 죽어 있던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엡 2:1). 영어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을 'quicken'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들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남', 곧 '중생'이라 불리는 경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없다면 그 지식은 생명이 없는 헛된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내게 실제로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그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난 적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음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헌물이 되셔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담당하셨다.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바로 그 순간, 창조의 실제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 성령님은 무에서 유를 이끌어 내시고, 형태가 없는 상태를 형태를 갖춘 상태로 바꾸시며, 공허에서 충만함을 이루는 분이시다.

* 부가 설명: 젊은 지구를 보여 주는 과학적 데이터

지금까지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 창조 초기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 아직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조의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다시 말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라는 표현은 파괴 이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기 전의 초기 단계이다.

성경의 계보와 기록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6일간의 특별 창조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시간의 시작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 안에 질서 있는 창조 세상을 이루셨다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기본 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기록과 달리, 오늘날 진화론자들은 지구와 우주의 연대를 수십억 년으로 제시하며 전혀 다른 시간 개념을 주장한다. 이 오래된 지구 개념은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쳐, 창세기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조정하려는 여러 해석들을 낳았다. 대표적으로 간극 이론과 날-시대 이론이 있는데, 간극 이론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수십억 년의 시간을 삽입하려 하고, 날-시대 이론은 창조의 '날들'을 각각 긴 지질 시대로 해석한다.

이러한 시도들의 공통점은, 성경 본문 자체에서 출발하기보다 외부에서 제시된 긴 연대 개념, 곧 진화론적 시간 틀을 성경에 맞추려는 데 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라는 반복 구조를 통해 연속적인 실제 날들의 흐름을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수십억 년의 간격이나 상징적 시대를 암시하는 어떠한 단서도 주지 않는다. 더 나아가, 지구의 연대를 길게 늘리려는 이러한 주장과 달리, 실제로 관찰되고 측정되는 여러 자연 현상들은 오히려 지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들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 자기장의 점진적 약화, 우주로부터 계속 쌓이는 미세 운석 먼지, 미시시피 강 삼각주에 축적된 퇴적물의 양, 석유와 천연가스의 형성 및 보존 상태, 암반의 물리적 특

성, 지구 자전 속도의 변화, 인구 증가의 패턴, 그리고 달이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현상 등은, 지구–달 체계가 무한히 오래 지속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최근에 형성된 체계, 곧 젊은 지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들로 제시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창조의 시간 틀이 단순한 신앙적 주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일관된 관점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 지구 자기장 현상

어떤 힘이나 세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지구 자기장의 반감기는 약 1,400년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지금부터 1,400년 전에는 지구의 자기장 세기가 현재의 자기장 세기보다 2배 강했으며 2,800년 전에는 4배, 4,200년 전에는 8배가 강했다는 의미이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여 10,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의 지구는 마치 자석별(magnetic star)의 자기장만큼이나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지구의 자기장은 지구 핵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형성되며, 이 전류는 열을 발생시킨다. 그런데 20,0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같은 전류로 인해 발생하는 열이 이미 지구 전체를 녹이고도 남았을 것이다. 따라서 지구 자기장을 고려하면, 지구의 나이는 아무리 길어도 10,000년을 넘을 수 없다.

2. 유성 먼지

지구는 매년 약 1,400만 톤의 유성 먼지를 우주로부터 받아들인다. 만일 지구가 50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면, 지금쯤 지구 표면에는 약 20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즉 약 60미터 두께의 유성 먼지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구 어디에도 그런 먼지층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에서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먼지가 제거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달에는 그런 활동이 전혀 없

다.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달이 약 6,000년 전에 창조되었다면, 그 표면에 쌓인 유성 먼지의 양도 그 기간을 반영해야 한다. 실제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할 당시, 착륙선의 다리 밑면을 넓게 설계한 이유는 먼지가 깊게 쌓여 있을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착륙 후 조사 결과, 달 표면에는 단지 약 1밀리미터 두께의 유성 먼지만 존재했다. 이 먼지는 외부에서 유입된 금속 성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약 6,000년 동안 축적된 양에 해당한다. 이는 달과 지구가 매우 오래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3. 미시시피 강의 삼각주에 쌓인 퇴적물

미시시피 강은 해마다 막대한 양의 퇴적물을 남쪽으로 운반하여 멕시코만에 삼각주를 형성한다. 이 퇴적물은 강 상류에서 침식된 흙과 모래가 지속적으로 쌓인 결과로, 현재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 지형이다. 전체 퇴적물의 총량과 오늘날 관찰되는 연간 퇴적 속도를 비교하여 단순 계산해 보면, 현재의 삼각주가 형성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4,000년 정도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추정은 삼각주가 무한히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다기보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축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특히 창세기에서 기록된 대홍수 이후, 대규모 침식과 퇴적이 급격히 일어났다고 본다면, 이것은 오늘날 관찰되는 삼각주의 형성과 그 규모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로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미시시피 강 삼각주의 형성과 퇴적 양상은, 지구의 지질학적 변화가 반드시 수십억 년의 긴 시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도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논의되기도 한다.

4. 석유와 천연가스

석유와 천연가스는 지하의 고온·고압 환경 속에 존재하며, 이것들을 덮고

있는 덮개 암석(cap rock)에 의해 밀폐되어 있다. 이 덮개 암석은 일정한 강도와 밀폐성을 유지하여 유체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암석 역시 완전한 구조가 아니므로,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생기거나 압력 변화로 인해 결국 붕괴되거나 누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만약 지구의 나이가 수천만 년이나 수억 년에 달한다면, 이러한 덮개 구조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워 이미 상당 부분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석유와 천연가스는 지하에 계속 갇혀 있을 수 없고, 점진적으로 지표로 빠져나가거나 소실되었어야 한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자연적인 누출(seepage)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러한 밀폐 구조가 완전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대규모 석유와 천연가스가 여전히 지하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심지어 자연적으로 분출되는 현상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자원들이 완전히 소실되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찰은 지구의 역사가 무한히 오래되었다기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형성되었다는 관점, 곧 젊은 지구 관점과 부합하는 관찰 사례이다.

5. 지구의 자전 속도

현재 지구의 자전 속도는 태양과 달의 중력 작용, 조석 마찰(tidal friction), 그리고 여러 물리적 요인들로 인해 점차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달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조석 마찰은 지구의 자전 에너지를 서서히 소모시키며, 그 결과 하루의 길이가 아주 미세하지만 점진적으로 길어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만약 지구가 수십억 년에 걸쳐 계속 자전해 왔다면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회전했어야 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자전 속도가 극단적으로 빨라질 경우, 원심력이 강하게 작

용하여 적도 부근이 크게 부풀고 전체 형태가 심하게 납작해지는 방향으로 변형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와 같은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기후와 해양의 균형 역시 크게 흔들려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제시된다.

그러나 실제로 관측되는 지구의 형태는 완전히 구형은 아니지만, 극과 적도 사이의 차이가 비교적 작은 '편평한 구체(타원체)'에 가까운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구의 자전이 무한히 오랜 기간 동안 극단적인 속도 변화를 겪어 온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제한된 시간 범위 안에서 현재와 유사한 조건을 유지해 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소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구 자전 속도의 변화와 그에 따른 형태적 안정성은, 지구의 역사가 매우 장구하다는 가정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틀, 곧 젊은 지구 관점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근거로 논의되기도 한다.

6. 달의 퇴행 현상

달은 매년 지구로부터 아주 미세하게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지구와 달 사이의 조석 작용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 속도를 기준으로 과거를 역산해 보면, 현재와 같은 거리 관계가 형성된 시점이 무한히 오래된 과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까운 시점일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기도 한다.

만약 지구와 달의 체계가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면, 과거에는 두 천체가 훨씬 더 가까이 있었어야 하고, 그로 인해 극심한 조석 작용과 열적·기계적 불안정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관측되는 안정된 궤도와 거리 관계는 이러한 극단적인 조건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일부에서는, 달과 지구가 현재와 유사한 조건 속에서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약 6,000년에서 10,000년 사이의 시간 범위를 하나의 설명 틀로 제안하기도 한다.

7. 인구 증가율

진화론자들은 인류가 약 백만 년 전에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인류가 처음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후 평균 인구 증가율을 매우 보수적으로 연간 0.5퍼센트로 잡아 계산해 보면, 지금쯤 인류는 수조 명에 이르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에 불과하다. 반면, 헨리 모리스 박사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노아의 대홍수 이후, 단 8명으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고, 이후 약 4,500년 동안 연간 평균 0.5퍼센트의 증가율을 적용하면 오늘날의 인구 규모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계산은 실제 인구 수치와 상당히 잘 부합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처럼 진화론자들이 제시하는 시간 개념은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으며, 그들의 주장과 실제 데이터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오래된 지구 개념은 간극 이론이나 '날-시대 이론' 과 같은 해석들을 낳았으나 이것들 역시 동일한 전제, 곧 수십억 년의 시간 틀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성경을 재해석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이 유명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주장들을 신뢰하지만, 실제로 관찰되는 여러 현상들은 오히려 성경이 제시하는 시간 틀, 곧 약 6,000년 전 창조라는 관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성경에 모든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설사 일부 연대가 생략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간격은 제한적이며, 전체 역사를 수십억 년으로 확장할 수 있을 정도의 공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성경의 족보, 곧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를 연속적으로 기록한 구조는 연대를 계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역사적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무한히 긴 진화론적 시간 개념이나 이를 성경에 접목하려는 간극 이론과 날-시대 이론은 모두 창세기 본문의 문맥과 성경 전체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외부의 시간 개념에 맞추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약 6,000년 전 시간의 시작점에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고, 그 이후 6일 동안 질서 없고 비어 있던 상태를 질서 있고 충만한 상태로 이루어 가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2절에 대한 성경적이고 문자적인 이해이다.

1:3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자 빛이 생겨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 보라. 광대한 우주 공간은 온통 어둠으로 덮여 있고 그 안에 작은 지구가 존재한다. 모든 것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시자 즉시 빛이 생겨난다(고후 4:6). 중요한 점은, 이때 생겨난 빛이 우리가 아는 햇빛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해는 넷째 날이 되어서야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시자 어둠으로 가득하던 공간에 빛이 생겨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보여 주는 최초의 사건이다. 이 빛에 대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언급한다. "낮이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시 74:16), "그분은[하나님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며"(딤전 6:16). 야고보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약 1:17)라고 부른다.

이 빛의 성격에 대해 헨리 모리스(Henry Morris)는 중요한 통찰을 제시한다.[6] 그에 따르면 이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본래부터 빛 안에 거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빛이 있으라."라는 명령은 전혀 존재하지 않던 상태에서 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질에서 나오는 빛이 우주 공간 안으로 발산되기 시작한 사건이다.

---

6. 「창세기 기록」(*The Genesis Record*, Grand Rapids: Baker, 1976), p. 55

또한 모리스는 빛이 태양보다 더 근본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태양은 빛을 만들어 내는 장치에 불과하지만, 빛 그 자체는 태양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이라는 장치를 통해 빛을 공급하시기 전에, 먼저 빛 자체를 직접 발산하셨다. 태양을 통한 빛의 공급은 간접적인 방식이고,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온 것이다. 더 나아가 모리스는 이 빛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이 빛은 지구의 한쪽에서만 비추는 방향성 있는 광원이었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함(혹은 우주가 돎)에 따라 낮과 밤이 생겨날 수 있었다.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저녁과 아침이 기록된 것은 바로 이것을 보여 준다.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된 이후에는 태양이 이 역할을 넘겨받았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새 예루살렘은 그 안에서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양께서 그 도시의 광체이시기 때문이다(계 21:23). 요한계시록 21장 22-23절을 통해 우리는 해와 달이 없어도 빛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빛은 단순한 물리적 광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양 예수님의 임재 자체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나타난 빛도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 존재의 질서,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빛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 빛은 모든 창조의 바탕이 되는 근본적 에너지이며 하나님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영광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햇빛은 그저 창조물 중 하나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발산된 본질적 빛과는 비교할 수 없다.

1:4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빛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따라 '좋다'고 인정되

었다. "그것이 좋았더라."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하나가 그분 보시기에 선하고 온전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 표현은 둘째 날(창 1:8)을 제외한 다른 창조 사역의 날들, 즉 1장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다시 등장한다. 특히 31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라고 말한다. 이런 평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그 안의 모든 창조물에 대해 깊은 관심과 기쁨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속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롬 8:17). 다시 말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며 영생을 누리는 것은 단순히 죄들의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일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구원의 본질이다.

이 구절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라는 말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나누는 일을 하는 분(Divider)이시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명히 구분하신다(레 11장).

예수님께서도 천사들을 보내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마 13:30, 40-41).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에"(요 1:17) 율법과 은혜도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스라엘과 교회 이 둘도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이 둘을 혼합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에 큰 장애를 가져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후 6:14-17)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신다.

성경 말씀도 바르게 나누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 2:15).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분별하게 섞어 해석해서는 안 되며, 시대적 배경과 대상에 따라 바르게 나누어서 보아야 함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세상의 인류도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고전 10:32), 이 세 집단으로 구분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종, 신분, 성별을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 된 자들의 공동체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영역과 질서를 인정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이다. 거룩함은 곧 구별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그분의 질서에 순응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삶이다.

〈신약 시대 세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전10:32).

1:5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5절은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고

기록한다. 낮은 히브리어로 '욤'(yom)이며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의 단위로서의 하루를 뜻할 뿐 아니라 빛, 따뜻함, 온기, 밝음, 생기 등을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일부 문맥에서는 햇빛, 불, 혹은 번개처럼 에너지를 발산하는 존재와도 연결된다. 이는 단순히 시간적 구분으로서의 낮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의 작용이 드러나는 시기로서의 낮을 강조하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반대로 '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일라'(laylah)로, 이는 어둠, 냉기, 정지, 죽음, 은폐, 불확실성과 같은 의미를 포함한다. 낮이 생명과 질서를 상징한다면 밤은 그와 대조되는 정적이고 불완전한 상태를 상징한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밤을 죄와 사망, 불의의 활동이 일어나는 때로 비유한다(요 3:19).

Day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낮 또는 하루라는 의미를 가지며 성경에서는 문맥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하루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 주기의 날과 같다는 뜻이다. 이처럼 창세기 1장의 '하루'는 문자적인 하루, 즉 24시간을 의미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이 일을 하실 수 없다면 그분은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 모든 사역을 6일 동안에 이루셨다는 사실은 단순한 신앙고백이 아니라 성경의 명확한 진술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질서 있는 계획을 드러내는 중요한 근거이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무에서 온 우주 공간과 땅과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창조자 하나님이라 부른다. 그분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구속자 하나님이 되시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자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어떻게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의 이름과 행위를 기억하시며 심판의 날에 공의롭게 판단하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무한한 능

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하였기 때문이니"(출 20:11)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창조의 6일을 문자적인 날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모세는 창조 이후 약 2,500년이 지난 시기에 살았고, 그 시대의 하루는 지금 우리가 사는 하루와 동일했다. 1년은 12개월이고, 하루는 24시간이며 낮과 밤이 있는 시간의 주기는 그때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에 무엇을 하셨다고 기록된 말씀들에 나오는 '날'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24시간의 하루를 가리킨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루'라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벧후 3:8)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하루가 실제로 천 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바라보시는 방식이 인간과 전혀 다름을 보여 주는 비교적 표현이다. 인간에게는 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변화와 사건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의 짧은 기간처럼 보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역사로 약 6,000년이 흘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마치 6일처럼 매우 짧은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시간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면, 성경의 시간 표현들을 인간 중심의 기준에만 묶어 두지 않고 더 넓고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성경은 또한 경륜이나 통치의 시대를 '날'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한다(히 3:15; 고후 6:2).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도 날로 표현된다(벧후 3:7; 눅 19:42-44).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 사 2:12; 13:9; 욜 2:1-2)이다. 구약에서는 이날을 여호와 하나님의 날로 표현하며 신약에서는 이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된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욜 2:31; 말 4:5)이 온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하신다.

이 '주의 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시기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살아서 남은 자들을 위로 들어 올리시는 휴거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어서 전개될 7년 환난기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또한 일부 주석가들은 그 이후의 천년 왕국 통치의 시작까지도 이 범주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날'(the day of Christ, 빌 1:10; 살후 2:2)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이 역시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자신의 백성 가운데서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과 통치의 시기를 포괄하는 표현이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로 '날'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특별한 문맥이 없는 한 '날'은 문자적인 하루, 즉 24시간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마 17:23)라고 하셨을 때, 이를 천 년 단위로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 삼천 년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이 된다. 이는 성경의 기록과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날'이 다른 의미로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과 같은 24시간의 하루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성경은 "낮이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시 74:16)라고 말씀한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빛과 다르지 않다고 선언하며(시 139:11-12), 낮과 밤의 개념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 준다(슥 14:6-7). 이와 같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모두 다스리시는 창조자이심을 분명히 증언한다.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에서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한다. 쉽게 말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가 한 날이 된다. 성경은 "그 저녁과 아침이…"(창 1:5, 8, 13, 19, 23, 31)라는 표현을 통해 이 구조를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는 표현이다.

히브리어 원문 역시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라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킹제임스 성경 또한 이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여, 하루가 저녁에서 시작하여 아침으로 이어지는 구조임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이러한 시간 개념은 율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첫째 달 곧 그달 십사일 저녁부터 그달 이십일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출 12:18)라는 말씀은 명절(절기)의 하루가 저녁에서 시작됨을 분명히 보여 준다. 또한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그달 구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의 안식을 실행할지니라."(레 23:32)라는 규정은 하루의 경계가 저녁에서 저녁까지 이어짐을 명확히 한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키며, 이러한 성경적 시간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창세기의 표현과 율법의 규정이 일관되게 같은 구조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제시하는 질서임을 알 수 있다.

2. 하나님의 특별 창조 둘째 날(1:6–8)

1:6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둘째 날의 창조 내용은 창세기 1장 6–8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때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셔서 물과 물 사이를 나누신다.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배치되어 있다(창 1:14–19).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커다란 두 광체를 만드사 더 큰 광체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보다* 작은 광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셨다"(창 1:16–17). 따라서 해, 달, 별들이 위치한 곳이 바로 이 궁창이

다. 그렇다면 이 궁창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 즉 첫째 하늘과는 구별된 영역임이 분명하다. 사실 성경은 새들이 "땅 위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날아다닌다."(창 1:20)라고 기록하는데, 이때의 궁창은 별들이 놓인 둘째 날의 궁창과 용어는 같으나 문맥상 명백히 다른 층을 가리킨다.

성경은 하늘을 단일한 공간으로 보지 않으며, 복수의 층으로 구분한다. 신명기 10장 14절은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은 주 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며,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솔로몬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을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한다. 느헤미야 9장 6절 역시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온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셨나이다."라고 기록한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 일관되게 하늘을 단순한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구별된 층들로 제시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에 채여 올라간 경험을 언급한다. 셋째 하늘이 존재한다면, 논리적으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존재한다.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고 구름이 움직이는 대기권이며(창 1:20; 마 6:26),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하는 우주 공간이고(창 1:14-17),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처소이다(왕상 8:27; 계 4:2). 창세기 1장 8절의 궁창은 바로 이 둘째 하늘, 즉 우주의 구조적 영역에 해당한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1장 8절에서 '하늘'을 대문자 'Heaven'으로 표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그 궁창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구별되고 고유한 위상을 부여받은 구조임을 나타낸다. 시편 19편 1절은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하며, 시편 148편 3-4절은 해와 달과 별들에게 창조자를 찬양하라고 명하면서 이것들이 모두 '하늘들의 하늘들'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영역 안에 속함을 분명히 한다. 궁창은 텅 빈 허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설계된 질서 있는 우주적 구조물이다.

그렇다면 이 우주적 구조물의 실상은 어떠한가?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는지를 선언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계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욥기를 통해 주셨다. 욥기 26장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선언을 넘어 우주의 구조와 하나님의 권능을 훨씬 더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본문이다.

욥기 26장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펼치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욥 26:7)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위성을 통해 우주 공간으로 나가 지구를 내려다보며 이 진리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지구는 어떤 기둥이나 줄에 매달려 있지 않으며, 지동설대로라면 중력과 공전의 법칙 속에 허공에 떠 있는 상태이다. 욥은 아담 이후 2,000년이 지난 시기에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이다. 노아의 대홍수 때 땅이 완전히 파괴된 후,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한 그 시기에 욥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창조의 질서와 우주의 구조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기록했다. 그는 관찰로 알 수 없는 내용을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 적었으며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나 우주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욥기 26장에는 또 다른 놀라운 진술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물들을 구름 속에 싸매시지만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않게 하시며(8절), 왕좌의 정면을 숨겨 두시고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9절), 낮과 밤이 끝나는 경계들을 두시고(10절), 하늘의 기둥들이 하나님의 꾸짖으심 앞에서 떨게 하신다(11절).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늘들이 단장되며, 하나님께서 구부러진 뱀(13절), 즉 사탄을 지으셨다는 사실도 언급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우주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과 타락 이전의 사건들까지 포함한 창조의 전 영역을 다루는 진술이다. 욥이 이런 놀라운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성령님께서 욥을 움직이셨고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다. 끝으로 욥은

26장 14절에 이렇게 말한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분의 길들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한데 사람이 그분에 관하여 들은 바가 얼마나 적으냐? 그러한데 그분의 권능의 천둥소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니라."

욥은 자신이 기록한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 있으며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아는 지식은 계시된 범위 내로만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뜻과 질서를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그것들을 보여 주셨다. 온 우주를 하나의 집으로 본다면, 그 안에 있는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이다.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인간은 그처럼 작고 미미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단지 우주의 구조를 설계하신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욥기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천문학적 진술들은 오늘날의 과학적 관찰과도 일치한다. 이는 성경이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임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을 살펴볼 때, 우리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나 사건의 나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밀한 질서와 목적을 따라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

1:7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위의 물들에 대한 견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것을 대기 중의 수증기나 구름으로 보는 견해이다. 매튜 헨리와 앨버트 반즈가 이 입장에 가깝다. 그러나 창세기 2장 5-6절은 당시 비가 내

리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할 뿐 아니라 물이 안개를 통해 공급되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것을 단순히 오늘날과 같은 대기 중의 물 순환으로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둘째는 궁창 위의 물들을 우주 공간에 형성된 수증기 층으로 보는 관점이다. 노아의 대홍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창 7:11) 쏟아진 물이 이 층에서 유래했다고 본다. 헨리 모리스를 비롯한 초기 창조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대중화하였으나 오늘날 다수의 주요 창조과학 기관들과 창조론 학자들은 이 이론의 열역학적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궁창 위에 충분한 물이 존재했다면 지구 대기 온도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수준으로 상승했을 것이라는 점이 주된 문제다.

셋째는 궁창 위의 물들을 하나님의 왕좌 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로 보는 관점이다. 존 길(John Gill)은 시편 148편 4절 주석에서 궁창 위의 물들이 지금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하늘의 구조적 실재로 받아들였다. 이 견해는 성경 여러 본문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에스겔서 1장 22-26절은 수정 같은 궁창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왕좌가 있음을 묘사하며, 시편 104편 3절은 하나님께서 "물들 속에 자신의 방들의 들보들을 얹으신다."라고 기록한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의 '수정 같은 유리 바다'와 15장 2절의 '유리 바다' 언급도 하나님의 왕좌 앞에 실제로 물이 존재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또한 시편 148편 4절은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궁창 위의 물들이 창조 이후 지금도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시사한다. 존 맥아더 역시 이 본문들이 하늘의 구조 안에 물이 실재함을 가리킨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

결론적으로, 궁창 위의 물들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언급되는, '실제로 존재하는 구성 요소'로 이해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왕좌와 우주 구조, 그리고 구속사의 흐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단지 물리적 공간의 구분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통치가 펼쳐지는 하늘의 질서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적 증거이다.

1:8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니라.

흥미롭게도 창조의 다른 날들과 달리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신 후 보시고 그것이 좋았다고 평가하시는 말씀이 없다. 이 점에 대해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해석이 제시된다.

첫째는 창조의 진행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 물과 물을 나누는 단계로, 완성된 창조물이 아니라 영역과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해와 달과 별들이 배치되는 것은 넷째 날이므로, 이 시점에서는 아직 그것들의 기능이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둘째 날은 '구조 형성 단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다."라는 선언이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이 궁창을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영적 영역으로 이해하는 해석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하늘이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이 활동하는 영역임을 보여 준다.

또한 욥기 38장 7절은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들을 놓으실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질렀다."라고 말한다. 이는 천사들이 창조 초기에 이미 존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둘째 날에 궁창이 형성될 때, 그 영역에는 이미 영적 존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께 반역한 상태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신 그 영역은 단순한 질서의 공간일 뿐 아니라 장차 영적 충돌이 일어날 무대이기도 하다.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은 창조 이전에 있었던 사탄의 교만과 반역을 보여 주며,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기록한다. 이는 사탄이 일부 천사들을 자신의 반역에 끌어들였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것은 간극 이론이 주장하듯 어떤 이전 창

조가 파괴되고 다시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이 여전히 최초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둘째 날에만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다."라는 표현이 없는 이유를, 단순히 우연으로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조 안에 이미 영적 전쟁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제시된다. 즉, 둘째 날의 창조는 질서와 구조를 세우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였지만, 동시에 그곳이 타락한 영적 존재들이 활동할 영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좋았다'는 선언이 유보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성경이 둘째 날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 특히 하늘의 영역에 존재하는 영적 권세들에 대한 증언을 종합해 보면, 하나의 일관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창세기의 짧은 구절이 구속사 전체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3. 하나님의 특별 창조 셋째 날(1:9-13)

1:9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절은 처음 창조된 지구를 묘사하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다."라고 말한다. 즉, 창조된 지구는 거대한 물로 완전히 뒤덮인 상태였다. 둘째 날에는 궁창이 만들어져 물과 물이 나뉘었고, 이제 셋째 날에 이르러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곳으로 모이면서 마침내 그 아래 감추어져 있던 육지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창조의 첫 사흘은 이처럼 형태가 없고 비어 있던 초기 상태에서 질서와 구조가 단계적으로 세워지는 과정이었으며, 육지의 출현은 그 과정의 중요한 전

환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물들을 한곳으로 모으고 육지를 드러내셨다(창 1:9-10). 욥기 3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신 창조의 권능이 강조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시편 104편도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신 창조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그것이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같이 깊음으로 땅을 덮으시매 물들이 산들 위에 섰으나 주의 꾸짖으심에 그것들이 도망하고 주의 천둥소리에 그것들이 서둘러 물러갔나이다. 그것들이 산들을 따라 오르고 골짜기들을 따라 내려가 주께서 그것들을 위해 기초를 놓으신 곳에 이르나이다"(시 104:5-8).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면 산과 육지가 존재하지만, 전체 면적으로 보면 바다가 훨씬 더 넓다. 전 지구의 지형을 평탄하게 만들고 모든 산을 깎은 다음, 그 위에 바닷물을 부으면 바닷물의 평균 높이는 약 2.7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한다.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약 8.8킬로미터임을 고려해 보아도 바닷물의 평균 수심은 매우 깊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물들을 한곳으로 모으고 육지를 드러내신 창조의 사건은 물리적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라는 개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히브리 사람들은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갈릴리 바다는 실제로는 크기가 작은 담수호에 지나지 않지만, 성경은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사해 역시 크기로 보면 일반적인 염호에 불과하지만, 성경은 그것도 바다로 언급한다.

이처럼 성경의 표현은 유대인들의 언어와 개념을 통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 해석 또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현대적 정의나 과학적 분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사고의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섬'도 단순히 바다 위에 떠 있는 육지를 의미하기보다 물로 둘러싸인 형태의 지형을 가리킨다. 이런 표현들을

이해할 때 성경의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1:11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13**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씨'를 따로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씨를 이미 내포한 '열매 맺는 나무'를 먼저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 원리는 이후 창조된 물고기나 날짐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는 미완성 상태가 아니라 번식 능력을 갖춘 완전한 형태로 생물들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새끼를 낳거나 알을 낳는 방식으로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셨다. 따라서 흔히 제기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닭이 먼저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형태의 짐승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질서를 함께 두신 것이다. 식물 역시 동일하다. 하나님께서는 씨를 따로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씨를 지닌 채소와 과일나무와 풀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해, 모든 식물은 처음부터 씨를 내포한 완성된 상태로 창조된 것이다.

이 구절들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표현은 '자기 종류대로'이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 표현이 열 번 등장한다. 또한 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도 모두 '그것들의 종류대로'(창 7:14; 8:19)라고 언급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생물들을 고유한 종류(kinds)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이 말하는 '종류'는 현대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종'(species)과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의 '종류'는 그보다 더 넓은 범주를 가리키며, 예를 들어 사자와 호랑이는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른 종이지만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종류와 종류 사

이의 경계는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은 각 생물이 자기 종류대로 창조되었음을 반복해서 보여 주며, 이 경계가 고정되어 다른 종류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니라"(고전 15:38-39).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새는 새의 육체, 짐승은 짐승의 육체, 사람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도록 창조하셨다. 즉, 종류를 나누시고 각각에게 고유한 생명체의 형태를 부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각기 다른 본성을 가진 종류로 구별하셨다.

이런 성경적 진리는 현대 진화론의 기본 전제와 정반대이다. 진화론은 하나의 공통된 생명체에서 점진적으로 모든 생명체가 유래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을 각각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보여 주시는 창조의 원리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정하신 이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말과 당나귀를 교배한 노새는 암수 모두 생식 능력이 없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각 생명체를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종류의 경계가 변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 6,000년 전에 이 원리를 정하셨다. 따라서 진화론과 같은 인간 중심의 이론은 성경의 기록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4. 하나님의 특별 창조 넷째 날(1:14-19)

1:14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체들이 있어 밤에서 낮을 나누고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年)들을 나타내라. **15**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

창에서 광체들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체를 만드사 더 큰 광체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보다* 작은 광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고 17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18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19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늘, 즉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 별들을 두셨다. 그 목적은 낮과 밤을 나누고, 표적과 계절, 날과 해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해와 달과 별들은 천문학과 달력의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시지만, 별들에 대해서는 16절 후반에서 짧게 언급될 뿐이다. 이는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별들 자체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으셨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 보시기에 해와 달과 별들은 계절과 시간을 구분하는 도구일 뿐이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우주를 개발하려는 열망으로 다양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공위성과 탐사선을 발사하며 연구에 몰두한다. 이런 기술이 인류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우주는 인류에게 주어진 광대한 환경이며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그 자체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이다.

또한 성경은 해와 달과 별들이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목적 아래 창조된 것들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해와 달과 별들은 각각 고정된 위치와 운동 질서를 따라 운행하며,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시간과 계절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밀한 질서와 조화는 우주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지혜와 목적을 가지신 창조자의 작품임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는 땅, 더 구체적으로는 지구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두시며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구에 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화성이나 목성, 다른 어떤 별이 아니라 이 지구에 오셨다.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은 지구와 그 안에 사는 인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죄를 지어 왔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또 네가 하늘을 향해 네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는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그것들은 **주** 네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을 위해 나누어 놓으신 것들이니라."(신 4:19)라고 경고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시간과 계절을 구분하는 도구로 주셨을 뿐이며, 그것들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조차 천체 숭배의 죄에 빠지기도 했다. 유다 왕국의 사악한 왕 므낫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주도했다(왕하 21:3-6). 천체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창조물을 숭배하는 행위는 창조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이다(욥 31:26-28).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좌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골 1:16). 창조된 모든 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해와 달과 별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창조되었으며,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하나님의 특별 창조 다섯째 날(1:20-23)

1:20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21**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

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22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23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물들에게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고래와 같은 대형 수중 생물을 각각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1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큰 고래들'(great whales)이라고 명시한다. 그러나 개역 성경은 이를 '큰 바다 짐승'으로 번역하여 그 의미를 약화시켰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요나를 삼킨 것의 히브리어 원문은 '큰 물고기'라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직접 '고래'(whale)라고 확증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요나를 삼킨 그 큰 물고기가 고래임을 친히 밝히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들의 이름은 아담에게 짓게 하셨지만(창 2:19-20), 고래만큼은 창조 때부터 직접 그 이름을 정하셨다. 이는 고래가 단순히 물속에 사는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은 존재임을 보여 준다.

고래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존재이며(욘 1:17),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드러내는 특별한 창조물로 사용된다.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배 속에 있었던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마 12:40)라고 말씀하시며 구약의 사건을 실제 역사로 확증하신다. 이는 구약의 사건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역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 주는 표적임을 분명히 한다. 요나가 고래 배 속에 있었던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예표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고기나 고래를 만드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 창조물들을 통해 구속 계획과 복음의 핵심 진리까지 미리 보여 주셨다.

성경은 단순한 자연 설명을 넘어,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그 안에 복음적 메시지를 담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땅과 우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의도 가운데 창조되었음을 알게 된다. 다섯째 날의 창조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 속에서 종류대로 이루어진 완전한 사역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이 좋았다고 선언하셨다.

6. 하나님의 특별 창조 여섯째 날(1:24-31)

1:24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 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 가축,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만들어진 것을 보시고는 그것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우리는 창세기 1장 11절부터 '그것의 종류대로', '자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타남에 유의해야 한다. 이 구절들은 땅에 사는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서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한다. 따라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거나 사람이 진화한 존재라는 주장은 인간이 만들어 낸 가설일 뿐이며, 성경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24-25절은 땅의 창조물을 세 종류로 구분한다. 첫째는 가축으로, 이것은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특별히 예비하신 동물들이다. 소, 양, 말, 낙타 등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온 동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그에 맞는 동물들을 먼저 준비하셨다. 둘째는 땅의 짐승으로, 이는 사람의 통제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야생 동물들을 가리킨다. 셋째는 기는 것으로, 파충류와

곤충류를 포함하는 범주다.

특히 주목할 것은 공룡의 문제다. 창조론적 관점에서 공룡은 진화론이 주장하듯 수억 년 전에 존재했다가 사라진 생물이 아니라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으로 창조된 동물이다. 욥기 40장에 등장하는 베헤못은 일반적인 동물로 보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그것이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인다."(욥 40:17)라는 묘사는 매우 인상적인데, 이는 꼬리가 짧거나 가는 동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백향목은 크고 곧으며 웅장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베헤못의 꼬리가 크고 두껍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점에서 베헤못을 코끼리나 하마로 보는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것들의 꼬리는 작고 가늘어 '백향목'에 비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묘사는 거대한 몸집과 굵고 긴 꼬리를 가진 동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때문에 베헤못은 오늘날 멸종된 거대한 공룡, 특히 용각류 공룡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제시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브라키오사우루스(Brachiosaurus)와 같은 공룡을 들 수 있다. 이 공룡은 거대한 몸집과 함께 몸을 지탱할 만큼 크고 두꺼운 꼬리를 가지고 있어, 욥기의 묘사와 잘 부합한다.

따라서 베헤못은 단순한 상징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거대한 육상 동물로 볼 수 있으며, 그 특징을 고려할 때 브라키오사우루스와 같은 공룡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 중 하나이다.

욥기 41장에 등장하는 리워야단 역시 일반적인 동물의 범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오며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그의 숨은 숯을 피우고 그의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욥 41:19-21)라는 묘사는 매우 독특하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시적 과장을 넘어, 리워야단이 보통의 수중 생물이 아니라 압도적인 위엄과 능력을 지닌 존재임을 강조한다. 물속에 거하면서도 불과 연기를 내뿜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어떤 동물과도 정확히 일치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리워야단을 단순히 악어나 고래로 보는 해석은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실제로 존재했으나 오늘날에는 멸종된 거대한 해양 파충류로 이해하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리워야단은 상징적 존재로만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능력과 규모를 지닌 존재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묘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광대함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약 4,000년 전의 사람이다. 그 시대에 욥이 이런 동물들을 묘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공룡이 인간과 함께 존재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는 공룡이 인류보다 수억 년 앞서 존재했다는 진화론적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하루에 공룡을 포함해서 이 모든 땅의 생물들을 각각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1:26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27**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27절은 성경적 인간론의 출발점이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창조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점이다. 빛, 궁창, 땅, 식물, 해와 달과 별들, 물고기와 새와 짐승에 대해서는 "있으라", "내라."와 같은 명령이 주어진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다. 사람은 단

순히 더 고등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다.

이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형상'이다. 히브리어로는 '첼렘'(tselem), 그리스어로는 '에이콘'(eikon), 영어로는 '이미지'(image)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개념이다. 이 형상은 단순한 장식적 표현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모든 이해를 여는 출발점이다. 인간의 본질과 존엄, 책임과 타락, 그리고 구속과 성화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이 개념을 중심으로 사람을 설명한다.

그래서 26-27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두 번 반복하여 강조하며, 창세기 5장 1절과 9장 6절도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한다. 특히 창세기 9장 6절은 살인을 금하는 근거로 이 진리를 제시한다. 사람의 생명이 존귀한 이유는 어떤 사회적 기준이나 기능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형상'과 '모양'(혹은 모습, likeness)이라는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측면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반영하는 존재임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은 '형상'만으로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고, 창세기 5장 1절은 '모양'만으로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따라서 이 둘을 지나치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조각품이나 우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라."(출 20:4)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하나님을 물질로 표현하려는 모든 시도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며 대표하는 존재를 이 땅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무나 돌이나 짐승이나 해와 달과 같은 창조물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물질적 조형물이 아니라 창조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대표하도록 세워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타락한 사람

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창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만든 행위를 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형상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곧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에게 맡겨진 대표성과 영광을 창조물에게 돌려 버린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

시편 8편은 이 사실을 생생하게 확인한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시 8:5) 사람이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들어졌다는 말은 능력 측면에서 그렇다는 뜻이다. 천사는 능력이 크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는 않았다. 천사는 영 자체이지만,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이지 사람 자체가 영은 아니다. 그리고 같은 시편은 이어서 사람에게 주어진 통치권을 선언한다. "주께서 그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두셨으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시 8:6-8). 이는 창세기 1장 28절의 통치 명령을 시편이 독립적으로 확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는 지정의(知情意),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인데, 이것은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짐승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만, 사람은 이성으로 판단하고, 도덕적으로 선택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 둘째는 도덕성이다.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을 온전히 반영하는 존재였다. 셋째는 대리 통치권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다(창 1:28; 시 8:6-8). 고대 세계에서 왕의 형상은 그 왕의 권위가 미치는 영역을 나타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창조세계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살아 있는 형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존엄만이 아니라 책임도 뜻한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지어졌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요소이다. 형상은 단지 능력 자체가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포함한다. 짐승은 감각과 반응은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분 앞에서 순종하거나 거역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타락은 이 교제를 깨뜨렸고,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는 회복되며, 성화는 그 교제가 점점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고, 영화 가운데 그 교제 관계는 완전히 이루어진다.

한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냄새 맡으시는 표현들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눈이나 귀나 코를 지니셨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다"(요 4:24).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일하고 행하시는 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한 신인동형론적(Anthropomorphism) 표현들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존엄성은 타락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야고보서 3장 9절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를 모독하는 행위임을 경고한다. 사람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남아 있지만, 그 원래의 형상은 죄로 인해 크게 비틀어지고 손상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면서도 타락했고, 고귀하면서도 부패했다.

이 형상의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완전하게 드러난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하며,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5절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정확한 형상'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그리스어 원문은 '카라크테르'(character, 캐릭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도장을 찍으면 도장에 새겨진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원래의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분적으

로 반영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창조된 창조물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 되신 분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드러나셨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않으신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나셨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나타내셨을 뿐 아니라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도 완전하게 보여 주셨다. 아담은 시험 가운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하셨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지만, 예수님은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고 말씀하셨다. 아담 안에서 원래 형상은 손상되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손상된 형상은 회복과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위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시고, 아래로는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 주신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한 몸을 준비하셨다(히 10:5; 눅 1:35).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참 사람으로 오시기 위함이었다(빌 2:7). 골로새서 1장 16절은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한다. 아담도 '모든 것' 안에 포함되므로, 그는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존재이다.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 역시 독립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담은 그 자체로 완전한 원형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다. 참되고 완전한 원형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바

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고전 15:45)이라고 부른다.

구속의 목표는 타락으로 손상된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라고 말하며, 에베소서 4장 24절은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받았다."라고 말한다. 성화는 단지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더 우리 안에 드러나는 과정이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그 형상은 완성된다.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고전 15:49). 사람의 창조는 단순한 생물학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창조였다. 아담은 그 형상의 출발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형상 자체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아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Adam)이며, '흙', '땅'을 뜻하는 '아다마'(adamah)와 어원이 연결되어 있다. 이는 사람이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상기시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기록한다(창 2:7). 이때의 사람은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며 남자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하시니라."(창 5:2)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 모두를 '아담'이라 부르셨으며, 이는 그들이 사람이라는 뜻이다.

구약 성경에서 '아담'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약 560회 나오며 그중 22번만 고유 명사 아담(Adam)으로 번역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람'(man, men)으로 번역되었다. 이 점을 전제로 할 때,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존재라고 보는 해석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룹은 창세기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1장에서 '남성과 여성'(male and female)이라고 표현된 것을 근거로 1장의 사람을 짐승과 같은 범주의 존재로 이해하려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은 1장의 사람을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 심지어 영이 없는 존재로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표현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단지 성별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언어일 뿐이며, 그것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본질이 짐승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하될 수는 없다. 같은 표현이 사용된다고 해서 존재의 본질까지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이 사람을 영이 없는 존재로 보는 것은 본문 자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요한 벤젤 피터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

해석이다. 창세기 2장은 그 동일한 사람의 창조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며, 두 장은 서로 다른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인간에 대한 창조 선언과 그 창조를 상세히 설명하는 관계에 있다.

결국 '남성과 여성'이라는 표현은 인간을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질서를 보여 주는 말이며,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데 있다.

아담이라는 단어에는 '붉다'는 의미도 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판 이후 '에돔'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에돔은 '붉다'는 뜻으로 아담과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다. 따라서 아담이라는 이름은 '흙' 또는 '붉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한다.

1:28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다. 재창조 갭 이론(간극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데, 이 구절은 반드시 창세기 1장 전체의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라는 구절이 영어 성경에는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라고 되어 있다. 재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의 replenish라는 단어에 're–'라는 접두어가 있으므로 그 단어가 '다시 채우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따라 그들은 지구가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 한 차례 파괴되었고(사 14장; 겔 28장), 창세기 1장 2절의 '형태가 없고 빈 상태의 지구'가 그 결과이며, 창세기 1장 3절

부터는 재창조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구절의 "replenish the earth"를 "땅을 다시 채우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 해석은 언어적으로나 성경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먼저 영어 단어 replenish는 '다시 채우다'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이다. 're–'라는 접두어가 항상 '다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단어는 라틴어 어원에서 유래해 중세 프랑스어를 거쳐 영어로 들어온 말로 '가득 채우다', '가득 차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을 보면 16세기와 17세기 당시 replenish가 '다시 채우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예는 없고, 모두 '가득 채우다', '가득 차게 하다'라는 뜻으로만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단어의 성경 용례를 보아도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피곤한 혼을 흡족하게 하였고 모든 슬퍼하는 혼을 가득 채워 주었노라."(렘 31:25)에서 replenish는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 '다시 채우다'라는 뜻이 아니다. "이제 그녀가 피폐하게 되었으니 내가 가득 채워지리라."(겔 26:2)라는 구절에서도 '피폐하다'와 대조되어 '가득 채워지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를 '다시 채운다'로 해석하는 것은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다.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들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들의 물들을 채우라."(창 1:22)라고 명령하셨다.

여기에서 '채우라'는 히브리어 '말레'(male')이며,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에게 주신 "땅을 가득 채우라."라는 명령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 문맥에서는 물고기가 바다를 처음으로 채우고, 사람이 땅을 처음으로 채운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일관된 해석이다.

결론적으로, 여기의 "땅을 가득 채우라."라는 명령은 창조 시점에 비어 있는 땅을 사람으로 가득 채우라는 뜻이다. 이는 단순히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채우라는 명령일 뿐, 그 이전의 파괴나 재창조를 전제하는 말씀이 아니다.[7]

1:29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처음에 사람과 짐승은 모두 초식을 했다. 29절과 30절을 비교하면 사람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가 있는 나무'가, 짐승에게는 '모든 푸른 채소'가 음식물로 주어졌다. 이 구분은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람과 짐승 사이에 위계가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그대로 되니라."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전체에 반복되는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성취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초식 질서는 자연적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즉시 확립된 것이다.

육식은 그 이후에 시작되었으며(창 9:3), 이는 죄로 인해 창조 질서가 훼손되었음을 보여 주는 변화이다. 다만 육식의 허용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단서를 붙이셨다.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인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창 9:4). 이는 육식을 허용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 준다.

천년 왕국 때에는 모든 짐승이 다시 초식 상태로 돌아간다. "이리도 어린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사 11:6-9). 이사야서 65장 25절도 이를 확인한다.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이것은 동물의 식성이 창조의 원래

7. 재창조 갭 이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뜻한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때가 임하는데, 이때가 바로 천년 왕국이다. 지금은 '온 창조세계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롬 8:19-22) 있지만, 장차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오게 된다(행 3:19-21). 예수님께서는 이 시기를 '재생'(regeneration), 곧 다시 태어나는 때라고 말씀하셨다(마 19:28).

29절과 30절의 끝에는 영어로 미트(meat)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를 '먹을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미트가 주로 '고기'를 의미하는 것과는 다른 용법이다.

17세기 초에 영어 성경이 번역될 당시 미트는 고기를 포함하되 그것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먹거리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였다. 따라서 이 단어를 현대적 의미로 좁게 이해하면 본문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을 때 미트(meat)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를 단순히 '고기'로 이해하기보다 '먹을 것 전반'을 의미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고 정확하다.

1:31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니라.

엿새 동안의 특별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모든 것, 곧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다. 앞서 각 창조 단계마다 '좋았다'(good)고 하셨던 것과 달리, 창조 전체를 마치신 이 자리에서는 '매우 좋았다'(very good)고 하셨다. 이 표현은 단순한 만족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그분의 목적과 설계에 있어 완전하고 흠이 없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다.

'보라'(behold)라는 단어는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강조의 표현으로 성경 전체에 약 1,100회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많이 생략되었다.

만물의 회복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행3:19-21).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벧후3:12-13).

창세기는 죄와 사람의 타락을 보여 주며 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 준다. 위의 성경 말씀대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된다.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는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열리며 이 기간에 구약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창12:2-3; 창15:18-21; 시2; 사11; 겔40-48; 슥14 등)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때에 팔레스타인 땅은 지구의 중심이 되며 아브라함의 씨인 히브리 민족은 민족들 중에서 으뜸가는 민족이 된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기간을 '다시 태어나는 때'라고 말씀하셨다(마19:28). 이 기간이 끝나고 신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이 옛 땅에서 성취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며(벧후3:10-13; 계21:1)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가오는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계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와는 달랐다. 죽음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부패도 없었다. 오늘날 자연계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약육강식과 죽음과 고통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생긴 결과이다(롬 5:12). 따라서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가 매우 좋았다'는 하나님의 평가는 죽음이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진화론적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억 년에 걸친 생존 경쟁과 대량 멸종을 통해 세상이 형성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매우 좋다."라고 평가하셨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는다.

31절의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니라."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전체에 걸쳐 반복된 구조의 마지막 것이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각 날의 창조는 동일한 형식으로 마무리되며, 이는 각각의 날이 문자적인 하루였음을 보여 준다. 창조의 각 날은 비유적인 시간이나 지질학적 시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우주와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여섯째 날의 끝에서 창조의 전 과정을 돌아보시며 '그것이 매우 좋았다'고 선언하셨다.

이로써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그분의 창조는 완전하였고, 사람은 그 창조의 왕관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임을 장엄하게 선포하며 끝을 맺는다. 오늘날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 그 완전한 창조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훼손된 창조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창세기 1장 전체를 돌아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난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후, 형태가 없고 비어 있던 그 지구를 단번에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하루 질서 있게 채워 가셨다는 사실이다. 빛, 궁창, 뭍과 바다, 식물, 광명체, 물고기와 새, 땅의 짐승과 사람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날에 각각의 창조물이 정해진 자리를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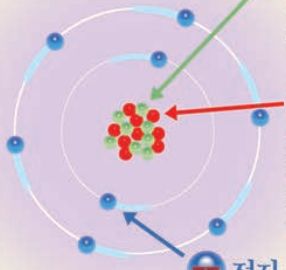
(*) 창세기 1장의 날들은 지금과 동일한 24시간의 날들임

따라 세워졌다. 이 모든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진행된 최초의 창조이다. 그 어디에도 이전 창조의 흔적이나 파괴된 세계를 다시 손질하셨다는 암시가 없다. 창세기 1장은 재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무(無)에서 유(有)를 이루신 하나님의 특별 창조의 기록이다.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단 하루에도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레째 날에 쉬신 것은, 시간 속에 살아갈 사람을 위해 시간의 구조 자체에 안식의 원리를 새겨 넣으시기 위함이었다. 사람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레째 날에 멈추어 창조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그 패턴을 창조의 순서 안에 미리 두셨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안식일 명령의 근거를 바로 이 창조의 엿새에 두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막 2:27)라고 말씀하셨다.

이 안식의 주제가 창세기 2장 첫머리에서 곧바로 이어진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는 단순한 창조의 마무리가 아니라 사람이 매주 반복하며 살아가야 할 시간의 리듬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이미 설계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창조의 신비



양성자

양성자는 핵에서 발견되는 두 종류의 입자 중 하나이며 전자보다 2,000배 정도 무겁고 양 전하를 띠고 있다.

중성자

중성자는 핵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입자로서 양성자보다 조금 더 무거우며 전하를 갖지 않아 중성이다. 중성자는 대체로 같은 수의 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구성하며 중성자와 양성자는 핵력(核力)에 의해 굳게 결합되어 있다. 원자핵 내의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와 같다.

전자

전자는 원자의 핵 주변을 도는 아주 가벼운 입자로서 음 전하를 띠고 있고 핵 주변의 궤도에 배열되어 있다. 핵으로부터 전자까지의 거리는 핵 지름의 10,000배 정도 된다.

원자는 화학 원소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물질의 기본적인 최소 입자를 말하는데 각각의 원자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균형을 유지한다. 양 전하를 띤 양성자의 숫자와 음 전하를 띤 전자의 숫자가 같기 때문이다. 원자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핵에서 발견되는 핵력이라는 응집력이다. 원자의 핵에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위배하는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창조의 기적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기초 물리에서 배우듯이 같은 전하를 띤 입자들이 서로 가까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밀어낸다. 그런데 원자의 핵에서 창조주께서는 전혀 다른 법으로 이 같은 현상을 억제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 같은 전하를 가진 양성자들이 핵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알 수 없는 신비의 엄청난 응집력에 의해 굳게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원자에 대한 가장 신비한 사실 중 하나로서 '우주의 근본적인 신비'라 불린다. 만일 이런 현상이 없다면 온 세상 만물은 다 해체될 수밖에 없다.

> 온 우주를 지탱하는 시멘트 같은 힘은 중력이다. 원자를 함께 모으는 것은 전자기적인 견인력이다. 그러나 원자의 핵을 다 같이 모으는 힘은 현존하는 물질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무시하는 신비의 힘이다. 이 힘은 지금까지 사람이 이해한 다른 모든 힘과 다르므로 제대로 그것을 묘사할 방법이 없다(Robert E. Marshak, "PIONS", American Scientific

창조주의 큰 손에 의해 마치 큰 스프링처럼 둘둘 말려 압축되어 있는 이 엄청난 에너지는 보통 핵에너지라 불리며 이 에너지는 위력이 대단해서 원자 폭탄 하나가 수천 톤의 TNT에 해당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전자 현미경으로 겨우 관찰할 수 있는 이 작은 원자에 이 같은 신비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는 진화론의 우화를 믿을 수 있을까? 누구라도 원자의 핵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안에 엄청난 지적 설계가 들어 있고 창조주의 놀라운 힘이 들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시다(창 1:1).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들고 있기에(히1:3) 원소들이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듯이 주님의 날이 오면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타서 만물이 해체될 것이다(벧후3:10-11). 우리 주님은 자신의 재림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벧후3:9). 창조주의 참으심의 끝이 오기 전에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 창세기 2장 |

에덴동산과 사람의 안식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구별하시고, 에덴동산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며 결혼 제도를 세우신 과정을 기록한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신 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며 거룩히 구별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인류를 위한 안식의 원리를 세우셨음을 보여 준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셔서 그가 살아 있는 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에덴동산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으며, 에덴에서 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강으로 갈라져 온 땅을 적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시고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기로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날짐승을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으나, 아담에게 합당한 조력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뒤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다. 아담은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 이라 하며 기뻐하였고, 이로써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를 이루는 결혼의 원리가 세워졌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무죄 상태에 있었다. 이 장은 안식의 원리, 인간 창조의 신비, 결혼 제도의 거룩함, 그리고 순종의 중요성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기초를 확립한다.

1. 안식일 제정(2:1-3)

2:1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온 군대가 완성되니라.

1절에서 '이같이'는 하나님께서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 궁창, 뭍과 바다, 식물, 광명체, 물고기와 새, 짐승과 사람에 이르기까지 질서 있게 빈 하늘과 빈 땅을 채워 나가신 창조의 전 과정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자신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온 군대가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하신다.

이 구절의 '군대'라는 표현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영어 성경은 이를 분명히 '호스트'(host)로 번역했다. 이는 본래 군대를 뜻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늘들과 땅에 속한 존재들을 군대라고 부르셨는가? 이 단어의 의미는 성경의 여러 용례를 통해 분명해진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나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펼치고 하늘들의 온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사 45:12)라는 말씀은 해, 달, 별과 같은 천체들이 하늘들의 군대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임을 보여 준다. 또 다른 예로,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이르렀을 때 칼을 손에 든 사람을 보고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 편이냐?"(수 5:13)라고 묻자, 그는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수 5:14)라고 대답한다.

이 구절에서 '주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특별한 존재로서 역시 하나님의 군대 개념을 보여 준다.

개역 성경은 이 구절에서 '군대'(host)를 '만물'로 번역하였다. 반면 같은 단어를 '만군의 여호와'에서는 '만군'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다수 독자들은 만군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킹제임스 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개역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만군의 여호와'를 'the LORD of hosts', 즉 '군대들의 주'로 번역한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군대들의 **주**"(삼하 6:2), "군대들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시 24:10)와 같은 구절이 이를 보여 준다.

또 "하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눅 2:13)라는 구절에서 '하늘 군대'는 천사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눅 2:14)라고 찬양한다.

구약에서는 'LORD of hosts'(군대들의 주)가 사무엘기상 1장 3절에 처음 등장하며, 총 245회 사용되고 신약에서는 'Lord of sabaoth'(군대들의 주)라는 표현이 2회 나온다(롬 9:29; 약 5:4). 이처럼 성경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 곧 천체와 천사, 사람과 짐승과 벌레까지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 질서 있게 움직이는 군대로 묘사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물 위에 계시는 지휘관으로서 그것들을 다스리신다.

따라서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온 군대가 완성되니라."라는 선언은 단순한 창조의 종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와 통치 아래 창조 세계가 온전히 세워졌음을 의미한다.

2:2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자신의 일을 끝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여 쉬셨다는 뜻이 아니라 창조 사역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지치거나 피로를 느끼는 분이 아니다. 여기에서 안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바트'(Shabbat)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쉰다는 뜻이 아니라 '멈추다, 그치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 활동을 완전히 멈추셨다는 선언이며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하게 창조를 이루셨다는 뜻이다. 안식일(Sabbath)이라는 단어도 바로 이 샤바트(Shabbat)에서 유래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모두 "그 저녁과 아침이 ○째 날이니라."로 마무리된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이 표현이 없다. 이것은 단순한 생략이 아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에는 닫힘이 없다. 히브리서 4장은 이 점을 근거로 하나님의 안식이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열려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히 4:11).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동시에 지금도 믿는 자들이 들어오도록 열려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셨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창세기 2장 3절은 성경 전체에서 sanctify(거룩히 구별하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다. 주목할 것은 이 거룩함이 처음에 장소나 사람이 아니라 시간에 붙여졌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일곱째 날, 곧 시간이었다. 이로써 창조 질서 안에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레째 쉬는 리듬이 처음으로 세워졌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써,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시간 구조를 창조 안에 직접 두셨다.

여기에서 안식일 제도가 처음 등장한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며, 현재 요일로는 토요일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

거나 주일이 일곱째 날이라고 여기지만, 달력의 배열을 보면 일요일이 첫째 날이고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다. 영어에서도 일요일(Sunday)부터 토요일(Saturday)까지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따라서 성경적 의미에서의 안식일은 분명히 일곱째 날이다.

이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날이다. 안식은 육체적인 쉼을 포함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하심으로써 사람도 그 안식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안식이 율법 이전에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창세기 2장의 안식은 특정 민족에게만 주어진 규례가 아니라 창조 질서 속에 포함된 원리이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명령하시고 그 근거를 창조의 일주일 패턴에 두신다.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하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11)라는 말씀은 안식일 규정이 창조 질서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니라."(마 12:8)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제정자이시며 권위자이심을 보여 준다. 성경은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창조 때 안식하신 하나님은 성육신하시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분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안식일의 주로서 참된 안식의 근원이 되신다.

따라서 창세기 2장의 안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첫째,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는 사건이다. 둘째,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사건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일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일정한 주기 속에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이다.

창세기에 나타난 안식일 제도는 결혼 제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기본 질서이다. 사람은 이 리듬 속에서 살아갈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안식은 단순한 규례가 아니라 창조 안에 심긴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근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다.[1]

2. 하늘들과 땅의 창조 후 초기 상태(2:4–6)

2:4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드시며 5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물들이 이러하니라. *그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6 다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4–5절을 보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 "하늘들과 땅의 생성물들이 이러하니라."라는 구절이 5절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 즉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of the earth."가 4절 앞부분에 위치한다. 이 표현은 창세기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특징적인 문구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히브리어 원문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오늘날과 같은 절 구분이 없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어디에서 절을 나누느냐에 따라 같은 문장이 4절에 속하기도 하고 5절에 속하기도 한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문맥의 흐름과 우리말 표현의 자연스러움을 고려하여 이 구절을 5절 끝에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성물들'(generations)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톨레도트'(toledoth)이다. 이 단어는 '낳다, 출산하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에서 나온

1. 안식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명사로, 어떤 출발점으로부터 나와 이어지는 것들 전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톨레도트는 단순한 시간적 의미의 '세대'를 넘어, 기원과 계보, 그리고 그로부터 전개되는 흐름까지 포함하는 표현이다.

이와 같은 개념은 영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사 제너레이트(generate)는 '낳다, 생성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제너레이션(generation)은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이것은 본래 '생겨난 것들'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이후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으로 확장되었다. 우리말 '세대' 역시 결국 사람들의 무리를 전제한 표현이다. 이처럼 히브리어 톨레도트, 영어 제너레이션, 우리말 세대는 모두 '어떤 출발점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라는 공통된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톨레도트는 문맥에 따라 '세대들'과 '생성물들'로 구분하여 번역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번역상의 선택이 아니라 본문이 요구하는 필연적인 구분이다. 사람이 기준이 될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서 태어나 이어지는 후손과 계보를 가리키므로 '세대들'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담의 세대들'(창 5:1), '노아의 세대들'(창 6:9), '셈의 세대들'(창 11:10)이 그 예이다. 우리말로도 '세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사람이 기준일 때는 '세대들'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도 맞고 독자에게도 자연스럽다.

그러나 창세기 2장 4절의 경우는 다르다. 여기에서 톨레도트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들과 땅이다. 하늘과 땅은 자녀를 낳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이라고 번역하면 즉각 문제가 생긴다. 독자는 하늘과 땅이 마치 사람처럼 자손을 낳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며, 우리말에서는 표현 자체도 의미상 자연스럽지 않다.

이 경우 톨레도트는 하늘들과 땅이라는 출발점으로부터 나타나고 전개되는 모든 것, 곧 창조 세계 안에서 생성되고 이어지는 전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땅의 생성물들'이라는 번역이 이 문맥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논리적인 표현이 된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라도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사람이냐 창조 세계 전체냐에 따라 번역이 달라져야 하며, 이와 같은 구분을 지키는

것이 성경 번역의 정확성을 보여 준다.

이 톨레도트 표현은 창세기 전체에서 열 차례 반복되며(창 2:4; 5:1; 6:9; 10:1; 11:10; 11:27; 25:12; 25:19; 36:1; 37:2), 창세기 본문의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각각의 경우를 보면, '아담의 세대들'(창 5:1)부터는 인류의 계보가 시작되고, '노아의 세대들'(창 6:9)부터는 노아를 중심으로 한 역사가 이어진다. 이어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창 10:1)부터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퍼져 나간 민족들의 계보가 기록되며, '셈의 세대들'(창 11:10)부터는 셈에게서 이어지는 계보가 계속 전개된다.

이와 같이 톨레도트 표현은 창세기의 문단을 나누는 구조적 표지 역할을 한다. 창세기는 단순히 여러 이야기들의 모음이 아니라 이 톨레도트 표현을 축으로 하여 하늘과 땅의 생성부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질서 있게 전개되는 통일된 책이다. 특히 열 군데의 톨레도트 표현 가운데 첫 번째가 하늘들과 땅을 기준으로 하고(창 2:4), 마지막이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창 37:2)로 마무리된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창세기는 우주적 창조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으로 점차 범위를 좁혀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톨레도트 표현은 그 흐름을 단계적으로 이어 주는 구조적 원리로 기능한다.

한편 5절은 창조 당시의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당시는 들의 초목과 채소가 아직 자라기 전이었고, 땅에는 비도 내리지 않았으며,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와 연결되면서, 창조의 순서와 과정이 얼마나 정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준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해진 때에 따라 주어졌으며,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6절은 비가 없던 당시 땅에 어떤 방식으로 수분이 공급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비 대신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는 창조 당시의 수분 공급 방식이 오늘날과는 달랐음을 시사한다.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바닷물의 증발, 구름의 형성, 강우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물의 순환 체

계와는 다른 형태의 수분 공급 방식이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전 1:6-7; 사 55:10-11).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들과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어 놓으셨다(창 1:7). 당시 지구는 이러한 구조 아래 있었으며,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가 지면을 적시는 방식으로 식물과 땅에 수분이 공급되었다. 이 체계는 노아의 대홍수 때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홍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창 7:11)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이후 지구의 환경과 기후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6절에 기록된 안개에 의한 수분 공급은 홍수 이전 세계의 특징적인 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부가 설명: 여호와의 의미

이러한 흐름 속에서 4절에는 창세기 1장과 구별되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 그 변화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일관되게 엘로힘만 사용된다.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이 구간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서술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 이르면 처음으로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엘로힘'(Jehovah Elohim)이며, 영어 성경에서는 'LORD God'으로 표현된다.

영어 성경에서 LORD가 모두 대문자로 표기된 것은 이것이 여호와를 번역한 것임을 나타낸다. 개역 성경은 이를 '여호와'로 표기하고 있으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주'(LORD)로 번역한다. 이처럼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와 엘로힘이라는 두 이름이 함께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문체상의 변화가 아니라 중요한 신학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개역 성경분석」
무료 PDF 책
QR 코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오경 가운데 첫 번째 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책이다. 모세는 창세기의 이 표현을 통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탈출의 경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모세가 창조 기사를 기록하면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이다.

또한 주목할 것은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며 그 외에는 모세 오경 전체에서 출애굽기 9장 30절에만 추가로 나타날 뿐 매우 제한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용 방식은 특정한 문맥 속에서 의도적으로 두 이름을 결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창조의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려는 신학적 선언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점은 자유주의 신학의 문서 가설(Documentary Hypothesis), 곧 창세기가 엘로힘을 사용하는 E 문서와 여호와를 사용하는 J 문서를 비롯한 여러 자료(J, E, D, P)를 후대에 편집하여 형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된다. 만일 창세기가 서로 다른 전승과 저자에 의해 기록된 문서들의 결합이라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일관되게 사용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창세기가 처음부터 하나의 통일된 저자, 곧 모세에 의해 기록된 책임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여호와는 매우 위엄 있는 이름이다

여호와(Jehovah)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이름이다.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출 20:7)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

씀하셨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여호와, 여호와" 하며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죄가 된다.

이 같은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발음하지 않았다.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네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테트라그라마톤(tetragrammaton)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YHWH로 표기되며, 초기 표기 형태로 JHWH를 제시하는 견해도 있는데 여호와라는 명칭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이 YHWH를 직접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로 대신 읽었다. 아도나이는 '주'(Lord)라는 뜻이다. 여호와(Jehovah)라는 발음은 이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결합하여 후대에 형성된 표기 형태이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전통과 출애굽기 20장 7절의 명령에 따라, 전 세계의 대다수 성경 역본들은 구약에 나오는 YHWH를 '주'(LORD)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용하는 신세계역 성경과 영어 ASV,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역 성경 등은 YHWH를 여호와로 그대로 번역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다 쉽게, 때로는 가볍게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성경에 6,800여 번 등장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하야(hayah, 또는 하바)에서 유래하며, 그 뜻은 '존재하다'(to be)이다. 이는 '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와도 연결되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살아 계신 분'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여호와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다(사 43:10-11).

여호와가 얼마나 두려운 이름인지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대언자에 대해 매우 엄중한 기준을 제시하신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대언했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 대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신 18:20-22).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으로 사용한 결과이며, 이 명령을 통해 그 이름이 이스라엘 백

성에게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길르앗 전투를 두고 아합 왕과 상의할 때, 아합은 대언자 사백 명을 모아 묻는다. 그때 그들은 "올라가소서, 주(Lord)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왕상 22:6)라고 대답하는데, 이 구절에서 '주'(Lord)는 히브리어 아도나이(Adonai)를 번역한 것으로 여호와가 아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만일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거짓을 알고 있었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아도나이로 대신했던 것이다.

반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할 때,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에게 "이 사람이 **주**(LORD)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그를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렘 26:16)라고 말하였다. 예레미야가 아도나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함부로 죽일 수 없었다. 만일 그의 말이 이루어지면, 그를 죽인 자들이 오히려 유죄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만큼 존귀하면서도 두려운 이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번역할 때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 주셨다. 시편 110편 1절에는 "**주**(LORD)께서 내 주(Lord)께 말씀하시기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앞의 '주'(LORD)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내 주'(Lord)의 '주'는 아도나이를 뜻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동일한 구절을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직접 인용하셨으며, 이때 여호와는 그리스어 '큐리오스'(kyrios)로 번역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주시면서,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큐리오스, 곧 '주'(LORD)로 옮기는 기준을 보여 주신 것이다. 이 원칙은 루터의 독일어 성경, 디오다티의 이탈리아 성경, 올리베탕의 프랑스 성경 등 여러 번역에 널리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직접 발음하기보다 '주'라고 읽되,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성경적 전통에 부합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2. 여호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름이다

히브리인들은 거짓 신과 참 신을 구분할 때 '거짓 여호와와 참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거짓 신이 있고 참 하나님이 있다."라고 표현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로힘(Elohim)은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참 신과 거짓 신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표현이다. 성경에서는 이방 신들도 엘로힘으로 불리는데(출 12:12; 시 82:1), 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믿는 참 하나님은 그러한 엘로힘들과 같은 부류의 존재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엘로힘이시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곧 여호와를 가리켰으며, 여호와 외에 다른 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사 44:6). 따라서 엘로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범주적 명칭이고, 여호와는 그 하나님을 다른 모든 신들과 구별하여 나타내는 고유한 이름이다.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3. 여호와 하나님과 삼위일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신 6:4)라는 구절은 유대인들이 매일 암송하는 신앙 고백으로, 보통 '쉐마'(Shema)라고 불린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이다. 이 구절에서 '한 **주**'(one LORD)라고 할 때 '한'(one)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하드'(echad)이며, 이 단어는 단순히 숫자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루어진 합일의 개념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고 할 때도 동일한 에하드가 사용된다.

이 점에서 에하드는 단순한 수적 단일성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기보다, 하

나로 연합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신명기 6장 4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주님이심을 선언하면서도, 그 유일성이 단순한 단일성에 머무르지 않음을 보여 준다. 성경 전체의 계시를 통해 보면, 이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세 인격체가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쉐마는 삼위일체 교리와 모순되지 않으며, 한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세 인격체의 완전한 합일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제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어떤 분이냐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라고 묻는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출 3:14)라고 말씀하셨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누구에 의해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낸다.

'I AM'이라는 이 표현은 이후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사용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요 6:35), "나는 양들의 문이다"(요 10:7),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 11:25),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6), "나는 포도나무이다."(요 15:5) 등의 말씀에서 '나는'에 해당하는 표현이 모두 'I am'이다. 특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요 8:58)라는 말씀은 영어로 "Before Abraham was, I am."인데, 이는 단순한 존재 선언이 아니라 구약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I AM THAT I AM.)라는 말씀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표현이다. 구약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나를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출 6:3)라고 말씀하신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미 창세기에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그 이름 자체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가 충분히 계시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호와라는 이름의 깊은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충만하게 드러내셨다.

이처럼 엘로힘은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모든 인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나 셈의 자손, 곧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된다. 아사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 오자 그는 "**주**(LORD)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돕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LORD)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대하 14:11)라고 고백한다. 이 고백에서 그는 여호와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엘로힘으로 부르고 있다. 이스라엘의 엘로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시 86:10).

5. 창세기 2장 4절에서 '여호와 엘로힘'을 사용한 이유

성경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라고 하기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창조의 기록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으로,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구간에서는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심이 강조된다.

그러나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모세가 모든 민족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므로, 모세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바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선포하고 있다.

3. 하나님의 사람 창조 방법(2:7)

2:7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2장 7절은 사람의 창조를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다. 여기에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세 단계가 담겨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다. 둘째,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셨다. 셋째, 그 결과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었다. 이 세 단계는 사람이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된 존재임을 보여 준다. 몸은 흙에서 왔고,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이며, 혼은 몸과 영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살아 있는 인격체이다.[2]

먼저 몸에 대해 살펴보자. 이 구절에서 '지으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차르'(yatsar)이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사용된 단어가 '바라'(bara), 곧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창조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야차르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사야서 64장 8절은 "오 **주**여, 이제 주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직접 사람을 빚으셨다는 표현은 사람의 창조가 얼마나 정밀하고 인격적인 행위였는지를 보여 준다.

영어 성경은 '흙'을 dust로 번역하는데, 이는 '먼지'를 의미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dust of the ground)로 사람을 지으셨다. 고린도전서

2. 영과 혼과 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15장 47절은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라고 말씀하며, 첫 사람 아담이 땅에 속한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흙을 구성하는 원소는 약 86종이며, 인체를 구성하는 필수 원소는 약 25종, 미량 원소까지 포함하면 약 47종에 이른다. 이 모든 원소들이 흙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성경의 진술과 조화를 이룬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숨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강하다 해도 그 본질은 흙에서 왔으며,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구절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보자.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친히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행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다른 창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지어진 존재임을 나타낸다.

주목할 점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짐승들도 '살아 있는 창조물'로 불린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 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 1:24).

여기에서 '창조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역시 '네페쉬'(nephesh)이다. 창세기는 짐승과 사람 모두 동일하게 '살아 있는 네페쉬'로 표현하지만, 그 형성 과정은 전혀 다르다.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살아 있는 존재이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살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 해도 그 기원과 의미는 분명히 구별된다.

짐승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에서 왔다. 사람은 단순히 살아 움직이는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직접 받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지어진 것이다.

본문은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었다고 기록한다. 여기에서 '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네페쉬(nephesh)이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생명체, 인격체, 살아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로 일관되게 사용된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이를 "생령이 되었다."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매우 심각한 오역이다. 네페쉬를 '영'으로 번역한 사례는 전 세계 성경 번역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번역은 사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게 만든다. 영과 관련된 히브리어는 루아흐(ruach)나 니쉬마(neshamah)인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은 니쉬마이다. 이 단어들은 네페쉬와 전혀 다르다.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은 흙으로 빚어진 몸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완전한 인격체, 곧 살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혼은 단지 사람의 구성 요소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반대로 '살아 있는 영'이라고 하면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영은 죽지 않지만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이지 영 자체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지만,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을 가진 창조물이다. 만일 아담이 살아 있는 영이 되었다면 그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그러면 구속 자체가 불필요해진다. 실제로 이 오역으로 인해 '창조 때 영을 가진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이중 아담론과 같은 잘못된 교리가 생겨나기도 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며 창세기 2장 7절의 진술을 정확하게 확인해 준다. 그러나 개역 성경은 여기에서도 아담이 '산 영'이 되었다고 오역한다.

한편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이후부터는 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 아담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고, 이후 모든 인류가 태어났다.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이후에는 짝짓기

를 통해 생식이 이루어졌다. 노아의 방주에도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는 것'(창 7:22)만 들어갔는데, 이는 짐승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생명을 받은 창조물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하나님의 개입 없이 무생명에서 생명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일은 없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에서 나오며, 최초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4. 에덴동산(2:8-17)

2:8 **주**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에덴은 '기쁨'과 '행복'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장소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여기에서 '동쪽'은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할 당시의 관점, 곧 이스라엘 또는 시내 광야를 기준으로 한 동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에덴동산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존재하지만, 성경적 근거와 여러 자료들을 고려하면 에덴동산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어지는 창세기 2장 10-14절에는 에덴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네 강이 언급되는데, 그 가운데 힛데겔(티그리스)과 유프라테스는 오늘날에도 실재하는 강으로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흐른다. 이는 에덴동산의 위치를 추정하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성경적 근거가 된다.

지질학적으로 볼 때도,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은 바로 중동 지역이다. 석유나 석탄은 대량의 식물이나 유기물이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대격변 속에서 갑작스럽게 매몰되고, 이후 높은 압력과 열을 받으면서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지질학적 특성은 에덴동산이 존재했던 땅이 오늘날의 중동 지역일 가능성에 일정한 설득력을 더해 준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보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등 이른바 '비옥한 초승달 지대'(Fertile Crescent)로 불리는 지역이 한때 에덴동산이 있었던 곳일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인류 최초의 정착과 농경



이 시작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장소로 세우신 그 동산은 실제 역사 속 공간에 존재했으며, 인간의 타락 이후 그 위치와 본래의 아름다움이 감추어졌을 뿐이다.

2:9 또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에덴동산에서 자라게 하셨다. 9절에는 그 가운데 특별히 두 나무가 언급된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다. 이 두 나무는 동산 한가운데 있었으며, 창세기 이후 성경 전체와 깊이 연결되는 중요한 나무들이다.

먼저 생명나무에 대해 살펴보자. 생명나무는 이 구절에서 처음 등장하며, 이후 창세기 3장 22절에서 다시 언급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은 후, 그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거기에 접근하는 길을 막으셨다.

그런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시작과 끝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조되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다.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다시 접근하여 그 열매를 먹는 장면이 나온다(계 2:7; 22:2, 14). 이 생명나무는 단순한 상징이나 추상적인 영적 개념이 아니라 실재하는 나무이다.

물론 성경에서 생명나무라는 표현이 비유적으로 사용된 곳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잠언이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니라."(잠 3:18)라는 말씀에서 생명나무는 실재하는 식물이 아니라 지혜의 가치와 유익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잠 11:30; 13:12; 15:4). 그러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생명나무는 분명히 실재하는 나무를 가리킨다.

다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살펴보자.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부르며 줄여서 '지식의 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영어로 이 나무의 이름은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인데, 여기에서 'knowledge'(지식)는 'know'(알다)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그리고 'knowledge of good and evil'에서 'of'는 목적격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단순히 선과 악에 대한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실제로 알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곧 단순한 개념적 지식이 아니라 선악을 직접 경험하고 분별하게 되면서 생겨나는 도덕적 인식과 그에 따르는 책임까지를 포함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 나무의 이름을 단순히 '지식의 나무'라고 줄여 부르면 이 깊은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며, 성경 표현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해야 한다.

이 나무는 창세기 3장 6절에서도 등장한다. 아담과 이브는 이때까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 상태는 '무죄의 상태', 혹은 더 정확하게는 '순진무구한 상태'라고 불린다. 이는 그들이 아직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인식하고 죄의식과 수치를 느끼게 된다. 두 나무는 모두 에덴동산 한가운데 있었으며, 사람의 운명과 직결된 나무들이었다.

2:10 한 강이 에덴에서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는데
11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니라. 그것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12 그 땅의 금은 좋고 거기에는 델리움과 줄마노 보석이 있느니라.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바로 그것은 에티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14**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인데 그것은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니라.

이 구절들은 에덴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네 강에 대해 설명한다. 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 갈라져 네 강으로 나뉜다. 에덴에

서 흘러나온 하나의 강이 네 갈래로 나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산에 풍성한 생명의 공급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며, 이것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두르는 강이다. 하윌라는 지명인 동시에 인명이다. 구스의 자손인 하윌라(창 10:7)가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의 이름을 따라 그 땅도 하윌라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명명 방식은 성경에서 흔히 나타난다. 가나안 땅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 거주한 땅이며 스바와 구스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은 사람이 특정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그 지역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 불리게 된 사례들을 여러 곳에서 보여 준다. 한편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The Discovery of Genesis*, C. H. Kang)에서는 한자 '전'(田, 밭) 자를 에덴에서 갈라지는 네 개의 강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물론 이는 엄밀한 언어학적 해석이라기보다 상징적 연결에 가깝지만, 성경과 언어의 연관성을 흥미롭게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으로, 이것은 에티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로, 이것은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다. 힛데겔은 일반적으로 티그리스 강과 동일시된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인데, 오늘날에도 실재하는 강으로서 성경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지리적 기준점이다.

힛데겔과 유프라테스가 오늘날에도 실재하는 강이라는 사실은 에덴동산의 위치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다만 노아의 대홍수 이후 지형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벧후 3:6), 오늘날의 지리와 창세기 시대의 지리를 1:1로 대응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비손과 기혼의 위치가 오늘날 확인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2:15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동산에 두시되, 단순히 거주하게만 하신 데 그치지 않고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구체적인 임무를 맡기셨다. 여기에서 '가꾸다'는 '일하다, 섬기다, 경작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지키다'는 '보호하다, 보존하다'라는 의미이다. 이 두 단어는 아담에게 주어진 임무가 단순한 정원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 세계를 책임 있게 돌보고 보존하는 청지기적 사명이었음을 보여 준다.

이때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므로, 아담은 순진무구한 상태, 곧 양심이 아직 죄를 자각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실은 중요한 신학적 함의를 가진다. 일은 타락 이후에 주어진 징벌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질서 안에 포함된 책임이자 특권이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뒤 하나님께서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라."(창 3:19)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 자체를 징벌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일이 수고롭고 힘들어지는 것이 죄의 결과임을 나타낸다. 사람은 처음부터 일하도록 지어진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사람의 본래 소명이었다.

또한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산에 '두셨다'는 표현은 창세기 2장 8절에서도 사용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단순히 그곳에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세우셨다. 사람은 목적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구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지어진 존재이다.

2:16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했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금지된 것은 단 하나였고, 허용된 것은 그 외의 모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과 함께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

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경고를 분명히 하셨다. 이는 선택의 결과를 미리 알려 주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 주는 동시에, 그분의 엄중하심을 드러낸다. 아담은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것이다. 아담이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은 명령이 어려워서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으나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였고, 사람은 자신의 자유 의지로 그 유혹에 반응함으로써 결국 넘어지게 되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한 음식 섭취 규정이 아니다.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람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절대 윤리의 문제이다. 이 명령은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며 사람은 그 기준 앞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흔히 뉴에이지 시대라고 불린다. 이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절대 윤리가 무너지고 상대 윤리가 득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각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다. 구원에 대해서도 "너는 예수를 믿지만 나는 석가를 믿는다. 누구를 믿든 결국 같은 곳에 이르는 것 아닌가."라는 식의 종교 상대주의가 팽배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명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선악의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시험을 받았다(눅 4:1–13). 그러나 두 사람의 상황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아담은 모든 것이 풍요롭게 갖추어진 에덴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음에도 넘어졌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한된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신 극한의 상황에서 시험을 받으셨음에도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다. 이 대조는 첫 아담의 실패와 둘째 아담의 승리를 선명하게 보여 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근거가 된다. 이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과 순종의 문제였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사람이 취하는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태도이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브는 '만지지도 말라'를 덧붙였다(창 3:2-3).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더한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빼려는 태도이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불편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슬그머니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으로만 해석하려는 태도이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셨을 때 "설마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겠느냐?"라고 의심하거나, "연옥에서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 세 가지 태도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말씀에 더하거나 그 말씀에서 빼거나 그것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신 4:2; 계 22:18-19).

5. 하나님의 여자 창조(2:18-25)

2:18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에게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다. 이 합당한 조력자는 아내를 의미한다. 잠언은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잠 18:22)라고 말한다.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또한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잠 19:14)라고도 말한다. 분별 있는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다.

'합당한 조력자'라는 표현은 영어로 'help meet'인데, 여기에서 help는 '조력자'를 뜻하고 meet는 그 help를 수식하는 말로 '적합한, 합당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합당한 조력자'는 단순한 짝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적합한 동반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인격체이면서도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아내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잠언은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거하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 거하는 것이 나으니라."(잠 21:9),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거하는 것보다 광야에 거하는 것이 나으니라."(잠 21:19)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아내가 다투고 성내는 성품을 가질 때, 조력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하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의 역할에는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 이는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차이이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고전 11:3)라는 말씀이 이를 분명히 보여 준다. 또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전 11:8-9)라는 말씀에서도 이 질서와 구조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따라 남편은 가정을 이끄는 역할을, 아내는 조력자의 역할을 맡는다. 이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 세우신 아름다운 구조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롭고 부지런히 집안을 돌보는 현숙한 여자는 가장 귀하고 칭찬받을 자이다(잠 31:10-31). 부부의 육체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해 자신의 몸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결하게 살아가야 한다(고전 7:1-7).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어 주시기로 하신 이 말씀 안에는 결혼과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결혼은 사람이 만들어 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

부터 세우신 신성한 질서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연합이다(창 2:24). 이 정의는 어떤 시대적 변화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도 결코 바뀔 수 없다.

2:19 주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땅에서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며 그에게 합당한 조력자를 주려 하셨지만 곧바로 여자를 만들지는 않으셨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는데 이것은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기 위함이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자연스러운 질문이 제기된다. 창세기 1장은 다섯째 날에 날짐승을,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한다(창 1:20-21, 24-25).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마치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짐승과 날짐승을 만드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비평 학자들은 이 본문을 창세기 1장과 충돌하는 별개의 전승으로 간주하며, JEDP 문서 가설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삼아 왔다. 그러나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결코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 다른 시각과 초점으로 동일한 창조 사건을 서술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창세기 1장은 우주 전체와 모든 생물의 창조를 시간 순서에 따라 개관하는 본문이다. 반면 창세기 2장은 창조의 절정인 사람 창조 사건을, 에덴동산이라는 특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다시 상세히 서술하는 본문이다. 곧 1장이 '창

조 전체의 파노라마'라면, 2장은 '에덴동산이라는 무대 위에서 일어난 한 장면의 클로즈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2장의 서술 범위에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2장은 해와 달과 별, 바다 생물, 온 세상의 짐승들과 같은 우주적 규모의 창조를 다루지 않는다. 오직 에덴동산과 그 안의 아담, 그리고 아담과 관련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2장 19절의 '지으시고'라는 표현 역시 에덴동산이라는 이 제한된 무대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주간에 모든 짐승과 날짐승을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러나 에덴동산은 일반적인 땅과 구별되는 특별한 공간으로 따로 마련된 곳이었다. 창세기 2장 8절은 "**주**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다."라고 말한다. 이는 동산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가운데 따로 마련하신 공간임을 보여 준다.

마찬가지로 동산의 나무들에 대해서도 2장 9절은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기록한다. 창세기 1장 11-12절에서 이미 모든 식물이 종류대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 안에서 특별히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다. 동일한 원리가 짐승과 날짐승의 창조에도 적용된다. 곧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에덴동산이라는 무대 안에서 들의 짐승과 공중의 날짐승을 지으셔서 그에게로 데려오셨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히브리어 본문 자체도 중요한 해석의 단서를 제공한다. 창세기 2장 19절의 동사 '지으셨다'(formed)는 반드시 시간적 순서를 의미하지 않으며 문맥에 따라 과거완료적 의미, 곧 '이미 지으셨다'로 번역될 수 있다. 매튜 헨리, 존 길 등 정통 주석가들 역시 이 동사를 과거완료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지적해 왔다.

이 해석을 따르면 창세기 2장 19절의 의미는 "**주** 하나님께서 이미 땅의 흙으로 지으셨던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즉, 짐승과 날짐승 창조 자체는 이미 창세기 1

장에서 완료되었고, 창세기 2장은 그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려와 이름을 짓게 하신 사건을 회고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본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두 해석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첫째, 1장의 전체 창조와는 별도로,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아담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 짐승과 날짐승을 따로 지으셔서 그에게 데려오셨다는 해석이다. 이는 동산의 나무들이 별도로 자라게 된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둘째, 히브리 동사의 과거완료적 의미를 살려, '하나님께서 이미 지으셨던 것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셨다'고 이해하는 해석이다.

두 해석 모두 본문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어느 쪽을 택하든 1장과 2장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 하나님께서는 아담 앞에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날짐승을 데려오셨고 아담은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아담이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은 단순한 이름 붙이기나 호칭 정하기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에서



창조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아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권위와 통치를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 짓는 권한을 주신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과 직접 연결된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 준 행위는 그 통치권의 구체적인 실행이었으며, 아담이 청지기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명을 실제로 수행한 첫 번째 행위였다. 또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 앞에 데려오신 것은 단순히 조력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만이 아니었다. 아담이 창조 세계를 파악하고 다스릴 지식과 권위를 실제로 행사하게 하신 훈련의 과정이기도 했다.

그 많은 종류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는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은 아담의 지성이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 준다. 아담은 타락 이전이었기 때문에 지성 면에서 현대인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사고와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현대인들이 컴퓨터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혜가 더 많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현대의 기술력은 주로 오랜 기간 축적된 지식의 결과이지, 인간의 지성이나 지혜가 더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피라미드, 바빌론 궁전, 이스터 섬의 석상 등 고대 문명의 구조물들은 현대 기술로도 정밀하게 복원하기 어려운 건축물들이다. 이러한 일들은 당시 사람들이 매우 높은 지성과 긴 수명을 통해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성경은 인류의 지성과 능력이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타락 이후로 점차 쇠퇴해 왔음을 보여 준다. 이는 질서가 무질서로 향하는 자연계의 보편적 경향, 곧 열역학 제2법칙과도 연결된다.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과 짐승은 짝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이다. 짐승들 가운데는 아담과 동등하게 짝을 이룰 존재가 없었다. 오늘날에는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과 짐승의 유전자를 결합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의 난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짐승의 난자에 사람의 DNA를 삽입해 인간 배아를 만드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철저히 어기는 일이자 극도로 악한 시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

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며, 금기를 넘어서려는 인간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준 뒤, 중요한 사실이 기록된다.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구절은 아담과 동등한 관계로서 그를 도울 존재가 짐승들 가운데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동물 분류 작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의 필요성과 관련된 흐름 속에 위치한다. 아담은 처음에는 스스로 그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짐승들이 짝을 이루어 다가오는 모습을 아담이 보면서 자신에게는 짝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접 알려 주시기보다, 이 과정을 통해 아담 스스로 그 필요를 인식하게 하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창 2:18)라고 말씀한다. 결혼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에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히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 조력자가 곧 아내이다.

2:21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의* 살을 메우신 뒤 **22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하니라. **24**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성경에서 잠든다는 표현은 많은 경우 죽음을 의미한다(요 11:11; 살전 4:14; 고전 15:51). 물론 여기에서 아담은 실제로 죽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장면

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로 보여 준다. 아담이 깊이 잠든 후 그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듯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요 19:34). 사도 바울은 결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로 설명했다(엡 5:22-33). 아담과 이브의 결합은 단순한 부부 관계를 넘어서 창조 질서와 복음의 예표까지 포괄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셨다. 첫 사람 아담은 땅의 흙으로 직접 빚으셨고(창 2:7), 그의 아내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다(창 2:21-22). 그 후의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태어나도록 정하셨다(창 4:1; 5:3).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마리아를 통해 처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마 1:18, 20; 눅 1:34-35). 이는 아담의 후손이시면서도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으신 '죄 없는 둘째 아담'(고전 15:45-47)으로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방식이었다.

이 네 가지 방식은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정하신 거룩한 질서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질서를 벗어나려 한 또 다른 사례들도 분명히 기록한다.

먼저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합한 사건을 기록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베드로후서 2장 4-5절과 유다서 6-7절이 증언하듯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곧 천사는 천사로, 사람은 사람으로—를 벗어나 인간 종족을 오염시키려 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어 그 타락한 혈통을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 순수한 인류의 계보를 보존하셨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는 또 다른 형태의 월권이 벌어지고 있다. 인간은 체세포 복제, 배아 유전자 편집(CRISPR), 인공 자궁, 인간-동물 키메라 연구 등을 통해 생명의 기원과 형성 과정 자체를 자기 손에 두려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창세기 3장 5절에서 옛 뱀이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라고 속삭인 그 유혹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노골적인 형태로 되살아난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다(마 24:37).

이처럼 사람의 존재 방식에는 여러 형태가 등장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질서와, 타락한 존재들이 그 질서를 왜곡하고 넘어서려 한 시도를 분명히 구분하여 보여 준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질서 안에서만 참된 사람일 수 있다. 그 질서를 벗어나려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

21절에서 '갈비뼈'(rib)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첼라'(tsela)는 다른 곳에서는 side, 곧 '옆구리', '귀퉁이'(출 25:12) 등으로도 번역되며, 이것은 단순히 뼈 하나의 의미를 넘어 몸의 한 측면, 즉 구조적인 일부를 의미한다. 사무엘기하에서는 다섯 번째 갈빗대를 찔러 죽이는 장면이 네 차례 나오는데(삼하 2:23; 3:27; 4:6; 20:10), 이곳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호메쉬'(chomesh)로 첼라와는 다른 단어이다. 호메쉬는 다섯 번째 갈빗대 부위 혹은 복부를 가리키는데, 이 부위는 심장과 가까운 급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죽음과 연결된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의 머리나 발이 아닌 옆구리에서 취하신 것은 상징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매튜 헨리는 이것이 여자가 남자보다 위에 있지도 않고 아래에 있지도 않으며, 남자와 함께 동행하고 남자에게 보호를 받는 존재임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이브도 몸과 혼과 영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으며(창 1:27; 슥 12:1),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외형이 아니라 영적·도덕적 특성과 자유 의지를 포함하는 본질로서 남녀 모두에게 부여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시자, 아담은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라고 고백했다. 아담은 그 여자가 자신과 본질이 같음을 곧바로 알아차렸다. 이 고백은 사람이 오직 사람과만 짝을 이룰 수 있으며, 여자는 남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보여 준다.

아담의 이 고백에서 골육(骨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는 뼈와 살로 이루어진 혈연적 유대와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표현이다(창 29:14; 삿 9:2). 한편 '여자'는 영어로 woman인데, 이를 womb(자궁)과 man(사람)의 결합으로 풀이하여 '자궁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설명하기도 한다. 여자가 생명의 통로로 창조되었음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아담이 그녀에게 '여자'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 주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19-20절에서 아담이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 준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고, 아담은 그 권위를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행사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명칭 부여가 아니라 관계와 질서를 확립하는 행위이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는 표현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지만(출 20:12), 결혼한 남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 질서이다. 결혼한 자녀의 삶에 부모가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그들의 결정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되, 결혼한 부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이 원리를 무시할 때 고부 갈등과 같은 가정 내 문제들이 생기기도 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둘이 아니라 '한 육체'(one flesh)가 된다. '한 육체'란 둘이면서도 하나가 되는 결합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 감정적 결속, 실생활의 연대까지 포함하는 깊은 통합 관계이다. 어떤 부부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한 육체'로 간주하신다. 이는 물리적 거리나 감정적 거리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으로 묶으신 존재라는 의미이다.

이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과도 맞닿아 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위격을 가지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하나이시다. 결혼도 이와 같이 두 인격이 하나의 본질적 연합을 이루는 신

비로운 구조를 반영한다. 결혼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룩한 언약 관계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맺어진 연합이므로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 제도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시고 결혼의 본질과 목적을 직접 설명하셨다.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 본 적이 없느냐?"(마 19:4–5). 그리고 이어서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6)라고 말씀하셨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제를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일부다처제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제도를 만들어 냈다(전 7:29; 말 2:14–16; 마 19:8).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 등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게서도 결혼과 관련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심지어 에스라 시대에는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으며, 그 결과 "이제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이* 땅 백성과 이방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하라."(스 10:11)라는 명령이 주어지기도 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마 19:8). 구약 시대에 간음한 남녀는 모두 죽임을 당해야 했다(신 22:22–24). 이는 결혼이 얼마나 신성하게 다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며, 간음이 결혼의 파괴로 이어지는 심각한 죄임을 나타낸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권면한다(고전 7:8–9; 딤전 5:11, 14). 부부가 헤어질 수 있는 경우는 첫째, 배우자가 사망

하는 경우이다(롬 7:1-3). 둘째, 배우자가 간음하는 경우이다(신 22:22-24; 24:1; 마 19:9; 요 8:3-7). 고린도전서 7장 1-17절은 독신과 별거, 이혼에 대해 다룬다.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일 수 있지만(마 19:11-12; 고전 7:7, 26), 결혼하는 것이 낫다면서 부부가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이혼하지 말고 화해하라고 명한다(고전 7:10-11). 또한 불신 배우자가 떠나려 하면 그 경우에는 속박받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고전 7:15),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라."(고전 7:15)라고 말하여 여전히 부부가 화평을 추구해야 함을 보여 준다. 결혼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종교적 체계 안에서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딤전 4:3).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 창조 때부터 두 가지 제도를 제정하셨다. 첫째는 안식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창 2장),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불문하고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창조 질서이다. 물론 나중에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표로 주어진 안식일은 차원이 다르다. 둘째는 결혼이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두 제도는 특정 민족이나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된 보편적 원리이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며, 결혼은 복음의 예표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주어진 복이다.

2:25 그들 곧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구절은 창세기 2장의 마지막 절로서, 타락 이전 아담과 이브의 상태를 간결하게 보여 준다.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그들이 무죄한 상태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들은 아직 죄를 알지 못

했고, 어린아이들이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 같은 순진무구한 상태였다. 신학적으로는 이를 '무죄의 상태'라고 부른다. 이 상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 지속되었으며, 양심이 아직 죄를 자각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구절은 또한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3장의 타락 기사와 의도적으로 대조를 이룬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직후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창 3:7) 무화과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린 장면은, 창세기 2장 25절의 순진무구한 상태가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보여 준다. 부끄러움의 등장은 곧 죄의식의 시작이었다.

사람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도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레 18:6–19; 20:11–21). 이는 타락 이후 사람의 몸이 더 이상 순진무구한 상태로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었음을 반영한다.



| 창세기 3장 |

사람의 타락과 여자의 씨 약속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면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되는 전환점을 동시에 보여 준다. 간교한 뱀은 여자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의심을 심었다. 이 뱀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계 12:9)이다. 이브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죄를 짓게 되었다. 그들은 눈이 열리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수치를 가리려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어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다.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죄와 사망이 온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롬 5:12). 이 한 사건이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며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시고,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메시아 예언을 주셨다. 이

어서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과 남편에 대한 복종을, 남자에게는 땀 흘려 일해야 하는 노동의 고통과 흙으로 돌아갈 죽음을 선포하셨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셨다. 이는 최초의 피 흘림이자 대속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히 살까 염려하시어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내보내시고, 동쪽에 그룹들과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과 결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속의 약속을 통해 인류 구원의 청사진을 보여 준다.

1. 사탄의 시험과 사람의 타락(3:1-7)

3:1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펼쳐지는 장면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이 구절에서 간교한 뱀은 여자에게 다가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는다. 이 말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의심을 일으키려는 의도적인 접근이었다. 이로써 인류 최초의 시험과 타락이 시작된다.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언급하며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고후 11:3)라고 말한다. 뱀의 간교함은 지금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단순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위험한 시험과 유혹의 수단이다.

이 뱀의 정체는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오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삼분의 일을 땅에 내던지는 장면이 나온다(계 12:3-4). 이 용의 정체에 대해 성경은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계 12:9)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바닥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들고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계 20:2)을 붙잡아 천 년 동안 결박하는 장면에서도 창세기 3장의 뱀과 사탄이 동일한 존재임이 확인된다. 창세기의 뱀은 단순한 파충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인간을 죄로 유혹하는 대적자 사탄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사탄이 아담이 아니라 이브에게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이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직접 받았지만(창 2:16-17), 이브는 아담을 통해 그 명령을 전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사탄은 말씀을 직접 받은 아담이 아니라 더 취약한 이브를 공략하였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딤전 2:14)라고 말한다. 매튜 헨리도 사탄이 이브가 혼자 있을 때 찾아간 것이 그의 전략이었다고 지적하며, 홀로 있는 상황이 사람을 유혹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실제 뱀을 도구로 사용했는가? 여러 주석가들이 이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시한다. 첫째, 본문이 뱀을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다'고 묘사한 것처럼, 뱀은 본래 간교한 본성을 가진 존재였다.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했다. 둘째, 타락 이전의 뱀은 지금과 전혀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배로 다닐지니라."라고 저주하신 것은 타락 이전에는 뱀이 직립 보행을 했음을 암시한다.

유대인들의 랍비 전승도 타락 이전의 뱀이 직립했다고 전한다. 매튜 헨리는 타락 이전의 뱀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쩌면 날아다니는 뱀이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사 14:29). 이처럼 당

시의 뱀은 이브에게 낯설거나 두렵지 않은 존재였을 것이다. 셋째,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하위 존재를 통해 접근함으로써 이브의 경계심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했다. 시험과 유혹은 언제나 위장된 형태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존 맥아더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신 목적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배로 다닐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뱀 자체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뱀을 사탄의 굴욕과 패배를 보여 주는 영구적인 상징으로 삼으신 것이다. 뱀은 이성이나 도덕적 책임 의식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사탄이 사용한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저주하심으로써, 사람들이 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패배한 사탄의 치욕을 기억하게 하셨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사탄은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고, 그 결과는 뱀이 배로 기어 다니는 모습 속에 상징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뱀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탄을 심판하시고 굴복시키셨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살아 있는 표징이라 할 수 있다.

사탄이 뱀을 도구로 사용하여 말하게 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나귀를 통해 말씀하신 사건(민 22:28-30)과 마찬가지로 짐승이 말을 했다는 점에서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흔히 뱀이 말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지만, 성경은 이를 상징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3:2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3**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브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 준다. 그 패턴은 세 가지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 이브는 없는 말을 추가했다.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면 겉으로는 더 경건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제시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말씀의 변개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도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계 22:18)라고 엄중히 경고하신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창 2:17)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확실하다. 그러나 이브는 이것을 '죽을까 염려하노라'라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바꾸었다. 말씀의 확실성이 흐려지면 그 권위도 함께 흐려진다. 오늘날도 성경의 단호한 선언들을 '그럴 수도 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이브가 저지른 것과 동일한 패턴이다.

셋째, 이 두 가지 변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없는 말을 더하고 있는 말을 약화시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된다. 뱀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었다. 이브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었다면 뱀의 유혹은 발붙일 곳이 없었을 것이다. 말씀의 변개는 항상 시험과 유혹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교훈이다.

3: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들에서 보듯이 마귀는 언제나 의심을 던져 사람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려 한다. 뱀은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한다.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라는

말은 곧 신비주의(눈이 열림), 신격화(신들과 같이 됨), 상대주의(선악을 앎) 사상과 일치한다. 이는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 사상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뉴에이지는 신비 체험을 통한 의식의 각성,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신격화 사상, 그리고 절대 진리 대신 상대주의를 주장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라고 번역하며 복수형 '신들'(gods)을 사용한다. 이 표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즉 영적 존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물론 이 신들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한다(사 44:6).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신들은 누구인가?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시편 82편 1절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도다."라고 말하며, 6-7절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은 자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라고 선언한다. 이는 일정한 권위와 지위를 가진 존재들이 있으나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뱀이 이브에게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라고 한 것은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수준의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미혹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므로 타락한 영적 존재들을 본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존귀한 위치를 이브가 버리고 오히려 더 낮은 존재를 따르도록 그녀를 유혹하였다. 이처럼 뱀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숨기고 계신다는 의심을 심어 이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치밀한 전략을 구사했다. 에덴동산에서 시작된 이 전략은 오늘날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 부가 설명: 루시퍼, 사탄, 마귀

창세기 3장은 뱀으로 나타나 이브를 유혹한 존재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사탄 마귀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사탄이 누구인지, 어떻게 타락하였으

며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창세기 3장을 깊이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1. 루시퍼

사탄 마귀의 본래 이름은 루시퍼(Lucifer)이다. 이 이름은 라틴어 lux(빛)와 ferre(가져오다)의 조합으로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을 가지며, 그가 원래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그는 창조 당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겔 28:14)으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존재였다. 그는 창조물 중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였고,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보석들로 덮여 있었으며 금으로 짠 옷을 입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거주했다(겔 28:11-19). 이 에덴은 지상의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의 에덴이다. 그러나 에스겔서 28장 15절은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라고 기록한다.

이사야서 14장은 루시퍼의 타락을 생생하게 기록하며, '불법의 신비'(살후 2:7)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이사야서 14장 12-17절에 그의 타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에 있던 루시퍼는(12절) 결국 지옥에 간다(15절). 그는 다섯 번에 걸쳐 '내가'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사 14:13-14).

이 교만이 바로 그의 타락의 핵심 원인이다. 교만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 중 하나이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마음,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한다.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께도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마 4:9)라며 경배를 요구했다. 이는 마귀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위치를 탐했는지를 보여 준다. 사도 바울이 교만한 자는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

있으므로 목사로 세우지 말라고 권면한 것도(딤전 3:6) 교만이 마귀의 타락의 본질적 원인이었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이다.

한편 '루시퍼'라는 명칭은 킹제임스 성경(KJV)에만 보존되어 있다. 많은 현대 역본들은 이를 제거하고 '새벽별'로 번역했는데, 이는 예수님을 칭하는 '샛별'(벧후 1:19), '새벽별'(계 22:16)과 혼동을 초래한다. 그 결과 뉴에이지 운동은 루시퍼가 아니라 예수님이 타락한 존재라고 왜곡하기도 한다.

2. 사탄 마귀

이제 성경에서 마귀(마 13:19, 39; 요 8:44; 엡 2:2; 살전 3:5; 살후 2:9–10)의 정체를 살펴보자. 먼저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다. 마귀는 단순한 악의 원리나 상징이 아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마귀를 인격체로 보지 않고 악의 개념이나 상징으로 취급하지만, 이는 성경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성경은 마귀를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실제 인격체로 일관되게 묘사한다. 그는 욥과 하나님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고(욥 1:6–12), 예수님을 직접 시험하며(마 4:1–10), 베드로를 체로 치려고 요청한다(눅 22:31). 이처럼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며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해하려는 의지를 가진 인격체이다.

마귀, 즉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왕상 11:14; 시 109:6)라는 의미를 가진 존재이다. 사탄은 사람의 혼을 대적하는 가장 큰 원수이며 타락한 천사들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분의 백성을 고소하기 위해 활동한다(욥 1:7, 12; 슥 3:1–2; 계 12:10).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그것을 막으려 했을 때, 그분께서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마 16:23)라고 하셨다. 이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타락한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지만 한곳에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한다. 욥기에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욥 1:6–7;

2:1-2). 이는 그가 하늘과 땅을 오가며 자유롭게 활동함을 보여 준다.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수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근거하여 전체 천사의 3분의 1로 추정된다. 성경은 이들을 마귀들, 더러운 영들, 부정한 영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이 타락한 천사들 역시 현재 사탄의 지휘 아래 이 세상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탄의 왕국과 그 조직은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엡 6:12)으로 표현되며, 이들은 모두 영적인 계급 체계 속에 있는 사탄의 부하들이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자신의 왕국을 가지고 있다고 직접 말씀하셨다(마 12:26).

3. 마귀의 사역

마귀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다(대상 21:1; 눅 22:31).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병과 재난과 죽음이 따라올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눅 13:16)라고 하시며, 병이 단지 생물학적 요인만이 아니라 영적 억압일 수도 있음을 보여 주셨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파괴하려는 존재이다. 현대 사회에서 급증하는 자살과 우울증도 마귀의 역사와 관련될 수 있다. 물론 자살이나 우울증에는 생리적·심리적 원인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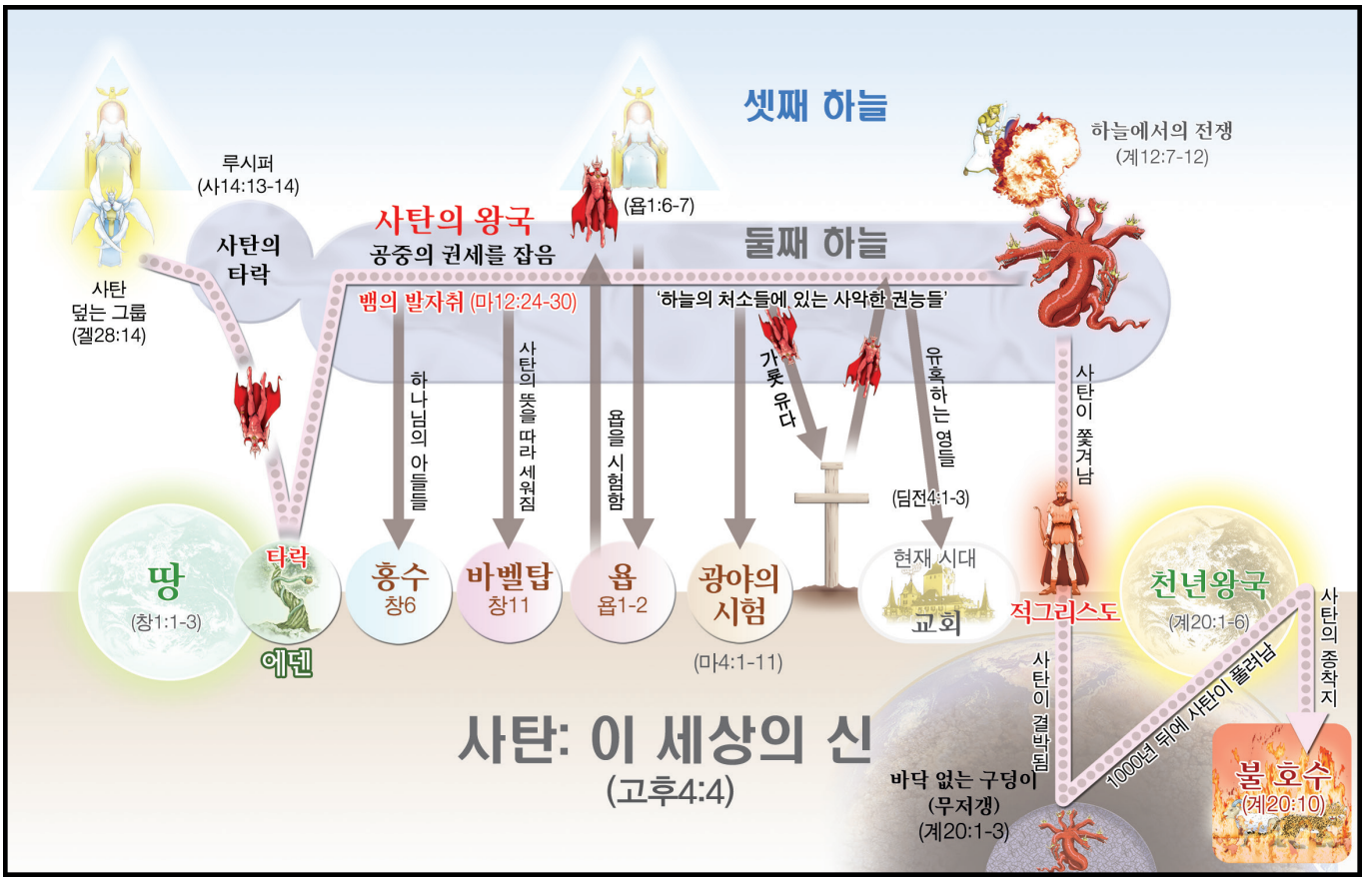
둘째, 마귀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후 4:4).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추종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엡 2:2).

셋째, 마귀는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 복음을 왜곡한다. 말세에 마귀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자들을 세워 사람들을 미혹한다(갈 1:6-9; 딤전 4:1). 베드로도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한다."(벧후 2:1)라고 경고했다. 그들의 탐욕과 거짓말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 마귀는 처음에 이브를 속였던 것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처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 몸의 부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을 부인하게 만든다. 처녀 탄생을 부인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며 단지 위대한 철학자나 도덕 교사로 전락한다. 결국 예수님을 부처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간으로 여기게 되는 심각한 신성모독의 오류에 빠진다.

초대 교회 시절 사탄은 핍박과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성도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널리 전했다. 이에 사탄은 전략을 바꾸어 교회를 세상과 타협하도록 유도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 문화와 구별되지 않게 되었으며, 음악, 드라마, 댄스 등 세속 문화가 교회 안에 넘쳐난다. 이런 문화적 혼합은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허물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복음을 알지 못한 채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을 양산한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문명을 만들 수 있다는 자만심을 주어 교회를 점점 사회봉사 기관처럼 변질시키고 복음보다 세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이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며 사탄의 대표적인 미혹이다.

4. 마귀의 종말

그러나 성경은 이 마귀의 종말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언한다. 마지막 7년 환난기에 사탄은 천사장 미가엘에 의해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계 12:9-12). 이때부터 그는 하늘에 접근하지 못하고 땅에만 거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기간은 7년 환난기의 후반부 3년 반이다. 이 기간에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극심한 분노로 공포에 떨게 하여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게 한다(계 13:2-8). 7년 환난기가 끝날 무


셋째 하늘
하늘에서의 전쟁
(계12:7-12)
루시퍼
(사14:13-14)
사탄의
타락
사탄
덮는 그룹
(겔28:14)
(욥1:6-7)
사탄의 왕국
공중의 권세를 잡음
둘째 하늘
뱀의 발자취 (마12:24-30)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사악한 권능들'
하나님의 아들들
사탄의 뜻을 따라 세워짐
욥을 시험함
가룟 유다
유혹하는 영들
(딤전4:1-3)
사탄이 쫓겨남
땅
(창1:1-3)
타락
에덴
홍수
창6
바벨탑
창11
욥
욥1-2
광야의 시험
(마4:1-11)
현재 시대
교회
적그리스도
천년왕국
(계20:1-6)
사탄의 종착지
사탄이 결박됨
1000년 뒤에 사탄이 풀려남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
(계20:1-3)
불 호수
(계20:10)
사탄: 이 세상의 신
(고후4:4)

렵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산 채로 불 호수에 던져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사탄을 사로잡아 큰 사슬로 결박하여 바닥없는 구덩이에 천 년 동안 가둔다(계 20:1-3). 천 년이 끝나면 사탄은 잠시 풀려나지만 다시 심판을 받아 영원히 불 호수에 던져진다(계 20:7-10). 불 호수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하신 곳이다. 왕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 25:41)라고 하신다. 에덴 이전부터 시작된 마귀의 반역은 이렇게 영존하는 불 호수의 심판으로 끝난다(계 20:10).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진리를 분별하며 믿음 안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벧전 5:8-9).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모든 공격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는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영적 싸움이다.

3:6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

여자가 본 그 나무는 세 가지의 자극적인 요소들, 즉 먹기에 좋은 '육신의 정욕', 보기에 아름다운 '안목의 정욕',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인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요일 2:16)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 주듯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고 세상에서 난 것들이다. 마귀는 이처럼 세상에 속한 본성적인 욕망을 자극하여 여자를 미혹했고 여자는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

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죄를 짓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마귀는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한다(마 4:1-10). 첫째,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는 것(마 4:3)은 육신의 필요를 이용하여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려는 시험이며,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것(마 4:5-6)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시험이며, 셋째,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 주며 경배하라고 한 것(마 4:8-9)은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시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첫 사람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시험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 이브는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속임에 넘어갔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딤전 2:13-14). 이브는 마귀의 유혹에 속아 죄를 지었지만, 아담은 죄의 결과를 알고도 스스로 선택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그 책임이 더 무겁다.

3:7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리므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말은 그들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유나 기쁨이 아니라 수치였다. 그들은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창 2:25), 죄를 지은 이후에는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를 느끼게 되었다(출 32:25; 대하 28:19; 겔 16:36). 범죄 이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에서 말씀을 거부한 불순종의 존재로 전락했다.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만든 앞치마는 몸의 앞부분만을 가리는 임시적인 것이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죄와 수치를 가리려는 첫 번째 시도였으며, 동시에 종교적·도덕적 자기 의(義)의 출발을 상징한다. 이때부터 인간 안에 종교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은 내면 깊은 곳에 스스로 무언가를 행하여 부끄러움을 덮으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가인의 헌물도 같은 성격을 가진다. 이것은 행위로 자기 죄를 덮으려는 종교 시스템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종교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행위, 즉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앞치마 종교를 통해 의를 이루려 하다가 결국 복음을 거부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 앞치마가 앞부분만 가릴 뿐 뒤돌아서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 성경은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사 64:6)라고 말한다. 아무리 겉으로 의로워 보이는 행위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 누더기에 불과하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열심이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결국 복음을 거부했다(롬 10:1–3).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롬 3:20; 4:1–10; 갈 2:16).

구원은 하늘에서 주어진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피로 이루신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진다(롬 5:9; 엡 1:7; 히 9:22).

* 부가 설명: 죄, 죄인, 죄의 결과와 구원

아담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온 역사적 사건이었다. 따라서 아담의 타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란 어떤 존재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죄(Sin)

아담과 이브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거나 그 법과 비교하여 부족함이 드러나는 모든 생각, 말, 욕망, 행동을 포함한다. 성경은 죄를 불법, 범죄, 허물, 빚, 불순종, 반역, 거역, 실족함, 완고함, 무지, 위선 등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한다. 성경에서 '죄'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과녁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양궁에서 화살이 과녁의 중심을 벗어나면 빗나간 것으로 판정되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이 곧 죄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롬 3:23)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과녁이다. 사람은 모든 일을 통해 그 중심을 정확히 맞혀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하지만, 단 한 사람도 그 과녁의 중심에 완전히 도달한 적이 없다.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온다."(마 15:19)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죄의 형태는 다양하다. 죄는 외적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마음의 생각과 욕망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히 사망, 즉 영원한 불 호수의 둘째 사망이다(롬 6:23).

세상의 종교는 구원에 대해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진다. 많은 종교는 사람의 선행과 악행을 저울에 올려놓고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를 기준으로 최종적인 운명이 결정된다고 가르친다. 곧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더 많고 그 무게가 선한 쪽으로 기울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카톨릭교인이나 불교인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다. 선행으로 악행을 상쇄하려는 노력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체계 자체가 다르다.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누더기와 같기 때문에(사 64:6) 인간의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주시는 의로 구원받는다.

종교와 복음



영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내세 혹은 영원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산다.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사유의 핵심은 사람의 영원성에 대한 것이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구원 시스템이 존재한다. 하나는 대부분의 세상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으로서 한 사람의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많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철학, 선행, 고행, 예배, 문화, 희생, 자선 등을 통해 스스로의 행위를 가지고 영원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 가인의 길이요, 종교라고 부른다(유11).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 기간에 종교를 가르치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며 크게 꾸짖으셨다(마3:7; 23:33).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서신서에서 3회나 종교라는 말을 쓰면서 종교 체제 하에서의 부정적인 것을 기술하였다(행26:5; 갈1:13-14). 종교는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며 오히려 지옥 불 속으로 그를 밀어 넣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롬3:23). 모든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면 다 더러운 존재로 판명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람 안에 있는 의는 모두 '더러운 누더기'라는 데 있다(사64:6). 그러므로 창조 세계의 외부로부터 오는 의 즉 사람을 지은 창조주께서 친히 베푸시는 의가 아니고는 그분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다. 즉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스스로 사람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려고 십자가에서 죄로 인한 형벌을 다 담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그 뒤에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고전15:2-4; 20-23).

죄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부처나 마호메트,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인물도 죄인을 의롭게 만들 능력은 없다. 창조물은 창조자의 법을 어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십자가 위에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죄 자체가 되셨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이 십자가에서 그분 위에 부어졌고, 지옥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셨다.

2. 죄인(Sinner)

죄인은 누구인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에 모두 죄인이다(욥 15:14; 25:4-6; 시 51:5; 롬 5:12-14).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의 방향이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죄를 짓는 것은 열매이지 근본 뿌리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까?"라고 물으면 대부분 "솔직하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은 죄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는 그 사람의 양심이 스스로 증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된 이후 양심을 통해 죄를 인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양심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보편적 진실과 일치한다.

죄의 오염은 아담의 타락 이후 전 인류에게 퍼졌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

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셨다."(창 6:5)라는 말씀이 이를 잘 보여 준다. 다윗은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시 51:5)라고 고백한다. 이 말씀은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태에서 수태되는 순간부터 이미 죄인임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노인뿐 아니라 어린아이까지도 모두 죄인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불법 가운데서 수태되었기 때문이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으며, 그 결과 모든 죄인은 반드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창 2:17; 롬 6:23).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행 4:12).

3. 죄가 가져온 죽음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은 불법 가운데 수태되고 태어나며 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삶 속에서 실제로 죄를 범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그가 불 호수에 들어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원인은 무엇에 있는가? 아담의 죄인가, 아니면 각 사람 자신의 죄인가? 성경의 대답은 분명하다. 그 원인은 각 사람 자신의 죄이다. 아담의 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첫째 사망인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각 사람이 직접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개인적 책임의 원리이다.

성경은 죽음(사망)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영적 죽음이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켜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엡 2:1)이라고 말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으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 있다(눅 9:60; 엡 2:1-10). 이 영적 죽음은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둘째는 육체적 죽음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 9:27).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결국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고전 15:22). 셋째는 영원한 죽음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를 가리키며, 최종적으로 불 호수에 던져지는 죽음이다. 이 죽음은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라 각 사람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이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계 20:14).

4. 구원의 길

그렇다면 사람이 둘째 사망을 피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타락 이후 그의 후손들은 모두 훼손된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게 되었다(창 5:3).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며, 육체 또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나온다.

성경은 영적으로 죽은 채 태어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영적 생명의 회복을 성경은 '다시 태어남'(being born again), 곧 영적 중생이라 부른다.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는 것은 첫 번째 출생이며,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요 3:7).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된다.[1]

2.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약속(3:8-21)

3:8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9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10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매 11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알려 주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12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서늘한 때에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자연스럽게 교제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 그 친밀한 교제는 단절되었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숨는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은 앞치마는 그들의 두려움과 수치를 결코 가려 주지 못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숨게 된다. 이는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이

1.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중생하게 하셔야 사람이 비로소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마련하셨고,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친다(행 16:31; 요 1:12; 계 22:17). 사람이 믿어야 중생이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중생하게 하셔야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후자라면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를 중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

다.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의 눈을 피하려 하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주께서 내가 앉는 것과 일어나는 것을 아시며 내 생각을 멀리서도 깨달으시나이다"(시 139:2).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숨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시 139:1-12).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 질문은 아담 스스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즉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직면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에 아담은 두려워서 자기가 숨었다고 대답한다.

이 장면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겔 34:11-16; 눅 15:4-6; 롬 3:11). 이는 복음의 본질과 일치한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다. 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노력이다. 철학, 지식, 선행, 수행 등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눅 19:10)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찾아오셨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출발점이며,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찾아오시는 사랑에서 비롯됨을 성경은 반복하여 증언한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11절에서 아담에게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알려 주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라고 직접 물으신다. 이 역시 앞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아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고백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그는 여자를 탓할 뿐만 아니라 이브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라고 말하며, 여자를 주신 하나

님까지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기에 그를 돕도록 이브를 주셨는데, 아담은 그 선물을 오히려 비난의 근거로 삼았다. 이 모습은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보다 핑계와 책임 전가로 반응하는 것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와 죄를 환경 탓, 다른 사람 탓, 심지어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 한다.

반면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한 뒤 "내가 주 곧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다."(시 51:4)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 그는 핑계도 대지 않았고,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행 13:22)이라고 하셨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특징이다.

3:13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하시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브에게 "네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 이에 이브는 뱀이 자신을 속여서 먹었다며 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이브의 말이 완전히 다 거짓은 아니다. 실제로 뱀이 이브를 속인 것은 사실이다(고후 11:3; 딤전 2:14). 그러나 속임을 당했다 해도 최종적으로 열매를 먹기로 선택한 것은 이브 자신이었다. 속임이 죄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아담은 여자를 탓하고, 여자는 뱀을 탓하는 이 장면은 누구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이나 환경, 심지어 하나님께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3:14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며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말씀하신 저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뱀이라는 짐승 자체에 대한 저주이며, 다른 하나는 그 뱀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브를 유혹한 사탄에 대한 심판이다. '배로 다닌다'는 표현은 타락 이전에 뱀이 지금과는 다른 형태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즉, 저주의 결과로 뱀은 지금과 같이 배로 기어 다니는 존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심판은 천년 왕국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사 65:25).

창세기 3장에서의 범죄와 저주는 사람과 뱀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온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다."(롬 8:20)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창조 세계 전체를 헛된 상태에 복종하도록 하셨다는 뜻이다. 이어서 다음 구절은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다."(롬 8:21)라고 하며, 장차 있을 구속과 회복의 소망을 말한다.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른다."(롬 8:22)라는 구절은 현재의 세상이 죄와 저주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지를 묘사한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 식물, 자연, 심지어 천체까지도 아담의 범죄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창조 세계가 회복된다고 약속한다.

이 저주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구속의 첫 번째 약속을 주신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신학자들은 이를 '원복음'(原福音)이라 부른다. 인류가 죄를 범한 바로 그 자

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셨다. 이 한 구절 안에 두 씨의 대결, 십자가, 부활, 그리고 사탄의 최후 심판까지 성경 전체의 구속사가 압축되어 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흐름이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여자의 씨'라는 표현이다. 성경은 보통 남자가 씨를 가진다고 표현하며 이때의 씨는 남자의 정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그녀의 씨'(her seed)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초자연적 잉태를 통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갈 4:4)라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님께서 네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눅 1:35)라고 한 말씀이 이를 확증한다.

하나님께서는 뱀 역시 씨를 가진다고 말씀하셨다. 뱀의 씨는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 여자의 씨를 대적하는 자들, 즉 사탄을 따르는 모든 불신자들을 가리킨다(요 8:44).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들의 세대'라고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이다(마 3:7; 12:34). 그리고 이 씨, 즉 대적자는 말세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절정에 이른다(계 13:1–7).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라는 말씀은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오히려 치명적 패배를 당했다(요 16:11; 골 2:14–15).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은 제한적 상처에 불과했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심판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신약 성도들에게도 적용하여 "화평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롬 16:20)라고 선언한다.

이 본문은 성경 번역에서도 중요한 차이를 드러낸다. 킹제임스 성경은 여자

의 씨를 '그것'(it, 한국어 번역에서는 '그 씨'라고 했음)이라고 하여 중성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카톨릭교회의 두에-랭스 성경은 이를 '그녀'(she)로 번역하여 마치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밟는 것처럼 왜곡했다. 이는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강화하기 위한 번역 왜곡으로, 성경 본문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마리아와 혼동하게 하는 심각한 오류이다.

여자가 먼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부터 심판을 시작하셨다. 그 내용은 두 가지다. 출산의 고통이 크게 늘어날 것과 남편에 대한 복종이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평등하다. 그러나 본질적 평등이 역할의 동일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성과 질서, 가정과 교회에서의 권위 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다. 이 질서는 타락의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 바울은 여자가 먼저 지어지지 않고 아담이 먼저 지어졌다는 창조 순서를 근거로 이 질서를 설명한다(딤전 2:13). 즉, 이 순서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설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먼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22-23절), 이어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고 명령한다(25절).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순서이다.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남편에게 나중에 말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다. 베드로전서 3장도 마찬가지이다. 아내의 복종을 먼저 말하고(1절), 남편을 향한 권면을 나중에 덧붙인다(7절). 이 순서는 우연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설계이다.

그러나 이 순서는 결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거나 남자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셨지만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것처럼(고전 11:3), 아내의 복종도 본질적 열등함이 아니라 질서와 역할의 구별을 뜻한다. 또한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만 남편이 아

내를 사랑하는 조건적 구조를 가르치지도 않는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두 명령은 서로 독립적이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복종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며, 아내의 복종도 남편의 사랑에 달린 것이 아니다. 성경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한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은 권력이나 지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희생적 사랑을 통해 실현된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은 여자가 속아 범법했음을 말하면서 교회에서 여자가 성인 남자들을 가르치거나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금한다. 이어서 바울은 감독(지역 교회의 목사)의 자격을 설명하며 남자만 목사(감독)와 집사로 세울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딤전 3:1–13). 이는 여자가 그 위치에 서면 남자를 가르치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가르친다(고전 11:9).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라는 말씀은 복종의 질서 자체는 창조 때부터 있었지만, 타락 이후에는 그 복종이 더욱 명확하게 선포된 것이다. 여자의 열망이 남편을 향해 있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린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 정하신 구조이다.

3: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리라. **19**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살아 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21**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만 생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가족을 부양하며 책임지는 삶이 남자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타락 이후 남자에게 맡겨진 가장으로서의 책무였다. 타락 이전에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후에는 땀 흘려 일하며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남자의 본분으로 자리 잡았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여 일을 멈추고 게으르게 지냈다(살후 3:11-12). 이에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살후 3:10)라고 말하며 그들을 책망했다. 이는 남자에게 주어진 부양의 책임과 노동의 소명을 분명히 보여 준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는 말씀은 육체적 죽음의 선고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창 2:17)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선포되었다. 사람은 흙에서 취하여졌고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육체적 죽음의 실상이다(롬 5:12; 고전 15:22).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선언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부활로 이어진다(고전 15:20-22).

20절을 보면 아담은 범법 이후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했다. 여자는 그전에는 단순히 '여자'라 불렸으나(창 2:23), 이제는 이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히브리어로 '이브'(Eve)는 '생명', '생명을 주는'(life giving)을 뜻한다. 심판이 선포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담이 아내에게 '생명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하나님께서 방금 선포하신 여자의 씨, 즉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아담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 주는 행동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이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짐승이 희생당한 장면으로 우리를 이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한다. 그것이 어떤 짐승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 전반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덮는 희생 헌물로 어린양을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다(창 4:4; 22:8; 출 12장).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어린양을 잡으셨을 가능성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 짐승의 피를 흘리셨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릴 때 죄가 가려질 수 있음을 보여 주셨다. 이것이 대신 속죄이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죄를 일시적으로 덮었지만, 짐승은 사람보다 못한 존재이므로 사람의 죄를 영원히 없앨 수는 없었다. 따라서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죄 없는 어린양으로 희생 헌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바로 그 완전한 대신 속죄의 성취이다. 이 진리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으로 소개된 예수님을 통해 확인된다. 유월절(출 12장)과 고난받는 종의 예언(사 53:1-8),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어린양(계 5:12; 13:8; 19:7)을 통해 이 구속의 원리는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 구속의 약속이라면, 3장 21절의 가죽옷은 구속의 예표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행동으로 그 원리를 보여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구속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3. 에덴동산에서의 추방(3:22-24)

3:22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23 그런 까닭으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를 취할 때 쓰신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 이렇게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뒤 저주받은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일을 막으신다. 여기에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26절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

에 있다. 성경은 창세기 첫 장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수형인 '우리'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하나님 안에 어떤 복수적 교제가 존재함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수형 '우리'로 칭하시는 본문은 이 외에도 창세기 11장 7절과 이사야서 6장 8절 등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 위격이 존재함을 보여 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위엄의 복수'(royal 'we')로 해석하려 하지만, 히브리어 구약 어디에서도 왕이 자신을 그렇게 칭하는 분명한 용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은 본문의 자연스러운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오히려 창세기 1장 26절의 창조에 대한 협의와 창세기 3장 22절의 타락 이후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11장과 이사야서 6장의 표현들은, 한 하나님 안에 존재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사이의 영원한 교제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창 3:5)라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아담이 얻은 것은 선과 악을 아는 것뿐이었고, 그 결과는 수치와 저주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내쫓으셨는데 사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죄와 타락으로 무죄 상태가 깨진 채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그 비참한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추방은 심판인 동시에 장차 완전한 구속을 통해 생명나무에 다시 접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후로 인류에게 금지되었던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22장 2절, 14절에서 다시 등장한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대조를 이루며, 시작과 끝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구조를 보여 준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셨다. 그룹은 '굳게 붙잡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며 복수형은 그루빔(cherubim)이다. 그룹은 일반 천사들과 구별되는 천상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왕좌 곁을 지

키는 자로 묘사된다.

구약 성경에는 그룹 외에도 스랍(seraph, 복수형 seraphim), 천사, 천사장, 권력, 권능, 통치자, 순찰자 등 다양한 천상의 존재들이 등장한다. 그룹은 이 가운데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에스겔의 환상에 따르면 그룹은 살아 있는 창조물이며, 네 개의 얼굴(사람, 사자, 소, 독수리)과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겔 1:6, 10; 10:14), 온몸에는 눈이 있으며 번개같이 움직이는 존재이다. 그룹은 사방으로 움직이는 바퀴와도 연결되어 있어 완전한 조화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겔 1:1-28; 10:1-22). 이는 그룹이 창조물의 극치라 할 만큼 완전함과 권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준다.[2]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타락 이후 에덴동산 입구에 이런 그룹을 배치하셨는가? 그것은 죄를 범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시기 위함이었다. 죄인은 더 이상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없으며, 특히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룹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호위자이며, 죄와 거룩하심 사이를 가르는 경계의 표지였다.

그룹의 이러한 역할은 후에 성막과 성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막의 앙장과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에는 그룹의 형상이 수놓여 있었고(출 26:1, 31), 지성소 안 언약궤 위의 '긍휼의 자리'(속죄소) 양쪽 끝에도 두 그룹이 금으로 만들어져 마주 보고 있었다(출 25:18-20). 곧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룹이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에덴동산에서 그룹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던 모습과 정확히 같은 구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길을 완전히 닫아 두지 않으셨다. 일 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긍휼의 자리'(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렸다(레 16:14-15). 오직 피를 통해서만 그룹이 지키는 자리를 지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장차

2. 천사들과 영의 세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히 9:12), 우리를 위해 새로운 살길을 휘장 가운데로 여실 것을 미리 보여 주는 그림이었다(히 10:19-20).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마 27:51)은 바로 이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표적이었다.

에덴동산에서 그룹과 함께 배치되었던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창 3:24) 역시 이 구속의 그림을 완성한다. 이 불타는 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며, 죄인이 생명나무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칼은 갈보리에서 친히 죄인의 자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졌다. "오 칼아, 깨어나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대적하라.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려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슥 13:7)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칼이 그분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은 단번에 이루어졌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비로소 열렸다.


낙원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

그리하여 요한계시록은 구속받은 자들에게 다시 약속한다. "이기는 자[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계 2:7).

* 부가 설명: 칭의와 두 아담

창세기 3장을 통해 우리는 첫 사람 아담이 실패했음을 보았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죄와 사망이 온 인류에게 들어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미 구속의 계획을 예고하셨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성경적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칭의'이고, 다른 하나는 '두 아담'의 대조이다. 이 둘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이 맞물려 있으며, 함께 이해할 때 비로소 복음의 핵심이 분명히 드러난다.

1. 칭의와 그 효과

칭의(justification)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죄인을 의인이라 선언하시는 법적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법적으로 의인이라 칭하시는 이 칭의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

이 칭의의 원리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는 본문이 로마서 5장이다. 바울은 여기에서 아담과 그리스도,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칭의의 의미와 그 효과를 차례로 풀어 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롬 5:1). 칭의가 가져오는 효과는 일곱 가지이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과거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롬 5:1).

둘째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롬 5:2).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게 된 것이다. 성도는 의롭다고 인정받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즉 재림의 소망과 하늘의 영원한 상속에 대한 소망을 기뻐할 수 있다(롬 5:2).

넷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성도는 환난을 기뻐하는데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칭의를 통해 믿는 자 안에 성숙한 인격이 세워진다(롬 5:3-4).

다섯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롬 5:5-8).

여섯째는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롬 5:9)라고 말한다.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고 여겨진 자는 하나님의 진노, 즉 장차 임할 환난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화해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욱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받는다(롬 5:9-10).

일곱째는 속죄를 받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은 우리"(롬 5:11)에서 속죄는 영어로 어톤먼트(atonement)인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at-one-ment', 즉 서로 분리된 것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속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엡 2:11-18).

이 칭의의 일곱 가지 효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

2. 칭의의 근거

이어서 로마서 5장 12-21절은 칭의의 근거를 설명한다. 첫 사람 아담을 통해 죄와 저주가 세상에 들어왔으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셨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를 정죄하신 것이 정당한가?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만 벌을 받으면 될 터인데 왜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가?"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정죄하신 것은 정당하다. 정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보여 준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만일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죄를 지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 모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행동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자유 의지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 주셨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릴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던 자로서 함께 십일조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다(히 7:9-10).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 모두도 그의 허리 속에 있었고 그 범죄에 연관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행 17:26) 만드셨다. 결국 모든 사람이 아담과 연결되어 있고 아담의 범죄에 함께 속해 있다.

둘째, 우리가 모두 아담과 연관되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답은 로마서 5장 12-14절에 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죽었다. 율법은 아담으로부터 약 2,500년이 지난 시점인 모세 때에 주어졌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죽음은 있었다. 즉, 그 이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 아담과 연관되었기 때문이다.

아기들도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죽는다. 이유는 분명하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가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롬 5:12)라는 말씀이 증언하듯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3. 전가의 원리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시험하신다면 아담이 넘어졌듯이 우리 모두가 넘어지고 죄를 범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역사 속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구원자가 따로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도 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를 정죄하시고, 그 원리를 반대로 적용하여 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구속받는 길을 열어 주셨다.

이것이 전가(imputation)의 원리이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다(롬 5:17–19).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간주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완전한 속죄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천사들은 사람이 아니므로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으며 개별적으로 정죄를 받는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에 구원의 길이 주어졌다.

4.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과 그리스도는 이렇게 대비된다. 아담은 옛 세상을 지배할 권리를 받았으나 죄를 지어 왕국을 잃어버렸고 모든 인류는 그로 인해 정죄받고 죽게 되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의와 칭의를 가져오셨다. 그분은 단순히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 놓는 데서 그치지 않으셨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에덴동산에서 그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인간의 본성(human nature)을 입고 에덴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을 것이다. 그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최선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키셨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단순히 에덴동산의 상태로 회복되

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divine nature)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벧후 1:3-4).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더욱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다. 이것은 마귀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생명이 회복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나게 된다(고전 15:22). 창세기 3장은 인류의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 계획의 완성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 창세기 4장 |

가인과 아벨, 두 길의 시작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과 더불어 종교와 복음의 본질적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장이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시간이 흐른 뒤 두 형제는 각각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 가인은 땅을 갈아 얻은 열매를 가져왔고, 아벨은 양을 치며 얻은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을 가져왔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다. 이는 단순한 직업의 차이나 헌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그분께 나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즉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그가 잘 행하면 헌물을 받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셨다. 그러나 가인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혔고 결국 들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극악한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께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가인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께 뻔뻔히 대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부르짖는 아벨의 피 소리를 들으시

고 가인을 저주하셨다. 그 결과 그는 땅 위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 가인은 주의 얼굴을 떠나 놋 땅에 거하며 도시를 세웠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문명을 이루어 가는 삶을 이어 갔다. 한편 아담과 이브는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낳았고 셋에게서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 흐름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계보가 다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장은 죄가 개인을 넘어 인류 전체로 확산되는 과정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건한 후손을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계속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1. 가인과 아벨의 헌물(4:1–8)

4:1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2**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3**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4**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5**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이 침울해지니라. **6**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 얼굴이 침울해졌느냐? **7** 네가 잘 행하면 *내가* 네 *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네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8**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더니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1절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다."라는 표현은 부부간의 성적 관계를 가리키지만, 성경은 이를 절제된 표현으로 '알았다'라고 기록한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깊은 친밀함 속에 하나 됨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표현이다. 이브는 가인을 낳고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라고 말한다. 가인(Cain)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으로, 이브가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라고 한 말과 직접 연결된다.

이브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이 낳은 남자아이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가인은 외모가 준수하고 강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삼상 16:6-7). 이브의 기대와 달리 가인은 메시아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2절을 보면 이브는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Abel)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숨'(breath) 혹은 '공허함'(vapor, vanity)을 뜻한다. 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헛됨'이라는 의미가 파생된다.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여기에서 '헛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아벨의 이름과 동일하다. 이 단어는 덧없음, 순간적인 것, 곧 사라져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야고보서 4장 14절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라고 말하며 같은 개념을 전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의 짧고 덧없는 생애를 미리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형 가인에게 살해당하여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지만, 그 짧은 생애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헌물을 드린 의인이었다. 그리고 "그가 죽었으나 여전히 말하고 있다."(히 11:4)라는 말씀처럼, 그의 증언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3-5절은 종교와 복음을 구별해 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 본문 3절의 '시간이 흐른 뒤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예배의 때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가인과 아벨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왔음을 의미한다.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자리와 방식이 있었고, 아담과 이브는 이것을

자식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을 것이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모두 알고 있었다.

가인은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예배의 때와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헌물을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리기 위해 대신 속죄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셨지만, 가인은 피 흘림 없이 땅의 열매를 드렸다.

성경은 이를 '가인의 길'이라 한다(유 11). 가인의 길은 자기 뜻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이다. 사사기 17장에는 미가가 자기 집에 신들을 두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사건이 나온다(삿 17:5).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음에도 그는 자기 뜻대로 종교를 만들었다. 그러다가 그는 베들레헴유다에서 온 레위 사람을 만나 그를 제사장으로 삼고 "이제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아노라."(삿 17:13)라고 말했다. 이는 가인의 길, 즉 사람의 방식대로 만든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방식대로 율법을 만들고 지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다(롬 10:1–10).

반면 아벨의 헌물은 달랐다. 아담과 이브는 낙원에서 쫓겨난 뒤 자식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반드시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헌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가르쳤을 것이다(엡 6:4). 아벨은 이 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물은 상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이다(시 51:16–19; 사 1:10–17; 미 6:6–8). 아벨은 그런 마음으로 짐승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을 받으셨다. 즉, 그는 믿음으로 헌물을 드렸다(히 11:4).

이처럼 가인의 인간 중심적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피 흘림이 없는 예배'였고 아벨의 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신 속죄의 원리대로 '피 흘림이 있는 예배'였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진리가 여기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출 12:13; 벧전 1:18–19). 이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다(사 59:2).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가기 위해서는 죄가 가려지고 제거되어야 하며, 성경은 그 해결이 피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증언한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히 9:22). 따라서 피 흘림 없이는 죄들을 덮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종교와 복음의 본질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하나님께 합당한 헌물을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창 4:7),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확증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게 된다(롬 8:38-39).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은 최선을 다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믿음 없이 자기 방식으로 드린 헌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

6-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네가 잘 행하면 *내가* 네 *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며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가인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경고하시며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에서 '죄'(sin)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문'은 장막 집의 출입구를 가리키며 '엎드려 있다'는 표현은 죄를 마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언제든지 달려들 준비가 된 맹수처럼 묘사한다.

죄는 사람이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들어와 그를 지배하려 하며 죄의 열망은 사람을 종으로 삼으려는 데 있다(롬 6:15-23).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회개하고 순종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거역하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원리를 제시하신다(사 1:18-20). 이 말씀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은혜의 기회였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와 기회를 끝내 거부하고 죄의 길을 선택하였다.

8절은 가인이 끝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들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슬픈 사건을 기록한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였다."라는 구절은 이것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음을 암



각기 다른 헌물을 드린 가인과 아벨

시한다. 아벨은 자기 형 가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된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는 자리에서, 대언자들의 무덤을 세우면서도 정작 그 대언자들을 죽인 조상들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다. "이로써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려진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주께서* 이 세대에게 요구하시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눅 11:50–51).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벨을 구약 시대 대언자들의 목록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신다. 대언자(prophet)는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이다. 기존 성경은 이것을 '선지자'라고 번역함으로써 마치 이 단어가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자를 뜻하는 것처럼 인상을 준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본래 의미는 그렇지 않다. 대언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비'(nabi)와 그리스어 '프로페테스'(prophetes)는 모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대언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미래를 예언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데 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은 그러한 선포의 한 부분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아벨이 형 가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 역시 대언자의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벨은 성경에서 첫 번째 대언자이며 동시에 첫 번째 순교자이다.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가? 성경은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요일 3:12)라고 분명히 밝힌다. 의로운 자의 존재가 악한 자에게 견딜 수 없는 도전이 되었던 것이다. 이 패턴은 역사 전체를 관통한다.

예수님께서 왜 죽임을 당하셨는가? 사람들의 행위는 악했으나 예수님의 행위와 삶은 온전히 의로우셨기 때문이다.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악한 자들이 참지 못하고 그들을 죽였다. 이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의와 진리이기에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지만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마귀의 자녀이다(요일 3:7–12).

그런데 이렇게 흘려진 아벨의 피는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한다고 기록한다. 아벨의 피는 복수와 심판을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용서와 화평을 말하기 때문이다. 아벨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로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흥미롭게도 한자 '흉'(兇, 흉악하다)을 보면 '형'(兄)이 저주를 받아 표(x)를 받은 모양이며 터진 입이 되어 가족의 대변자 위치를 상실함을 의미한다(「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 *The Discovery of Genesis*, C. H. Kang). 이것은 문화적 관찰이지만, 창세기의 사건들이 인류의 언어와 문화 속에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지를 보여 주는 흥미로운 예라 할 수 있다.

2.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4:9-15)

4:9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까? 하매 10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피 소리가 땅바닥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11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동생의 피를 받았으므로 이제 네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12 네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너를 위해 자기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라, 하시매 13 가인이 **주**께 이르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크니이다. 14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으니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리이다, 하매 15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으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 위에 표를 두사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까?"라고 하나님께 뻔뻔히 대들었다. 아담은 죄를 짓고 숨었지만 가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까지 했다. 죄는 사람을 점점 더 대담하고 뻔뻔하게 만든다. 이 표현은 영어로 "Am I my brother's keeper?"로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이다. 이것은 오늘날 미국 사람들의 일상에서도 "내가 왜 남의 일을 책임져야 하느냐?"라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말이 살인자의 입에서 나온 뻔뻔한 거짓말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10절에서 아벨의 피는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다. 반면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간구한다(눅 23:34).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끝까지 용서를 구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예

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한다고 증언한다(히 12:24).

성경은 분명히 피는 피로 갚아야 한다고 가르친다(창 9:6; 민 35:33).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피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들의 용서와 구원이 열리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기 원하나이다."(마 27:25)라고 말한 장면 역시 같은 원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피의 요구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와 생명을 얻지만, 그 피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자기 피로 갚아야 하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11-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저주를 선언하신다. 창세기 3장에서 뱀과 땅은 저주를 받았고 여자와 아담에게는 징벌이 임했다. 그러나 사람에게 직접 저주가 선언된 것은 가인이 처음이다. 이는 가인의 죄가 아담의 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임을 보여 준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가인은 자기 형제를 직접 살해했다.

이 저주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땅이 더 이상 가인을 위해 자기 효력을 내지 않게 된다. 가인은 본래 땅을 가는 자로서, 그의 삶은 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반을 치시는 심판을 내리신다. 즉, 가인이 의지하던 땅이 더 이상 그에게 응답하지 않게 된 것이다. 타락 이후 아담의 경우에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수고와 고통이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 일하면 일정한 열매를 얻을 수는 있었다. 그러나 가인에게 내려진 심판은 그보다 한층 더 강하다. 이제 그는 땅을 갈아도 땅이 자기 효력을 내지 않기 때문에 수고에 상응하는 결실 자체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에 대해 그의 삶의 중심을 직접 겨냥하여 심판하셨다.



아벨을 죽이는 가인

둘째, 가인은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된다. 정착할 땅도 없고 열매를 거둘 땅도 없는 자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헌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도, 분노가 가득했을 때도, 아벨을 죽인 후에도 가인에게 말씀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가인은 끝내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경은 그 이유를 가인이 믿음이 없었고 마귀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밝힌다(히 11:4; 요일 3:12).

13-15절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 대목이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크니

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내 죄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크니이다."라고 고백했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그 결과인 형벌에만 주목하고 있다. 이는 회개의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문제 삼는 반응이다.

결국 가인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고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한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배로 보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죄를 지은 가인에게조차 긍휼을 베푸신다. 이는 죄가 마땅히 받을 것보다 적게 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한다(스 9:13). 그러나 가인은 이 은혜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는다. 보호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졌다고 해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종종 제기되는 질문이 있다. "가인과 아벨 외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가인을 죽이려 했는가?"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외에 다른 사람들을 따로 창조하셨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성경의 기록과 맞지 않는다. 창세기 5장 4절은 아담이 셋을 낳은 이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고 기록한다. 따라서 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아담과 이브에게서 태어난 다른 자녀들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가인에게 주어진 이 '표'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후 성경에서는 에스겔서 9장 4절의 이마의 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14장 1절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표로 이어지며, 표의 개념이 점차 전개된다. 가인에게 주어진 것은 보호를 위한 표였지만, 짐승의 표는 심판을,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표는 구원을 나타낸다.

3. 가인의 후손(4:16-24)

4:16 가인이 **주**의 얼굴 앞에서 물러가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였더라. 17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았으므로 그가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18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는데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고 므후야엘은 므두사엘을 낳고 므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19 라멕이 자기를 위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20 아다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21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관악기를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22 실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23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24 가인을 위해 일곱 배로 복수가 이루어질 것이라면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일흔일곱 배로 *복수가 이루어지리라*, 하였더라.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결정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을 떠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배교이며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다.

가인이 정착한 땅의 이름은 '놋'이었는데 이 이름은 '방랑'이라는 뜻을 지닌다. 16절은 그가 그 땅에 거하였다고 말하지만, 그가 머문 곳의 이름 자체가 '방랑'이었다는 사실은 깊은 아이러니를 보여 준다. 그는 한곳에 정착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방랑자였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다.

그곳에서 가인은 자기 아내를 알았고 그의 아내는 에녹을 낳았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 그녀는 다

른 부족에서 온 여인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에게서 태어난 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초기 인류는 인류의 확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근친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유전적 손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유전병의 위험도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창 1:28)라고 명령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결합이 필요했다.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를 에녹이라 불렀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시였다. 그러나 그 도시를 세운 자는 하나님을 거절한 자, 자기 동생을 죽인 자였다. 땅은 더 이상 가인을 위해 열매를 내지 않았고 그는 농부의 길을 버리고 건설자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기 아들을 위해 도시를 세웠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봉헌되었다'는 뜻과 관련이 있지만 그 봉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아들이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의 시작이다.

본문은 이어서 가인의 후예들을 기록한다. 에녹을 시작으로 이랏, 므후야엘, 므두사엘, 라멕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는 인류 문명의 초기 발전을 보여준다. 야발은 가축을 기르는 목축 생활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하프와 관악기를 다루는 음악의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가인은 놋과 쇠를 다루는 금속기술의 조상이 되었다. 이처럼 가인의 후손들은 뛰어난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켜 인류 문명의 기초를 놓았다.

그러나 이 모든 문명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이었다. 그들은 풍요와 예술과 기술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욥 21:12-15). 에녹의 도시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다.

이것이 가인 문명의 본질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도 다르지 않다. 인간은 더욱 화려한 도시와 정교한 문화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가인의 길을 걷고 있을 뿐이다.

가인의 가족 이야기는 라멕에서 절정을 이룬다(창 4:19-24). 라멕은 가인의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는 인물이다. 그는 두 아내를 취함

으로써 처음으로 일부다처를 행하였고(창 4:19),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세우신 결혼의 창조 질서를 깨뜨렸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보호의 원리를 왜곡하여 자기 정당화의 도구로 삼았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 일곱 배로 보복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라멕은 이를 비틀어 "나를 상하게 한 자를 내가 죽였으니 나를 위해서는 일흔일곱 배로 복수가 이루어지리라."라고 선언하였다(창 4:23-24).

그는 살인자였지만 그것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의 두 아내 앞에서 자랑하였다. 가인은 자기 죄를 숨기려 했지만 라멕은 그것을 드러내며 과시하였다. 이 모습을 통해 죄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깊어지고 노골적으로 확대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라멕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신 것처럼 자신도 보호받을 것이라 여겼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진리가 드러난다. 거짓 종교는 하나님의 긍휼을 죄짓는 면허로 바꾼다. 라멕은 하나님의 보호는 원했지만 하나님 자신은 원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길의 종착점이다. 하나님을 제외한 채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는 것, 회개 없이 보호만을 원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 죄의 변명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인의 길이다.

가인이 세운 모든 화려한 문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홍수에 휩쓸려 다 사라졌다. 그가 세운 도시는 무너졌고, 그의 후예들이 이룬 음악과 기술과 도구와 건물도 모두 흙으로 돌아갔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이름과 문명도 결국 홍수 앞에서 모두 사라졌으며, 지금은 성경기록 속에만 희미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가인의 성취를 부러워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순간에 쓸어버리셨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세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흙처럼 사라질 뿐이다.

성경은 두 길을 보여 준다.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이다. 같은 부모, 같은 가정,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두 사람의 결말은 완전히 달랐다. 아벨

은 짧게 살다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며 그의 증언은 지금도 살아 있다. 반면 가인은 자기 방식으로 나아가며 도시와 문명을 이루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의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갔다.

아벨의 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며, 가인의 길은 자기 의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길이다. 하나는 생명에 이르고, 다른 하나는 결국 소멸로 끝난다. 우리는 이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

한편 노아의 아버지 역시 라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창 5:28-29), 그는 가인의 후손 라멕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 같은 이름이지만 계보와 영적 상태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4. 새로 얻은 아들 셋(4:25-26)

4:25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26** 셋에게도 즉 그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아담은 다시 자기 아내를 알았고, 그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라는 고백과 함께 지어진 이름이다. 셋이라는 이름은 '지정된 자'라는 뜻을 지닌다. 이브가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아벨을 대신할 아들을 얻었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그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씨를 기억하고 있었고 셋의 탄생을 통해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셋의 출생은 단순히 가정사의 회복이 아니라 구속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셋에게는 에노스가 태어났고, 성경은 "그때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

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한다.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전인적 표현이다(롬 10:13; 창 12:8; 21:33).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존재했지만 이때부터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공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

특히 에노스라는 이름이 '연약한 자'를 뜻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자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인류는 점점 뚜렷하게 두 부류로 나뉜다. 가인의 계보가 죄와 폭력으로 치닫는 가운데, 셋의 후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계보로 세워진다. 이 계보는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된다(눅 3:23–38).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이 깊어지는 가운데서도 구속의 계획을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어 가신다.



| 창세기 5장 |

아담의 계보와 에녹의 동행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세대들을 기록한 족보이다. 이 족보는 단순한 인물 나열이 아니라 죄로 인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류의 역사를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 셋(Seth)을 낳았고, 셋을 낳은 뒤 800년을 더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다. 아담의 전 생애는 930년이었다. 셋의 후손들은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엘, 야렛, 에녹, 므두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며, 대부분 900세 이상을 살았으나 결국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에녹만은 예외였다. 에녹은 365세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는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 므두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 가장 오래 산 자로 969세를 살았으며, 그의 이름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이 보내어질 것이다' 라는 뜻으로 그가 죽던 해에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으며 "바로 이 *아들*이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우리를 위로하리라." 라고 말했다.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창세기 5장은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의 보편성을 보여 주면서도, 에녹을 통해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노아를 통해 이어질 구속의 역사를 예시한다. 죽음의 행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5:1-2)

5:1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2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5장 1절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으로 시작한다. 여기에서 '세대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톨레도트'(toledoth)로, '누구에게서 생성된 자들', 곧 한 사람으로부터 태어나 이어지는 후손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담의 세대들'이란 아담에게서 비롯된 모든 인류를 가리킨다.

이 장에 기록된 족보는 일정한 패턴을 반복한다. 각 인물은 태어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죽는다. 이 반복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는 말씀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언이다. 아담으로부터 생성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였다.

흥미롭게도 창세기 5장 1절의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아담의 세대는 수없이 많지만 그 모든 세대는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하나로 묶인 생명의 계보이며, 그 안에 속한 자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은 모두 한 세대에 속한 형제자매가 되며, 그 안에는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와 같이 세대를 나누는 구분이 존

재하지 않는다. 아담에게서 난 자들은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고전 15:22)라는 말씀 그대로이다. 아담의 족보가 죽음의 행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생명의 행진이다.

또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타락 이후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며 바로 이것이 인간 존엄의 근거가 된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모두를 함께 아담이라 부르셨다는 것은 둘이 하나의 단위로 창조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말씀과 일치한다.

창세기 1장 27-28절의 내용이 여기에서 다시 반복되는 이유가 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함이다. 첫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분명히 드러낸다. 둘째, 이것은 사람이 창조된 날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사람이 오랜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행위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셋째,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음을 재확인한다. 넷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셨음을 보여 준다.

사람은 흙에 불과한 존재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고 하나님께 이름을 받은 존재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은 바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

2. 아담부터 에녹까지의 족보(5:3-24)

5:3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 아담이 셋을 낳은 뒤 그의 생애는 팔백 년이었으며 그가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5** 아담이 산 전 생애는 구백삼십 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양'과 '형상'은 창조 때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온전한 형상을 그대로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 셋은 타락 이후의 아담에게서 난 자로서, 손상된 형상을 지닌 존재로 태어난다. 곧 영적으로 죽은 상태, 죄 가운데 있는 상태로 태어난 것이다. 이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시 51:5; 요 3:3, 5).

따라서 은혜는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은 동일한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성경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요 1:12-13)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육신의 출생과 영적 출생은 전혀 다른 것이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창 2:17)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이 결국 아담의 죽음으로 정확히 성취된 것이다. 죄를 지은 날 그는 즉시 영적으로 죽었고, 시간이 흐른 뒤 육체적으로도 죽음에 이르렀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 놓여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롬 5:12-

21).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은혜까지 받게 되었다(롬 8:17).

5:6 셋은 백오 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7 에노스를 낳은 뒤 팔백칠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8 셋의 전 생애는 구백십이 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9 에노스는 구십 년을 살며 게난을 낳았고 10 게난을 낳은 뒤 팔백십오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11 에노스의 전 생애는 구백오 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12 게난은 칠십 년을 살며 마할랄레엘을 낳았고 13 마할랄레엘을 낳은 뒤 팔백사십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14 게난의 전 생애는 구백십 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15 마할랄레엘은 육십오 년을 살며 야렛을 낳았고 16 야렛을 낳은 뒤 팔백삼십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17 마할랄레엘의 전 생애는 팔백구십오 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18 야렛은 백육십이 년을 살며 에녹을 낳았고 19 에녹을 낳은 뒤 팔백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20 야렛의 전 생애는 구백육십이 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21 에녹은 육십오 년을 살며 므두셀라를 낳았고 22 므두셀라를 낳은 뒤 삼백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23 에녹의 전 생애는 삼백육십오 년이더라. 24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 준다. 이는 전가(imputation)의 원리와 깊이 연결된다. 히브리서 7장 9-10절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릴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다고 말한다. 같은 원리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의 모든 후손도 그 안에 있었고 함께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된다(롬 5:12; 고전 15:22).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며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족장들의 계보를 보면 그들은 대부분 900세 이상을 살았다. 아담은 930세에 죽었고 므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 이러한 긴 수명은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경은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연수를 살았음을 기록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들의 수명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족보는 장수조차 죽음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런데 이 죽음의 행진 속에서 한 사람이 예외로 등장한다. 21절의 에녹이다. 에녹은 65세에 므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표현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뜻에 동의하며 살아갔음을 뜻한다. 아모스 3장 3절의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였는데 함께 걸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처럼,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며 동행한 삶을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이 믿음으로 옮겨져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죽음이 모든 인류의 보편적 결론인 이 족보 속에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다. 이것이 그를 이 족보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만든다. 그의 전 생애는 365년이었는데 이 역시 의미심장하다. 1년이 365일인 것처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으로 채워진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유다서 14절은 에녹이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이며 주의 재림과 심판을 선포한 대언자였음을 기록한다. 에녹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장차 임할 심판을 선포한 사람이다.

또한 에녹은 장차 있을 성도의 휴거를 예표로 보여 주는 인물이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에녹처럼,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살아 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순식간에 위로 채여 올라가게 된다(고전 15:50-52; 살전 4:16-17). 구약에서 이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또 다른 인물은 엘리야다(왕하 2:11).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휴거의 실체를 미리 보여 주는 예표라 할 수 있다.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족보 속에서 에녹의 존재는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모든 사람이 죽어 가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은 죽음을 넘어

섰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분명히 증언해 준다.

3. 므두셀라부터 노아까지의 족보(5:25-32)

5:25 므두셀라는 백팔십칠 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고 26 라멕을 낳은 뒤 칠백팔십이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27 므두셀라의 전 생애는 구백육십구 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28 라멕은 백팔십이 년을 살며 아들을 낳고 29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며 이르되, 바로 이 *아들*이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30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 오백구십오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31 라멕의 전 생애는 칠백칠십칠 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32 노아는 오백 세였으며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므두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이 보내어질 것이다.'라는 뜻을 가진다. 여기에서 '그것'은 노아의 대홍수를 가리키며 실제로 그는 죽던 해에 홍수가 임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이미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므두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969세를 살았다. 그러나 그의 장수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즉시 내리지 않으시고 최대한 늦추시며 인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셨다(벧후 3:9). 므두셀라의 긴 생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심판을 미루지 않으셨다. 오래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하신 때가 이르면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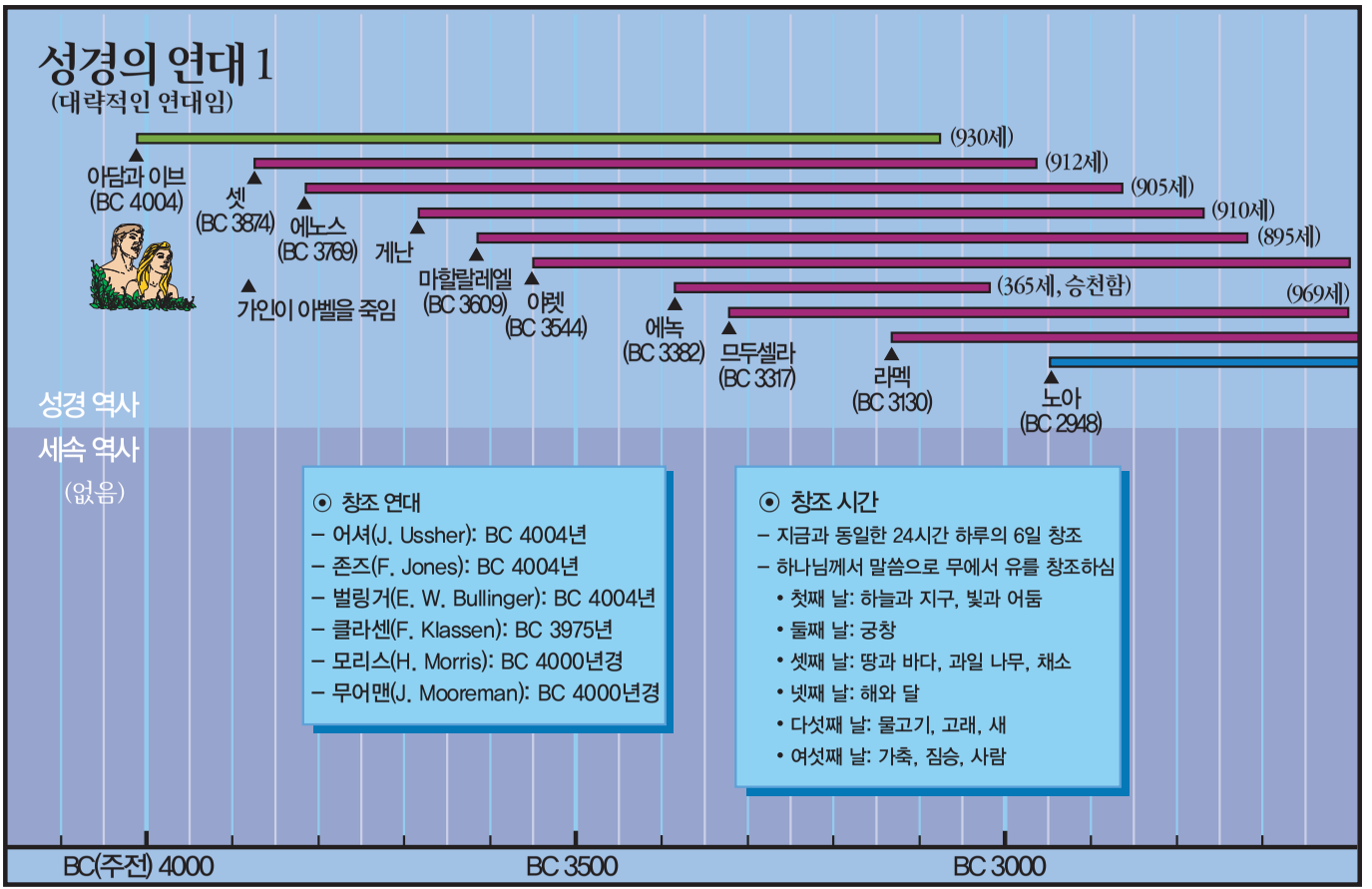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창 4:18)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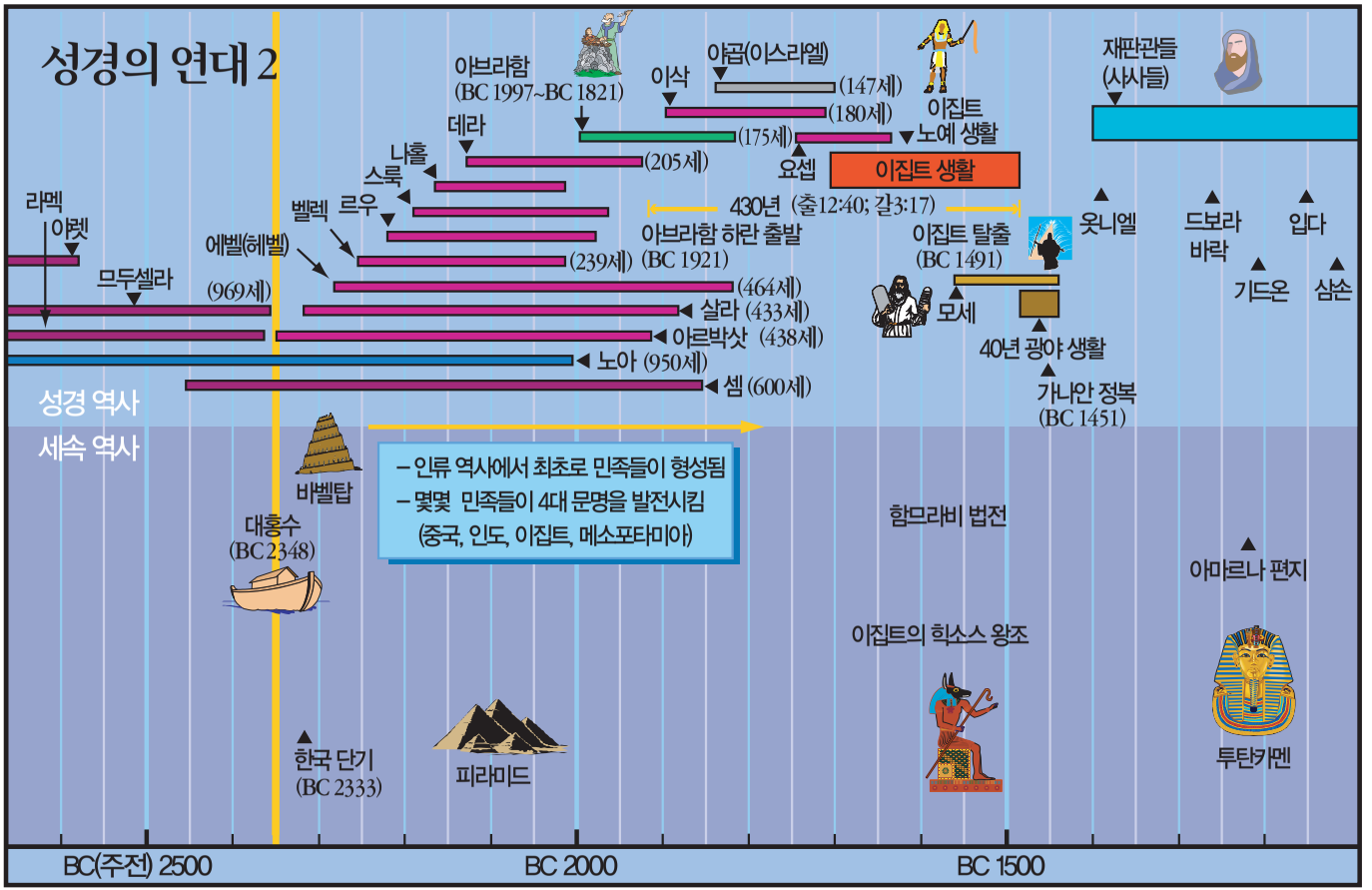
라멕이라는 이름은 '강하다'는 뜻을 가진다. 그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며, "바로 이 아들이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우리를 위로하리라."라고 말했다.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을 뜻한다. 라멕은 노아를 통해 저주받은 땅 가운데서 위로가 임할 것을 기대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모의 소망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여자의 씨에 대한 구속의 소망이 셋의 후손들을 통해 이어져 왔고 라멕 역시 그 소망 가운데 노아를 바라보았음을 보여 준다.

노아 이전의 조상들은 대부분 100세 전후에 자녀를 낳았으나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노아의 세 아들은 창세기에서 종종 '셈과 함과 야벳'의 순서로 기록되지만 이 순서가 곧 출생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들의 조상이며, 그의 형 야벳의 동생이다. 창세기 10장 21절의 "셈은 연장자 야벳의 동생이라."라는 표현은 야벳이 형임을 보여 주며, 셈 다음에 함이 막내로 나온다. 셈은 '이름', '명성', '명예'를 의미하며 그의 후손을 통해 히브리 민족이 이어지고 메시아의 계보가 보존된다. 함은 '따뜻하다', '덥다'를 의미하며, 아프리카와 이집트 지역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성경은 이집트를 시적으로 '함의 땅'이라 부르기도 한다(시 78:51; 105:23, 27). 야벳은 '증대', '확장'을 의미하며(창 9:27), 그의 후손은 현시대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널리 퍼져 나가게 된다.

보통의 족장들과 달리 노아가 훨씬 늦은 나이에 아들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존 길(John Gill)은 이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째, 노아가 일반적인 나이에 자녀를 낳았다면 방주에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후손이 생겼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일찍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일부가 타락한 세상의 영향 아래 악하게 되어 홍수 심판을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아가 늦게 아들들을 낳은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역사 속에서 정해진 시점과 연결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들이 타락한 세상의 흐름에 깊


성경의 연대 1
(대략적인 연대임)
(930세)
(912세)
(905세)
(910세)
(895세)
(365세, 승천함)
(969세)
아담과 이브
(BC 4004)
셋
(BC 3874)
에노스
(BC 3769)
게난
마할랄레엘
(BC 3609)
야렛
(BC 3544)
에녹
(BC 3382)
므두셀라
(BC 3317)
라멕
(BC 3130)
노아
(BC 2948)
가인이 아벨을 죽임
성경 역사
세속 역사
(없음)
⊙ 창조 연대
– 어셔(J. Ussher): BC 4004년
– 존즈(F. Jones): BC 4004년
– 벌링거(E. W. Bullinger): BC 4004년
– 클라센(F. Klassen): BC 3975년
– 모리스(H. Morris): BC 4000년경
– 무어맨(J. Mooreman): BC 4000년경
⊙ 창조 시간
– 지금과 동일한 24시간 하루의 6일 창조
–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
• 첫째 날: 하늘과 지구, 빛과 어둠
• 둘째 날: 궁창
• 셋째 날: 땅과 바다, 과일 나무, 채소
• 넷째 날: 해와 달
• 다섯째 날: 물고기, 고래, 새
• 여섯째 날: 가축, 짐승, 사람
BC(주전) 4000
BC 3500
BC 3000


성경의 연대 2
아브라함 (BC 1997~BC 1821)
이삭
야곱(이스라엘)
(147세)
(180세)
(175세)
(205세)
데라
나홀
스룩
르우
벨렉
에벨(헤벨)
(239세)
(464세)
살라 (433세)
아르박삿 (438세)
노아 (950세)
셈 (600세)
라멕
야렛
므두셀라
(969세)
430년 (출12:40; 갈3:17)
아브라함 하란 출발 (BC 1921)
이집트 노예 생활
요셉
이집트 생활
이집트 탈출 (BC 1491)
모세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BC 1451)
재판관들 (사사들)
옷니엘
드보라
바락
입다
기드온
삼손
성경 역사
세속 역사
바벨탑
대홍수 (BC 2348)
–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민족들이 형성됨
– 몇몇 민족들이 4대 문명을 발전시킴
(중국, 인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함무라비 법전
아마르나 편지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
투탄카멘
한국 단기 (BC 2333)
피라미드
BC(주전) 2500
BC 2000
BC 1500

이 물들기 전에 심판과 새로운 시작의 경계선 위에 서도록 하셨다. 따라서 노아의 아들들은 단순한 후손이 아니라 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의 출발을 감당하도록 예비된 세대였다고 볼 수 있다.

* 부가 설명: 성경의 연대

창세기 5장을 마치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수명에 대해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긴 수명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의아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창세기의 역사적 신뢰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수명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면 성경기록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BC 4000년경을 기준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수명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면, 아담은 약 BC 4000년에 창조되어 930세를 살았다. 그의 아들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난은 910세, 마할랄레엘은 895세, 야렛은 962세, 에녹은 365세, 므두셀라는 969세, 라멕은 777세, 그리고 노아는 950세를 살았다. 이처럼 홍수 이전 인류는 대부분 900세 전후의 긴 수명을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므두셀라는 969세로 가장 오래 살았다.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약 1,000년의 시간이 흐른다. 그러나 이 기간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십 세대를 거쳐 전달된 시간이 아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계보의 연결은 극히 짧다. 실제로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약 56년간 동시대에 살았으며, 노아는 아버지를 통해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아담에서 노아로 이어지는 전달 구조는 사실상 세 단계—아담, 라멕, 노아—에 불과하며 따라서 역사의 전달 측면에서 변형이나 왜곡이 일어날 여지가 매우 적다.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살라는 433세, 에벨은 464세를 살았다. 그러나 홍수 이전에 태어난 셈은 600세를 살았고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그는 390세였다. 셈은 아브라함보다 약 35

년을 더 살았으며 그의 생애는 이삭의 시대까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과 이삭은 셈을 통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직접 전해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2,000년의 시간이 흐르지만, 창조와 홍수 등 이야기의 전달은 단지 다섯 단계의 계보—아담, 라멕, 노아, 셈, 아브라함—를 통해 이어진다. 따라서 장기간의 구전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복잡한 왜곡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러한 연대 기록을 통해 볼 때, 창세기 1–11장에 기록된 초기 인류의 역사와 사건들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그것들은 실제 인물들의 생애가 서로 겹치며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전승된 역사적 기록이다. 당시의 긴 수명은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인류 초기의 사건들과 계시가 정확하게 보존되고 전달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의 기록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변형된 불확실한 전승이 아니라 역사적 연속성과 구체적인 인물 연결 속에서 보존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이 점에서 창세기의 기록은 단순한 고대 문헌을 넘어, 실제 역사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계시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 창세기 6장 |

사람의 부패와 방주 예비

창세기 6장은 인류가 땅에서 번성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합하여 거인들을 낳고, 땅이 폭력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 결합함으로써 거인 족속이 생겨났고, 이들은 옛적의 강력한 자들이자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 깊이 슬퍼하시며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며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고 선언하시고, 땅이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 찼으므로 모든 육체를 땅과 함께 멸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그는 자기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며 완전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고펠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며 구체적인 치수와 구조를 알려 주셨다. 방주의 길이는 300큐빗, 너비는 50큐빗, 높이는 30큐빗이었고, 3층 구조로 만들어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며 그와 그의 가

족, 그리고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여 홍수 심판 가운데 살아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다. 이 장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은혜와 언약,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보여 준다.

1. 사람들의 사악함과 하나님의 심판(6:1-8)

6:1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3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 부분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대다수 교회에서 이를 신화로 여기거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담긴 핵심 진리를 알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히 노아 당시 땅에 거인들이 존재했다고 말한다. 개역 성경은 거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네피림'(Nephilim)이라고 음역하였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이 단어를 일관되게 '거인들'(giants)로 번역한다. 더 나아가 성경은 이런 거인들이 그때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에도 존재했음을 분명히 기록한다.

특히 창세기 6장 4절은 원인과 결과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강력한 본문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결합하였고 그 결과로 거인 아이들이 태어났으며, 바로 그들이 강력한 자들,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해석 이전에 본문 자체가 제시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거인들의 출현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이 결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 뒤에도'라는 표현은 이러한 결과가 홍수 이후에도 있었음을 보여 주며, 동일한 결과가 지속되었다면 그 원인 역시 동일한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가장 충실하게 읽을 때 나오는 결론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들'(Sons of God)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교회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어 왔다. 본래 이 본문은 고대 유대교와 초대 교회에서 거의 일관되게 천사들과 인간 여성들의 결합으로 이해되었다.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 이레니우스(Irenaeus), 터툴리안(Tertullian) 등 초기 교부들은 창세기 6장을 천사와 인간의 비정상적 결합으로 해석했으며 이를 논쟁거리로 취급하지 않았다. 요세푸스(Flavius Josephus, c. AD 37–c. AD 100) 역시 「고대 유대사」(*Antiquities of the Jews*)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정통파 유대인들도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 전통적 해석을 체계적으로 뒤집은 인물이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AD 354–430)이다. 그는 신플라톤주의적 세계관의 영향 아래 천사들이 육체적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그 결과 창세기 6장을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경건한 셋의 후손과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 사이의 혼합'으로 인한 도덕적 타락 이야기로 재해석하였다. 이 해석은 그의 책 「하나님의 도시」(*The City of God*)를 통해 널리 확산되었고, 이후 중세 교회를 거쳐 개신교 전통 안에도 깊이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많은 주석과 신학교 교육에서 거의 의심 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철학이 본문을 지배할 때 어떤 왜곡이 발생하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어거스틴의 해석은 성경 본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의 아들들'이다(창 6:2, 4).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엘로힘이며(창 1:1), 그 이후에도 엘로힘은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구속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호와라는 호칭으로 '여호와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다섯 번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창조에 의해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 곧 천사들을 가리킨다(창 6:2, 4; 욥 1:6; 2:1; 38:7). 특히 욥기 38장은 결정적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하는데(욥 38:4, 7), 이는 그들이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천사들이었음을 보여 준다. 동일한 히브리어 표현이 창세기 6장에서만 갑자기 인간 혈통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성경 해석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둘째, 본문은 단순히 사람들이 번성하고 사람들에게 딸들이 태어났다고만 말할 뿐,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이라는 구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셋째, 단순한 인간 집단 간의 혼합으로는 본문이 묘사하는 비정상적인 거인 종족의 출현과 전 지구적 심판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넷째, 유다서 5-7절과 베드로후서 2장 4-6절은 노아의 홍수와 연결된 죄지은 천사들, 즉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언급하며 이 사건을 실제 천사들의 타락과 연결하고 있다. 결국 어거스틴의 해석은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결론이라기보다 이교도 철학적 전제를 성경에 적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다."라는 구절은, 홍수 이후에도 그런 거인들이 존재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러나 셋의 경건한 아들들과 가인의 불경건한 딸들은 모두 홍수로 멸망했기 때문에 이 해석으로는 홍수 이후에 다시 등장하는 거인들을 설명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대로 홍수 이후 일부 지역에 존재한 거인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성경에 등장하는 거인들은 영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 존재한 인물들이다. 르바 족속, 수스 족속, 가나안 땅의 아낙 족속, 엠 족속, 삼숨 족속, 그리고 골리앗과 바산 왕 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창 14:5; 15:20; 신 1:28; 2:10-11,

20; 수 11:21–22; 삼상 17:4). "과거에 엠 족속이 그 안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은 크고 많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가 컸으므로 *사람들이* 그들도 아낙 족속처럼 거인들로 여겼으나 모압 족속은 그들을 엠 족속이라 부르며"(신 2:10–11), "옛날에는 거인들이 그 안에 거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숨 족속이라 부르느니라"(신 2:20).

모세 시대 바산 왕 옥의 침대 길이가 4.1미터, 너비가 1.8미터였으며 골리앗의 키는 약 2.9미터였다(신 3:11; 삼상 17:4). 이는 이들이 단순히 키가 큰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족이었음을 보여 준다.

현대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존 맥아더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초자연적 해석을 지지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일관되게 천사를 가리키며, 창세기 6장에서만 예외를 둘 근거가 없다고 그는 말한다.

현대 창조과학 진영의 대표적 학자인 헨리 모리스(Henry M. Morris)도 그의 대표 저서 「창세기 기록」(*The Genesis Record*)에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해석하는 초자연적 견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는 만일 하나님께서 기록하려고 의도하신 바가 셋의 경건한 후손들이 가인의 불경건한 후손들과 결혼하여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이었다면, 본문은 매우 단순하게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라고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본문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본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며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천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또한 모리스는 이 사건에서 태어난 거인들(네피림)이 단순한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존재였다는 본문 자체의 묘사가, '경건한 계보와 불경건한 계보의 혼인설'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본다. 모리스에 따르면 이 본문은 사탄이 메시아 계보를 더럽혀 여자의 씨에 관한 약속(창 3:15)을 좌절시키려 한 시도를 보여 주며, 바로 이 우주적 반역의 심각성 때문에 노아의 홍수라는 전 지구적 심판이 불가피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결합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 결합으로 인해 창조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그 결과 땅이 폭력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 결국 노아의 대홍수라는 전 지구적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노아가 500세가 되어서야 아들들을 낳았다는 사실(창 5:32)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마 24:37-39; 눅 17:26-30), 두 시기의 공통점은 모두 천사와 관련된 질서의 붕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노아 시대에는 천사들이 인간 여자들과 결합했고 롯 시대에는 소돔의 남자들이 '남자로 나타난 천사들'과 관계를 맺으려 했다(창 19:1-11).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등장하게 된 원인은 성경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 즉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결합이었다. 이 결합으로 인해 유전자 변형이 일어났고, 결국 정상적인 인간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다. 사람들의 사악한 행위와 천사들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고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 온 인류를 심판하셨다. 경건한 남자와 불경건한 여자가 결혼했다고 해서 거인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면 해답은 그 안에 있다. 성경은 그대로 믿으면 된다.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였음을 뒷받침한다.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유 5-7). 여기에서 말하는 '낯선 육체'는 사람이 아닌 천사이다. 소돔 사람들이 범하려 한 대상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이었다(창 19:4-

9). 낯선 육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른 존재, 즉 천사들을 의미한다.

유다서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사례는 이집트에서 나온 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에 가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이다(민 14장). 두 번째 사례는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거처를 떠난 천사들이다. 구약 전체에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한 곳은 창세기 6장 사건 외에는 없다. 세 번째 사례는 낯선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을 저지른 이유로 죽어서 영원한 불의 보복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민들이다(창 19:1-25).

한편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음으로 정죄하여 재가 되게 하사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고"(벧후 2:4-6)라고 기록했다.

어떤 이들은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마 22:30)라는 말씀을 근거로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짓밟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성경에는 성(性)이 없어 중성처럼 행동하거나 보이는 천사는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된 천사는 모두 남성으로 묘사되며, 실제로 남자처럼 생겨 사람들에게 종종 남자로 오해되기도 했다.

또한 성경에 언급된 거인들은 모두 고대의 강력하고 명성 있는 남자들이었다(창 6:4). 이 점에도 이유가 있다. 아이가 수태될 때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남자이다. 천사들 중에는 여성이 없으므로 타락한 천사는 남자만을 만들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인용한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분명

히 보여 주듯이,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떠난 천사들은 이미 영존하는 사슬에 묶여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이러한 사건이 마지막 시대에도 다시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니엘 2장 43절은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씨가 아닌 자들이 사람들의 씨와 자신을 섞어 창조 질서를 침범하는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7-9절은 마지막 환난기에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쫓기는 사건을 기록한다. 현재 사탄은 하늘과 땅을 오가며 활동하지만(욥 1:6-7), 그때에는 더 이상 하늘에 접근하지 못하고 땅에만 머물게 된다.

이 사건과 노아 시대의 결합을 함께 생각해 보면 중요한 가능성이 드러난다. 노아 시대에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합하여 창조 질서를 훼손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특히 7년 환난기 중 후반부 3년 반에도 유사한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신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이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다. 성경은 인간의 철학이나 선입견에 맞추어 재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본문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본문을 사람의 뜻대로 약화시키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성경 전체의 해석 체계가 흔들리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의 최종 기준은 언제나 본문 자체여야 한다.

3절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끝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구절에서 핵심은 '항상'이라는 단어이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항상 다투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가 끝없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경고만 주시고 아무 심판도 내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공

〈노아의 때와 말세의 징조〉 설교 영상 QR 코드

의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항상 다투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그'는 기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가리킨다. 인간은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에 속한 존재로 전락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과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창 6:5). 이 표현은 단순히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을 넘어 당시 인류 전체가 육체적이고 타락한 상태에 깊이 빠져 있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앞 문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결합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육체'라는 말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을 넘어 창조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과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

천사는 본래 영으로서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다. 그런 천사들이 자기들의 본분을 떠나 인간의 육체를 취하고 사람들의 딸들과 결합한 것 자체가 이미 창조 질서의 근본적 침범이었으며, 그 결합을 통해 생겨난 거인들은 그 본성 자체가 영과 육의 비정상적 혼합으로 창조 질서를 벗어난 존재들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라는 표현이 단순히 일반적인 인간의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혼합된 존재들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시 82:5–7; 유 7).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를 인간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람이 건강 관리를 잘하면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성경의 문맥과 잘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셈은 홍수 이후에도 500년을 더 살아 600세까지 살았다. 만일 이 말씀이 인간 수명의 상한선을 의미한다면, 홍수 이후에 이와 같이 장수한 인물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구절을 단순히 인간 수명의 제한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이 120년은 심판까지 남겨 두신 유예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

에 더 자연스럽다.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창 5:32), 600세에 홍수를 맞았다(창 7:6, 11). 이를 역산하면 하나님께서 120년의 유예를 선포하신 시점은 노아가 480세가 될 무렵, 곧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나기 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방주 건조 명령이 기록된 창세기 6장 18절에는 이미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언급되므로, 방주를 지으라는 구체적인 명령은 아들들이 태어나 장성한 뒤에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곧 하나님께서는 먼저 120년의 유예를 선포하시고, 그 기간 안에서 때가 이르렀을 때 노아에게 방주 건조를 명령하셨으며, 노아의 가족은 완성된 방주에 함께 들어가 홍수를 맞은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종교 개혁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일관되게 지지해 온 주류 해석이다. 마틴 루터는 「창세기 강해」에서 이 120년을 회개의 유예 기간으로 보고 방주 건축 자체가 다가올 심판에 대한 가시적 설교였다고 강조했다. 존 칼빈도 「창세기 주석」에서 동일한 입장을 취했고,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갑자기 멸하지 않으신다. 먼저 경고하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라고 강조하며 이 해석을 지지했다. 영국 침례교 신학자 존 길도 그의 「성경 해설」에서 같은 해석을 자세히 전개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헨리 모리스가 「창세기 기록」(*The Genesis Record*)에서, 그리고 존 맥아더가 「맥아더 스터디 바이블」에서 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청교도, 그리고 현대 복음주의 보수주의 주석가들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이 해석을 지지한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한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9–20절은 "그분께서 또한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라고 기록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지하 감옥에

내려가 직접 설교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노아 시대에 성령님을 통해 불순종하던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도 같은 사실을 증언한다.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은, 노아가 단지 방주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의를 선포한 대언자였음을 보여 준다. 그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의 기회를 전했다.

따라서 창세기 6장 3절의 120년은 단순히 인간 수명의 한계를 정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신 기간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되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시고, 정해진 때가 되면 더 이상 대언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끝을 내신다는 뜻이다. 노아 시대가 바로 그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 결국 노아의 가족 여덟 명만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다(마 24:37; 눅 17:26). 또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라고도 말씀하셨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이며,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매우 심각한 말씀이다.

6:5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6**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품는 경우는 많지만 모든 생각이 전적으로 악한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5절은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상상이 끊임없이 악하였음을 보여 주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태를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다. 로마서 1장 18-32절은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르게 되는 악의 깊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노아 당시에는 온 세상이 극악한 일들로 가득하여 사람들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과 상상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 준다(대상 28:9; 렘 11:20; 17:10). "오 의롭게 심판하시고 속 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군대들의 **주**여."(렘 11:20)라는 구절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외적 행위가 아니라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되므로,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그 결과 또한 바르지 못하다. 사람은 젊었을 때 특히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잠 4:23). 마음을 잘못 가지면 생명(삶)에서 나오는 산물들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6절을 "it repented the LORD…"라고 기록하는데 몇몇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처럼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늦게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보시고 깊이 슬퍼하셨으며,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사용된 repent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repent는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 깊은 슬픔이나 판단의 변화를 가지고 뜻을 돌이키는 것, 즉 마음과 방향의 변화를 포함하는 표현이다.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 '스스로 뜻을 돌이켜'(repented himself) 은 서른 개를 돌려주었다(마 27:3).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마음을 돌이켰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는 않았다. 또 에서는 '뜻을 돌릴 곳'(place of repentance)을 찾았으나 얻지 못했는데(히 12:17), 이는 아버지 이삭의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repent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상태나 결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제 이 의미를 하나님께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repent' 하셨다는 것은 인간처럼 실수한 뒤 후회하셨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자신의 본성과 계획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롬 11:29)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감정적인 후회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repent' 하셨다는 말은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깊이 슬퍼하시며, 그 상황에 대해 심판으로 방향을 전환하셨다는 사실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니느웨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뜻을 돌이키셨다(욘 3:9-10).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상태 변화에 따라 하나님의 대응 방식이 달라졌음을 나타낸다.

이 점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확인된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나함'(nacham)은 단순한 후회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깊이 탄식하다', '슬퍼하다', '위로를 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타락을 보시고 깊은 슬픔과 탄식 가운데 심판으로 뜻을 돌이키셨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몇몇 성경의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번역은 이런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며 오히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께는 인간의 후회와 같은 의미의 후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죄를 향한 그분의 거룩한 슬픔과 의로우신 진노가 있을 뿐이며, 창세기 6장 6절은 바로 그 거룩한 슬픔의 깊이를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 준다.

* 부가 설명: 회개

이제 repent라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했으니,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성경의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후회나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다. 복음이 말하는 회개 곧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죄를 미워하고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변화

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이 실제로 바뀌는 것이 참된 회개이다.

많은 교회에서는 회개를 흔히 눈물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다. 부흥회나 집회에서 죄를 고백하며 우는 모습을 자주 보다 보니 울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나 눈물의 유무에 달려 있지 않다. 또한 회개는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찾아내어 고백하는 행위도 아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완전히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의 깊은 죄성까지 모두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러한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이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의 죄들을 완전히 용서하시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를 받아주신다(히 8:12; 10:17).

이러한 구원의 회개는 신자의 일상적인 죄 자백과 구분되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부패한 육신 안에 거하기에 매일 죄를 짓고 또 넘어진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자백이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 1:9).

여기에서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은 신자의 자백이 칭의를 위한 회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매일의 자백은 잃어버린 구원을 다시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자녀의 행위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자체는 죄로 인해 끊어지지 않지만 그 관계 안의 교제는 흐려질 수 있다. 이는 이미 목욕한 자가 발만 씻으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도 연결된다(요 13:10).

따라서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구원의 회개와 구원받은 성도가 평생 지속하는 죄 자백은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구원의 회개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

오고 신자의 자백의 회개는 교제의 회복을 가져온다. 전자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결정적 사건이며 후자는 그 사건 위에서 평생 지속되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 둘을 혼동하면 신자는 죄를 자백할 때마다 구원이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해하게 되고 반대로 이를 분별하지 못한 채 한 번의 회개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면 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질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구원에 이르려면 회개와 더불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회심의 두 측면인 회개와 믿음은 분리될 수 없으며 어느 한쪽만으로는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가룟 유다가 그 예이다. 그는 자신이 죄 없는 피를 팔았음을 깨닫고 뜻을 돌이켜 은 서른 개를 도로 가져다 주었다(마 27:3-5). 그러나 그 슬픔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행 20:21). 회개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가룟 유다처럼 사망에 이른다. 반대로 믿음만 있고 회개가 없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믿음이 곧 회개라고 하며 진정한 회개 없이 믿음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전도자가 사영리 등을 간략히 설명한 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형식적으로 "아멘!" 하고 영접기도를 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전도자는 곧바로 "오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누가 실제로 구원받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성경적으로 볼 때 회개 없는 믿음은 불완전하며 이런 방식은 영어로 '이지빌리비즘'(Easy-believism), 즉 '쉽게 믿게 하는 것'이라 불린다.

반대편 극단도 있다. 청교도 전통의 일부 흐름에서는 회개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평생을 죄에 대한 통회와 자기 비탄 속에 머물게 한다. 매일 울고 참회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

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일 5:13). 구원의 확신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정당한 특권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며 확신 없이 떠는 삶은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의심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극단의 오류를 모두 피해야 한다. 회개 없는 값싼 믿음도, 믿음 없는 끝없는 자기 정죄도 성경의 복음이 아니다. 참된 복음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렇게 회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다.

구원받은 성도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게 되고 좋은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확신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동요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혹은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이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참된 회개가 나타나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가 거저 주어진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을 향한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

이 점을 분명히 한다면 "언제 믿었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라고 묻는 방식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사람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도 쉽게 변하여 아침에는 믿는 것 같다가도 저녁에는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구원의 근거는 변하는 우리의 감정이나 시점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을 향한 믿음의 실체이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의 한 본보기는 다윗에게서 발견된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한 후 나단 대언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시 51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이다. 참으로 회개한 사

람은 남을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 하나 바로잡기도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신약에서도 회개는 처음부터 일관된 메시지였다. 침례자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 첫 메시지가 "너희는 회개하라."(마 3:2)였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였다. 이는 우는 행위에 머물라는 명령이 아니라 뜻을 돌이키고 행동을 바꾸라는 명령이다.

그 행동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던 자들이 더 이상 부당하게 징수하지 않는 것, 옷이 두 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눠 주는 것,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변화가 곧 회개의 열매이다. 하나님을 믿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눅 15:10)라고 말씀하시며 회개의 중요성을 상기시키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분의 제자들은 줄곧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행 2:38; 3:19; 26:20). 회개가 일어난 곳에서는 악을 버리고 죽은 행위로부터 떠나는 일과(행 8:22; 히 6:1)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함께 나타난다(롬 11:36; 고전 10:31).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급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들으면 겉으로는 "예." 하고 대답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런 식의 결단은 유아 세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영접 기도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려 한다.

복음을 전할 때는 먼저 대상자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도록 돕고 기다려야 한다.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그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얻게 된다. 회개는 조급하게 다그친다고 해서 억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강제로 회개시킬 수 없

다. 그렇기에 진정한 회개는 강요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며,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한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행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며(눅 15:7–10) 동시에 그분의 명령이다(막 6:12; 행 17:30).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뜻을 돌이켜 행동이 바뀌며 그분을 믿기를 원하신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의 마음이 괴로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죄악 가운데 행할 때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회개 없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신분과 깨어지지 않는 교제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약속하셨다.

6:7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멸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8**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들이 선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의 죄악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깊어졌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비정상적인 결합으로 인해 창조 질서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결국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일시적인 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악이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몹시 슬퍼하셨으며,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모두 멸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은 "노아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

하며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 준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은혜'(grace)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종종 "은혜받았다."라고 말한다. 그만큼 '은혜'라는 단어는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성경에서도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총 170회 등장한다. 그 시작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나타나고, 마지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 22:21)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진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로만 이해하면 안 되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첫째, 일반적인 의미의 은혜 곧 하나님의 호의이다. "노아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창 6:8)라는 말은 교리적인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기보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하게 여기시고 호의를 베푸셨다는 뜻이다. 롯이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창 19:19)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은혜는 죄들의 용서나 영원한 생명을 직접 의미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호의와 선의를 가리킨다. 구약에서 '은혜'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구원과 관련된 은혜이다. 이 은혜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구속의 사랑을 의미한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요 1:17)라는 말씀은 이전에는 은혜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고 분명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하늘 아래 어떤 사람에게도 주신 적이 없다(행 4:12).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라는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한다.

이제 이 두 번째 의미의 은혜, 즉 구원과 관련된 은혜가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자. 구약 시대에도 구원의 은혜는 분명히 존재했다. 아브라함 역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고 그것

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나 그 은혜는 아직 십자가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형태로 주어진 은혜였다. 다시 말해 장차 이루어질 구속을 근거로 미리 주어진 은혜였다.

반면 신약 시대의 은혜는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구속은 실제 역사 속에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 그 순간 그 은혜가 즉시 적용되고 성취된다(히 9:15; 11:40).

이 차이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수표를 받은 것이고, 신약 시대 사람들은 현금을 받은 것과 같다. 수표는 실제 돈을 담보로 하는 약속이고, 현금은 이미 지급된 실체이다. 구약 성도들은 장차 이루어질 구속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고, 신약 성도들은 이미 이루어진 구속을 실제로 적용받는 사람들이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다. 구원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의 은혜는 서로 다른 은혜가 아니라 동일한 은혜이다. 다만 구약에서는 은혜가 약속의 형태로, 신약에서는 성취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왜 반드시 은혜로 주어져야 하는가? 공기와 햇빛과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만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이다. 공기는 몇 분만 없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햇빛이 없으면 세상은 곧 얼어붙으며, 물이 없으면 생명은 금세 위태로워진다. 이처럼 사람이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면,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사람이 돈으로 사고팔 수 있겠는가? 사람은 그것을 살 수도 없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은혜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구원]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엡 2:8).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롬 3:24)라는 말씀에서 '구속'은 값을 치르고 다시 사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팔려 있었지만,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히 9:22)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이 은혜는 사람의 어떤 행위와도 결합될 수 없다.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롬 11:6)라는 말씀처럼, 은혜와 행위는 함께 설 수 없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딤후 1:9)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공로는 구원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처음 구원받은 사람부터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롬 1:16-17).

그러면 사람은 이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이 은혜는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에만 깨달을 수 있다. 세상에는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 대부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은혜,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 죄들을 대속하신 은혜,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따라서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함과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의 사역이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은혜'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게 된다. 중생, 용서, 말씀의 조명, 성화, 각종 은사와 성품, 영원한 구원까지 모두가 은혜이다(고후 8:7; 빌 1:7; 벧전 1:13).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은혜는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누구든지 자유 의지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요 1:12-13).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이 새로운 출생은 혈통이나 육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따라서 은혜를 받는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의미 있는 일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삶 속에 참된 기쁨과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며, 그 모든 변화의 뿌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다.

2. 노아의 세대들(6:9-13)

6:9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자기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며 완전하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10**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9절에서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라는 말씀은 노아에게서 나올 자들, 다시 말해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다. 여기에서 "노아는 의인이다."(just man)라는 표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뜻이다. 이는 노아가 스스로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 놓였음을 고려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의가 사람에게는 전혀 없다. 그런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불릴 수 있었던 근거는 그의 믿음에 있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

었느니라."(히 11:7)라고 말한다.

또한 성경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구출하리라."(겔 14:14)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에서 '자기 의'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개인적인 의를 가리킨다. 이 의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자녀나 가족을 자신의 의로 구원할 수 없다. 같은 내용은 에스겔서 14장 20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된다.

9절에서 "노아가 완전하였다."라는 말은 결코 그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노아가 살던 세대, 곧 그 사회와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그가 도덕적, 신앙적 면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이다. 노아는 이런 의미에서 '그의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로 불렸다. 다시 말해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었다.

성경에서 '완전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한 가지 의미로만 쓰이지 않는다. 문맥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가운데 노아에게 적용된 의미가 어느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두면 본문이 한층 명료해진다.

첫째, '완전하다'는 도덕적·신앙적 경건함을 가리킨다. 노아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같은 의미가 욥에게도 적용된다. 욥기의 첫 구절은 "그 사람은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였다."(욥 1:1)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에서 '완전하다'는 그가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였다는 뜻이다. 주께서 사탄에게 "그와 같이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는 땅에 없느니라."(욥 1:8)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것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신약 성경에도 같은 결의 용례가 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는 완전할지니라."(마 5:48)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 구절인 마태복음 5장 45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

므로 여기에서의 '완전함'은 주님께서 죄 없는 절대적 무결성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도덕적 권면이다.

둘째, '완전하다'는 신앙의 성숙과 갖추어짐을 가리킨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완전히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고전 2:6)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완전한 자들'은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성숙한 성도들을 의미한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엡 4:12)라고 설명한다. 이 구절에서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죄 없는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교리와 말씀, 삶의 모범을 통해 철저히 갖추어진 자로 세운다는 의미이다.

셋째, '완전하다'는 사역과 구속의 완성을 가리키기도 한다.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 완전하게 되리라."(눅 13:32)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완전한 분이시지만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완전하게 됨'은 도덕적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지상 사역, 곧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가운데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께 합당하였느니라."(히 2:10)라고 말하며, 또한 "이렇게 그분께서 완전하게 되어 자신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히 5:9)라고 기록한다. 이 모든 구절에서 '완전하다'는 죄 없는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사역을 끝까지 완수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문맥에 따라 도덕적 경건함, 신앙의 성숙, 사역의 완성이라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그 가운데 노아에게 적용된 의미

는 첫 번째 곧 도덕적·신앙적 경건함이다. 노아가 그의 세대들 가운데 의롭고 완전했다는 것은 그가 죄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악함이 극에 달했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앞뒤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 같은 단어라도 그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 '완전하다'는 말을 무조건 무죄로 읽어 버리면 노아도, 욥도, 신자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도 모두 인간에게 불가능한 요구처럼 들리게 된다. 그러나 성경의 용법을 따라 그 의미를 분별할 때 본문은 비로소 살아 있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9절 말씀은 에녹(창 5:24) 이후 두 번째로 나오는 표현이며, 이 표현으로 기록된 인물은 오직 에녹과 노아뿐이다. 두 사람의 결말은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르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하나님에 의해 하늘로 옮겨졌다. 반면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전 세계적인 재앙이 임한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자기 가족 일곱 명과 함께 살아남았다. 하늘로 옮겨진 것은 아니었지만 물 위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노아의 보존 또한 일종의 옮겨짐이라 할 수 있다. 환난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 사람의 생애가 함께 증언한다.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은 단지 어느 한순간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일생에 걸친 지속적인 삶을 가리킨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저녁까지 한 걸음씩 옮기듯 걷는다는 것은 꾸준한 행보를 의미한다. 걷는 사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성경에서 걷는다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은 그가 단번에 무언가를 결단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며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신약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

님께 드리신 것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엡 5:2)라고 권면한다. 사랑 안에서 걷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이것은 노아의 동행이 신약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 준다.

그런데 '걷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 번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표현이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약의 해당 구절들을 원문 그대로 '걷다'로 번역하지만, 개역 성경은 같은 단어를 '행하다'로 옮긴다. 그 결과 원문이 담고 있는 의미의 결이 상당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엡 5:8)라는 말씀을 개역 성경처럼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라고 번역하면 이 구절은 자칫 특정한 행위를 하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걷다'이며,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행로 자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뜻한다.

갈라디아서의 두 구절도 마찬가지이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갈 5:25).

두 구절 모두에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걷다'로 정확하게 번역하지만 개역 성경은 '행하다'로 옮긴다. '행하다'는 표현은 일회적인 행위를 떠올리게 하지만 '걷다'는 매일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을 가리킨다. 노아의 동행이 보여 주듯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걸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구분을 보여 준다.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과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 곧 구원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것은 신분의 변화이며 단번에 이루어지는 결정적 사건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성령님 안에서 계속 걸어가야 하는 과정이다. 다시 태어났다

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신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 개역 성경이 이런 구절들에서 '걷다'를 '행하다'로 번역할 때 가장 크게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의미이다. 다시 태어난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행위 목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생의 동행이다.

노아가 살았던 세대는 사람들의 사악함이 땅에서 극에 달했고 그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의 모든 상상이 항상 악할 뿐이던 때였다(창 6:5).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오늘날 신자에게 주어진 부르심도 다르지 않다. 어둠이 점점 짙어 가는 이 세대에서 빛의 자녀로서, 사랑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노아의 동행이 우리에게 남긴 본보기이다.

10절에는 노아의 세대, 즉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다시 언급된다(창 5:32). 이 세 사람은 단순한 노아의 아이들이 아니라 홍수 이후 온 인류의 조상이 된다.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이후 전개될 구속사의 흐름이 이 세 사람을 통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셈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고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각각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 나간다(창 10장).

6:11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으므로 **12**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13**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다가왔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1-12절은 당시에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땅'은 단지 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구(the earth)를 의미한다.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는 지금과 같이 대륙이 나뉘어 있

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땅이 부패하였다'는 것은 도덕적, 영적 타락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은 상태로 전락한 것이다. 이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는 말씀은 이러한 내적 타락이 사회 전반에 걸쳐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부패는 원인이며 폭력은 그 열매였다. 이러한 타락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합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결합으로 인해 거인 족속이 생겨났고, 그 결과 세상에는 폭력이 더욱 가득하게 되었다.

땅이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했던 것은 단순히 거인들 때문만은 아니었다. 12절의 '땅 위의 모든 육체'라는 말에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포함된다. 짐승까지도 자기 길을 부패시켰다는 것은 당시 유전자 변형이나 혼합이 인간 사회뿐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퍼져 있었음을 암시한다.

12절의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라는 표현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his way'로 번역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모든 육체가 자기 자신의 길을 부패시켰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분의 길을 부패시켰다는 의미이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해석이 더 합당하다. 본문에서 부패의 주체로 지목된 것은 '모든 육체'이며 'his'는 문법적으로 그 주체 각자를 가리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리키려 했다면 'his way'가 아니라 '주의 길'(the way of the Lord)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각 종류대로 정해 주신 본래의 길에서 모든 육체가 벗어나 부패했다는 해석은 본문이 다루는 대상의 폭과도 잘 맞는다. 결국 노아 시대의 부패는 어느 한 부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 전반에 걸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한 상황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전 지구적 심판을 선언하신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부패한 상태의 땅을 보시고 노아에게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다가왔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구절에서 '모든 육체'에는 짐승까지 포함되며 짐승들마저 부패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고 하신다. 노아는 480세 무렵, 즉 홍수가 임하기 약 120년 전에 하나님께 이 경고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노아가 500세부터 아들들을 낳았다는 사실(창 5:32)도 이 정황과 맞물린다.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시점은 아직 아들들이 태어나기 전이었고, 이후 500세부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으며 그들과 함께 방주를 준비해 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아는 이 경고를 받은 후 약 120년 동안 의의 선포자로서 그 말씀을 꾸준히 전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노아를 가리켜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라고 기록한다(벧후 2:5). 여기에서 '여덟째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담으로부터 여덟 번째 세대라는 뜻이 아니다. 아담으로부터의 족보를 따라가면 노아는 열 번째 세대에 해당한다(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엘, 야렛, 에녹, 므두셀라, 라멕, 노아). 따라서 '여덟째 사람'은 방주에 들어간 여덟 사람과 관련된 표현이다. 노아의 가족은 노아 자신과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합해 모두 여덟 명이었다. 노아는 그 가운데 자기 가족 일곱 명을 먼저 방주에 들여보내고 자신은 마지막으로 방주에 탄 여덟 번째 사람이었다. 의의 선포자였던 그는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이키기를 기다리며 방주의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다.

3. 방주 준비(6:14-22)

6:14 *너는* 고페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15 네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삼백 큐빗이요, 너비는 오십 큐빗이며 높이는 삼십 큐빗이니라. 16 너는 방주에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일 큐빗 안에다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 층 셋째 층으로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며 방주의 재료와 규격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다. 방주는 고펠나무(gopher wood)로 지어졌다. 이 나무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의 명칭을 그대로 음역하여 고펠나무라고 표기한다. 방주 안에는 방들을 만들고 짐승들과 함께 노아의 가족이 먹을 음식도 저장해야 했기에 공간 분할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는 역청으로 방주의 안팎을 칠하라고 하셨는데 역청은 오늘날 아스팔트와 비슷한 물질로 방수 역할을 하는 천연재료였다.

하나님은 방주의 크기도 '길이는 삼백 큐빗이요, 너비는 오십 큐빗이며 높이는 삼십 큐빗'이라고 명확히 알려 주셨다. 1큐빗(cubit)은 약 45센티미터로 계산되므로, 방주의 길이는 135미터, 너비는 22.5미터, 높이는 13.5미터가 된다. 이는 오늘날 대형 화물선과 맞먹는 규모이며 높이를 일반 주택 한 층의 천장 높이인 약 2.5미터로 환산하면 건물로 따져 약 5층에 해당한다. 축구장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더욱 실감된다. 축구장의 길이가 약 105미터이고 너비가 약 68미터인데, 방주의 길이는 축구장보다 더 길고 너비는 축구장 너비의 3분의 1 정도 된다. 결국 방주는 길쭉한 성냥갑 모양의 구조물로, 항해를 위한 배가 아니라 단순히 물 위에 떠 있어 사람과 짐승들을 보존하는 기능을 가진 거대한 상자였다. 영어 성경은 방주를 ark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단순히 상자나 궤를 뜻한다(출 2:3). 즉, 방주는 항해술과 무관한 구조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구원의 상자였다.

또한 방주는 위에 덮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의 밀폐된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 16절의 '창'은 옆면의 큰 창문이라기보다, 방주 맨 위 둘레를 따라 길게 나 있었던 환기용 개구부였을 가능성이 크다. 히브리어 표현도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통하도록 만든 구조를 암시한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창을 위에서부터 1큐빗 아래에 두라고 하셨는데, 방주의 높이가 30큐빗이므로 그 창은 꼭대기에서 1큐빗 아래, 곧 지붕 가까운 부분에 위치했던 셈이다(창 8:6, 13). 따라서 이 창은 지붕 아래 가장자리를 따라



노아의 방주

길게 돌아가며 나 있었고, 그 위를 덮개가 보호하는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해야 폭우와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물은 막으면서 내부의 환기와 채광은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은 옆에 내고 방주를 아래층, 둘째 층, 셋째 층으로 나누어 3층 구조로 만들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재료부터 크기, 구조, 창의 위치, 문의 방향까지 구체적인 설계를 직접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방주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을 예표로 보여 주는 구조물이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이 홍수 심판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방주 밖에 있던 자들이 모두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6:17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들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또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17절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에서 '모든 것'은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이는 노아의 홍수가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 온 땅을 덮는 전 지구적 대홍수였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 사실은 여러 고대 문명, 곧 이집트, 갈대아, 페니키아, 그리스, 중국 등지에 큰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특히 신약 성경은 노아의 대홍수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죄에 대한 심판의 본보기로 자주 언급한다. "이는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벧후 3:5-7).

이 말씀은 분명히 두 가지를 보여 준다. 첫째,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실제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이다. 둘째, 장차 있을 최종 심판은 불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즉, 노아의 홍수는 단순한 고대 전설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심판을 미리 보여 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해 말씀하실 때, 노아의 대홍수를 심판의 본보기로 직접 언급하시며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말씀하신다(마 24:38). 이 점에서 성경의 증언은 어떤 고대 문명 전승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된다. 인간의 전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18절에는 '언약'(covenant)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며, 이 말은 이후 성경 전체에서 약 292회에 걸쳐 반복해서 사용된다. 언약이라는 개

념도 노아와 연결되어 성경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앞서 은혜라는 말이 창세기 6장 8절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그것 또한 노아와 관련하여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세우시며 그들을 방주로 이끄셨다는 사실은, 온 세상 가운데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받은 유일한 무리였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언약은 말 그대로 약속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대등한 위치에서 맺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주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절대적인 약속이며, 그 성취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

성경을 보면 언약의 개념은 점진적으로 드러난다. 일부 신학자들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 2:16–17)라고 말씀하신 것과, 타락 이후 뱀과 여자와 남자를 향해 선언하신 말씀을 각각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언약 신학의 체계 속에서 정리된 용어일 뿐, 성경 본문 자체에 히브리어 '베리트'(berith, 언약)가 사용된 것은 아니다. 즉, 에덴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명한 명령과 약속, 그리고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만, 그것을 성경이 직접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분명하게 등장하는 것은 노아에게 이르러서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라."(창 6:18)라고 말씀하시며,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방식이 점차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노아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온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며, 그 표징으로 무지개가 주어졌다(창 9:8–17). 이 언약은 단순히 노아 개인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 모든 생물에게까지 확장된 보편적 언약으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지속되는 긍휼과 신실하심을 동시에 보여 준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가나안 땅을 그의 씨에게 주시고 그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시며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창 12:1-4; 15:1-7, 18; 17:1-8).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근거한 것으로 후에 메시아를 통한 구속 계획과 직접 연결된다.

이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언약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징계를 받는 조건적 언약의 성격을 가진다(출 20:1-31:18). 이 언약의 성격은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며, 특히 광야에서의 불순종과 그에 따른 징계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다.

그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약속은 흔히 '팔레스타인 언약'이라 불리는데(신 29:1; 30:1-10), 이는 이스라엘이 흩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즉, 이 언약은 단순히 조건적 복을 넘어,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회복을 포함하는 약속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왕좌가 영원히 지속될 것과 그의 씨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삼하 7:4-16). 이 언약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직접적인 약속으로 발전한다.

마지막으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다(렘 31:31-34). 이 언약은 외적인 율법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둔다.

이처럼 성경에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 점진적으로 드러난다. 이 모든 언약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완성으로 이어진다.

6:19 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 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두 마리를 방주로 데리

고 들어와 그것들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20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의 모든 기는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두 마리가 네게 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21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앞에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하시니 22 노아가 이같이 행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19-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야 할 짐승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 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라는 표현은 일부가 아니라 각 종류를 대표하는 생명들이 보존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또한 '두 마리'를 들이되 '수컷과 암컷'으로 하라는 말씀은 창조 질서를 분명하게 드러낸다(창 7:2). 즉, 모든 생명의 보존과 번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곧 수컷과 암컷의 질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처럼 수많은 짐승과 새와 기는 것들을 사람이 스스로 모아 방주로 데려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의 모든 기는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노아에게 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 노아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보존하는 역할을 맡았고, 실제로 그것들을 이끌어 오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 구원 사역에서 인간은 순종하지만,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원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21-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기간 동안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의 모든 생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신다.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 여덟 명과 각종 짐승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식량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명령하심으로써 방주 안의 생명들이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섭리하셨다. 이는 구원 계획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든 필요를 포함하는 완전한 계획임을 보여 준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은 이 모든 과정의 결론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였다.

당시에는 비가 내린 적도 없었고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는 구조였기 때문에(창 2:5-6),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온 세상이 홍수로 덮인다는 하나님의 경고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방주가 후에 아라랏의 산들 위에 머물렀다는 사실(창 8:4) 때문에, 어떤 이들은 노아가 산지와 가까운 내륙 지역에서 방주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기도 한다. 만일 그렇다면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더욱 어리석게 보였을 것이다. 노아는 넓고 황량한 들판에서 세 아들과 함께 수십 년 동안 나무를 다듬고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며 작업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지나가며 "비가 온다고?", "홍수가 온다고?", "저 큰 배를 왜 저기서 짓느냐?" 하며 비웃고 조롱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노아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였다. 그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준비하였다(히 11:7).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다. 그래서 노아는 단순히 방주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걸은 사람, 곧 의롭고 완전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



| 창세기 7장 |

전 지구적 홍수 심판

창세기 7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들어오게 하시고,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신 대홍수 사건을 기록한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네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을 일곱 마리씩,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수컷과 암컷 두 마리를 방주에 태우라고 명령하셨다. 이레 후에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어 땅 위의 모든 생명체를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셨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들의 아내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고, 주께서 친히 그들을 안에 넣고 문을 닫으셨다. 물들이 불어나 방주가 땅 위로 들렸고, 온 하늘 아래 있던 모든 높은 산들이 15큐빗 이상 물에 잠겼다.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 즉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기는 것들과 모든 사람이 죽었으며,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것이 멸망하였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고, 물들은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쳤다. 이 장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방주 안에서만 보존되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하신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 준다.

1.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7:1-5)

7:1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네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2**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일곱 마리씩 취하고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두 마리 취하며 **3** 공중의 날짐승들 중에서도 수컷과 암컷을 일곱 마리씩 취하여 씨가 온 지면 위에 살아남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다. 방주는 항해용 배가 아니라 단순히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는 사각형 상자였다(창 6:14; 출 2:3). 방주는 추진력이 없고 제어 장치도 없는 단순한 피난처 상자였다. 노아는 비를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홍수로 인해 온 세상이 잠기는 일 역시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의를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믿음은 보지 않고도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하신 것은 곧 믿음으로 사는 삶 안으로 들어오라는 명령이었다. 성경은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증언한다(창 6:9; 겔 14:14). 노아와 롯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일상에 바빠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눅 17:27-28).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악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으며 심지어 짐승들까지 포악하게 되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신실한

자로 인정한다."라고 하시는 의미이다(창 22:11-13).

2절에는 짐승을 방주로 들이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일곱 마리씩 취하고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두 마리 취하라."라고 말씀하신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각 종류마다 수컷과 암컷으로 두 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오라고 하셨지만(창 6:19-20), 이 구절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구분하여 더 구체적으로 지시하신다. 곧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을 일곱 마리씩,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수컷과 암컷 한 쌍, 즉 두 마리를 방주로 들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1-3장에서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느냐고 묻기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가 차근차근 발전해 나감을 보아야 한다.

2절에서 '정결하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호르'(tahor)이며 본문에 사용된 여성형은 '테호라'(tehorah)이다. 이 어근에서 파생된 형태들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자주 등장하며 영어로는 'pure' 또는 'clean'으로 번역된다. 그 핵심 의미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 곧 다른 것이 혼합되지 않아 그 자체로 깨끗한 상태를 가리킨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사용된다. 첫째는 본문이 다루는 의식적·제의적 정결이며, 둘째는 도덕적·영적 정결이고, 셋째는 물질적 순수성이다. 본문의 용례를 먼저 살펴본 뒤 나머지 두 영역을 함께 살펴보자.

여기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후일 모세 율법에서 상세히 규정되는 의식적 정결 개념의 출발점이 된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3-21절은 어떤 짐승이 정결하고 어떤 짐승이 부정한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이때 사용된 '정결하다'는 표현이 바로 본문과 동일한 단어이다. 정결한 짐승은 의식적으로 깨끗하여 먹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을 가리킨다. 부정한 짐승은 그렇지 않은 짐승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다. 모세 율법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인 노아 시대에 이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의식적 정결의 개념이 모세 율법에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 주신 질서였음을 보여 준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영역에서도 사용된다. 첫째는 도덕적·영적 정결을 가리키는 용례이다. 욥은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욥 14:4)라고 말하며 인간의 연약함과 타락한 상태에서는 참된 정결을 스스로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한다. 다윗도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라고 기도하며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둘째는 물질적 순수성을 가리키는 용례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의 주랑을 순금으로 입혔는데(대하 3:4) 이때 '순금'을 표현하는 데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된다. 이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이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의식적 정결, 도덕적 정결, 물질적 순수성이라는 세 영역은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모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라는 동일한 핵심 의미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정결하다'는 단어가 가진 일관된 성격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만 방주에 들이게 하셨는가? 가장 분명한 이유는 희생 헌물을 위한 보존이다.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해 번제 헌물로 드렸다(창 8:20). 만일 정결한 짐승이 한 쌍씩만 방주에 들어갔다면 그 쌍은 모두 헌물로 드려졌을 것이고 그 종류는 지면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일곱 쌍을 보존하게 하시어 한편으로는 노아의 헌물을 받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짐승들이 땅에서 계속 번식하도록 예비하셨다.

또한 정결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보다 더 많이 보존된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부정한 짐승은 종을 잇기

위한 최소한의 수만 보존되었지만 정결한 짐승은 그보다 일곱 배 많은 수로 보존되어 새 세상에서 더 풍성하게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홍수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은 정결한 것을 중심으로 펼쳐지도록 처음부터 그 비율이 정해졌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날짐승들도 수컷과 암컷을 일곱 마리씩 취하라고 하셨다. 새들도 짐승과 마찬가지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이 있었으며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새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역할이 더 있었다. 새들은 정탐의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 노아는 홍수의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다(창 8:7-12). 까마귀는 부정한 새였고 비둘기는 정결한 새였는데, 부정한 새인 까마귀는 물 위를 떠다니는 사체들 사이에서도 머물 수 있었기에 돌아오지 않았고, 정결한 새인 비둘기는 깨끗한 자리를 찾지 못하면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 이 정탐의 과정 자체에서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본성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씨가 살아남게 하라."라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 "keep alive"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살아서 보존되게 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개역 성경은 "유전케 하라"라고 번역하여 의미의 차이가 발생한다.

7:4 이제 이레 뒤에 내가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땅 위에 비가 오게 하여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리라, 하시니 **5**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이레 뒤에 하나님께서는 비 곧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사실을 노아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신다. 백이십 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은 당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였다(히 11:7).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멈추지 않고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이레' 곧 7일이라는 기간이 실제 시간 단위로 사용되는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이미 노아 시대에 7일이 하나의 주기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 주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7일의 질서가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시간 속에 일찍부터 새겨져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것은 훗날 모세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표징으로 주어진 안식일 제도(출 31:13, 17)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율법의 안식일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었지만, 이 7일의 주기는 그 이전부터 이미 인류의 보편적 시간 구조 안에 있었다.

창세기 7장 4절부터 8장 12절까지의 사건은 분명한 대칭 구조 곧 키아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그 흐름을 따라가면 다음과 같다.

7일 동안의 기다림(창 7:4, 10) → 40일 동안의 비(창 7:12, 17) → 150일 동안 물이 강력하게 임함(창 7:24) →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심(창 8:1) →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듦(창 8:3) → 40일 동안의 기다림 후 창문을 엶(창 8:6) → 7일씩 두 번 비둘기를 내보냄(창 8:10, 12)

이처럼 전반부와 후반부가 정확하게 대응을 이루며 모든 사건이 한 점을 향해 수렴한다. 그 정중앙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놓여 있다. 이는 홍수 이야기의 핵심이 물이나 심판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에 있음을 보여 준다. 심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이 대칭은 사건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구조이며, 각 숫자가 시간 순서대로 단순 합산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40일 동안 비가 내린 기간은 150일 동안 물이 강력하게 임한 기간 안에 포함되며, 후반부의 150일도 물이 빠지는 전체 과정의 핵심 단계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홍수의 전체 기간은 얼마였는가? 성경은 명확한 날짜를 통해 그 답을 제시한다.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시작되었고(창 7:11),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은 그다음 해 둘째 달 27일이었다(창 8:14–19). 당시 사용되던 30일 기준의 달력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1년 11일, 곧 약

371일이 된다.

비가 내린 기간은 처음 40일이었지만(창 7:12), 노아 가족과 모든 짐승들이 방주 안에 머문 기간은 1년이 넘었다. 만일 이것이 단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홍수였다면 노아 가족이 그처럼 오랜 시간 방주 안에 머물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온 땅을 덮은 전 지구적 대홍수였기 때문에 물이 물러가고 땅이 다시 사람과 짐승이 살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다.

5절은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다."라고 기록하며 그의 철저한 순종을 강조한다. 이미 6장 22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왔고 이제 7장 5절에서 다시 반복된다. 노아의 일생은 곧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한결같은 순종으로 요약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이 순종을 믿음의 행위로 해석한다(히 11:7). 노아는 아직 비를 본 적이 없었고 홍수를 경험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백이십 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끝까지 순종하였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며 그가 의인이라 불린 이유이다.

2. 대홍수의 시작(7:6–16)

7:6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있었을 때에 노아가 육백 세더라. **7** 노아가 홍수의 물들로 인해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8**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과 날짐승들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것 중에서 **9** 수컷과 암컷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두 마리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더니 **10** 이레 뒤에 홍수의 물들이 땅 위에 있었더라.

성경은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 노아가 600세였다고 기록한다. 성경이 이처럼 나이와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이 실제

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기록된 것처럼(창 12:4), 성경은 인물들의 나이와 사건의 시점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 준다.

노아는 600세에 홍수를 맞이하였고 그 이후로 350년을 더 살아 총 950세를 살았다(창 9:28-29). 이 기록은 홍수 사건이 단순한 상징이나 전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과 인물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준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곧 총 여덟 명이 방주에 들어갔다. 흥미롭게도 고대 한자 가운데 이 사실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글자가 있다는 견해가 오래전부터 제시되어 왔다. 선박(船舶)이라는 단어의 船(배 선) 자를 보면 왼쪽에 舟(배 주)가 있고 오른쪽에는 八(여덟 팔)과 口(입 구)가 결합되어 있는 모양이다. 곧 '여덟 입이 탄 배'로 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자학적으로는 후대 해서체의 자형에서 이 의미를 역추적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노아의 방주에 정확히 여덟 명이 들어간 사실과 그 모양이 일치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 다른 예로 義(옳을 의) 자가 종종 언급된다. 이 글자는 위에 羊(양 양), 아래에 我(나 아)가 놓인 구조로, '양 아래 내가 있을 때 의롭게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장차 오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와 놀랍게 맞닿아 있다.

물론 이러한 한자 풀이들은 학자들 사이에 자형의 기원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대 동아시아 문명 속에서 이런 자형들이 전해 내려왔다는 사실은 모든 인류가 본래 한 조상에게서 나왔으며 노아의 후손을 통해 흩어졌다는 성경의 기록(창 10-11장)을 떠올리게 한다. C. H. Kang과 Ethel R. Nelson은 그들의 저서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The Discovery of Genesis*)에서 이러한 자형들을 정리한 바 있다.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인해 그의 가족 일곱 명도 함께 은혜를 입었다.

한 의인을 통해 그의 가족이 보존되는 모습은 성경에 거듭 나타나는 원리이다. 훗날 롯의 가족이 소돔에서 건짐을 받은 일(창 19장)이나 라합과 그의 집안이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일(수 6:25), 그리고 사도행전의 빌립보 간수와 그의 온 집의 구원(행 16:31) 등이 같은 흐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의 공로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성경의 구원은 언제나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노아의 가족 역시 단지 노아의 '덕'으로 기계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함께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구원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간수의 경우에도 실제로 온 집안이 말씀을 듣고 믿는 과정이 이어진다.

따라서 성경이 보여 주는 원리는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 '한 사람의 의가 가족 전체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다. 노아의 삶은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과 순종이 가족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 수 있음을 가장 이른 시기에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삶 속에서 실천한 모습은 결혼 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결혼을 어떻게 정하셨는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을 주셨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창 2:24). 말라기 대언자는 이 창조 질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지만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려 하심이라"(말 2:15).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하셔서 한 여자만을 지으신 것이 아니다. 더 많이 지으실 수 있으셨지만 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의 원형으로 세우신 것이다. 이는 일부일처제가 사람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러나 노아 시대 이전부터 이 창조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처음으로 두 아내를 두었고(창 4:19),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

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들을 모두 아내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다(창 6:2). 일부다처가 시대의 풍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은 모두 한 명의 아내만을 두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정확히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부부 곧 여덟 명이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결혼 질서를 그대로 지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한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8-9절에 따르면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 날짐승들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것 중에서 수컷과 암컷이 두 마리씩 스스로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다. 노아가 그 많은 짐승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잡아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들을 인도하셨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후 친히 아담에게로 데려오신 것(창 2:22)과 비슷한 모습이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못한 짐승이 함께 머물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모습은 장차 임할 천년 왕국의 모습과 연결된다(사 11:6-7). 이는 노아의 대홍수 이전 시대의 평화로운 짐승 공존의 모습이 천년 왕국에서 다시 회복될 것임을 시사한다.

당시 모든 짐승은 초식 동물이었으며 육식이 허락된 것은 홍수 이후의 일이다(창 9:3). 그러므로 방주 안의 식량 준비도 비교적 단순했다. 풀이나 곡식 등 식물성 먹이만 충분히 마련하면 되었지, 짐승들끼리 서로 잡아먹을 걱정도 없었고 별도의 육식용 식량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다. 천년 왕국에서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게 될 그 질서가 노아의 방주 안에서 이미 작은 모형으로 펼쳐진 것이다.

10절의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츠'(eretz)이며 영어 성경에서는 earth로 번역되어 있다. 이는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노아의 홍수가 국지적 재앙이 아니라 온 지구를 덮은 전 세계적 사건이었음을 보여 준다. 주 예수님께서 친

히 노아의 홍수가 그들을 다 쓸어버렸다고 말씀하셨고(마 24:39), 사도 베드로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고 기록한다(벧후 3:6).

또한 이 한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김없이 성취됨을 보여 준다. 7장 4절에서 이레 뒤에 비가 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히 칠 일 후에 홍수가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사 55:11). 노아 시대에 그러했듯 오늘날도 그러하며 장차도 그러할 것이다.

7:11 노아의 삶에서 육백 번째 해 둘째 달 곧 그달 십칠일 바로 그날에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12** 비가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땅 위에 있었더라. **13**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한 그들의 세 아내가 방주로 들어가되 **14**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날짐승 곧 모든 종류의 모든 새가 그것의 종류대로 *들어가고* **15** 속에 생명의 숨이 들어 있는 모든 육체 중에서 두 마리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는데 **16**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그것들이* 들어가매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11절에 보면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큰 깊음의 샘들, 곧 지하수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 구절에서 개역 성경은 '모든'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다. '하늘의 창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마치 하늘에 창고가 있고 그 문이 열리듯이 비와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나타낸다.

"네가 눈이 있는 곳간들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네가 우박이 있는 곳간들을 본 적이 있느냐?"(욥 38:22)라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눈과 우박을 저장해 두신 창고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신다. 이는 실제로 하늘에 물리적인 창고가 있다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로 비와 눈과 우박이 때에 따라 내려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시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하늘의 창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그중 한 견해는 궁창 위의 물(창 1:7), 곧 홍수 이전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수증기층이 이때 쏟아져 내린 것으로 본다. 이 견해에 따르면 홍수 이전의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온난한 환경이었고, 인류와 동물들의 수명과 크기도 더 컸으며 대기 중 산소 농도 역시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베리아의 얼음층에서 발견된 매머드의 위장에서 풀이 나온 사실은 당시 기후가 지금과 달랐음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대홍수로 인해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경은 하늘에서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내린 것을 "비가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땅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한다. 여기에서 '있었다'는 말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 긴 시간 동안 비가 끊임없이 내렸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폭우가 잠시 쏟아졌다가 그친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렸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13절은 '바로 그날에', 즉 노아의 600번째 해 둘째 달 17일(창 7:11)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을 반복하며 강조한다(창 7:7).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사실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자 구원의 경륜 속에서 결정적 사건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을 통해 그분의 약속이 틀림없이 성취되었음을 확인시키신다.

또 모든 짐승 역시 각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다고 반복하여 강조한다.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종류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따라 종류별로 나누셨음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창 1:11, 12, 21, 24, 25; 6:20; 7:14; 8:19), 이는 진화를 부정하고 창조의 원리를 강조하는 표현이다(고전 15:38–39).

15절은 몸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 중에서 두 마리씩 방주로 들어갔다고 기록한다.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은 물론 호흡이 있는 모든 창조물이 여기에 포함된다(창 6:7).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오염

된 인간 사회뿐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 전체를 심판하시고, 또한 그 생태계 전체를 방주를 통해 보존하셨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다. 본문은 모든 짐승이 '두 마리씩' 방주로 들어갔다고 말하는데(창 6:19; 7:9, 15), 앞서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을 '암수 일곱 마리씩' 취하라고 하셨다. 표면적으로는 이 두 진술이 모순되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두 본문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7장 2절은 짐승의 종류에 따른 수의 차이를 명시하는 본문이고, 7장 15절은 모든 짐승이 암수 한 쌍씩 짝을 이루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본문이기 때문이다. 곧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이 들어갔고 부정한 짐승은 한 쌍이 들어갔다. 어느 경우에도 짐승들은 수컷과 암컷의 짝을 이루어 들어갔다는 점이 공통이며, 15절의 '두 마리씩'이라는 표현은 그 짝짓기의 단위를 가리킨 것이다. 7장 2절의 일곱 쌍 역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동물들

시 그 안에 일곱 번의 '두 마리씩'이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짝의 보존은 단순히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만이 아니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정하신 번식의 질서(창 1:22, 28)를 홍수 이후에도 이어 가시려는 뜻을 보여 준다. 홍수 이후의 새 세상 역시 처음 창조의 질서 위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었다.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자 16절은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셨다."라고 말한다. 방주의 문을 마지막으로 닫으신 분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이 짧은 진술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구원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여 준다.

첫째, 구원의 보장은 하나님께 속한다. 노아가 백이십 년 동안 방주를 짓고 가족과 짐승들을 모두 안으로 들였지만, 마지막 그 결정적인 행위, 곧 문을 닫는 일은 사람의 몫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으심으로 방주의 안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보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이셨다.

둘째,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모두 은혜이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주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기에(창 6:8)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 시작이 은혜였듯 그 완성 역시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신 그 순간 그들의 구원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봉인되었다. 한번 봉인된 그 구원은 결코 흔들리거나 상실되지 않는다.

셋째, 하나님께서 닫으신 그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문이 닫힌 그 시점에 은혜의 시대는 끝나고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다. 문 안은 생명이었고 문 밖은 죽음이었다. 백이십 년 동안 노아가 의를 선포하며 회개를 외쳤으나(벧후 2:5)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닫혔다. 그 후로는 아무리 두드려도 다시 열리지 않았다. 이 사실은 신약에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장면과 연결된다(마 25:10; 눅 13:25). 노아 시대에 그러했듯 마지막 날에도 은혜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3. 모든 생명체의 멸망(7:17-24)

7:17 홍수가 땅 위에 사십 일 동안 있었으므로 물들이 불어나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렸고 18 물들이 넘쳐 땅 위에 크게 불어나매 방주가 물들의 표면 위로 올라갔으며 19 물들이 땅 위에 크게 넘치므로 온 하늘 아래 있던 모든 높은 산들이 덮였더라. 20 물들이 넘쳐 십오 큐빗 위로 오르매 산들이 덮였고 21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 *죽었더라*. 22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서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것이 죽었더라. 23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들과 하늘의 날짐승이 멸망하였고 그들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였으며 노아와 또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24 물들이 백오십 일 동안 땅 위에 넘쳤더라.

비가 내리고 사십 일이 지나자 마침내 방주가 땅에서 들려 물 위로 떠올랐다. 백이십 년 동안 마른 땅 위에 서 있던 그 거대한 배가 이제 물의 흐름 위에 실리게 된 것이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모든 것이 죽어 가는 그 한가운데서, 오직 방주만이 물 위에 떠 있었다. 이것은 심판의 한가운데서 베풀어진 구원의 그림이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모습을 침례에 비유하며, 같은 물이 한쪽에는 심판의 도구로 한쪽에는 구원의 통로로 작용함을 설명한다(벧전 3:20-21). 방주 밖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었으나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물이 그들을 들어 올리는 생명의 흐름이 되었다.

18절은 물이 단순히 불어난 정도가 아니라 넘치고 크게 불어났다고 기록한다. 이 홍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7장 11절은 그날에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고 기록한다. 곧 위로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아래로는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지하수가 솟구쳐 올라온 것이다. 이 둘이 함께 일어났기에 물은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불어났고, 방주는 그 격렬한 흐름에 따라 떠올라 갔다.

19-20절은 두 번에 걸쳐 모든 산이 덮였음을 강조한다. 19절은 '온 하늘 아래 있던 모든 높은 산들'이라는 가장 포괄적인 표현을 쓰며, 20절은 그 산들 위로 무려 15큐빗(약 6.75미터)이나 물이 더 올라갔음을 기록한다. 어떤 산도 예외 없이 모두 잠겼다는 사실을 본문이 거듭 분명히 한다.

이는 노아의 홍수가 어느 지역에 국한된 범람이 아니라 전 지구적 사건이었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 만약 지역적 홍수였다면 가장 높은 산까지 덮이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며, 산 위로 십오 큐빗 이상의 물이 덮였다고 본문이 구체적인 수치로 강조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방주가 떠올라 모든 산을 지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전 지구적 범람을 전제로 한다.

이 사실은 오늘날의 지질학적 관찰과도 일치한다.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 정상 부근에서도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는데, 창조과학자들은 이를 노아의 홍수의 보편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한다. 결국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어떤 피난처도 방주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어지는 21-23절은 모든 생명이 멸망한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한다. 세 구절 안에 '죽었더라', '죽었더라', '멸망하였고', '멸망하였으며'가 총 네 차례 반복된다. 본문이 이렇게 같은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 멸망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분명히 새기기 위함이다. 사람도 짐승도 새도 기는 것도 예외 없이 모두 끊어졌다. 방주 밖에서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던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그 끝에 한 문장이 빛처럼 남는다. "노아와 또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이 한 문장이 보여 주는 진리는 분명하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안에만 있다. 당시 사람들에게 여러 생각과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자기 힘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배를 만들어 보려 한 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생명을 보존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뿐이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명령하셨는데(창 6:14), 흥미롭게도 여기에서 사용된 '역청'과 레위기에서 자주 나오는 '속죄'라는 단어(레 1:4)는 히브리어에서 같은 어근을 가진다. 그 기본 의미는 '덮다'이다. 방주의 역청이 심판의 물을 막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인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덮어 보호한다. 노아 시대에 사람을 살린 유일한 길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듯 오늘날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행 4:12).

24절은 물들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쳐 모든 것을 덮었음을 말한다. 이 150일은 비가 내린 40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물이 땅 위에서 강하게 우세하던 전체 시간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순간 스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다섯 달에 걸쳐 철저하게 지속된 심판이었다. 이것은 그 심판이 얼마나 완전하고 전면적이었는지를 보여 준다.

동시에 이 150일은 방주 안에 있던 자들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졌다. 그들에게 이 기간은 단순한 생존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진 시간이었다. 밖에서는 모든 것이 멸망하던 그 다섯 달 동안 방주 안에서는 단 한 생명도 잃지 않았다. 심판이 철저한 만큼 보호 또한 철저했던 것이다.

* 부가 설명: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다

창세기 7장을 마무리하면서 노아의 대홍수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중요한 근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 자체가 이 사건의 역사성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 세계에서 관찰되는 여러 현상도 그 증언과 부합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물의 양에 관한 것이다. 온 땅을 덮을 만큼 충분한 물이 있었겠는가?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을 계산해 보면, 지표의 산과 골짜기를 평탄하게 만들 경우 약 2.7킬로미터 깊이로 지구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양이 된다. 곧 전 지구를 덮을 만한 물이 이미 지금도 지구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물이 어떻게 갑자기 쏟아졌는가? 단순히 하늘에서 내린 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성경은 홍수가 시작된 "바로 그날에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창 7:11)라고 말한다. 그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동시에 땅 밑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지하수가 솟구쳐 올랐고, 상층의 수분이 함께 쏟아진 전 지구적 대격변이었다.

홍수가 끝난 뒤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갔는가? 오늘날 지구 표면의 약 70퍼센트가 바다로 덮여 있다. 홍수 이후 지각의 거대한 변동으로 해저 골짜기와 대양 분지가 새롭게 형성되었고, 물이 그곳으로 모이게 되었다(시 104:6–9). 미국의 솔트레이크호(Great Salt Lake)나 카스피해(Caspian Sea)와 같은 내륙 염호 역시 과거 바다가 그 지역까지 이르렀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노아의 홍수가 실제 사건이었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증거는 화석에서 발견된다.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생물체가 갑자기 진흙에 묻혀 강한 압력 아래 짧은 시간에 굳어야 한다. 천천히 죽어 부패하는 과정에서는 화석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화석의 존재 자체가 갑작스럽고 대규모인 매몰 사건을 전제한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화석들 가운데 많은 수가 생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급격히 묻힌 상태로 발견된다는 사실은 바로 그러한 사건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지대에서 발견되는 해양 생물 화석들이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산 정상 부근에서 삼엽충과 완족류, 바다 조개의 화석이 발견되며, 미국 그랜드캐니언(해발 2,100–2,400미터), 남아메리카 안데스산맥(해발 4,000미터), 히말라야산맥(해발 8,000미터)에서도 해양 화석이 발견된다. 산 위에 어떻게 바다 생물이 화석으로 남아 있는가?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은 그 지역들이 한때 물에 잠겨 있었다는 것이다.

지구 표면의 구성 자체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구를 이루는 암석의 약 90퍼센트는 화성암이지만 지표면의 약 75퍼센트는 물에 의해 형성된 퇴적암으로

덮여 있다. 이는 전 지구적 규모의 거대한 수작용이 있었음을 보여 주며, 그 규모의 사건으로 가장 잘 설명되는 것이 바로 노아의 대홍수이다.

방주 자체에 대한 공학적 검토도 이루어진 바 있다. 1992년 한국의 해사기술연구소는 한국창조과학회의 의뢰를 받아 방주의 안정성을 연구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치수와 형태를 바탕으로 축소 모델을 제작해 조류와 파도에 대한 안정성을 시험한 결과, 방주는 극심한 풍랑 속에서도 뒤집히지 않는 매우 안정적인 비율로 설계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의 비율이 현대의 대형 선박 설계에서도 추천될 정도의 황금 비율이었던 것이다.

방주의 크기는 충분했는가? 방주의 전체 용적은 약 41,000세제곱미터로 현대 기차 화물칸 522-569량에 해당한다. 그 안에 들어간 동물은 약 35,000마리에서 50,00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종류'(kind, 창 1:24)는 오늘날 생물학의 '종'(species)보다 상위 개념으로 대체로 '과'(family)에 가까운 범주로 이해된다. 즉, 개의 모든 품종을 포괄하는 한 '종류'가 방주에 들어갔으며, 그 한 쌍으로부터 오늘날의 다양한 개과 동물들이 다시 분화되었다. 동물들이 차지한 공간은 방주 전체 용적의 약 30-40퍼센트 수준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공간에 먹이와 물, 사람들의 거처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 공룡 역시 여섯째 날에 창조된 짐승으로서 그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으며, 거대한 성체가 아니라 어린 개체가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의 지리적 분포에 대한 의문도 자주 제기된다. 호주에만 사는 캥거루가 어떻게 방주가 있던 지역까지 왔는가 하는 질문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성경은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창세기 10장 25절은 "벨렉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다."라고 기록한다. 이 구절의 해석은 두 가지로 갈린다. 하나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언어와 민족의 나뉨으로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지질학적인 대륙의 분리로 보는 견해이다. 두 번째 견해를 따른다면 홍수 이전 그리고 벨렉 시대 이전에는 육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동물들이 그 위에서 넓게 분포해 살았던 것이 된다. 더욱이 방주로의 이동은

노아가 짐승들을 찾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일이었다(창 7:9, 15). 그러므로 거리와 이동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던 문제였다.

먹이와 동물 관리도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충분한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대로 충실히 준비하였다(창 6:21). 또한 일부 동물들이 동면 상태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늘날 호주의 대규모 목장에서 소수의 인력이 수만 마리의 가축을 관리하는 사례가 있는데, 노아 가족 여덟 명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방주의 동물들을 돌보는 일도 그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부터 그다음 해 둘째 달 27일까지 약 371일 동안 지속된 사건이었다(창 7:11; 8:13–14). 하루 이틀의 단기적 재난이 아니라 한 해를 넘긴 거대한 격변이었다. 성경의 이 일관된 증언과 자연 속에 남아 있는 여러 흔적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킨다. 노아의 대홍수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전 지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미는 과거의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사도 베드로는 노아 시대에 물로 임한 그 심판이 장차 불로 임할 심판의 역사적 본보기라고 말한다(벧후 3:6–7). 한때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비웃었듯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심판을 비웃는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 그 비웃음이 끝내 진실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방주가 그러했듯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



| 창세기 8장 |

홍수의 종료와 새로운 시작

창세기 8장은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과정을 기록한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으며, 물은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갔다. 150일이 지난 뒤 방주가 일곱째 달 17일에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했고, 열째 달 첫째 날에는 산들의 꼭대기가 드러났다. 노아는 40일을 더 기다린 후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으나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돌아오지 않았다. 이어 비둘기를 내보냈으나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해 돌아왔고, 7일 뒤 다시 내보낸 비둘기는 저녁에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와 땅이 회복되고 있음을 알렸다. 또 7일 뒤 비둘기를 내보내자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601년 첫째 달 첫째 날 물이 땅에서 마르고 둘째 달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으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하셨다. 노아는 가족과 모든 짐승을 데리고 나와 즉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

시고 마음속으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으며 모든 생물을 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땅이 남아 있는 동안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 선포하셨다. 이 장은 심판 후 회복과 새 출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창조 질서의 회복을 보여 준다.

1. 노아가 구출됨(8:1-19)

8:1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고 **2**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막혔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3**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백오십 일이 끝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4** 일곱째 달 곧 그 달 십칠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였으며 **5** 물들이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첫째 날에 산들의 꼭대기들이 보였더라.

1절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개역 성경은 이를 '권념하사'라는 다소 어려운 표현으로 번역했다. 영어 성경에서는 remember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떠올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머릿속에 두다'는 뜻이다. 구약 성경에서 remember가 사용된 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지를 통해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창 19:29) 그 멸망 가운데서 롯을 구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라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셔서 수태하게 하셨다(창 30:22-24). 이때도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창 30:22).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관심을 기울이셨다(출 2:24-25). 이와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고 할 때는 단순히 잊었다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뿐 아니라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가축까지도 기억하셨다. 오늘날 우리와 온 세상의 창조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노아의 대홍수는 세 가지 근원에서 비롯되었다. 노아가 600세이던 해의 둘째 달 17일에 (1)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2)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3) 비가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땅에 있었다(창 7:11–12). 이로 인해 엄청난 양의 물이 불어나 온 세상의 산들을 덮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들을 줄어들게 하시고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을 막으시며 하늘에서 내리던 비를 그치게 하셨다.

3절은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 물들은 어디로 되돌아갔을까? 하늘의 창들로 돌아가지는 않고 대부분은 지하수로 땅속 깊은 샘들 속으로 스며들어 갔거나 구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을 것이다. 또한 홍수 이후 땅이 갈라지고 해저 골짜기들이 형성되면서 물이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지구 표면의 약 70퍼센트가 바다로 덮여 있으며 현재 존재하는 물의 양만으로도 지구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 경우 약 2.7킬로미터 높이로 지구를 덮을 수 있는데 이는 노아의 홍수 때 온 땅을 덮었던 물이 여전히 지구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홍수는 노아의 생애에서 600번째 해 2월 17일에 시작되었다. 4절은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에 안착한 날짜가 7월 17일이라고 말한다. 당시 한 달은 30일이었으므로 이것은 정확히 150일이 지난 시점이다.

방주는 150일 동안 물 위를 떠돌다가 드디어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했다. 히브리어 '아라랏'(Ararat)은 '거룩한 땅'을 뜻한다. 이 말은 아시리아어

로는 '우라르투'(Urartu)이며 페르시아 사람들은 방주가 안착한 산을 '노아의 산'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노아의 방주가 안착한 아라랏 산은 여러 민족에게 각기 다른 이름으로 전해졌다. 아라랏산은 현재 튀르키예와 이란, 아르메니아 국경 지대에 있는 높이 약 5,137미터의 산이다. 이 말은 방주가 산의 꼭대기에 앉았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 산지 안에 있는 어느 지점에 안착했음을 뜻한다. 성경에서 '아라랏의 산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특정 봉우리가 아니라 산지(山地)를 가리키는 말이다. 노아의 방주가 멈춘 장소에 대한 기록은 그 홍수가 지역적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 홍수였음을 보여 준다.

5절은 홍수 이후 물이 점차 줄어들어 마침내 산봉우리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을 기록한다. 창세기 7장과 8장은 홍수의 시작과 끝이 대칭 구조를 이루는데 40일 동안의 홍수(창 7:17)와 홍수 이후 40일 동안의 대기(창 8:6)가 서로 대응한다. 물들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 달 첫째 날, 즉 10월 1일에 산들의 꼭대기들이 드러났다. 이는 심판의 물이 물러가고 회복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다.

8:6 사십 일이 끝날 때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7**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그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떠나 바싹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나다녔더라. **8** 또한 그가 비둘기를 자기에게서 내보내어 물들이 지면에서 떠나 줄어들었는지 알아보려 하였으나 **9** 온 지면에 물들이 있어 비둘기가 발바닥 놓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 안에 있는 그에게 돌아오므로 이에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든 뒤 방주 안에 있는 자기에게로 끌어들였고 **10** 또 다음 이레를 더 머무른 뒤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매 **11**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왔는데, 보라, 그것의 입에 물어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으므로 이에 노아가 물들이 땅에서 떠나 줄어든 것을 알았더라. **12** 그가 다음 이레를 더 머무른 뒤 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것이 그 뒤로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절에서 보듯이 노아는 40일을 기다린 뒤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규격을 정해 주신 뒤, 위에서부터 1큐빗 떨어진 지점

에 창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고(창 6:16) 노아는 그 명령에 따라 만든 창을 그날 열었다.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

7-12절에는 땅에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까마귀는 7절에 나와 있듯이 땅에서 물이 마르기까지 이리저리 오가며 돌아오지 않았다. 반면 8절에서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내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아보려 했지만, 온 지면에 여전히 물이 있어 비둘기가 발을 디딜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 10절을 보면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린 후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고, 저녁에 돌아온 비둘기는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다. 12절을 보면 노아가 또 7일을 기다린 뒤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까마귀와 비둘기의 행동을 통해 땅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분류되지만(레 11:13-15), 그런 분류가 곧 도덕적으로 악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부정함'과 '악함'을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욥기에는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먹이를 공급하신다(욥 38:41). 또한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며, 들짐승과 울부짖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다(시 147:8-9). 더 나아가,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사용하여 그에게 음식을 공급하셨다(왕상 17:4-

6). 이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된 까마귀조차도 자신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러한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 까마귀는 단지 율법적으로 헌물로 드릴 수 없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일 뿐이다. 그것은 의식적 구분에 관한 것이지, 그 존재 자체가 악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까마귀를 부정하다는 이유만으로 악한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 구분을 넘어서는 것이다.

비둘기는 정결한 새로 간주된다. 정결한 새들은 먹을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으며(신 14:11) 비둘기는 헌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정결한 새임을 알 수 있다(창 15:9; 레 1:14; 12:8). 신약 성경은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요 1:32)라고 기록하여 비둘기를 성령님의 상징으로 나타내며, 예수님께서는 비둘기를 무해한 존재로 말씀하기도 하셨다(마 10:16). 히브리어 '요나'(Yonah, 영어 Jonah)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며 대언자 요나의 이름이기도 하다(욘 1:1).

성경에는 집비둘기(pigeon)와 산비둘기(turtledove)가 모두 언급되며, 두 종류 모두 헌물로 드릴 수 있었다. 비둘기는 희생 헌물이 되는 유일한 새이다. 레위기는 범법 헌물이나 정결례의 헌물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도록 규정한다(레 5:7; 12:2–8). 여인이 출산 후 정결례를 행할 때 원래는 어린 양을 드려야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경우 비둘기 두 마리로 대신 드릴 수 있었다. 한편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난 후 정결례를 위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드렸다(눅 2:22–24). 이는 그들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창세기 8장에 등장하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 우리는 두 새가 서로 다른 특성과 역할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부정한 새인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나다니다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으나 정결한 새인 비둘기는 자리를 못 찾자 다시 돌아왔다. 이레 뒤에 다시 내보내졌을 때는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와 희망의 징표를 보여 주었다. 마지막에는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땅

이 회복되었음을 알렸다. 두 새 모두 노아에게 봉사했다.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성품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며 각기 다른 특성과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10절과 12절에는 '이레를 더 머무른 뒤'라는 표현이 반복된다. 이는 당시에도 이미 일주일 단위의 주기(週期) 개념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일과 연결된다(창 2:1-3). 이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주기와 안식일 개념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11절에는 "보라."라는 감탄사가 원문에 포함되어 있어 상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둘기가 입에 물어 가져온 올리브 잎사귀는 물에 떠다니던 것이 아니라 올리브 나무에서 '물어뜯은 잎사귀'였다. 올리브 나무는 생명력이 매우 강하여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났다는 것은 땅이 생명을 회복하고 있다는 확실한 징조였으며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있는 모습이 기독교 전통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기원이다.

12절을 보면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또다시 기다린다. 노아는 서둘러 결론을 내리거나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는 인내의 모범이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조급함인데, 특히 인터넷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가 즉시 퍼지고 빠른 반응을 요구받는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 노아의 태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자세를 잘 보여 준다.

창세기 8장 11절은 비둘기가 노아에게 돌아올 때 그것의 입에 물어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었다고 기록한다. 여기에서 '그것의 입'이라는 표현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in her mouth'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것

을 '그녀의 입'이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어와 영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다. 히브리어에서는 명사의 성(性)에 따라 대명사가 결정되며 새, 나라, 땅, 도시와 같은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여성형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둘기를 가리키는 대명사 역시 자연스럽게 여성형으로 연결된다. 이는 문법적 일치일 뿐 실제로 그 대상이 여성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다.

영어에서도 her는 반드시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영어 사전에도 배, 나라, 자동차 등 무생물이나 특정 대상을 가리킬 때 her를 사용하는 용례가 실려 있다. 예를 들어 선박을 가리킬 때 "She is a fine ship." 또는 'her deck'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어에서 흔히 쓰이는 관용적 표현이다. 영어 성경 역시 이러한 히브리어의 문법을 반영하여 이 구절에서 비둘기에 대해 her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her가 반드시 여성 인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은 영어 자체의 용례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어에는 이러한 문법적 성 구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직역하여 '그녀'라고 옮기면 오히려 의미 전달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다. 'in her mouth'를 근거로 이 비둘기가 암컷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이 비둘기의 성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앞서 살펴본 대로 히브리어에서 비둘기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여성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문법적 성의 일치일 뿐이며 그 비둘기가 암컷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문법적 특성에서 끌어내어 주장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문맥과 언어 구조에 맞게 '그것의 입'으로 옮기는 것이 정확하다.

이것은 단순한 번역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원어의 문법적 특성과 수용 언어의 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의 'in her mouth'를 근거로 비둘기의 입을 '그녀의 입'으로 번역해

야 한다는 주장은 히브리어와 영어 두 언어 모두의 문법적 특성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바람직한 번역이라 하기 어렵다.[1]

8:13 제육백일년 첫째 달 곧 그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떠나 바싹 말랐으므로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으며 14 둘째 달 곧 그달 이십칠일에 땅이 말랐더라. 15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또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18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왔고 19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날짐승과 무엇이든지 땅에서 기어 다니는 것은 다 그것들의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13절은 '제육백일년 첫째 달 곧 그달 첫째 날', 즉 새로운 해의 첫날에 물이 다 말랐음을 보여 준다. 노아가 눈으로 봤을 때는 지면이 말랐지만 거주하기에는 아직 적합하지 않았다. 이어서 14절은 '둘째 달 곧 그달 이십칠일에' 땅이 말랐다고 말한다. 즉, 노아는 57일을 더 기다렸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할 때 정확히 57일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때는 제600년 2월 17일이고 방주에서 나온 날은 제601년 2월 27일이다. 따라서 전체 기간은 371일로, 이 기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방주에 머물렀다. 노아는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를 기다렸다. 지면이 말랐음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까지 방주 안에 머문 노아의 모습은 참된 믿음과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 준다.

둘째 달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1. 이에 대해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한국어판 킹제임스 성경 분별하기」 무료 PDF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keepbible.com/Pds1/View/5iU

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동의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아래 있던 자들이 새로운 시대 속으로 나아가는 순간을 보여 준다.

16절은 단순히 며느리들이라고 하지 않고 '너와 함께한'이라는 표현을 덧붙인다. 이는 노아와 더불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있었던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강조적 표현이다. 그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밑에서 보존된 자들이다.

이어지는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명령과 동일하다. 타락 이후 다산은 고통과 수고를 동반하는 것이 되었지만(창 3:16-19),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며 다시 이 복의 명령을 선포하신다.

18-19절에는 노아의 즉각적인 순종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다. 모든 짐승과 기는 것과 날짐승 역시 '그것들의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이 표현은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 때부터 각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고, 그 질서가 보존되고 지속되도록 하셨다. 홍수 심판 속에서도 이 질서는 무너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분명히 유지되었다. 이는 생명의 기원이 무질서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은 단순히 홍수가 끝났음을 알리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장면이다.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 노아에게 다시 주어진 것은, 노아가 새 세상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작 역시 궁극적인 완성을 향한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

한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을 증언한다(고전 15:45). 요한계시록 21장 1-5절은 그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바라보게 한다.

2.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8:20-22)

8:20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해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21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이후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후로는 전에 행한 것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치지 아니하리니 22 땅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 가장 먼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해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다. 20절은 성경에서 제단(altar)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구절이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기 위해 제단이 필요했고 노아는 새로운 세상의 출발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을 때 흙으로 만들라고 하셨으며 돌로 쌓을 경우에도 정 같은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고 하셨다(출 20:24-25).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인간의 기술이나 장식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뜻이다. 사람이 돌을 다듬는 순간 인간의 의도와 자랑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규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전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는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그대로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따라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단을 쌓고 경배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경건하게 열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만 하며(요

4:24)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에 있다. 예배 공간은 단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교제하는 장소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영향을 받아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며 구약의 성전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신약 시대에는 성전과 제단과 제사장 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모든 성도는 그분 안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말씀과 순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노아가 드린 번제 헌물은 레위기에 언급된 다섯 가지 헌물 중 첫 번째 것으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한다(레 1장). 번제 헌물은 단순히 짐승을 바치는 헌물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고백이다. 노아의 번제 헌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기에 그는 감사의 희생물을 드렸다. 둘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헌신의 약속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롬 12:1)라고 말한다. 이는 번제 헌물이 단지 과거의 제단에서 드려진 행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 헌신의 모형임을 보여 준다.[2]

노아가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린 행위는 훗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은 것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창 11:1-4). 제단을 쌓은 노아의 모습은 믿음과 순종의 모범이며 탑을 쌓은 사람들의 모습은 교만과 불순종의 상징이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기뻐하시고 탑을 무너뜨리신다. 우리 역시 구원에 감사하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번제 헌물을 드려야 한다.

21절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고 기록한다. 이는 하나님께

2.「레위기: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무료 PDF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keepbible.com/Pds1/View/67K

서 노아의 헌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는 사실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헌물을 받으실 때 외적으로 분명한 방식으로 응답하신 사례들이 있다. 레위기 9장 24절에서는 아론이 드린 번제 헌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것을 사르고,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헌물을 태운다. 이러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때, 노아의 번제 헌물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창세기 본문은 그 구체적인 방식을 기록하지 않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받으셨음을 선언한다.

이와 같은 원리는 창세기 4장 4-5절에서도 나타난다. 아벨의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 방식은 자세히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결국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각적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헌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신적 승인, 곧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인정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물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 레위기 26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 향기를 맡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순종 없는 예배를 거부하신다. 아모스 5장 21-22절에서는 더욱 강하게 "내가 너희의 명절들을 미워하고… 너희의 헌물을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선언하신다. 이는 외형적인 예배가 아무리 화려해도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사 1:10-15).

결국 노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 혹은 장소의 웅장함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진실한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에서 나온다. 오늘날 일부 교회들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영향을 받아 예배당 내부를 스테

인드글라스나 조각상, 금장식 등으로 꾸며 사람의 시각과 감정을 자극하려 하지만, 신약 시대의 교회는 그러한 외형적 장엄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배당의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순종 중심의 예배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헌물은 전적으로 성도들의 속 중심과 태도에 달려 있다. 외형은 갖출 수 있지만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해도 바른 마음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이것은 특정 시대에만 적용되는 교훈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보여 주는 분명한 원칙이다.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신 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후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말씀이다(창 3:17).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의 심판을 반복하지 않으시겠다는 은혜의 선언이기도 하다. 이 말씀은 로마서 말씀과 연결된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롬 8:19–22).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신다(창 6:5; 롬 1:21). 이는 성경이 인간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타락해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 말씀이다. 사람은 수태될 때부터 죄 가운데 있으며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선포한다. 여기에서 '악하다'는 표현은 단순한 도덕적 결함이나 사회적 범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근본적 타락과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의미한다(마 7:11; 렘 4:22). 인간은 이러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

다윗은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시 51:5)라고 고백하며 인간의 본성이 죄 가운데서 형성되었음을 인정한다. 솔로몬은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라고 기록했다. 이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아이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함을 보여 준다.

성경은 사람의 전 인격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사람이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것은 악하며(창 6:5),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악하다(사 55:7-8). 혀와 입은 악하고(롬 3:13-14),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며(롬 3:18),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둔하다(행 28:27). 사람의 손은 불법으로 더럽혀졌고(사 59:3),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롬 3:15). 사람은 악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며(렘 16:12),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사 55:7-8). 이처럼 성경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상태를 명확히 드러내지만(롬 3:10, 23), 동시에 그러한 인간의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다(요 14:6; 롬 3:24-25).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마지막 때에 이 땅이 다시 심판받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한다.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질 것이며… 그날에는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벧후 3:10-12).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다(창 9:8-17). 홍수 심판은 역사적 사실로 주어졌고 마지막 심판은 불로 이루

어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동시에 성도들에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준비하라는 경고로 주어진다. 무지개가 은혜의 증표라면, 불 심판의 약속은 공의의 경고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야 한다.

22절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며 계절과 시간의 지속성에 대한 선언을 담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그 질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임을 보증하는 말씀이다. 성경은 이미 해와 달과 별들이 계절과 시기를 구분하는 용도로 창조되었다고 기록하지만(창 1:14–18), 이 말씀은 홍수 이후에도 그러한 질서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즉,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도 창조 세계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일정한 질서와 주기 속에서 유지하시겠다는 언약적 보증을 주신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단순한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지속적으로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말씀이다.



| 창세기 9장 |

노아 언약과 무지개의 약속

창세기 9장은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새로운 질서를 간결하게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다. 또한 모든 짐승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처음으로 육식을 허락하시되 피는 생명이므로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며 사형 제도를 세우셨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뿐 아니라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그 표징으로 주셨다. 한편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었을 때, 함은 이를 조롱하였으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태도로 그 수치를 덮었다. 이에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였다. 이 장은 홍수 이후의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언약이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 이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1.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9:1–17)

9:1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2**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너희에 대한 무서움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에게 있으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3**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식구들과 모든 짐승과 날짐승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다(창 1:28; 8:17). 이 명령은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과 동일한 위임이다. 노아는 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사명을 다시 받았으며, 그런 점에서 아담 이후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을 여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적용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성경대로 믿으려는 성도들 가운데는 자녀를 많이 두는 가정이 적지 않다. 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지상 명령으로 받아들이며,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된 자녀들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아담과 노아의 경우에는 뚜렷한 평행 구조가 나타난다. 이 두 인물은 각각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대표자로서, 성경은 이들을 중심으로 동일한 영적 구도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첫째, 두 사람 모두 벌거벗음을 통해 죄와 수치가 드러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담은 타락한 뒤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달았고(창 3:7), 노아는 포도주를 마신 뒤 벌거벗은 채 장막 안에서 수치를 드러냈다(창 9:21). 이처럼 두 인물의 실패는 모두 벌거벗음의 모티프를 통해 표현되며, 타락한 인간 본성이 새로운 시작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됨을

나타낸다.

둘째, 두 사람의 아들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대조 구조가 나타난다. 아담의 아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서로 대조를 이루듯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에서도 셈과 함이 대조를 이룬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악과 의, 저주와 복의 흐름을 대표하는 것처럼, 셈과 함 역시 이후 인류 역사에서 서로 다른 영적 계보를 드러내는 대표로 나타난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창 9:25), 셈은 복을 받는다(창 9:26). 성경은 이처럼 모든 자손을 나열하기보다, 구속사적 의미를 지닌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보여 준다.

이러한 평행 구조는 단순한 가족 기록이 아니다. 아담 이후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되는 인류 역사 속에서도 동일한 영적 구도, 곧 두 길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의인의 계보와 악인의 계보는 새로운 시작 속에서도 함께 나타나며, 이 대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대립이라는 더 큰 구속사적 흐름을 예고한다.

2절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셨다고 기록한다.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라는 말씀은 인간이 창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는 창조 때 아담에게 주어졌던 통치권(창 1:28)이 노아를 통해 홍수 이후 인류에게 다시 확인되고 회복된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차이가 있다. 창조 당시에는 인간과 짐승들 사이에 두려움이 없었으나, 타락과 홍수 이후에는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죄로 인해 변화된 창조 질서의 현실을 반영한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처음으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신다. 이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자, 호랑이, 고양이와 같이 오늘날 육식 동물로 알려진 짐승들도 채소와 과일을 먹으며 살았다. 모든 생물이 초식성이었고,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사람을 두려

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처럼 육식이 처음 허락된 사실은 죄의 영향이 인류와 창조 세계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인간은 이제 동물의 생명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죄와 구속의 구조가 역사 안에서 점차 드러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질서의 변화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장차 천년 왕국에서 창조 질서는 완전하게 회복된다. "이리도 어린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사 11:6-7),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사 65:25). 이런 말씀들은 모든 동물들이 다시 초식성으로 돌아가는 시대, 곧 에덴동산의 회복된 질서가 도래할 것을 보여 준다.

그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에서는 사람의 수명도 회복된다. "그때부터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아이가 백 세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죄인은 백 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사 65:20). 이는 그때에 수명이 다시 창조의 초기처럼 천 년 가까이 연장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땅의 질서 전체가 회복될 시대가 올 것을 보여 준다. 노아 이후 시작된 이 죄의 질서는 결국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완전히 극복되고 회복될 것이다.

9:4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인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5**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인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6**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7**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제 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더 깊이 살펴보자. 성경에서 피는 단순한 신체 구성 요소가 아니라 생명 자체를 상징하며, 구속사의 핵심 주제로 이어진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식 허용과 함께 중요한 제한, 즉 고기를 그것의 생명인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라는 제한을 두셨다. 이는 피가 단순히 육체의 일부가 아니라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레 17:11).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속죄를 위해 제단에 드려야 하는 것으로 특별히 구별하셨다.

구약 시대의 헌물 및 희생물 제도에서 짐승의 피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없는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죄를 덮는 임시 속죄가 이루어졌다.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안에서 죄인을 위한 상징적 희생으로 기능했으며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완전한 속죄의 피를 예표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구약 율법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신약 교회 시대가 시작된 이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권면했다(행 15:29). 은혜 시대의 초대 교회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유지된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말세 때의 거짓 교사들이 결혼과 어떤 음식물을 금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딤전 4:3-4). 이 구절은 음식에 대해 보다 자유로운 태도를 보여 주며, 감사함으로 먹는 자는 정죄받지 않는다고 밝힌다.

이 두 본문으로 인해 음식에 대한 견해가 나뉘기도 한다. 행 15:29에 따라 피를 여전히 피해야 한다고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딤전 4:3-4에 따라 모

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정죄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한국 음식 중에서 피를 재료로 쓰거나 목매어 죽인 동물을 사용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해석의 차이가 적용된다.

딤전 4:3-4가 행 15:29 이후에 주어진 점진적 계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견해도 충분히 타당하다. 이는 특정 음식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 흐름을 따라 해석하는 방식이다.

성경의 음식 규례는 시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 자유는 남을 실족하게 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사람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사형 제도를 공식적으로 제정하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에, 그 생명을 임의로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침범하는 중대한 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해한 자의 생명을 반드시 요구하시겠다고 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며, 사회 질서와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제도이다.

물론 모든 살인이 같은 성격을 가지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동기와 상황을 고려하시며,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는 도피 도시 제도를 통해 긍휼을 베푸셨다. 이 제도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으로부터 보호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장치였다(민 35:9-28; 신 19:1-13). 예를 들어,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 옆 사람을 죽게 한 경우처럼 살인의 의도가 없었을 때, 그 사람은 도피 도시로 피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신 19:5). 이는 공의와 긍휼이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법이었다.

이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이어진다. 바울은 자기가 범죄자이거나 죽을 짓을 하였다면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하며(행 25:11) 죽을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함을 인정하였다. 이는 사형 제도가 신약 교회 시대에도

폐지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정부에 이 공의를 집행할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롬 13:1-4). 정부는 악을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기관이며, 그 권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형 집행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점점 인본주의적 사상에 치우쳐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라는 감성적 논리로 사형 제도를 부정하면서,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거나 중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한 공론화와 토론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반드시 자기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야 한다. 특히 이 명령은 모세 율법처럼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아 언약의 일부로서 노아의 모든 후손, 곧 온 인류에게 주어진 보편적 법이다. 따라서 사형 제도는 특정 민족이나 시대에 국한된 제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므로(창 1:26-27),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아담 이후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는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다(창 5:1-2). 따라서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 흘림은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복수하지 않으셨다(창 4:8-15). 그러나 노아의 대홍수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격이 곧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었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셨다. 이 피 흘림의 역사는 마지막 때까지 이어진다.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진멸하시며(계 19:19–21),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신다. 대언자 이사야는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 "땅도 자기 피를 드러내며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사 26:21)라고 말한다. 이것은 땅속에 감추어진 모든 피 흘림이 마침내 드러나고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형 제도를 정하신 목적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법이며, 사회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다.

성경은 피 흘림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흐름으로 다룬다. 첫 번째 피는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 짐승이 희생되며 흘려졌다(창 3:21). 그 피는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 피는 아벨의 피다. 아벨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올바른 헌물을 드렸으나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창 4:5–8).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고 기록한다(히 12:24). 이 모든 피 흘림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단순한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이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들의 용서를 받고(골 1:14), 화평을 얻고(골 1:20), 의롭다고 인정받고(롬 5:9), 깨끗하게 되고(요일 1:7),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히 9:14), 구원을 받는다(엡 2:13).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외적 속죄를 넘어 우리의 내적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행 20:28)라고 부른다.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로서 거룩하며 순결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 몸이 무덤 속에서 썩지 않은 것은(시 16:10; 행 2:25–27, 31) 그분 안에 아무런 죄도 없었기 때문이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시작하고(창 3:21),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다(요일 1:7).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강조되는 중심 주제는 피를 통한 속죄이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라고 하시며 1절의 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다(창 1:28; 8:17; 9:1). 이 반복을 통해 그 사이에 위치한 2-6절, 곧 피와 살인과 사형에 관한 엄중한 법 전체를 감싸는 수미상관 구조, 곧 같은 말로 시작하고 끝맺는 구조를 이룬다. 즉,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죽음과 심판에 관한 법을 에워싸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확장과 충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창세기 전체를 통해 반복되는 이 말씀은 신약에 이르러 대위임령(마 28:19-20)으로 이어지며, 육적 번성의 사명은 영적 번성의 사명으로 확장된다.

9:8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 보라, 나 곧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10**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의 *창조물과 세우리라.* **11**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끊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2**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14**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보이면 **15**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 사이에 있는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16**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 사이에 있는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시며 **17**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8-17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노아 언약을 주시는 장면을 기록한다. 이 언약은 노아 개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방주에서 나온 모든 날짐승, 가축, 땅의 모든 짐승들, 곧 전 인류와 모든 창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포괄적인 언약이다(창 9:9-10).

9절의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는 표현에서 '내 언약'은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하시는 언약임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언약은 쌍방 간의 합의이지만 여기에서는 인간의 조건이나 응답이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은혜 언약이다. 히브리어로 언약을 뜻하는 '베리트'(berith)는 '쪼개다'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고대 중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두 당사자는 쪼갠 짐승 사이를 함께 지나가며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나도 쪼개지리라고 다짐하는 상징적 행위를 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쪼개어 마주 보도록 놓게 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고 하나님만 홀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다(창 15:9-21). 이는 언약의 성취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에 달려 있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사람의 순종이나 공로가 조건이 되지 않는다. 노아 언약도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시고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무조건적 언약이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모든 육체를 끊고 땅을 멸하셨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노아 홍수가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음을 증언하는 구절이다.

12-17절은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에 관한 말씀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기억하시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 여러 창조과학자들은 홍수 이전에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비가 내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창세기 2장 5-6절은 창조 초기 상태를 묘사하는 구절이지만, 홍수 이

전 지구의 기후 환경이 오늘날과 달랐다는 견해는 여러 근거로 제시된다.

창세기 1장 6-7절은 창조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을 두셨다고 기록하는데, 이 물이 지구를 둘러싼 보호막 역할을 하여 전 지구적으로 온화하고 균일한 기후를 유지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창세기 7장 11절은 홍수가 단순히 비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시작되었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그동안 닫혀 있던 무엇인가가 처음으로 열렸음을 시사한다. 더하여 홍수 이전 족장들의 수명이 900세 안팎이던 반면 홍수 이후 급격히 단축된 사실 역시, 홍수를 기점으로 지구 환경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 주는 정황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할 때, 홍수 이전 환경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거나 적어도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강우가 흔하지 않았다는 견해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그렇다면 홍수 이후 처음으로 비가 내리고, 그 비가 그친 후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에 의해 형성되는 무지개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라고 하실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I do set my bow in the cloud."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두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새로 형성된 대기 환경 속에서 무지개라는 새로운 자연 현상을 그분의 언약의 표징으로 지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무지개를 홍수 이후 처음 나타난 새로운 현상으로 이해할 때, 그것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약속에 눈에 보이는 확증을 더하시기 위해 이 가시적 표징을 주신 것이다.

노아 언약은 창조 세계 전체의 보존에 관한 언약이다. 이후 아브라함, 다윗과 맺으신 언약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은 모두 이 노아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 구속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심화시켜 간다. 노아 언약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 자체가 존속할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이 언약은 이후 모든 구속 언약의 토대가 된다.

2. 노아의 아들들(9:18–29)

9:18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19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며 그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니라. 20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21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덮지 않은 채 있었더니 22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밖에 있는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23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었는데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24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는 25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26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27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실 것이요,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할 것이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28 홍수 이후에 노아가 삼백오십 년을 사니라. 29 노아의 전 생애는 구백오십 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18–19절은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성경은 노아의 세 아들을 소개하면서 굳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말을 덧붙인다. 이는 단순한 족보 정보가 아니다. 성경은 곧이어 전개될 사건, 즉 함이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린 일과 그로 인해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사건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삽입하였다. 즉, 독자로 하여금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자연스럽게 준비하도록 하는 복선이다. 이후 가나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심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 저주의 뿌리가 바로 여기 함에게서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미리 밝혀 둔다.

19절의 "그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사람들이* 퍼졌다."라는 말씀은 현재 지

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퍼졌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는 홍수 이후 인간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증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함의 후손들은 주로 아프리카와 이집트 지역에 정착했고, 셈의 후손들은 유대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특히 셈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졌다.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으로 퍼져 나갔으며 후대에는 아메리카 대륙까지 확장되었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실 것'(창 9:27)이라고 하신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야벳의 후손들은 땅끝까지 퍼져 강대한 문명과 나라들을 이루었다.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된 예언임을 보여 준다.

어떤 이들은 "왜 사람의 외모와 피부색이 서로 다른가?"라고 질문한다. 이는 유전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유래하며, 다양한 유전자 조합과 환경 적응, 지역적 특성에 따라 피부색, 머리카락 색, 체형 등이 다양해졌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멜라닌이 많은 피부색이 유리하고, 북유럽에서는 비타민 D 합성이 잘되도록 연한 피부색이 생존에 유리하다. 개가 본래 한 종류였지만 다양한 품종으로 나뉘었듯이, 인류도 한 혈통에서 나왔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다양한 특징을 가진 민족과 인종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두 같은 인간이며, 같은 조상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게서 나왔다. 그 어떤 인종도 본질적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류의 기원이다.

20절은 노아가 농부(husbandman)가 되어 포도원을 세운 것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농부는 단순히 땅을 일구는 사람을 넘어, 경작하고 가꾸며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노아는 홍수 이후 새로운 세상의 첫 세대 대표자로서 땅을 경작하고 포도원을 세우며 생업을 시작했다.

21절에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던 사건이 기록된다. 이 장면은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노아는 홍수 이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의인이었으나, 술에 취해 실수를 범하

게 된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엡 5:18)라고 경고한다.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하는 것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전 10:1)라는 말씀처럼 아무리 명예롭고 존경받는 인물도 방심하는 순간 시험에 빠질 수 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도 동일한 원리를 보여 준다(삼하 11:1–3). 방심할 때 시험이 온다.

22절에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린 것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단순한 시각적 봄을 넘어, 주목하고 가볍게 여기며 조롱의 태도로 본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두 형제에게 고하였다'에서 '고하다'는 말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알린다는 뜻이다. 이것은 문맥상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의도적으로 퍼뜨렸음을 나타낸다.

23절을 보면 함의 행동과 대조적으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는다.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수치를 가리는 공경의 행위이며(레 18:6–7), 함의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24–25절에서 노아는 포도주에서 깨어나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포한다. 노아의 저주는 함 전체가 아니라 가나안에게 집중되며, 이는 장차 가나안 족속에게 임할 역사적·영적 운명을 미리 보여 주는 예언적 선언이다.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에 대해 성경은 명시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다만 본문의 흐름과 성경 전체의 구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이 저주는 무엇보다 가나안 족속의 미래를 향한 예언적 선언으로 보는 것이 본문에 가장 충실한 해석이다. 가나안 땅은 훗날 불신앙과 죄악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 족속은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당하게 된다(신 7:1–2;



가나안을 저주하는 노아

20:17; 수 6:1–21; 10–11장). 또한 성경은 가나안이 그 사건에 일정 부분 관여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는 본문이 직접적으로 밝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가나안이 저주의 대상이 된 배경을 설명하려는 전통적 해석 가운데 하나이다. 나아가 성경에서는 한 인물이 그 후손 전체를 대표하는 방식이 자주 나타난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로서 함의 계보를 대표하는 인물로 지목되었고, 그를 통해 함의 후손 가운데 특정 계열에 임할 심판이 선언된 것이다.

함의 네 아들 가운데 한 명인 가나안은(창 10:6) 이 저주대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더욱이 이 저주의 의미는 구약 시대의 정복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종말의 천년 왕국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스가랴서 1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참으로 예

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군대들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솥들 중에서 취해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군대들의 주의 집에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천년 왕국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되며,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주의 집에 발붙일 수 없다. 노아가 선언한 저주가 구약 시대의 정복 전쟁을 거쳐 천년 왕국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가나안을 좋게 보지 않으시며, 그 계보는 구속의 역사 전체를 통해 부정적 위치에 놓인다.

그러나 혈통과 저주가 개인의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어떤 민족도 차별이 없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이다(갈 3:28). 어떤 혈통에서 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롬 10:13). 가나안 땅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메시아의 계보에 든 것(수 2장; 마 1:5; 히 11:31)이 그 대표적인 증거이다.

노아의 선언은 가나안 족속이라는 집단의 역사적 운명에 관한 예언이지, 그 후손 개개인의 영혼에 영적 저주가 유전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경은 "자식들로 인해 아버지들을 죽이지 말고 아버지들로 인해 자식들을 죽이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니라."(신 24:16)라고 분명히 가르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혈통의 어두운 과거를 핑계로 절망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누구든지 자기 혈통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의지하여 안주할 수도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의 믿음에 달려 있다.

26-27절에서는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이 이어진다.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는 말씀은 셈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됨을 보여 주며,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한다. 셈의 계보를 따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그 후손에서 이삭과 야곱, 다윗을 거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게 된다(마 1:1-16; 눅 3:23-38). 노아의 이 짧은 선언 속에 이미 구속의 역사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셈이다.

야벳은 크게 번성하여 셈의 장막들에 거하게 되리라는 축복을 받는다. 27절은 야벳의 후손이 수적으로 크게 번성하여 셈에게 주어진 영적 유산에 동참하게 됨을 예고한다. 이는 훗날 복음이 야벳의 후손, 곧 유럽과 서구 세계로 확장되어 들어갈 것을 예표로 보여 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사도 시대 이후 복음은 셈의 후손인 유대인의 영역을 넘어 야벳의 후손인 그리스와 로마, 더 나아가 유럽 전역과 서구 세계로 확산되었고, 이방인이 셈에게 주어진 언약의 복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엡 2:11–13; 3:6). 노아의 예언적 축복이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하여 정확히 성취된 것이다.

주목할 점은 가나안이 종이 될 것이라는 선언이 25절, 26절, 27절에 걸쳐 세 번 반복된다는 사실이다(창 9:25, 26, 27). 이는 이 심판의 확실성과 무게를 강조하는 표현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민족 간의 구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며,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된다. 다만 구속사의 관점에서 육적인 이스라엘, 곧 중동 지역의 유대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을 통해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될 것이다.

28절은 노아가 홍수 이후 350년을 더 살았고 총 수명은 950세였음을 보여 준다. 그는 므두셀라(969세, 창 5:27), 야렛(962세, 창 5:20)에 이어 세 번째로 오래 산 인물이다. 연대 면에서 보면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약 2년 전에 죽었으므로 두 사람은 직접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노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같은 시대를 살았으며, 홍수 이후 초기 인류 역사 속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긴 수명을 고려하면, 바벨탑 사건과 니므롯의 활동과 같은 홍수 이후 초기 사건들도 서로 멀리 떨어진 시기가 아니라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개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한편 홍수 이후 세대들의 수명은 전반적으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다. 셈은 600세, 아르박삿은 438세, 에벨은 464세를 살았으며, 이후 아브라함은 175세, 모세는 120세를 살았다. 특히 셈은 600세를 살았기 때문에(창

11:10–11), 아브라함이 태어난 뒤에도 상당 기간 생존하여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다. 창세기 11장 26절만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람을 낳은 것처럼 읽히지만, 창세기 11장 32절(데라가 205세에 죽음), 12장 4절(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임),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절(아브람이 데라가 죽은 뒤 하란을 떠남)을 함께 고려하면, 아브람이 태어났을 때 데라는 130세였던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창세기 11장 26절은 아브람을 가장 먼저 언급했을 뿐, 실제 출생 순서를 기록한 것은 아니며, 그는 삼형제 가운데 막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계산에 따르면 셈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뒤에도 150년 동안 생존하였으며, 두 사람은 오랫동안 같은 시대를 살았다. 이는 홍수를 직접 경험한 세대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랜 기간 같은 시대를 살았음을 보여 주며, 창세기의 족보가 단절된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이어지는 역사적 연속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잘 드러낸다.

이와 같은 수명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제시된다. 궁창 위의 물이 사라지면서 자외선과 우주 방사선이 지표면에 그대로 도달하게 된 환경적 요인, 노아의 세 아들이라는 좁은 유전자 풀에서 인류가 다시 시작됨으로써 세대를 거듭할수록 유전적 손상이 누적된 유전적 요인, 그리고 홍수 이후 처음으로 육식이 허락된(창 9:3) 식생활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 요인들의 근저에는 홍수를 기점으로 한 지구 환경의 근본적 변화와 그 위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수명이 점차 단축되어 간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죄의 누적적 결과로서의 사망의 권세가 인류 역사에 더욱 깊이 작용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창세기 10장 |

민족들의 계보와 분산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로부터 형성된 민족들의 기원을 기록한다.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과 북방 지역으로 퍼져 나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등의 민족을 이루었다. 종말론적으로 중요한 곡과 마곡도 이 계열에서 나온다.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와 이집트, 가나안 지역에 정착했으며, 특히 함의 손자 니므롯은 바벨에서 최초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자로 등장한다. 그는 바벨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이후 바벨탑 사건과 연결되는 흐름 속에 놓여 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여부스, 아모리, 히위 등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을 형성했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 계열에서 나왔다. 셈의 후손들은 히브리 민족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특히 에벨은 '강을 건너온 자' 라는 뜻과 연결되어 히브리라는 명칭의 기원과 관련된다. 이 셈의 계보는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핵심 혈통을 이룬다. 홍수 이후 이들 칠십 명의 후손으로부터 민족과 언어와 나라들이 형성되었으며, 창세기 10장은 그 결과를 제시하고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라는 원인을 설명하는 구조를 이룬다. 이 장은 인류의 기원

과 민족 분화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메시아 계보를 보여 준다.

1. 노아의 아들들(10:1)

10:1 한편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1절은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인류가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를 기록하는 장의 서두를 이룬다. 이 구절은 단순한 족보 소개가 아니라 창세기 9장 19절의 "그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니라."라는 말씀이 어떻게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서론이다.

창세기(Genesis)라는 말 자체가 기원을 뜻하듯이,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대홍수 이후 형성된 민족들의 기원에 대한 기록이다. 홍수 이전의 모든 민족은 멸절되었고,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세 아들과 그들의 아내들, 곧 여덟 사람을 통해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후 민족들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 형성되었다. 성경은 모든 민족이 이 세 계보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기록한다. 창세기 10장에는 셈의 자손 26명, 함의 자손 30명, 야벳의 자손 14명, 총 70명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들의 세대에 따라 그들의 민족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며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다."(창 10:32)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된다.

"세대들은 이러하니라."라는 표현은 창세기 전체에 반복되는 문체적 특징으로, 특정 인물의 계보와 그 후손의 전개를 소개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를 따라 창세기의 족보가 이어진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자가 자녀를 직접 낳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의 족보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마 1:2)와 같이 아버지 중심의 혈통 기록으로 전개된다.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다."라는 표현도 이러한 족보 서술 방식과 같은 맥

락이다. 이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창 9:1)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세 아들의 이름도 주목할 만하다. 셈은 '이름', '명성', '명예', '평판'을 의미하며, 히브리 민족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이해된다. 특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스라엘 민족은 셈의 계보에 속한다. 이처럼 셈이라는 이름에는 단순한 호칭을 넘어 명성과 계보가 이어지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함은 '따뜻하다', '덥다'를 의미하며, 그의 후손들은 실제로 더운 지역인 아프리카와 이집트에 정착했고 이로써 이름의 의미와 거주 지역의 특성이 서로 맞물린다. 성경에서 이집트를 시적으로 '함의 땅'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시 78:51; 105:23, 27). 물론 함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미스라임이 이집트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집트는 '미스라임의 땅'이라 할 수 있지만, 시적인 표현에서는 '함의 땅'으로 불린다.

야벳은 '증대', '확장'을 의미하며, 인도와 유럽 지역 민족의 조상으로 이해된다. 그의 후손들은 후대에 이르러 아메리카 지역까지 거주지를 넓혀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실 것이요."(창 9:27)라는 말씀처럼, 그 이름 안에 이미 확장의 의미가 담겨 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의 관계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 두 장을 단순한 시간 순서로 읽으면 혼란이 생긴다. 창세기 10장은 민족의 형성과 언어의 분화, 국가의 기원을 전체적으로 개괄하여 보여 주고, 창세기 11장은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 곧 바벨탑 사건과 언어 혼잡을 설명한다. 다시 말해 창세기 10장은 결과를, 창세기 11장은 원인을 기록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두 장은 연대기적 배열이라기보다, 같은 사건을 결과와 원인이라는 두 측면에서 나누어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창세기 10장의 배열 순서 역시 의미심장하다. 야벳의 자손이 먼저 나오고(창 10:2–5), 이어서 함의 자손(창 10:6–20), 그리고 마지막으로 셈의 자손(창 10:21–31)이 기록된다. 이는 성경의 일반적인 서술 방식으로, 덜 중요한 인물을 먼저 다루고 더 중요한 인물을 나중에 집중적으로 다루는 구조이

다. 이것은 에서의 세대(창 36장)가 야곱의 이야기 앞에, 이스마엘의 후손(창 25:12–18)이 이삭의 계보(창 25:19–28) 앞에 배치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러한 배열은 성경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셈, 함, 야벳의 자손을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메시아 계보를 보여 주시기 위함이다. 창세기 1–5장이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계보를 통해 메시아의 길을 제시했다면, 창세기 10장은 노아 이후 벨렉에 이르는 흐름 속에서 그 계보를 이어 간다.

다양한 민족과 나라, 지명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이 메시아 계보를 드러내는 데 있다. 셈, 함, 야벳 가운데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셈이다. 메시아 계보가 셈을 통해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는 셈의 계보가 마지막에 배치되고, 이어지는 11장에서 다시 자세히 다뤄진다.

함은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이집트 등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갈등을 이루는 민족들의 조상으로서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집트와 블레셋, 가나안 족속은 성경 전체에서 세상을 상징하거나 하나님의 백성과 대립하는 세력으로 나타나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주했던 민족들도 바로 함의 후손들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의 계보에 대해 많은 분량을 기록하신 이유이다. 반면 야벳의 후손들은 구약 성경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는데, 이는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과 직접 관련된 민족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그림처럼 생각해 보면, 노아라는 한 인물에게서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나오고, 그 세 아들로부터 수많은 가지가 뻗어 나가 민족을 이루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마치 하나의 큰 나무에서 세 개의 굵은 줄기가 나오고, 그 줄기마다 다시 수많은 가지가 퍼져 나가는 것과 같다. 창세기 9장 19절의 "그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니라."라는 말씀이 창세기 10장 전체를 통해 실제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2. 야벳의 세대들(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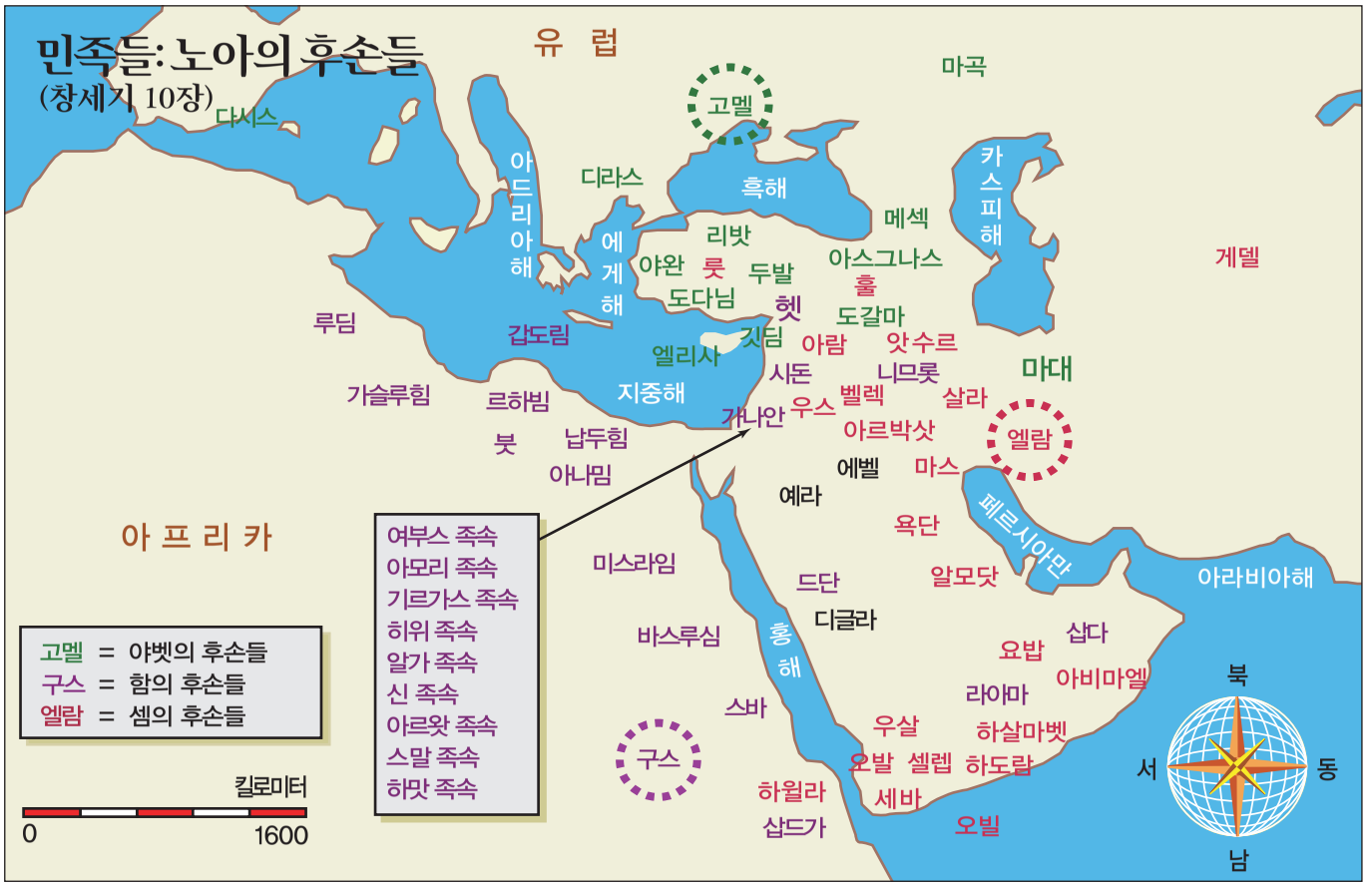
10:2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3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이며 4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더라. 5 이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섬들이 그들의 영토대로 나뉘었고 그들이 각각 자기 언어와 자기들의 가족에 따라 자기들의 민족대로 *나뉘었더라.*

2절에서는 야벳의 아들들이 소개된다.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 이 일곱 아들들로부터 유럽과 북방 지역의 민족들이 형성되었다.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쪽에 고멜, 북쪽에 마곡, 남쪽에 마대(메대)가 위치한다.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메섹이 있고, 흑해 위쪽에 디라스, 아래쪽에 두발이 자리한다. 특히 신약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리스는 구약에서 야완으로 나타나며, 야완의 후손 가운데 도다님도 포함된다.

3절에서는 고멜의 아들들로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가 소개된다. 아스그나스는 오늘날 게르만 계통, 곧 독일계 민족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도갈마는 튀르키예(옛 터키) 동부 지역에 거주했던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4절에서는 야완의 아들들로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 기록된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지역이며, 깃딤은 키프로스를 가리킨다. 키프로스는 오늘날에도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에서 갈등이 이어지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모든 기록을 종합해 보면, 야벳의 자손들은 지중해 연안 지역을 비롯해 북서 유럽, 북동 유럽, 알프스 지역, 러시아 근방, 그리고 일부 인도 지역까지 널리 퍼져 나간 민족들로 이해할 수 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인도의 힌두 문화권 민족들 역시 야벳 계열로 보는 견해도 제시되어 있다.


민족들: 노아의 후손들
(창세기 10장)
유 럽
아 프 리 카
다시스
고멜
마곡
디라스
흑해
아드리아해
에게해
카스피해
메섹
게델
리밧
야완
룻
두발
아스그나스
훌
도다님
헷
도갈마
루딤
갑도림
깃딤
아람
앗수르
엘리사
시돈
니므롯
마대
가슬루힘
르하빔
지중해
가나안
우스
벨렉
살라
엘람
아르박삿
붓
납두힘
아나밈
에벨
마스
예라
욕단
페르시아만
미스라임
드단
알모닷
아라비아해
디글라
바스루심
홍해
삽다
요밥
아비마엘
스바
라아마
우살
하살마벳
구스
욥발
셀렙
하도람
하월라
세바
삽드가
오빌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왓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
고멜 = 야벳의 후손들
구스 = 함의 후손들
엘람 = 셈의 후손들
킬로미터
0
1600
북
서
동
남

5절은 이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섬들이 그들의 영토대로 나뉘었고 그들이 각각 자기 언어와 자기들의 가족에 따라 자기들의 민족대로 나뉘었다고 마무리한다. 여기에서 '섬'은 단순히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접한 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성경적 표현이다. 유럽 대륙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성경은 이를 '섬들'로 표현한다. 이방 민족들은 각기 자기들의 영토와 언어, 가족과 민족을 따라 땅을 나누어 정착하였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고대 국가들이 형성된 기본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특정 조상으로부터 후손이 이어졌다. 둘째, 그 조상이 사용하던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물론 언어의 다양화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언어와 혈통을 중심으로 부족 단위의 민족들이 형성되었다. 이처럼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민족과 국가의 기원은 노아의 세 아들로 거슬러 올라가며, 성경은 이를 구체적인 이름과 지명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2절에 언급된 두발과 메섹, 그리고 마곡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민족들이다. 에스겔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스라엘 침공과 관련하여 이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사람의 아들아,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인 마곡 땅의 곡을 대적하여 네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겔 38:2),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겔 39:1). 이런 구절들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도 사탄이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계 20:8).

전통적으로 이 지역은 러시아와 연결되어 해석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곡과 마곡을 그 지역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곡과 마곡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연합 세력으로는 페르시아(오늘날의 이란, 셈의 후손), 에티오피아(구스, 함의 후손), 리비아(붓, 함의 후손) 등이 언급된다(겔 38:2, 5–6).

결국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민족들의 중심축은 야벳의 후손들이며, 셈과 함의 일부 민족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야벳의 후손들은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족들로 나타난다.

3. 함의 세대들(10:6-20)

10:6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7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이며 8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9 그가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10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네였으며 11 그 땅에서 앗수르가 나가 니느웨와 도시 르호봇과 갈라와 12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세웠는데 바로 그것은 큰 도시니라. 13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14 바스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는데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왔더라.) 15 가나안은 자기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16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17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18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는데 그 뒤에 가나안 족속들의 가족들이 널리 퍼졌더라. 19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는 네가 시돈을 떠나 그랄을 거쳐 가자로 갈 때에 *만나는 지역*이었으며 네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거쳐 라사로 갈 때에 *만나는 지역*이었더라. 20 이들은 그들의 가족과 언어에 따라 그들의 나라와 민족대로 함의 아들들이니라.

6-20절에서는 함의 계보가 집중적으로 기록된다. 함의 아들들 가운데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을,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붓은 이집트 서쪽의 리비아 지역을, 가나안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였다. 특히 가나안은 히브리어로 '케나안'(Canaan)이라 하며 '비천하다', '낮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내용과도 부합한다(창 9:25-26).

창세기 10장은 총 32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15절이 함의 계보에 할애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의 후손과 그 민족들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셨음을 보여 준다. 셈의 계보는 11장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어지므로 10장에서는 함에 대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된다.

7절에서는 구스의 아들들인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가 소개되며, 라아마의 아들들인 세바와 드단이 언급된다. 여기에서 하윌라는 아라비아 사막 지역을 가리키고, 세바와 드단은 아라비아 반도 남쪽 지역을 의미한다. 구스의 후손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된 사례가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온다(행 8:26-39). 이는 함의 후손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가 나왔음을 보여 주며 혈통이나 저주가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8-12절은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니므롯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그의 이름은 '강력한 자'라는 뜻이다. 그는 땅에서 처음으로 왕국을 세운 자이다. "그가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었으므로"라는 표현에서 '앞에서'는 '대적하다'의 의미를 포함한다.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권세를 행사한 자로, 단순히 짐승을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 두는 영적 지배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정치 권력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요세푸스를 비롯한 유대 역사가들도 니므롯을 바벨탑 사건과 연결하여 언급한다.

니므롯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이해된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 모으며, 거짓 종교 체계를 형성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장차 올 적그리스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 것이다(살후 2:3-

4; 계 13:4). 니므롯에서 시작된 바빌론 체제는 요한계시록의 큰 바빌론(계 17–18장)으로 이어지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종교·정치 체제의 원형을 보여 준다.

니므롯의 왕국은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네로 시작되었다(10절). 시날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의 비옥한 평야 지대를 가리키며, 바벨은 '혼잡', '혼동', '섞임'을 뜻한다. 에렉은 고고학적으로 우루크로 알려져 있고, 악갓은 고대 아카드 왕조의 수도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의 기록이 고대 역사 자료와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 준다.

11–12절의 경우 개역 성경은 니므롯이 나가서 니느웨와 르호봇과 갈라와 레센 등 여러 도시들을 세운 것으로 번역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앗수르가 나가 그런 도시들을 세운 것으로 번역한다. 이러한 번역 차이는 아시리아 지역까지 포함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 니므롯인지, 아니면 앗수르가 별도의 세력으로 분리되어 도시들을 건설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해석상의 차이를 낳는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히브리어 원문의 문법 구조상 동사 '나가다'의 주어는 그 바로 뒤에 위치한 '앗수르'이다. 따라서 가장 자연스럽고 정확한 독법은 '앗수르가 나갔다'이며, 니므롯을 주어로 삼으려면 본문에 없는 단어를 보충해야 한다. 이는 본문을 있는 그대로 옮기지 않고 번역자의 해석을 끼워 넣는 행위이다.

둘째, 앗수르는 같은 장 22절에서 셈의 아들로 명시되어 있다. 곧 앗수르는 함의 손자 니므롯과 전혀 다른 셈의 계보에 속한 독립된 인물이다. 본문이 앗수르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상, 이를 단순한 지명으로 격하시키고 니므롯의 활동 범위로 흡수시킬 근거는 없다.

셋째, 이렇게 읽을 때 신학적·역사적 함의가 분명해진다. 니므롯은 시날 땅에서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네를 세웠고, 그 땅에서 셈의 후손인 앗수르가 나가 니느웨와 르호봇과 갈라와 레센을 건설하였다. 이로써 함의 계열(바벨로니아)과 셈의 계열(아시리아)이 별개의 세력으로 등장하며, 후일 두 제국이

이스라엘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배경이 마련된다. 만일 니므롯 한 사람이 두 지역의 모든 도시를 세웠다고 하면, 이러한 계보적 구도가 흐려진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어 본문의 문법, 셈의 계보에 대한 명시적 기록, 그리고 함과 셈 두 계열의 분리된 발전이라는 본문의 구도를 종합할 때,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원문에 충실한 정확한 독법이다.

니므롯 이후 바빌론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흐름이 형성되었고, 이는 후대에 다양한 우상 숭배 체계로 발전해 갔다. 바빌론 종교는 단지 한 지역의 풍습으로 머무르지 않고, 인류가 흩어지면서 각 민족의 종교 속으로 형태를 달리하며 스며들어 갔다. 여신 숭배와 그 아들로 여겨지는 신적 존재에 대한 경배는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다롯, 이집트의 이시스와 호루스,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로마의 비너스 등 고대 근동과 지중해 세계 전역의 종교 체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성경은 '하늘의 여왕' 숭배(렘 44:15–19)와 담무스를 위한 애곡(겔 8:14) 같은 장면을 통해 이러한 종교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 준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은 하늘의 여왕에게 제물을 드리고 음료를 부으면서도 이를 평안과 번영의 비결로 여겼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예루살렘 성전 북문에서는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었다. 이는 바빌론에서 출발한 우상 숭배의 흐름이 하나님의 백성 한가운데까지 침투해 들어왔음을 보여 주는 충격적인 증거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큰 음녀 바빌론'으로 결집되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

13–14절에서는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스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 등 미스라임의 후손들이 언급된다. 이 가운데 가슬루힘과 갑도림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 보이며, 아모스 9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갑돌은 오늘날 크레테 섬으로 이해된다. 예레미야서 47장 4절과 스바냐서 2장 5절 역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 지방의 남은 자들' 혹은 '해변 거주민들 곧 그렛 족속들의 민족'이라 부르며 이들의 해양적 기원을 거

듭 확인해 준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지중해 동부의 섬과 해안 지역에서 기원한 해양 민족으로, 어느 시점에 가나안 남서부 해안 지대로 이주하여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의 다섯 도시를 중심으로 강력한 도시 연맹을 형성하였고, 일찍부터 철기 문명을 발달시켜 군사적 우위를 점하였다(삼상 13:19–22). 이러한 해양 민족적 배경은 그들이 가나안 토착 민족들과 구별되는 독자적 문화와 군사력을 갖추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킨 민족으로 성경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재판관(사사) 시대에는 삼손이 블레셋과 싸웠고(삿 13–16장),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는 사건이 일어났다(삼상 4장).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였고(삼상 31장), 다윗은 어린 시절 골리앗을 물리치며 역사에 등장하였고(삼상 17장), 왕이 된 후 비로소 블레셋을 굴복시켰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블레셋은 분열 왕국 시대 내내 유다를 압박하는 세력으로 남아 있었으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끈질긴 적대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팔레스타인'(Palestine)이라는 명칭 자체가 '블레셋'(Philis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들이 그 지역의 역사에 남긴 흔적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 준다.

15–18절에서는 가나안의 아들들인 시돈과 헷이 먼저 언급된다.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 지역으로, 고대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으며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하신 기록이 있다(마 15:21; 막 7:24).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을 가리킨다. 이어서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왓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이 언급되는데, 이들은 여호수아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나안 족속들이다.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 여부스와 연결되며(수 15:8; 삿 1:21), 다

윗이 이를 정복하기 전까지 그곳은 가나안 족속의 도시였다(삼하 5:6–7; 대상 11:4–5). 아모리 족속은 요르단강 동쪽과 서쪽 산지에 걸쳐 거주했고, 히위 족속은 세겜과 기브온 지역에 살았다(창 34:2; 수 9:7).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한 이후 기브온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바로 히위 족속이다(수 9:3–21). 아르왓은 고대 페니키아의 섬 도시로서 해상 무역과 해군력으로 알려져 있으며(겔 27:8, 11), 하맛은 오늘날 시리아의 하마로, 성경에서 북쪽 경계를 나타낼 때 자주 언급된다(민 34:8; 수 13:5; 삿 3:3; 암 6:14).

19절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경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그것은 북쪽으로는 시돈에서 시작하여 남서쪽으로는 그랄을 거쳐 가자에 이르는 지역까지 포함되며, 남동쪽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에 이르는 범위로 설명된다. 시돈은 북쪽 경계, 가자는 남서쪽 경계, 소돔과 고모라는 남동쪽 경계에 해당한다. 가자는 오늘날 가자 지구로 불리는 지역으로, 현재까지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다. 이처럼 성경은 가나안 족속의 거주 범위를 매우 구체적인 지리 정보로 제시한다. 이 경계는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범위와 깊이 연결되어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을 뒷받침한다.



20절은 함의 후손들이 각각 그들의 가족과 언어, 나라와 민족에 따라 나뉘어 형성되었음을 정리하는 구절로 마무리된다. 함의 후손들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에티오피아 등 여러 지역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주했던 민족들도 이 계열에 속한다. 이들은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대립하

는 세력으로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혈통이 인간의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며, 그분 안에서는 어떤 민족도 차별이 없다(갈 3:28).

4. 셈의 세대들(10:21-32)

10:21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들의 조상이요, 연장자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도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22 셈의 아이들은 엘람과 앗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23 아람의 아이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24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더라. 25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었으며 26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벳과 예라와 27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28 오발과 아비마엘과 세바와 29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더라.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더라. 30 그들이 거하는 곳은 네가 메사를 떠나 동쪽의 산 스발로 갈 때에 *만나는 지역*이었더라. 31 이들은 그들의 가족과 언어에 따라 그들의 영토와 민족대로 셈의 아들들이니라. 32 이들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그들의 민족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며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21절에서 셈을 에벨의 모든 자손들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단순한 가계 설명이 아니라 장차 이어질 히브리 계보를 미리 드러내는 선언적 성격을 지닌다. 성경은 셈을 소개하면서 에벨을 앞세워 언급하는데, 이는 에벨이 히브리라는 명칭의 기원과 연결되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히브리는 영어로 Hebrew이며, 에벨의 뜻은 '건너온 자'이다. 곧 에벨이라는 이름에는 강을 건너온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으로 불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건너온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데려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말할 때 '강' 역시 유프라테스를 가리킨다(수 24:2-3).

따라서 에벨을 통해 히브리라는 명칭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셈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는 사실도 이 구절에서 강조된다. 메시아의 계보 역시 셈을 통해 이어지며,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 또한 셈과 에벨을 통해 선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셈이 '연장자 야벳의 동생'이라는 표현도 매우 중요하다. 킹제임스 성경은 야벳을 형으로, 셈을 동생으로 기록하는 반면, 개역 성경은 이를 반대로, 즉 셈을 야벳의 형으로 번역한다.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연대적 자료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노아는 오백 세였으며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창 5:32)라는 말씀은 세 아들이 동시에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창세기 11장 10절에 따르면 셈은 홍수 이후 2년이 되었을 때 100세였고,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다. 이를 역산하면 셈은 노아가 약 503세였을 때 태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야벳은 노아가 500세가 되었을 무렵에 태어난 장자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3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연대를 종합하면 야벳이 장자이고 셈은 둘째 아들로 보는 해석이 가장 일관된다. 이는 본문의 문맥과 성경 전체의 연대 흐름과도 잘 맞는다. 따라서 단순한 이름의 나열 순서에 의존하기보다, 구체적인 연대와 문맥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셈의 수명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점이 있다. 셈은 600세를 살았으므로(창 11:10-11), 연대상 아브라함(175세, 창 25:7)보다 약 35년을 더 살았다. 홍수를 직접 경험한 셈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일정 기간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사실은, 창세기의 족보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이어지는 역사적 연결 고리임을 보여 준다.

22절에서는 셈의 다섯 아들인 엘람과 앗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 소개된다. 엘람은 오늘날 이란 지역 사람들의 조상으로 이해되며, 앗수르는 아시리아, 아람은 시리아 지역과 연결된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밧단아람(창 25:20; 28:1–7; 31:18; 신 26:5)은 '시리아의 길' 혹은 '아람의 들판'을 뜻하며, 아람의 평야 지역을 가리킨다. 이 지역은 간략하게 밧단이라고도 불렸으며(창 48:7), 밧단은 '들판'이라는 뜻을 지녀 아람의 산지와 구별되는 평야 지대를 가리킨다.

엘람은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강대한 세력으로 등장하며,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창 14:1).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 족장 시대에 이미 강력한 세력으로 역사 속에 등장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앗수르는 훗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강대국으로 등장한다(왕하 17:6). 셈의 후손인 앗수르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혈통을 넘어 모든 민족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심지어 이방 민족까지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점을 보여 준다.

23절에서는 아람의 아들들인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가 소개된다. 우스는 욥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으며(욥 1:1), 팔레스타인과 이두매아, 유프라테스 사이의 지역으로 이해된다. 훌과 게델과 마스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지만, 이들은 아람 계열로서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주변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24절은 아르박삿이 살라를 낳고 살라가 에벨을 낳은 것을 기록한다. 족보의 흐름상 아르박삿이 먼저 등장하지만, 성경은 에벨을 특별히 부각시킨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라는 명칭의 기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에벨의 뜻은 앞서 언급한 대로 '건너온 자'이며,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역사와 연결되어 히브리 민족과의 연결성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창 10:21).

25절은 에벨의 두 아들인 벨렉과 욕단을 소개하며, 벨렉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다고 말한다. 영어 성경에는 "in his days was the earth divided"라고

되어 있다. 이 표현은 무엇보다도 지리적인 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곧 '땅이 나뉘었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벨렉의 시대에 지표면의 분리나 대륙의 이동과 같은 큰 규모의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세기 홍수 이후 지구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리적 분리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 표현을 민족과 언어, 거주 지역의 분산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가능하다. 창세기 10장의 전체 흐름과 11장에서 이어지는 바벨탑 사건을 함께 고려하면, 벨렉의 시대에 사람들의 민족과 언어와 영토가 나뉘었다고 보는 해석도 문맥과 연결된다(창 10:32).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긴밀하게 이어진다.

벨렉의 형제 욕단은 남쪽 아라비아 지역 여러 부족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계보는 여기에서 마무리된다. 반면 벨렉의 계보는 11장에서 계속 이어져 아브라함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벨렉에 대한 언급은 단순한 족보 기록을 넘어, 메시아 계보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 고리로 기능한다.

26-29절에서는 욕단의 아들 열세 명, 곧 알모닷, 셀렙, 하살마벳,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세바, 오빌, 하윌라, 요밥이 소개된다. 이들은 주로 아라비아 반도 남부 지역에 정착한 민족들의 조상으로 이해된다. 특히 오빌은 금과 향료로 유명한 지역으로, 솔로몬이 이곳에서 금을 들여온 기록이 있다(왕상 9:28). 하윌라는 금이 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구절에도 언급된다(창 2:11).

30절은 욕단 자손의 거주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그들의 활동 영역이 메사에서 시작하여 동쪽의 산악 지대인 스발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걸쳐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지역을 가리킨다. 메사는 서쪽 경계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이해되며, 스발은 동쪽의 산악 지대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31절은 셈의 후손들이 각각 그들의 가족과 언어, 영토와 민족에 따라 나뉘

어 형성되었음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며, 32절은 홍수 이후 이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민족들이 나뉘어 퍼져 나갔다는 사실로 창세기 10장 전체를 결론짓는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인류는 다시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족과 언어와 지역이 구분되었다. 셈의 후손은 히브리 민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민족은 온 땅으로 널리 퍼져 나가지만, 메시아의 계보는 한 줄기로 좁혀져 이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계보의 흐름 속에서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목적은 하나, 곧 셈의 계보를 통해 이어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 창세기 11장 |

바벨탑과 언어의 혼란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통한 인류의 반역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셈을 통해 이어지는 메시아 계보를 기록한다. 홍수 이후 온 땅이 한 언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시날 땅의 평야에 정착했다. 그들은 벽돌을 구워 도시와 탑을 세우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지지 않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위해' 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과 인본주의를 드러낸다. 그들은 '땅을 가득 채우라' 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한곳에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를 형성하려 했으며, 대홍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탑을 높이 쌓아 다시는 심판받지 않으려 했다. 이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불신하는 행위였다. 이에 주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 세우기를 그쳤다. 그 결과 그 도시는 '혼잡' 이라는 뜻을 지닌 바벨이라 불리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각 민족과 언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바벨탑 사건은 장차 천년 왕국에서 순수한 언어로 회복될 것을 예표로 보여 준다.

이후 셈의 세대가 상세히 기록되며 메시아 계보가 이어진다. 셈은 홍수 이후 2년이 지났을 때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살라를, 살라는 에벨을, 에벨은 벨렉을 낳았다. 벨렉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다는 기록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민족과 언어, 영토가 분산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 계보는 르우, 스룩, 나홀을 거쳐 데라에 이른다.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아브람을 택하셨다. 데라는 70세부터 아들들을 낳기 시작하였으며, 하란과 나홀을 먼저 낳은 뒤 130세에 아브람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고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아브람은 이복 누이 사래와 결혼했으나 사래는 수태하지 못했다. 데라는 아브람과 롯과 사래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으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고, 205세에 그곳에서 죽었다. 이 장은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메시아 계보를 보존하시며 아브람을 통해 구속사를 이어 가시는 주권과 섭리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1. 바벨탑에서의 반역(11:1–9)

11:1 온 땅이 한 언어를 쓰고 한 말을 썼더라. **2** 그들이 동쪽에서 떠나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며 **3**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한 뒤 **4**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매 **5** **주**께서 사람들의 아이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서 **6**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이제 그들이 하지 못하게 막지 못하리라. **7** 자, 우리가 내려가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 이렇게 **주**께서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9** 그러므로 *그들이*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온 땅의 언어를 거기서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1절은 온 땅이 한 언어를 쓰고 같은 말을 사용했다고 기록한다. 여기에서 '언어'는 히브리어 '사파'(saphah)로 '입술'을 뜻하며, 이는 곧 온 인류가 동일한 언어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다바르'(dabar)는 말하는 내용이나 표현을 가리킨다. 많은 사람들은 원시시대의 인간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점차 문명과 언어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 자체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증언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언어를 부여하셨으며,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하였고 아담과 이브 역시 서로 언어로 교제하였다. 따라서 언어는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며,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최초의 단일 언어가 히브리어였을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천국에서도 히브리어가 사용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나 오늘날에는 수백, 수천 개의 언어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언어의 분산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언어가 나뉘고 의사소통이 혼잡해졌으며, 이는 인류 사회의 분열과 복잡성을 낳게 되었다.

2절에 따르면 사람들은 동쪽에서부터 이동하여 한 지역에 이르러 정착하였다. 개역 성경은 이를 '동방으로 옮기다가'로 번역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그들이 동쪽에서 출발해 이동한 것으로 분명히 나타낸다. 그들이 정착한 시날 땅의 평야는 바빌론 남부 지역으로,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해당한다.

3절에서 사람들은 서로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말하며 돌 대신 벽돌을, 회반죽 대신 진흙을 사용하여 도시와 탑을 건설하려 하였다. 이 장면은 인류 최초의 본격적인 건축 기술이 등장하는 순간으로 볼 수 있다. 역사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날 지역의 흙은 벽돌을 굽기에 매우 적합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벽돌이 돌보다 더 단단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고 한다. 성경의 기록 역시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우리나라 수원 화성을 건축할 때에도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를 통해 돌보다 더욱 견고하게 쌓을 수 있었다. 바벨탑을 건설하던 사람들 역시 이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

여 인류 문명 초기의 대규모 건축을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절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도시와 탑을 세우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며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 내용 속에는 '우리를 위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는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인간의 교만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다수의 역사가들은 여기에서 언급된 도시와 탑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종교적 기능을 지닌 신전이었을 것으로 본다. 그들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곳을 신의 거처로 삼고자 했으며, 이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신의 위치에 도달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한 인본주의적 반역이었다.

이 탑은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지구라트 형태의 신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바벨탑과 자주 연결되는 바빌론의 에테메난키(Etemenanki)는 마르둑(Marduk) 신에게 바쳐진 지구라트로, 남아 있는 자료와 발굴 결과에 따르면 기초부는 가로세로 91미터 정도였고, 높이 역시 90미터 안팎으로 추정된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30층 건물에 해당하는 규모로, 고대 세계에서는 매우 거대한 건축물이었다. 다만 에테메난키는 후대 바빌론 시대(BC 7–6세기경)의 건축물이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세워진 원형 건축물이다. 그러나 후대 바빌론이 이 지점에 자신들의 신전 도시를 세우고 그 위에 지구라트를 쌓아 올렸다는 점은, 바벨탑의 종교적 흐름이 바빌론 종교 속에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보여 준다.

이들이 말한 핵심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라는 표현에 드러나 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의 이름은 복되게 기억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결국 사라진다고 경고한다(잠 10:7).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 했던 헤롯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행 12:21–23).

또한 이들은 흩어지지 말자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다(창 9:1). 땅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곧 온 지면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이 한곳에 모여 흩어지지 않으려 한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의도적인 반역이었다.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행 17:26)라는 말씀이 보여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며 자신을 찾기를 원하셨으나 사람들은 그 뜻을 거스르며 탑을 쌓아 올렸다.

또한 이들이 탑을 쌓은 또 하나의 이유는 대홍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사람들은 노아의 대홍수를 알고 있었고, 다시는 그와 같은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 탑을 높이 쌓으려 했다. 그들의 생각은 탑 꼭대기에 신전을 세워 자신들의 신을 모셔 놓고, 그 신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며 다시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려는 것이었다. 결국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행위였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 다시는 물로 사람과 짐승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창 9:15-16), 이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

사람의 모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흐르면 반드시 멸망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가 사람 중심이나 사회적 목적 중심으로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신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시 34:3).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성도들의 모든 모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전 10:31).

5절을 보면 주께서는 사람들의 아이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시편 2편 4절에서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이방 민족들의 반역을 보시며 비웃으시는 장면이 그려지듯이,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한 건축을 가소롭게 보시며 친히 그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다. 거대한 탑을 하늘에 닿게 하려는 인간의 시도가 하나님께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이어서, 그분께서 친히 내려오셔야 비로소 보이는 작은 일에 불과했음을 본문은 풍



귀스타브 도레 〈바벨탑〉

자적으로 드러낸다.

시편 2편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을 묘사하며, 장차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쇠막대기(철장) 권세로 민족들을 다스리실 때 최종적으로 성취될 예언이기도 하다. 바벨탑 사건은 그러한 시편 2편의 구도가 인류 역사 초기에 이미 한 차례 드러난 장면이다. 에덴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고 속삭였던 것처럼(창 3:4), 바벨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어 하늘에 닿고자 하는 '마귀적인 유혹' 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인간의 계획은 끝내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그들의 꾀를 무너뜨리신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신 역사적 증거이며, 동시에 마지막 때에 있을 모든 인본주의적 반역의 운명을 미리 보여 주는 예표이기도 하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며 함께 이 일을 시작한 것을 보시고, 그들이 마음에 품고 계획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노아 시대와 같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악했으며, 하나의 언어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던 사람들은 그 능력을 이용해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꾸몄다. 대홍수 전과 같은 악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내려가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하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내려가' 라는 복수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삼위일체의 명백한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확실히 엿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창 1:26)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말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사 6:8)라고 하신 말씀과도 연결된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복

수 인격이 존재함을 성경은 보여 준다.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복수 표현은 세 인격체를 가리키며, 우리는 이를 삼위일체라고 부른다.

성경 본문은 언어의 혼잡이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일어났음을 보여 준다. 하루아침에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무리끼리 모여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더 이상 함께 협력하여 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언어는 수백 개로 나뉘었으며 이후 세대를 거치면서 수천 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대홍수 이후 비교적 이른 시점, 즉 백 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8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은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다.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서 도시를 세우려던 일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죄를 막으시는 동시에 미래에 사람들이 지으려는 죄까지도 미리 막으셨다. 에덴동산에서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여 죄 가운데 영원히 머무는 일이 없도록 그 길을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반역을 막으신 일은 모든 죄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대한 시도를 차단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들이 땅에 흩어져 충만히 살기를 원하셨으나, 그 명령에 불순종하자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9절은 주께서 온 땅의 언어를 거기서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그곳으로부터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다고 말한다.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 인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곧 바벨 부근에 모여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인류는 온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여러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국 민족을 비롯해 중국, 이집트, 인도 민족 역시 이때 형성되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세계의 4대 문명,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유역), 이집트 문명(나일 강 유역), 인더스 문명(인더스 강 유역), 황

하 문명(황하 유역)이 출현한다. 이 4대 문명이 모두 BC 2000년 전후에 시작된다는 사실은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진 민족들이 각 지역에 정착하며 문명을 형성했음을 시사한다.

우리 민족의 조상도 그곳에 있었다. 한국의 단기(檀紀)라 불리는 고유 연대도 바벨탑 사건 이후에 시작되었다. 단기는 서기 연도에 2333년을 더하여 계산하므로 2026년의 단기는 4359년이 된다. 전통적으로 단군이 BC 2333년에 고조선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시기 역시 민족 분산의 흐름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중국의 천단(天壇) 제사 전통 또한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녔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각 민족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는 예로 이해할 수 있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민족과 언어, 문명을 가지게 된 출발점은 바벨탑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흩으심으로 모든 민족이 형성되었고 각 지역 문명의 기원이 마련되었다. 성경은 이를 역사로 증언하며 고대 문명사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을 뿐 성경 자체는 명백한 역사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롬 3:4)라는 말씀처럼 성경기록은 참되다.

주목할 것은 바벨탑 사건 이전의 시기를 역사학자들은 선사 시대(先史時代)라고 부른다는 점이다. 흔히 문자 기록이 없어서라고 설명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그 이전에는 인류가 바벨 부근 한 지역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아예 문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바벨탑 사건 이후 민족들이 흩어지면서 비로소 각 지역에서 문자와 문명이 동시에 출현하기 시작했고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선사 시대란 인류가 한곳에 모여 있던 시기이며 성경만이 그 공백을 채우는 유일한 역사적 증언이다.

* 부가 설명: 바빌론

창세기 11장의 바벨(Babel)과 구약 역사에 등장하는 바빌론(Babylon)은 같은 장소를 가리킨다. 히브리어로는 바벨이며, 이것이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거쳐 바빌론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이름에 대한 이해는 서로 달랐다. 성경은 이를 '언어의 혼잡'과 연결하지만, 바빌론 사람들은 '신들의 문'이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동일한 이름을 두고 이렇게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바벨탑에서 시작된 반역의 정신은 이후 바빌론 제국을 통해 계속 이어졌다.

바빌론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도시이자 국가로 등장하며, 그 역사는 크게 구바빌론과 신바빌론으로 나뉜다. 구바빌론은 BC 1894년경 아모리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세운 왕국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으나, BC 1792년에 즉위한 함무라비 왕 때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며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는 역사상 가장 이른 성문법 가운데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는데, 그 일부 조항은 모세 율법과 유사한 점이 있어 성경 연구에서도 주목된다. 그러나 그의 사후 구바빌론은 급격히 쇠퇴하였고, 이후 카시트 왕조와 아시리아의 지배를 거치게 된다.

신바빌론은 BC 626년 나보폴라살이 아시리아의 쇠퇴를 틈타 세운 제국이다.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재위 BC 605–562)은 이집트를 격파하고 남유다와 두로 등을 정복하며 바빌론을 강대국으로 이끌었다. 그는 BC 606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결국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다. 이것이 바빌론 포로 시대이며,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이 된다. 신바빌론은 BC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하였고, 이로써 유다 포로들의 귀환이 가능해졌다(스 1:1–4).

바빌론의 의미는 구약 역사에 머물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17–19장에서는 바빌론이 다시 등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총체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나타내는 새 예루살렘과 대조된다. 바빌론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기록은(계 18:5) 바벨탑과 같은 교만의 반복을 보여 준다. 인류는 각 시대마다 높은 건축물로 이름을 내고자 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330미터),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443.2미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829.8미터)와 같은 고층 건물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는 교만의 표현이며, 그 본질에 있어 바벨탑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오늘날 인터넷과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번역 기술의 발달로 언어의 장벽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 단일 체제를 향한 움직임과 종교적 연합을 지향하는 흐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로 결집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며, 그 모습은 바벨탑 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바벨탑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시대마다 다른 형태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달리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다. 바벨탑 사건으로 혼잡해진 언어는 구속의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회복의 방향을 보인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행 2:4–11). 이는 바벨에서 일어난 혼잡이 복음 안에서 부분적으로 역전되는 사건이었다. 또한 "그때에 내가 그 백성들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라."(습 3:9)라는 말씀은,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수한 히브리어가 회복되어 그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것을 보여 준다.

2. 셈의 세대들(11:10–26)

11:10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셈은 백 세였으며 홍수 뒤 이 년이 지났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고 **11** 아르박삿을 낳은 뒤 오백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12** 아르박삿은 삼십오 년을 살며 살라를 낳았고 **13** 살라를 낳은 뒤 사백삼 년을 살

며 아들딸들을 낳았으며 14 살라는 삼십 년을 살며 에벨을 낳았고 15 에벨을 낳은 뒤 사백삼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16 에벨은 삼십사 년을 살며 벨렉을 낳았고 17 벨렉을 낳은 뒤 사백삼십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으며 18 벨렉은 삼십 년을 살며 르우를 낳았고 19 르우를 낳은 뒤 이백구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20 르우는 삼십이 년을 살며 스룩을 낳았고 21 스룩을 낳은 뒤 이백칠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으며 22 스룩은 삼십 년을 살며 나홀을 낳았고 23 나홀을 낳은 뒤 이백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24 나홀은 이십구 년을 살며 데라를 낳았고 25 데라를 낳은 뒤 백십구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으며 26 데라는 칠십 년을 살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10절은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라는 표현과 함께 셈의 족보, 곧 메시아 계보를 이어 간다.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앗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으로 다섯 명이었지만(창 10:22), 성경은 그중 아르박삿에 집중한다. 아르박삿을 통해 살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아들들의 계보는 간략히 언급되고, 아르박삿의 계보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메시아 계보를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 준다.

10–11절에 따르면 셈은 홍수 이후 2년이 되었을 때 100세였으며 이때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 뒤 500년을 더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다. 이어지는 12–25절에서는 아르박삿부터 데라에 이르기까지 각 인물이 몇 세에 다음 세대를 낳았고 그 후 얼마나 더 살았는지가 반복적으로 기록된다. 이 계보에서 주목할 점은 홍수 이후 세대들의 수명이 점차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셈 600세, 아르박삿 438세, 살라 433세, 에벨 464세, 벨렉 239세, 르우 239세, 스룩 230세, 나홀 148세로 점차 단축된다. 이는 홍수 이후 환경 변화와 더불어 인간 수명이 전반적으로 점차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 준다.

특히 에벨이 464세를 살았던 것에 비해 그의 아들 벨렉은 239세로 수명이 크게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벨렉의 날에 땅이 나뉜 사건(창 10:25)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가 흩어지면서 삶의 조건과

환경이 변화했고, 그와 함께 수명도 단축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에벨은 464세를 살았으므로 연대상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 히브리 민족의 어원이 되는 인물 에벨이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다는 사실은, 창세기의 족보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이어지는 역사적 연결 고리임을 잘 보여 준다.

26절은 "데라는 칠십 년을 살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24절에서 "나홀은 이십구 년을 살며 데라를 낳았고"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데라의 아버지의 이름도 나홀이다. 따라서 데라의 아들인 나홀과 그의 아버지인 나홀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표현은 노아의 경우와 같은 방식이다(창 5:32). 성경은 반드시 출생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중요한 인물을 먼저 언급하는 구조를 취한다. 그래서 아브람이 먼저 나오지만 실제로는 하란이 장남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란은 데라가 약 70세 무렵에 낳은 아들로 보이며(창 11:26), 아브람은 데라가 약 130세 되었을 때 태어난 것으로 이해되므로 두 사람의 나이 차는 60년 정도로 볼 수 있다. 하란이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는 구절이 이를 뒷받침하며(창 11:28), 나홀의 아내 밀가가 하란의 딸이라는 기록 역시 하란이 먼저 출생했음을 보여 준다(창 11:29).

그렇다면 아브람은 언제 태어났는가?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고(창 12:4),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창 11:32).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스데반이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라고 증언하듯이, 아브람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

따라서 데라가 205세에 죽었을 때 아브람이 75세였으므로, 아브람은 데라가 130세였을 때 태어난 것이다. 결국 26절에서 아브람이 먼저 언급된 것은 출생 순서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앞서 노

아의 아들들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이다(창 5:32).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출생 순서가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배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옛적에 너희 조상들…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취하여"(수 24:2-3)라는 말씀을 통해 그가 우상 숭배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아브람 역시 처음에는 동일한 환경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가운데 있던 사람을 부르셔서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믿음의 성장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다.

3. 데라의 세대들(11:27-32)

11:27 한편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28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29 아브람과 나홀이 자기를 위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더라.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 그러나 사래는 수태하지 못하므로 아이가 없더라. 31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려갔으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저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나간 뒤 하란으로 가서 거기 거하였더라. 32 데라의 생애는 이백오 년이었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27절은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라는 표현과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룬다. 이 대목에서 아브람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아브람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자식이 없는 상태였다(창 11:30). 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 주는 장면이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

의 생각과 다르다(사 55:8-9).

28절은 하란이 자기의 출생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기록한다. 갈대아 우르의 위치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다수설은 오늘날 이라크 남부,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350킬로미터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변(텔 엘무카야르)으로 보는 견해이며, 이는 1922년 울리(Leonard Woolley)의 발굴 이후 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았다. 다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당시의 무역로와 아브라함 계열의 친족 관계를 고려하여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으로 보는 소수 견해도 있다.

아브라함 시대의 우르는 월신(月神)을 섬기는 지구라트가 세워진 고도로 발달한 문명 도시였다. 아브라함은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라 이 번성한 도시의 시민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나안을 향해 떠난 것이다.

29절은 아브람이 사래를 아내로 맞이함을 보여 주는데, 사래는 아브람의 이복 누이였다(창 20:12). 또한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하였다. 당시에는 같은 씨족 안에서 배우자를 택하는 일이 허용되었으나, 이후에는 금지된다(레 18장).

30절은 사래가 수태하지 못해 아이가 없었다고 기록한다. 그녀는 오랫동안 수태하지 못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강조한다(창 15:2-3; 16:1-2).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사래는 수태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이는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위한 배경이 된다.

사래의 불임은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명하게 대조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창 12:2)라고 약속하셨을 때, 인간적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됨을 보여준다. 동시에 사래의 불임은 믿음의 시험이자 성장의 도구가 되었다. 아브라



아브람에게 여종 하갈을 보내는 사래

함과 사래는 오랜 시간 동안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경험하며 믿음을 훈련받았다.

사래가 오랜 불임 끝에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 자식을 얻으려 했던 사건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십 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났다(창 16:3). 이 십 년의 시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그들의 인내와 신뢰가 시험받는 과정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즉시 이루지 않으시고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차 성숙해 가도록 이끄셨다.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지자 인간의 방법이 개입되었다. 사래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창 16:1-2). 이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허용된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인간적 시도였으며 그 결과는 가정의 불화와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갈등을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하셨다(창 17:19-21).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래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신 후(창 17:5, 15),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다. 이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믿음을 통해 사라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히 11:11). 이삭의 출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나아가 사래의 불임과 그 극복은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넘어, 구속사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필수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삭의 출생은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이삭을 통해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 열두 지파가 형성되었으며, 마침내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므로 사래의 불임과 그 극복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31절에서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손자 롯, 그리고 며느리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으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오늘날의 튀르키예 남동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당시 이 도시는 수엔이라는 월신(月神)을 섬기는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으며, 갈대아 우르도 동일한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다. 데라는 우상 숭배의 환경에서 출발하여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도시에 머물렀던 것이다.

32절은 데라가 이백오 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고 기록한다. 그는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났으나 끝내 그곳에 이르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다가 생을 마쳤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우상 숭배의 환경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 듯하다.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인류 초기 역사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한다. 데라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시며 구속사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이어 가신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역사라면,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그의 후손을 중심으로 한 특별 계시의 역사로 전환된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의 계보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택하셨으니,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핵심 원리이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기초이자 핵심이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의 분산, 그리고 메시아 계보의 시작까지 성경의 모든 주요 주제가 이 부분에 응축되어 있다. 우주의 기원, 인간의 본성, 죄의 시작,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민족과 언어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1–11장이 없으면 나머지 성경의 상당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창세기 강해에 있어서도 1–11장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토대를 이루며 이후의 내용은 이 기초 위에서 전개되는 구속사의 구체적 적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Part.2

아브라함의 생애와 이스라엘

창세기 12-25장

Exposition of Genesis

Creation, Fall, Flood, Promise of Redemption, and Israel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의 씨와 땅에 관한 언약을 세우신다. 이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으며, 멜기세덱은 훗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 이 칭의는 할례 전에 이루어지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리를 보여 준다. 이 점에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로마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를 다루고, 야고보서는 사람 앞에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를 다루기 때문이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 헌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숫양을 예비하시며, '여호와이레' , 곧 주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섭리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이름을 계시하신다. 이는 훗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예비하실 구속사의 그림자가 된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혈통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어지며,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며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공통으로 그를 조상으로 인정할 만큼 인류 역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간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은 구속 역사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셨다. 가나안 땅과 씨와 복에 대한 약속, 칭의와 믿음, 할례와 언약, 대신 속죄와 부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미래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던 아브라함이 수십 년에 걸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아브라

함의 일생을 살펴보려 한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각 구절을 하나하나 강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아브라함을 비롯한 12장 이후의 족장 이야기는 대부분 서사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절별 강해보다는 각 인물의 생애에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편이 본문의 성격에 더 부합한다. 이 장에서는 먼저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개관한 다음, 아브라함의 언약, 멜기세덱, 여호와이레, 믿음과 행위의 문제, 유대인의 역사 등 여러 주제들을 하나씩 깊이 살펴보려 한다.

아브라함의 이름과 출생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다. 아브람은 '높여진 아버지'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후에 그가 99세였을 때에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많은 자들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이름이 바뀐 것은 창세기 17장의 일이며, 그때 그의 아내 사래의 이름도 사라로 함께 바뀌었다(창 17:5, 15). 따라서 창세기 17장 이전의 본문에서는 아브람과 사래로, 17장 이후부터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부르는 것이 성경의 순서에 맞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350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으로,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였다. 이곳은 수메르 문명이 꽃을 피운 곳으로 고도로 발달한 도시 문명과 함께 온갖 우상을 섬기는 다신교 문화가 지배하던 땅이었다. 여호수아기 24장 2절이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쪽에 거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우상 숭배가 당연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의 셈의 족보를 살펴보면 셈은 노아의 아들이며, 셈의 9대손(九代孫)이 바로 아브라함임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으며,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창 11:26).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 두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아브람은 데라의 장남이 아니라 막내였다. 데라가 70세에 낳기 시작한 아들은 아브람이 아니라 하란이었으며, 아브람은 데라가 130세 때 태어났다. 하란은 아브람보다 약 60세 연상이었고, 이미 우르에서 아들 롯과 두 딸 밀가와 이스가를 낳고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창 11:28).

이 사실은 롯의 나이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하란이 60세 안팎에 롯을 낳았다고 추정한다면, 롯과 아브람은 나이 차이가 많아야 10세 이내, 혹은 거의 동갑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성경에서 아브람이 롯을 이끄는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영적 권위 때문이었다. 또한 하란의 딸 밀가와 하란의 동생 나홀이 결혼한 것(창 11:29) 역시 이 연대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데라는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래,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으로 향하였다. 하란은 지금의 튀르키예 남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고대 무역로의 요충지였으며 월신(月神)을 섬기는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데라의 가족은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으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 머물게 되었고, 데라는 결국 그곳에서 205세에 죽었다(창 11:31–32).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람이 아직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곧 그가 하란에 거하기 전에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오라, 하셨느니라."라고 증언한다. 그러나 아브람이 하란을 최종적으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데라가 죽은 후

75세 때였다(창 12:4). 하란은 아브람의 인생에서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사이의 중간 기착지였던 셈이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크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부름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시기, 씨에 대한 약속과 언약의 재확인 시기, 할례와 천사의 방문과 이삭의 출생 시기,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시험과 완성 시기가 그것이다. 이제 이 네 시기를 따라가며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시기
부름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75세, 창 12-14장)

12:4 이에 아브람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칠십오 세였더라.

첫째 시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이다(75세, 창 12:4). 창세기 12장 1-4절에는 아브라함 언약이라 불리는 성경에서 매우 중대한 언약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그것이다(창 12:1-3). 이 세 번째 약속은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복음의 예고로 인용하는 말씀이다. 아브라함 언약은 처음부터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속의 서막이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다(창 12:4). 이 구절부터 아브람의 나이가 성경에 언급되기 시작한다. 일흔다섯이라는 나이에 익숙한 땅을 등지고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것을 가리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라고 기록한다. 그는 지도도 없이, 목적지도 모른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길을 떠났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브람은 조카 롯만을 데리고 갔다. 형제 나홀은 두고 떠났다. 롯을 데리고 간 이유는 당시 아브람과 사래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였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이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명확히 나타나 있다. 이처럼 아브람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지 않았다. 그는 본래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 출신이었으며(수 24:2), 영적으로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택하셨고, 아브람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다.

하란을 떠난 아브람은 가나안의 세겜 땅 모레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창 12:6). 가나안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 세운 땅으로 그 후손들이 이미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브람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민족이 가득한 이방 땅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고(창

12:7), 아브람은 거기에서 주께 제단을 쌓았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 그것이 아브람이 세겜에서 처음 보여 준 믿음의 모습이었다.

이후 아브람은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로 내려갔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기록된 이 사건에서 아브람은 큰 실수를 범한다. 아브람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결과 파라오가 사래를 데려가는 일이 벌어졌다. 약속의 땅으로 부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믿음으로 나아가던 그 발걸음이 두려움 앞에 흔들리고 만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람과 사래를 구해 내셨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실수까지도 친히 수습하시는 분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아브람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돌아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창 13:3-4).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아브람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두 사람의 재산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되었다. 롯은 요르단강 쪽의 소돔 지역을 택하여 떠났고, 아브람은 헤브론의 마므레 평야로 향하였다. 성경은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요르단 온 지역이 물이 넉넉하였다고 기록한다(창 13:10). 롯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른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이 어디였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베드로후서 2장 7-8절은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부른다. 롯은 의인이었지만, 그의 일생은 믿음의 기회를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의인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14장에는 롯이 거하던 소돔 땅이 전쟁에 휘말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 전쟁은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요르단 평지의 다섯 왕 연합군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네 왕 연합군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다. 소돔 쪽의 다섯 왕 연합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에 반기를 들었고, 14년째에 그돌라오멜은 동맹군을 이끌고 침공해 왔다. 싸움의 결과 소돔 쪽이 패하면서 롯과 그의 재산은 약탈당하고 말았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람은 318명의 훈련된 종들을 이끌고 훗날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되는 단 지역까지 추격하여 롯과 그의 재산을 되찾아 왔다(창 14:14-16). 자신과 갈라선 조카를 위해 전쟁을 불사한 것이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브람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된다(창 14:17-20). 이 멜기세덱 사건은 훗날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깊이 있게 다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후에 별도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둘째 시기

씨에 대한 약속과 언약의 재확인(75-86세, 창 15-16장)

둘째 시기는 하나님께서 씨에 대한 약속과 언약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해 주시는 때이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땅을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직 주지 않으셨다. 아들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5장이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직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 아브람에게 아무 씨도 없는 상태에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 내시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다. 그 밤 아브람의 눈에 들어온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가리키시며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창 15:5). 당시 아브람에게는 아직 단 한 명의 아이도 없었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 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창 15:6). 나중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씨들'이 아니라 '씨'라는 단수를 주목하면서 그 씨가 곧 그리스도라고 명시한다.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 성취가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 단수 표현 하나에 담겨 있다.

또한 15장에는 횃불 언약이라 불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짐승들을 쪼개어 마주 놓게 하셨는데, 해가 진 후 아브람이 깊이 잠든 사이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오르는 횃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다(창 15:17). 이는 하나님께서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음

을 의미한다. 당시에는 두 당사자가 언약을 맺을 때 쌍방이 쪼갠 짐승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것이 관례였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셨다. 아브람은 잠들어 있었다. 이것은 언약 성취의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일방적 언약임을 의미한다. 아브람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15장에서 하나님은 또한 아브람의 씨가 번성하다가 훗날 다른 민족의 땅에서 400년을 섬기고 그 뒤 네 번째 세대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미래도 미리 알려 주셨다(창 15:13-16).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종살이와 이집트 탈출이 이미 이 밤에 예고된 것이다.

16장에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아브람과 사래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약속된 씨가 생기지 않자 사래는 그 당시 풍습에 따라 몸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었다. 당시에는 여주인이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 몸종을 통해 씨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사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 사람의 방법을 택한 것이었다. 아브람은 사래의 말을 따랐고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였다고 기록되어 있다(창 16:16).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75세였으므로 약 10년을 기다린 끝에 사래가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었고, 그 결과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셋째 시기
할례, 천사의 방문, 이삭의 출생(99-100세, 창 17-21장)

셋째 시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래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시며 할례의 표적을 주시고,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는 때이다. 이 내용은 창세기 17장부터 21장에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99세였을 때 그에게 나타

나셔서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난 뒤였다. 그 13년의 침묵 끝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셨다. 이어서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명하셨다. 창세기 17장 24-25절에는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들 이스마엘이 13세에 할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집의 모든 남자들이 함께 할례를 받았다.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고, 할례는 그보다 훨씬 이후의 일이라는 점이다.

로마서 4장 9-12절에서 바울의 논증의 핵심은 분명하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그는 이방인의 상태에서 이미 의롭다 인정받았고 그 뒤에 할례를 받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

창세기 18장에는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세 사람 중 한 분은 주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명은 천사이다. 성경에 기록된 천사는 항상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날개 달린 천사나 여자 천사, 아기 천사 같은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히 13:2). 창세기 18장 2절에 '세 남자'라고 기록된 것이 그 증거이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 장막 문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고 달려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며 음식을 대접하였다.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방문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네게 돌아오리니, 보라, 네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다(창 18:10).

그런 다음 하나님은 소돔 땅을 심판하실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셨고, 아브라함은 혹시 그 안에 의인들이 있으면 죄인들과 함께 의인들을 멸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탄원하였다. 그는 50명에서 시작하여 끝으로 10명까지 필요한 의인의 수를 줄여가며 간절히 탄원하였으나 소돔 땅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고, 하나님은 결국 소돔을 멸하셨다(창 18:23-33).

창세기 19장에 소돔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다. 주 하나님은 올라가시고 나

머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맞이하였다. 소돔 사람들은 그 천사들을 향해 동성 간의 음행을 저지르려 하였다. 이는 단순한 동성 간의 음행이 아니라 천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유다서 7절은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다."라고 기록한다.

여기에서 '낯선 육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소돔 사람들이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단순히 남자가 아니라 천사였다. 천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존재이다. 낯선 육체란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소돔의 죄악이 단순한 성적 타락을 넘어 천사들을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에서 그 사악함의 깊이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해 내셨으나(창 19:29),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창 19:26). 그토록 아끼던 것들과 끝내 이별하지 못한 결말이었다.

롯에게는 결혼한 딸들과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창 19:8, 14-15). 소돔이 멸망한 뒤, 결혼하지 않은 그 두 딸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연로하고 또 일상적인 방식으로 자기들과 결혼할 남자가 그 땅에 없다고 판단하여 이틀 밤에 걸쳐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한 뒤 그와 동침하여 근친 음행을 저질렀다. 큰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이 되었고, 작은딸이 낳은 아들은 벤암미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창 19:37-38).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에 해당하는 모압과 암몬이 바로 이렇게 태어났다. 성경이 이토록 불명예스러운 사건을 낱낱이 기록한 것은, 성경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책이기 때문이며, 믿음의 기회를 저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이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소돔이 멸망한 후 아브라함은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빼앗아 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적 의

미는 단순한 아브라함의 실수에만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함으로써 그 계보를 끊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루어질 때 마귀는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방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의 집에 병을 내리시고 그의 꿈에 나타나 경고하셨고, 결국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되었다(창 20:1–18).

드디어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창 21:5).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닫힌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일 년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속으로 믿지 못해 웃었지만(창 18:12),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라."라고 고백하였다(창 21:6). 믿지 못한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뀐 것이다.

넷째 시기
믿음의 시험과 완성(이삭 출생 이후, 창 22장)

넷째 시기는 믿음의 시험이 있는 때이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이후에도 그는 아내의 말을 따라 하갈을 통해 육신의 아들을 낳기도 하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반복하였다. 이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곧 흠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님을 보여 준다. 그러나 100세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 면에서 성숙의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었다(창 22:1–2). 요세푸스는 이때 이삭을 어린아이

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한 청년으로 보았으며, 대략 25세의 청년기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25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오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다. 다만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기록한다. 하나님은 100세에도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 이삭을 바친다 해도 그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는 모리아 산으로 나갔다.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이삭이 물었을 때(창 22:7),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라고 대답하였다(창 22:8). 그 대답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가 손을 들어 칼을 잡는 순간,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부르고 덤불에 뿔이 걸린 숫양이 나타났다(창 22:10-13). 이것이 여호와이레라는 명칭이 붙은 사건이다. 여호와이레(Jehovah-jireh)의 '이레'(yireh)는 히브리어 동사 '라아'(raah)의 미완료형으로, '보다'와 '예비하다'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 동일한 어근의 동사가 본문 안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라고 대답할 때 사용된 동사가 바로 '이레'이며, 여기에서는 '예비하시리라'로 번역된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4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된 후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이레'라 부르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그 뜻을 "**주**의 산에서 *그들이* 그것을 보리라."로 풀어 옮긴다. 즉,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는 그 시선 안에 이미 예비하심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필요를 보셨고, 그 보심이 곧 예비하심이 되어 덤불의 숫양으로 나타났다. 본문 자체가 '보다'와 '예비하다'를 하나의 단어로 묶어 낸 셈이다.

이 본문에는 예표의 의미도 풍부하게 담겨 있다. 모리아 산은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바로 그 자리이며(대하 3:1), 번제 헌물을 태울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는 이삭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숫양이 대신 죽은 것은 대속을 예표로 보여 준다.

한편 창세기 22장 8절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양으로 예비하시리라."로 번역하여, 이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을 직접 가리키는 예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영어 문법과 성경 본문 자체가 지지하지 않는 해석이다.

영어 'provide oneself something'이라는 구문에서 'oneself'는 목적어가 아니라 재귀대명사로서 '자기 자신이 직접'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비롯한 영어 사전들의 일관된 용례이며 주요 영어 성경들도 이를 동일한 관점에서 옮긴다. 더 결정적인 것은 같은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안에 동일한 구문이 한 번 더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의 'provide yourselves bags which wax not old'가 그것이다. 이 구절은 '너희 자신을 위해 낡지 않는 가방들을 예비하라'로 번역해야 자연스럽다. 만일 yourselves를 목적어로 취한다면 '너희 자신을 가방들로 예비하라'가 되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같은 번역자들이 동일한 구문을 한 곳에서는 목적어로, 다른 곳에서는 재귀대명사로 사용했을 리 없다.

또한 본문 13절에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어린양이 아니라 숫양이었다. 만일 8절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양으로 예비하시리라'라는 그리스도 예언이라면, 13절의 숫양은 그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가 될 수 없다. 본문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숫양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옮길 때 가장 견고하게 서며, 자기 신학을 본문 번역에 끼워 넣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신뢰를 떨어뜨

리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양이 되셨다는 진리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비롯한 다른 본문들에서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으므로, 굳이 창세기 22장 8절의 문법을 왜곡할 필요가 없다.

창세기 22장 이후 아브라함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는 가나안 족속에게서 며느리를 취하지 않고 자기 친족에게 사람을 보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된다.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후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고 기록하고 있다(약 2:23). 이것은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가장 영예로운 칭호이다. 이 칭호는 믿음이 행위와 함께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라 부르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마지막 나날들(창 23-25장)

창세기 23장 1절에는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137세 되던 해였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할 땅을 구하기 위해 헷 족속의 에브론과 협상하여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밭을 은 사백 세겔에 샀다(창 23:16). 가나안에 들어온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실제로 소유한 것은 고작 이 작은 무덤 하나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그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다 죽었다. 히브리서 11장 13-16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하나를 붙잡고 살다 죽은 것은 패배가 아니었다. 그는 땅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도시를 바라보며 살았다.

창세기 25장 1절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여인을 새 아내로 맞이하여 시므란, 욕산, 므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고 기록한다(역대기상 1장 32절에서는 그녀가 약속의 계보 밖의 여인이라는 점에서 '첩'으로 불린다). 그의 아들 미디안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된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에는 속하지 않는다.

창세기 25장 7절은 아브라함이 175세를 누리고 죽었음을 기록한다.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는데, 그곳은 이미 사라가 묻힌 자리였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평생을 함께 한 아내 곁에 묻히게 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장면은 두 아들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했다는 사실이다. 약속의 아들 이삭과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란히 서서 아버지를 땅에 묻는다. 성경은 이 장면을 조용히 기록하지만 그 안에는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정리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결과가 한자리에서 마주하는 순간이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일생은 막벨라 굴에서 마무리된다.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나아갔던 그의 여정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서 안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아브라함의 네 번의 위기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네 번의 중대한 위기가 있었다. 이 네 번의 위기는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를 보여 주는 점진적인 훈련의 과정이었다.

1. 첫 번째 위기: 고향과 친족을 버리고 떠나는 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안전망을 내려놓는 일이었다. 그것은 땅도, 집도,

친족도, 익숙한 문화도 다 뒤에 남겨 두고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에 기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댈 곳을 먼저 제거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아브람을 훈련하셨다. 믿음의 출발점은 언제나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이 위기의 영적 교훈은 안전과 확실성의 문제이다. 사람은 내일을 알고 싶어 한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떠나려 한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고 기록한다. 하나님은 목적지를 미리 알려 주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였다. 아브람은 지도가 없어도 인도자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 첫 번째 위기에서 배웠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같은 자리에 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전모를 다 보여 주지 않는다. 그러나 부르시는 분이 신실하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2. 두 번째 위기: 조카 롯과 갈라서는 일

아브람에게 롯은 단순한 조카가 아니었다.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자로 여기고 데리고 온 사람이었다. 롯과 헤어진다는 것은 자신이 세워 둔 인간적인 계획과 기대를 포기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직후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다(창 13:14–15).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걷힐 때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 위기의 영적 교훈은 양보와 손해의 문제이다. 아브람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 그는 연장자로서, 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더 좋은 땅을 먼저 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택하였고, 아브람은 남은 것을 받았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브람이 손해를 본 것이다. 그러나 롯이 떠난 직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다. 양보한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

한 자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양보한 자의 결말은 이후의 이야기 전체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다. 믿는 자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손해의 자리에서 더 큰 것을 보여 주신다.

3. 세 번째 위기: 이삭으로 인해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하는 일

이스마엘은 비록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었다. 성경은 "자기 아들로 인해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라고 기록한다(창 21:11). 그의 근심거리는 오랜 세월 품어 온 아들을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애정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으셨다(창 21:18).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결국 모든 이를 위한 가장 선한 길임을 보여 준다.

이 위기의 영적 교훈은 육신의 열매와 약속의 열매를 분별하는 문제이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었다. 그러나 일단 낳고 나자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깊이 정이 들었다.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 만들어 낸 것에도 집착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내려놓으라고 하셨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마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육신으로 낳은 것과 약속으로 낳은 것이 한 집에 공존할 수 없다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가르치신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2-31절에서 이 사건을 율법과 은혜의 대립으로 해석한다. 율법으로 얻으려는 것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함께 설 수 없다. 믿는 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만들어 낸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온전히 자리를 잡는다.

4. 네 번째 위기: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일

이것은 앞선 세 번의 위기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큰 시험이었다. 고향을 떠난 것은 과거를 내려놓는 일이었고, 롯과 헤어진 것은 인간적 계획을 내려놓

는 일이었으며, 이스마엘을 내보낸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놓는 일이었다면,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자체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일이었다. 이삭이 죽으면 씨도 없고 약속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히 11:19). 이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부활 신앙의 고백이었다.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조차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이 위기의 영적 교훈은 소유와 청지기의 문제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은 순간부터 이삭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었으니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바치라고 하셨다. 그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자녀도, 재능도, 사역도, 심지어 구원의 확신조차도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순간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손을 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라고 말씀하셨다(창 22:12). 내 것을 포기하고 손을 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그리고 그 손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채워 주신다.

이 네 번의 위기는 각각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연속된 훈련이었다. 처음에는 환경을, 다음에는 계획을, 또 그다음에는 사람을, 마지막에는 약속까지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다. 내려놓음이 깊어질수록 믿음의 뿌리도 그만큼 깊어졌다. 연약하고 흔들리던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기까지,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이 호칭은 수십 년에 걸친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고 빚으신 결과였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완성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우리를 다루시며 점차 믿음으로 세워 가신다.



아브라함 언약과 멜기세덱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큰 민족과 땅,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창 12:2–3; 15:18). 이는 단순한 개인적 복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속 계획의 출발점이다.

한편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하는 인물로,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창 14:18).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서 십일조를 받으며,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예표로 보여 주는 인물로 해석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구속 계획의 핵심과 그 계획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브라함 언약은 그 약속의 기초를 보여 주고, 멜기세덱은 그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지를 예표로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이름과 출생

창세기 12장 1-4절에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본문은 다음과 같다.

12:1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3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4 이에 아브람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칠십오 세였더라.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12장 1절에 "전에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된 이유는, 이 말씀이 하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주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즉, 아브람은 지금 하란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주어졌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람이 하란에서 움직이기 전에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오늘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고 있는 근거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정치적,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장면은 누가 보아도 참혹하고 안타깝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보아야 비로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정확히 보인다.

이스라엘은 BC 586년 바빌론에 의해 나라가 무너진 이후,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면서 본격적으로 온 세계에

흩어졌다. 그 이후 약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도는 민족이 되었다. 유럽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박해를 받았고, 20세기에는 히틀러의 손에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홀로코스트를 겪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민족은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다. 1948년 5월 14일,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던 이 민족이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선포하였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한번 사라진 민족이 언어와 문화와 정체성을 그대로 보존한 채 수천 년 만에 같은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운 것은 역사에 전례가 없다. 이것은 민족의 생명력이나 정치적 역량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창 13:15)라는 그 언약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은 이 땅 때문이다. 결국 누가 승리하겠는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 약속은 한 번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확인해 주신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의 세월도, 수백만의 죽음도, 어떤 강대국의 힘도 취소할 수 없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1–4절에서 처음 주어지고, 13장 14–17절, 15장 1–7절, 17장 1–8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리고 이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쪼개어 마주 놓게 하신 후 아브람이 깊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만 홀로 그 쪼갠 것들 사이를 지나가셨다. 당시 언약을 맺을 때는 쌍방이 함께 지나가는 것이 관례였지만, 아브람은 잠들어 있었고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셨다. 이것은 언약 성취의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께만 있음을 의미한다. 나중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시내 산 언약은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조건적 언약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은 다르다. 아브라함의 신실함에도, 이스라엘의 순종에도 달려 있지 않다. 이



짐승의 쪼개진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

스라엘이 수천 년간 불순종하고 온 세계에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무조건적 언약에 있다. 하나님께서 홀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아브라함 언약에는 크게 일곱 가지 약속이 담겨 있다.

첫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13장 14-15절에서는 롯과 아브람이 갈라선 직후 "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씨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와 네 씨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하셨다. 이어서 13장 16절에는 씨를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셨고, 17절에서는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으로 지나가며 걸으라. 내가 그 땅을 네게 주리라."라고 하셨다. 두 발로 밟으며 걸어보라고 하신 것이다.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느끼며 이 땅이 네 것임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도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네가*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라고 하셨고, 18절에는 그 경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땅을 네 씨에게 주겠다고 하셨다. 17장 8절에서도 "내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에게 네가 나그네로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존하는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셨다. 땅에 대한 약속이 이렇듯 여러 차례 반복되고 강조된다는 것 자체가 이 약속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를 보여 준다.

예레미야서 31장 35-3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는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낮에 해를 빛으로 주고 밤에 빛을 내도록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주며 바다의 파도가 울부짖을 때에 바다를 나누나니 군대들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사람이* 위로 하늘을 잴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나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씨가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해 그들을 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은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 법칙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는 일도 결코 없다는 말씀이다. 사람이 하늘을 재거나 땅의 기초를 찾아낼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깨지지 않는다. 예레미야서 30-3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둘째, 민족을 만들어 내신다는 약속이다.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 약속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이 큰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것은 로마 카톨릭 신학에서 나온 사상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큰 민족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씨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고 그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 사래는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였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으로부터 큰 민족이 나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1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이다. 그 밤 아브람은 장막 밖에 서서 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씨 하나 없는 늙은 몸으로 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그러나 그는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다(창 15:6).

성경은 아브라함의 씨가 나중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 세상에서 이스라엘은 작고 고립된 나라처럼 보인다. 온 세계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장에서 이 민족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하나님은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많은 민족들'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다양한 육적 후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이스마엘을 통해 여러 아랍 민족들이 나왔고(창 25:12-18), 또한 그두라를 통해서도 여러 족속이 형성되었다(창 25:1-4).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문자 그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계보는 모든 육적 후손을 통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이어진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민족이 나왔다는 사실과, 그 가운데서 언약의 계보가 따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 중동 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민족들 역시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얼마나 넓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은 창세기 13장 14-18절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선 직후의 장면이다. 롯은 눈을 들어 요르단 온 지역을 바라보고 물이 넉넉한 좋은 땅을 택하여 떠났다. 아브라함은 남은 땅에 홀로 서 있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손해를 본 것이다.

그러나 롯이 떠난 직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과 씨와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 자리가 되었다. 사람이 양보하고 내려놓은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 믿는 자의 삶에서 이 원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넷째, 그의 이름을 크게 하신다는 약속이다.

아브람의 이름이 얼마나 크게 되었는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막론하고 모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부른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그의 존재를 인정한다. 갈대아 우르의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이름 없는 나그네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의 이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이루어진다.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시작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크게 하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이유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 역시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

의 평범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된다는 약속이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복이 되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나왔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나왔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나왔으며, 그 씨를 통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약속은 단순히 그가 복을 많이 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신이 온 인류를 향한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였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것을 살아 있는 동안 온전히 알지 못하였다. 그는 약속의 땅을 발아래 두고도 막벨라 굴 하나만을 소유한 채 나그네로 살다 죽었다. 그러나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후, 그의 씨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십억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그 구원의 계보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복이 되게 하실 때, 그 복은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그 사람을 통해 흘러나와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된다. 하나님의 복은 웅덩이가 아니라 강이다. 그 복은 고이지 않고 흐른다. 아브라함의 일생이 그것을 보여 준다.

여섯째,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과 저주의 약속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약속이다(창 12:3). 여기에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축복하는 자들'은 복수로 쓰여 있고,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쓰여 있다. 아브람을 축복할 사람이 저주할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원리를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향해 복과 저주의 기준을 세우셨고, 그 원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된 문

제로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분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심지어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인간적인 시각이나 현재의 상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라는 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도록 이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시대의 정치적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약속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 역사를 바라볼 때 비로소 균형 잡힌 시각이 형성된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취한 민족들이 일정한 번영을 누린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근대 역사에서 영국을 들 수 있다. 17세기 중반 유대인 재입국(1656년) 이후 약 250여 년에 걸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로마 카톨릭교회 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국은 오랜 기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릴 만큼 강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의 정책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동 문제와 관련하여 유대인에 대한 입장에서 점점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국제적 영향력 역시 점차 약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후 세계의 중심축은 미국으로 이동하였다. 미국은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최근에는 그 입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외교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경의 예언을 보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은 점점 그 나라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던 나라들이 점차 그 역할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등

장하여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게 된다. 그러나 그 언약은 중간에 깨지게 되고, 결국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포하는 사건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성경의 예언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과 연결되어 전개된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들을 단순히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면 본문이 말하는 실제 흐름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성경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일곱째,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다.

여기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혈통적 의미를 넘어, 믿음을 통해 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며 "성경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설명한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처음부터 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속 계획의 시작이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성경의 표현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 민족', '한 씨', '그 땅'과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차지할 땅을 가리킨다. 반면 '땅의 모든 가족들'과 같이 보편적인 표현이 사용될 때는, 믿음을 통해 복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처럼 아브라함 언약은 특정 민족을 향한 약속과 동시에, 믿음을 통해 온 인류에게 확장되는 구속의 약속을 함께 담고 있다.

멜기세덱(창세기 14:17-20; 히브리서 5-7장)

창세기 14장 17-20절에는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온다.

14: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아브람을 맞이하였고 18 살렘 왕 멜기

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20 네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람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니라.

만약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만 등장하고 다른 곳에서 언급되지 않는다면 굳이 깊이 다룰 필요가 없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과 히브리서 5장, 6장 20절,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 주는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먼저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빵과 포도즙은 그 시대 사람들의 주식이었다. 멜기세덱은 전쟁을 치르고 지쳐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 준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빵과 포도즙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셨을 때, 그 빵은 누룩 없는 빵이었고 포도즙은 발효되지 않은 것이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와 부패를 상징한다. 포도즙이 발효되면 누룩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룩 없는 빵과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만이 흠 없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온전히 상징할 수 있다. 오늘날 요르단강 주변 지역에서도 '0퍼센트 와인', 즉 포도즙을 판매하는 것은 이 지역의 오랜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수천 년 전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들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던 그 장면이,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주의 만찬으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즙을 받는 것으로 이어진다. 창세기 14장의 그 짧은 장면 안에 이미 구속의 핵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으로 시편 110편 1절은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



주의 만찬용 알코올 0% 와인(포도즙)


주의 만찬의 빵과 포도즙

을 네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LORD)께서 다윗의 주인이신 아도나이(Lord)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어서 4절에는 "**주**께서 맹세하셨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한 번 등장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시편 110편에서 다시 언급된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너'라는 그 인물과 연결되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선언이 주어진다. 이는 단순한 과거 인물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제사장 직분을 예표로 보여 주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43-44절에서 시편 110편이 바로 자신을 가리킨 것임을 직접 밝히셨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으시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거든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냐?"(마 22:45)라고 반문하셨다.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그 메시아가 단순한 후손이 아니라 다윗 위에 계신 주인,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렇다면 제사장 계통이 두 종류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제사장 계통은 레위 계통이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체계는 사실상 레위 계통으로만 이해되고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사람들, 곧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상기시킨다. "너희가 시편 110편을 읽어 보지 않았느냐. 거기에는 또 다른 제사장 계통이 나오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이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성경 안에, 레위 계통과는 다른 제사장 질서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 설명한다. 대제사장은 사람

들 가운데서 취해져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위해 임명받으며, 이 직분은 누구든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맡을 수 있다. 이어 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임을 밝힌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시편 2편 7절 말씀이 인용되며, 그의 신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6절에서는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라는 시편 110편의 말씀이 다시 인용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레위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와 선언으로 세워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9-10절도 "[그분께서]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라고 기록하여 이 사실을 확증한다.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내용을 더 깊이 설명하고자 했지만, 독자들의 영적 상태 때문에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들이 듣기에 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14장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멜기세덱에 대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은 주로 이집트 탈출 이후의 율법과 레위 제사장 체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멜기세덱의 계통이라는 개념은 그들에게 매우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잠시 멈추고 다른 권면으로 넘어갔다가,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다시 이 주제로 돌아온다. 그는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라고 말한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주제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결국 7장 전체를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에 할애하여 그 의미를 본격적으로 풀어 나간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

사장으로 소개된다.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과 연결되는 지명으로 이해되며, '평화'를 의미한다. 예루살렘의 옛 이름 여부스와 살렘이 결합되어 현재의 이름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을 뜻하고, 살렘의 왕이라는 표현은 '평화의 왕'을 의미한다.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름이 이미 예표로 보여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 매우 독특한 설명을 덧붙인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혈통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혈통을 증명해야 했다. 족보를 통해 레위 지파, 그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임을 입증해야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러한 족보가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그는 어느 혈통에도 속하지 않은 채 갑자기 등장하고 또 갑자기 사라진다. 이는 그가 땅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혈통을 초월하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것은 혈통에 근거한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하고 초월적인 제사장이심을 의미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히브리서 7장 7절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다."라고 기록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임을 성경이 직접 확인해 주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창시자인데, 그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는 것이다.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또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드렸다는 사실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당시 관습에서 어떤 존재에게 십분의 일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헌물을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대상의 우월성과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였다(히 7:4, 7).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제사장만이 십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

분의 일을 받는 대상은 아니었고 왕이나 통치자도 그렇게 받는 일이 있었다(삼상 8:15). 그러나 창세기 14장은 멜기세덱을 단순한 왕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창 14:18)으로 먼저 소개하고 있으며, 이어서 "아브람이 그에게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주었다."(창 14:20)라고 기록한다. 따라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적 권위를 가진 인물로 인정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핵심은 십일조 제도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제사장적 권위와 위치를 드러내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신학적 논리를 제

시한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분의 일을 드릴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허리 속에 있었던 레위도 함께 십분의 일을 드린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따르면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된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체계가 레위 계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은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지닌다. 첫째,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으며 레위 지파와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 둘째,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라는 점이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왕의 직분을 가지지 않지만,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만왕의 왕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셋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이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그분이 시간과 존재를 초월하시는 분임을 나타낸다. 멜기세덱에게서 보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해 볼 것이 있다. 멜기세덱은 주전 약 2000년경 창세기 14장에 단 한 번 등장한다. 그 후 천 년가량 지난 주전 1000년경,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단 한 번 그 이름을 언급한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시 110:4). 다시 약 천 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며 그것이 자신을 가리킨 말씀임을 분명히 밝히셨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약 30년이 지난 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을 함께 묶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낸다. 창세기에서 한 번, 시편에서 한 번, 복음서에서 예수님 자신의 입을 통해, 그리고 마침내 히브리서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이 흐름이 약 2,000년의 세월에 걸쳐 정확히 한 점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도저히 기획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인간 저자도 2,000년 후에 다른 저자가 자신의 글에 어떤 식으로 호응할지를 예측하여 글을 쓰지 못한다. 더욱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시편을 노래한 다윗,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환경, 다른 언어, 다른 문제의식 속에서 글을 남긴 사람들이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약속을 맞춘 일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긴 본문들은 마치 처음부터 한 사람이 한 호흡으로 쓴 것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있으며, 그 모든 본문이 가리키는 끝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저자가 한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전체를 단 하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한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라고 기록한다.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각자의 시대에 자기 글을 썼지만 그 모든 글의 배후에서 한 성령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2,000년의 시간차를 두고도 한 점에서 만나는 정밀한 구속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 사건은 단순히 흥미로운 한 일화가 아니다. 그것은 성경의 신적 영감, 성경 전체의 통일성,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이다. 인간 종교가 결코 만들어 낼 수 없는 이 정교한 일관성이야말로 성경이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 준다.



아브라함의 칭의: 믿음과 할례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창세기 15장 6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이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가 하는 칭의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만 머물지 않는다.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 야고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각각 이 구절을 인용하며 믿음과 행위와 칭의의 관계를 깊이 다루고 있다.

또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데, 이 할례가 칭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도 로마서 4장에서 정밀하게 다루어진다.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할례와 율법이 구원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성경 전체의 핵심 질문들이 이 한 사람의 이야기 안에 압축되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칭의와 믿음과 할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칭의란 무엇인가?

먼저 창세기 15장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람은 여러 왕들을 정복하고 조카 롯을 구출하여 모든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 돌아왔다. 그 직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람에게 임하여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라고 하셨다(창 15:1).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아브람이 여러 왕들을 패배시키고 돌아왔지만, 혹시 그 왕들이 다시 연합하여 침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창 13:15-16)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도 있었을 것이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켜 주는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때 아브람은 3절에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라고 말하였다. 씨가 없는 현실 앞에서 아브람은 솔직하게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였다. 그러자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순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밤 아브람은 장막 밖에 서서 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씨 하나 없는 늙은 몸으로 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그러나 그는 믿었다. 그리고 6절의 기록대로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어 성경에는 "He believed in the LORD."라고 되어 있다. 영어에서 'believe

in somebody'는 단순히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예를 들어 "I believe you."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I believe in you."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이 된다. 결국 어떤 인격체를 믿는다는 것은 그 존재를 아는 수준을 넘어 그 인격체의 말과 성품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분명해진다.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은 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약 2:19). 그러므로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존재 인식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다. 곧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람이 **주**를 믿었다'는 것은, 4-5절에 기록된 주의 말씀, 즉 아브람의 몸에서 날 자가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별처럼 많은 씨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였다는 뜻이다.

이것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상속 유업을 함께 나누어 받을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약속한다(롬 8:17). 그러나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이루어졌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브람도 씨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경험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 전지전능하시며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창 17:1; 렘 32:17; 딛 1:2).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눈앞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

씀하신 분의 인격을 신뢰하여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의롭다고 여기셨을 때 아브람의 내면이 즉시 변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고 이후에도 여러 실수를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사실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칭의가 아브람 자신의 어떤 변화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칭의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법적 선언이다. 죄인이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이것이 칭의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흔들리지 않는다. 칭의는 사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유효하다.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다.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이 선언에 있다.

또 한 가지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그가 이미 이루어진 현실을 보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아직 씨도 없었고, 약속의 성취를 보여 줄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크고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향하는 대상이다.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문제이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다.

창세기 15장 6절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로 반복해서 인용된다.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 등이 이 말씀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은 이후에 따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갈라디아서 3장 5-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로마서 4장 3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기록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믿음이란 무엇인가?

칭의는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하다.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칭의도 잘못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구약 시대의 믿음과 신약 시대의 믿음은 서로 다른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10세기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이들이 믿는 믿음은 각각 다른가?

결론부터 말하면, 믿음의 본질은 동일하다. 어느 시대에나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 모든 시대의 성도는 하나이다. 다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의 분량이 달랐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의 구체적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이다. 같은 시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하신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었다.

아담은 여자의 씨로 오실 분에 대한 최초의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믿었다

(창 3:15). 노아는 다가올 심판과 방주를 통한 구원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믿어 자기 집을 구원할 방주를 예비하였다(히 11:7). 아브라함은 자신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고 그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믿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시내 산에서 주어진 율법과 희생 제도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다윗은 자기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오시리라는 언약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들 모두가 결국 향하고 있던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1] 신약 시대의 우리는 그 동일한 그리스도를 이미 오신 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더욱 분명하게 알고 믿게 되었다.

「세대주의 바로 알기」 무료 PDF 책 QR 코드

각 시대 사람들은 자기 시대까지 주어진 계시의 분량 안에서 책임을 졌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오늘날 우리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완전한 복음을 명시적으로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 계시가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여자의 씨' 약속을 믿어야 할 책임은 분명히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이 완전히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분명하게 우리 위에 놓여 있다.

사도행전 17장 30-31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제한된 계시만을 주셨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진리가 밝히 드러난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 준다. 과거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1. 구약의 성도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복음의 완전한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믿었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점진적으로 계시하셨으며, 각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시의 범위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였다. 따라서 구약 성도들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지만, 신약 이후의 성도들이 가지는 명시적이고 완전한 복음 신앙과는 계시의 내용과 분량에서 차이가 있다(벧전 1:10-12).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셨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복음을 듣고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며, 그 책임 또한 더욱 무겁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본질, 곧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담부터 21세기 그리스도인까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분량과 선명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며, 사람은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라고 기록한다. 여기에서 장로들, 즉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벨부터 시작하여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드온, 삼손, 다윗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증인으로 제시한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고 서로 다른 내용의 약속을 받았지만 동일한 본질의 믿음으로 살았다. 그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었다. "이들이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다."라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 준다.

믿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첫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할 때, 믿음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믿음의 능력은 믿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있다. 다시 말해, 무엇을 믿느냐가 결정

적으로 중요하다.

잘못된 대상을 믿는 것은 아무리 열정적이고 진지한 믿음이라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사도행전 19장 13-16절에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스게와의 아들들 사건이 나온다. 이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지만 예수님과 참된 관계가 없었다. 믿음의 형식은 있었으나 믿음의 대상이 없었던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2-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요한이서 7-9절도 마찬가지이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믿음은 반드시 바른 대상을 향해야 한다. 그 대상은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이시며,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경건한 감정이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 믿음의 방향이 바른 곳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믿음은 영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믿음은 인간의 지성이나 의지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다.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 곧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

나님의 일들을 어리석게 여기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그의 지성과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일하실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을 강제로 주입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에 다가오실 때,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

셋째, 믿음은 직관적이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직관적(直觀的)이다. 그것은 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5장 6-7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으며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과 보는 것으로 걷는다는 것은 정반대이다. 보는 것으로 걷는다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 눈앞에 확인된 것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을 때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다. 별들을 바라보며 씨에 대한 약속을 믿었을 때 그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모리아 산을 오르며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그는 숫양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것이 믿음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천국을 본 사람이 없고, 부활의 몸을 경험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붙들고 직관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그렇

게 살았고,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증인들이 그렇게 살았으며,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2]

칭의는 행위와 무관하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증언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보여 주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 이전 사람이 있고 모세 이후 사람이 있다. 율법은 모세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사도 바울은 모세 이전 율법이 없던 시대에 살던 사람의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고, 모세 이후 율법의 시대에 살던 사람의 예로 다윗을 들어, 사람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할례나 율법의 행위와 같은 어떤 외적인 행위와 상관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로마서 4장 1절에는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온다.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런 형식으로 질문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라고 답한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다. "성경기록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롬 4:3).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방식이 인간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람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품삯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2. 믿음에 대한 부가적 설명과 동사 '믿다'와 명사 '믿음'에 대한 오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의를 주지 않으신다. 오히려 일을 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그리고 그 근거는 행위(일)가 아니라 믿음이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표현은 어떤 사람의 계좌에 무언가를 넣어 주는 것을 뜻한다. 즉, 그 사람 안에 본래 없던 것을 그의 것으로 돌려놓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표현은 전가의 개념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안에 실제로 의가 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돌려놓으심으로 그가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곧 우리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것이 칭의의 핵심인 이중 전가이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상태나 행위(일) 때문이 아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리스도께로 돌리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한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식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음을 신뢰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다윗의 예도 마찬가지이다. 로마서 4장 6-8절은 시편 32편 1-2절을 인용하는데 이 시편은 다윗이 극도로 큰 죄를 범한 이후에 기록한 것으로 이해된다.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남편이 있는 여인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다.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마저 죽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죄악이었고, 그는 스스로를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단 대언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떤 공로를 세

우거나 보상을 제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죄를 제거하셨다. 다윗에게는 내세울 행위도 없었고, 공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으셨다.

이 점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그의 죄를 가려 주시고 더 이상 그것을 그에게 돌리지 않으심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다. 이것 역시 전가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죄가 더 이상 다윗에게 계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으심으로 그는 의로운 자로 간주된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부르셨다.

이러한 처지에 있던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사람이 실제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더 이상 그에게 돌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로마서 4장 1-5절은 아브라함을 통해 율법 이전의 사람들이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로마서 4장 6-8절은 다윗을 통해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도 자기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을 증언한다. 결국 시대와 조건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원리는 동일하다. 그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시는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칭의의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도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

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셔야만 사람이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서 4장 1-3절의 논지는 이러한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롬 4:2)라고 말한 뒤, 곧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롬 4:3)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 구조는 분명하다. 행위는 의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믿음은 그 행위와 구별되는 것으로 제시된다. 만일 믿음 자체가 인간의 행위라면 바울이 굳이 행위와 믿음을 구분하여 설명할 이유가 없다.

또한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결과라면, '믿었다'는 표현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된다. 그 경우 믿음은 더 이상 사람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이루어 놓으신 상태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신뢰하였다고 말한다. 이는 믿도록 미리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 들음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다.

성경은 믿음을 행위로 보지 않는다. 행위는 무엇인가를 이루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행위는 공로를 전제하지만, 믿음은 공로를 전제하지 않는다. 믿음은 어떤 성취가 아니라 의존이며, 어떤 업적이 아니라 신뢰이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어떤 일을 이루어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음을 신뢰하였다. 이것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다. 만일 이것조차 인간의 공로로 본다면, 바울이 강조하는 '행위와 무관한 칭의'라는 메시지는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다.

결국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단순하고 직접적인 응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물론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선물은 강제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선물이 진정한 선물이 되려면 받는 자의 자발적 수용이 전제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뇌 속에 믿음을 주입하시고 그것을 '선물'이라 부르신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주입이다.

칭의는 할례와도 무관하다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다. 그 내용은 창세기 17장 23-27절에 기록되어 있고, 24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기록한다.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내세울 수 있는 두 가지 표가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할례의 표적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표적을 주시면서 그와 그의 씨에게 대대로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표를 근거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9절 이하에서 할례와 칭의의 관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아브람은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왔고(창 12:4),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창 16:16). 또 창세기 16장 3절에 따르면 사라가 하갈을 아브람에게 준 때는 그들이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 후이므로, 창세기 15장의 칭의 사건은 아브람이 84-85세 무렵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그는 99세에 할례를 받았으므로(창 17:24), 칭의와 할례 사이에는 약 14년의 간격이 있다.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할례를 받기 약 14년 전의 일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받은 때였느냐, 할례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받지 않은 때니라"(롬 4:10).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그가 아직 할례를 받기 전, 곧 이방인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였다. 다시 말해, 그가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할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민이며 자동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다.

마치 멜기세덱 사건이 2,000년 후에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예표가 된 것처럼, 할례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이후 14년이 지난 뒤에야 할례를 받게 하셨는가? 아마도 그 이유는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밝히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할례를 받은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 사건의 순서까지도 정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역사의 세세한 순서 하나까지도 미리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완전한 계획이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는가? 로마서 4장 11절이 그 답을 준다.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함이요."

즉, 할례는 이미 믿음으로 받은 의를 봉인한 표식이다.

여기에서 할례의 본질적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할례는 아프다. 살을 베어 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식으로 굳이 이것을 선택하신 데는 의미가 있다.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어떤 것을 잘라 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신약에서 이것은 마음의 할례로 이어진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은 "너희는 **주**를 위해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라고 말하며, 로마서 2장 29절은 "할례는 마음의 할례 즉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할례니라."라고 말한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란 마음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 육신의 욕심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다. 이것도 아프다. 그러나 그 아픔이 언약 백성의 표식이 된다.

다시 봉인의 의미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의를 주셨고, 그것을 봉인하기 위해 할례를 주셨다. 마귀가 와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봉인해 놓으신 것이다.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봉인이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능력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친히 봉인하셨다는 뜻이다. 에베소서 1장 13-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속받는 그날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 봉인된 것은 마귀가 열 수 없다. 이것이 믿는 자의 영원한 안전이다. 아브라함에게 살을 베어 내는 그 할례가 봉인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봉인하고 계신다.

골로새서 2장 10-1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할례를 설명한다. "또 너희는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 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것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 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그리고 이 할례는 침례와 함께 설명된다.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 이것이 신약 성도가 받는 영적 할례의 실체이다.

우리도 다 할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우리는 성령님의 침례로 말미암아 이 할례를 우리의 마음에 받았다. 히브리 사람들은 육체의 한 부분을 잘라 내는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할례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의 표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상태에서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사실

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로마서 4장 11절 하반부는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함이요."라고 기록한다.

'할례를 받지는 않았으나 믿는 모든 자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뜻하며,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도 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자들의 육신적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면에서는 이방인들의 조상도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다.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라는 4장 12절도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할례를 받은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을 가리킨다. 바로 그들에게만 아브라함이 참된 의미에서 할례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이 핵심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사람들 중 오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졌다.

오늘날도 동일하다. 현재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 사실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구원은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이 땅을 네 씨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성취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과 구원의 문제는 구분되어야 한다. 땅의 약속은 민족 전체와 관련된 것이지만 구원은 개인의 믿음과 관련된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어떤 믿음인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바로 그 믿음이다. 그것은 행위와 상관없는 믿음이며 어떤 공로에도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의롭다고 여기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근거는 율법 준수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며, 어떤 인간적인 공로도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근거이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이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몸으로 보여 준 증거이다.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라고 선언한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서로 모순되는 것인가? 믿음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하면서, 동시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지는가, 곧 칭의의 근거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 실제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말하고 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뿌리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열매이다. 뿌리 없는 열매가 없듯이, 열매 없는 믿음은 살아 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러나 열매가 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것이다. 칭의는 뿌리의 문제이고, 야고보서가 다루는 것은 그 뿌리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열매로 확인하는 문제이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진리의 서로 다른 면이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야고보서의 믿음과 행위 강해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믿음과 행위:
로마서와 야고보서 오해 풀기

앞 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칭의를 통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가를 살펴보았다. 행위와 상관없이, 할례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을 야고보서 2장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혼동을 느낀다.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야고보서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질문을 향해 나아간다.

믿는 사람의 삶은 실제로 어떠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가?

이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이다. 이제 야고보서 2장을 중심으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야고보서의 성격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다루고,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다루며, 12장부터 16장까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고보서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는 달리 신학적인 구원 교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다시 태어남,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같은 내용이 야고보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성령님께서는 한 차례, 예수 그리스도는 두 차례밖에 언급되지 않는다.

이 책은 구원의 교리를 바로잡거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다. 믿음이 바르면 믿음에 따른 바른 행위, 즉 거룩한 행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권고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를 생산해 내는 믿음이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한다. 이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를 보이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3장 13절도 "너희 가운데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라고 말한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에 상응하는 열매로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과 바울 서신이 말하는 믿음은 서로 모순되는가?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8절과 9절에서 읽기를 멈춘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어서 10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뜻인가?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이를 분명히 한다. 구원의 순간에는 행위가 전혀 개입하지 않으며, 오직 믿음만이 관계된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이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엡 2:10). 따라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삶 속에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만일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해된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는 구원을 받기 전에 공로를 쌓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

후에 믿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가리킨다.

반면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이 내세우는 공로를 의미한다. 따라서 바울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할 때의 '행위'와,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문맥에서 사용된 것이다.

결국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지는가, 곧 칭의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고, 야고보는 그 참된 믿음이 실제 삶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뿌리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진리의 서로 다른 측면이다.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

야고보서 2장은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을 대비하면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긍정적인 믿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믿음이 행위로 증명된다. 18절은 이렇게 말한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네 행위가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 되려면 거기에 걸맞은 행위가 있어야 함을 말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행위는 보이는 것이다. 보이는 행위를 통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입증된다.

둘째,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한다. 22절은 "네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미 의롭다고 여겨졌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약 35-40년이 지난 창세기 22장에서였다. 이것은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행위와 함께 드러났

다는 것이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한다.

셋째, 믿음의 소유자는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진다. 24절은 "그런즉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만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한다. 이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부정적 진술이 아니라 앞의 논증 전체를 마무리하는 긍정적 결론이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도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믿음의 본보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부정적인 믿음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행위가 없는 믿음이다. 14절은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마귀들의 믿음이다. 19절은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말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들이 누구였는가? 마귀들이었다.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잘 안다. 그런데 마귀들은 알기는 아는데 그분을 신뢰하지는 않는다. 그런 믿음은 마귀들의 믿음이라고 불린다. 이것도 결국 행위가 없는 믿음이다.

셋째는 쓸모없는 믿음이다. 이것은 14-16절에 나오는 내용이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고만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는 것이다. 긍휼을 베풀고 친절과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로만 믿는다 하고 이웃에게 아무 열매

도 내지 못하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다.

넷째는 죽은 믿음이다. 26절은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라고 말한다. 그것은 처음부터 죽은 것이다. 살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체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표현의 두 가지 의미

야고보서 2장을 이해하는 핵심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혹은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8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한다.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앞에서이다. 이때는 선한 행위가 전혀 상관없다.

그런데 로마서 3장 4절에는 "이로써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라는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실 필요가 있는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 의로운 것으로 드러났다는 의미이다. 누구 앞에서 드러났는가? 사람들 앞에서이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라는 말씀이 나온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의롭게 되셨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롭게 되실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이 드러남으로써, 그분이 참으로 의로우신 분임이 공개적으로 확증되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의가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의가 드러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행하신 모든 일과, 성령님을 통해 나타난 증거들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분명하게 밝혀 준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도

"지혜는 자기 자녀들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느니라."라는 말씀이 있다. 이것은 지혜가 열매를 많이 내면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의로운 것으로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2장 21절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애에서 세 번에 걸쳐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것은 구원을 세 번 받았다는 말이 아니다. 구원의 칭의는 단 한 번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일을 여러 번 하실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다. 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

이것은 구원의 칭의이다. 그는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아브라함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졌다.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에서 씨 하나 없는 늙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

두 번째 사례는 로마서 4장 19–22절이 가리키는 사건이다. "그는 백 세쯤 되었을 때에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당시 죽어 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과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난 또 다른 국면이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백 세에 가까운 나이였다. 그의 몸은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 역시 죽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더욱 강한 믿음을 보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다시 그에게 의로 전가하셨다. 이것은 구원의 칭의가 일어난 지 약 15년이 지난 뒤의 일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건은 많은 설교나 해석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해 왔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로마서 4장 3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뒤, 19절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하나의 연속된 사건으로 읽는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3절은 창세기 15장 사건을 가리키고, 19–22절은 그로부터 약 15년 뒤의 사건을 말하며 이 둘은 서로 다른 사건이다.

둘째,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 신학은 로마 카톨릭의 공로·행위 신학에 맞서면서 칭의가 구원의 순간 단 한 번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해 왔다. 그 과정에서 성화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측면은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졌고 그 결과 이 본문의 의미도 충분히 조명

되지 못했다.

셋째, 많은 주석가들은 바울과 야고보의 조화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면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입증되는 문제라는 틀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 틀 안에서는 로마서 4장 19-22절을 별도의 국면으로 구분하여 다룰 필요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넷째, 교회 현장에서도 구원 이후의 성화 과정, 곧 믿음이 자라고 단련되는 과정이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신학적 토대가 약하다 보니 이 본문 역시 자연스럽게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 본문의 의미는 분명해진다. 창세기 15장에서 처음 의롭다고 여겨진 아브라함의 믿음은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며 더욱 단련되고 강건해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성숙한 믿음을 그에게 다시 의로 전가하셨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약속을 믿었고, 창세기 17장 무렵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과 사라의 상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 성경은 이때 그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졌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성화이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은 단련되고 자라나며 더욱 깊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장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 따라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짐이 구원의 시작을 보여준다면, 창세기 17장에서 의로 여겨짐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숙해진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인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다. 야고보서 2장 21절은 이 일을 가리켜 이렇게 말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 구원을 받을 때의 칭의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입증된 사건을 가리킨다.

이때 그의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네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창세기 15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의 순종을 통해 마침내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 결과 23절은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고 여겨졌던 믿음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 완전히 입증되고 성취됨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나타난 세 번의 '의로 여겨짐'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이것들은 동일한 구원 사건의 반복이 아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칭의를 가리키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 성화의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점 강건해지고 온전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구원은 단 한 번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 믿음이 자라고 삶 속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계속된다.

25절의 라합도 같은 원리를 보여 준다. 라합은 여호수아기 2장 9–11절에서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고백하였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 믿음은 정탐꾼들을 숨겨 주는 목숨을 건 행동으로 나타났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가 뒤따랐고, 그 행위를 통해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입증되었다. 그래서 25절은 라합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말한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모든 면에서 대조적인 인물이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고, 라합은 가나안의 창녀였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두 사람을 나란히 제시함으로써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한다. 참된 믿음은 누구에게서든 동일한 본질을 가지며, 반드시 삶 속에서 행위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믿음의 단련과 성화:
히브리서 6장과 야고보서의 연결

히브리서 6장 4-8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 엄중한 경고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이 "한 번 구원받은 자도 그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주장해 왔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교리를 거부하는 일부 진영에서는 이 본문을 구원 상실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문의 문맥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결과이다. 히브리서 6장은 독립된 본문이 아니다. 그것은 13-15절에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사건을 직접 인용하는 본문이며, 동시에 야고보서가 다루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라는 더 큰 신학적 흐름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히브리서 6장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단련과 행위의 열매에 관한 가르침이며, 다른 하나는 창세기 15장에서 시작되어 22장에서 완성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필 때 비로소 히브리서 6장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다.

핵심은 이것이다. 히브리서 6장은 구원의 시작에 관한 본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에 관한 본문이다. 4-8절의 엄중한 경고는 구원을 잃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불순종 가운데 머물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에 대한 경고이다. 그리고 그 경고에 이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더 큰 이를 두고 맹세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런 식으로 그가 끈

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히 6:13-15)에서 아브라함의 예가 제시되는 것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격려로 보여 주기 위함이다. 이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단련과 인내'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제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6장, 그리고 창세기 22장을 함께 살피며 이 진리를 자세히 풀어 보자.

야고보서 1장 3절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말한다. 이것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단련시키신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단련은 구원받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 과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다. 구원은 그때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수십 년에 걸쳐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켜 가셨다. 아브라함의 모든 육신적 소망을 하나씩 걷어 내셨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다. 100세에 기적으로 얻은 아들, 약속의 씨인 이삭을 약 이십 년 후에 번제 헌물로 드리라는 것이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 밝히 보여 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는 창세기 15장에서 시작된 믿음이 수십 년의 단련을 거쳐 마침내 부활 신앙의 수준에까지 이른 것이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네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의 행위를 통해 완전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이다.

히브리서 6장 13-15절은 아래에 있는 창세기 22장 16-18절의 맹세를 신약

의 시각에서 다시 조명한다.

22:16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이것을* 맹세하였노라. 즉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7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18 또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천사가 전해 준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약속을 단순히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며 확증하신다.

그리고 그 맹세의 시점이 중요하다. 창세기 22장 16-18절, 즉 "네가 이 일을 행하여…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려 했던 바로 그 순종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로 응답하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상태였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서는 그 믿음이 행위로 완전히 드러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드러난 믿음에 대해 약속을 더욱 확고하게 보증해 주신 것이다.

따라서 이 장면은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하여 온전히 드러난 순간을 보여 주는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맹세로 확증해 주신 것이다. 히브리서 6장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견딘 끝에 마침내 그 약속을 실제 역사 속에서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맹세로 확증해 주셨다.

히브리서 6장의 앞부분인 4-8절은 바로 이러한 내용과 연결되는 엄중한 경고이다. 이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계속 불순종과 타락 가운데 머물 경우, 보상을 잃을 뿐 아니라 심지어 육체적 생명까지 잃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구원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6장의 문맥이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1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구원의 출발점을 보여 주지만, 창세기 22장은 이미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을 통해 드러나고 온전해지는 성화의 국면을 보여 준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3-15절은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인용하며 전개된다. 따라서 히브리서 6장의 핵심 주제는 구원을 얻은 뒤 그것을 잃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 이후 믿음이 인내와 순종 속에서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하는 성화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4-8절의 경고 역시 구원을 잃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불순종이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같이 받으리라."라고 말한다. 곧 구원받은 사람이 불순종 가운데 살 경우 구원 자체를 잃지는 않지만, 성화의 열매와 보상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는 주의 만찬을 분별없이 행한 자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도 있었다고 기록한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로 육체의 생명을 거두실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4-8절의 경고를 마친 직후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곧바로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하여는 더 좋은 것들과 또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만일 4-8절이 "구원받은 자도 그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었다면, 9절에서 '그러나'라는 강한 반전의 접속사로 수신자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4-8절이 구원 상실의 가능성을 가르치는 본문이라면 9절은 "그러므

로 두려워하라."가 되어야 마땅하지, "그러나 너희에게는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한다."가 될 수 없다.

오히려 9절은 4-8절의 경고가 수신자들의 구원 자체를 흔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화의 길에서 깨어 있으라는 권면이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바울은 그들의 구원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성화의 열매와 그에 따른 보상의 문제이다. 9절의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 점을 가리킨다. 즉, 구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구원에 마땅히 동반되어야 할 열매와 성숙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4-8절의 경고와 9절의 확신을 함께 놓고 볼 때, 그리고 13-15절의 아브라함 사건과 함께 살펴볼 때, 히브리서 6장 전체의 흐름은 분명해진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이후의 성화에 관한 본문이지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가르치는 본문이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일생은 구원과 성화를 함께 보여 주는 가장 선명한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창세기 15장은 구원을 보여 준다.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반면 창세기 22장은 성화를 보여 준다. 이미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수십 년의 단련을 거치며 점점 강건해졌고, 마침내 이삭을 드리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난 것이다.

이 점에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의 의미도 분명해진다.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성화의 과정 속에서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믿음이 자라면서 반드시 삶 속에서 선한 행위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 바울의 서신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말할 때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칭의를 가리킨다. 그것은 선한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이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이다.

반면 야고보서는 칭의의 근거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와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의 진실성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 곧 야고보가 말하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로 살아 있는 믿음임이 드러나고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바울은 칭의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 어떤 행위의 열매를 맺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뿌리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말한다. 이 둘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진리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 준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2–15절이 보여 주듯이,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행한 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아 보상으로 이어지지만, 믿음 없이 행한 일들은 불에 타 사라지게 된다. 구원은 유지되지만 보상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믿음에 합당한 선한 행위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 약 45년에 걸친 단련의 과정을 지나 마침내 모리아 산에서 믿음의 완성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단련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을 점점 더 온전히 누려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호와이레

창세기 22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들이*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이 구절의 여호와이레(Jehovah-jireh), 이 호칭 안에는 성경 전체의 복음이 압축되어 있다. 여호와이레는 '주께서 미리 보시고 예비하신다'라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보시고 준비해 두신다. 아브라함이 이 호칭을 붙인 것은 단순히 이삭이 죽지 않고 구원받은 날의 감격을 기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를 선포한 것이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믿음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후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 주는 예표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서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구원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여호와이레라는 이름은 단순한 사건의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드러내는 선언이다. 이제 이 여호와이레의 사건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역사적 배경

주전 2000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350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 창세기 12장 1-3절에 기록된 그 약속은 땅을 주시겠다는 것,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마침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창 12:4). 창세기 15장 5-7절에는 아직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 별들을 보여 주시며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온다.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당시 풍습을 따라 하갈을 취하였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창 16:3). 이스마엘에게서 지금의 아랍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 이후 13년을 더 기다려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6-8절에 기록된 민족과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21장 5절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된다.

이렇게 75세에서 100세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려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다. 그 과정 중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씨가 없는데도 그는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 의롭다고 여겨진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그 증거이다.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온 지 약 45년이 지난 후,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호칭을 얻게 된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다.

시험과 순종

창세기 22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22:1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2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는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 줄 산들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

이스마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뿐이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었고,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은 이삭뿐이었기 때문이다. 번제 헌물이란 짐승을 죽여서 온전히 태워 그 전체를 드리는 헌물이다.

이 시점에 이삭의 나이는 아마도 20세 정도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아브라함은 120세쯤이었다. 청년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얼마나 큰 시험이었는지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5절에 있는 대로 함께 데리고 간 청년 둘을, 자신이 하려는 일을 막을까 봐 산 아래 남겨 두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한 다음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창세기 22장 6절은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웠다고 기록한다. 청년 이삭이 그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른 것이다.

수천 년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다(요 19:17). 아들이 나무를 지고 죽음의 산을 오르는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이미 그려져 있다.

산을 오르는 중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은 어디 있습니까?"(Where is the lamb for a burnt offering?)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실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어린양은 어디 있습니까?"라는 이삭의 질문은 단순히 한 청년의 물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깊은 질문 가운데 하나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양에서 어렴풋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이르면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양같이 끌려갔고"라는 예언을 통해 그 답이 한결 분명해진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라고 외칠 때 그 답이 온전히 드러난다. 이삭의 질문은 수천 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갈보리에서 비로소 그 완전한 답을 얻었다.

또한 우리는 5절에서 아브라함이 청년들에게 한 말을 주목해야 한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자기와 아이가 함께 돌아오겠다는 이 말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만일 이삭을 죽여서 번제 헌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는 확실히 믿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17-19절에 기록되어 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련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신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죽은 자들로부터 또한 그를 모형

으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려고 나아간 그 행위를 통해 모형으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았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신다고 기록하고 있다(약 2:23).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손을 들어 칼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천사가 급히 나타나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대신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숫양을 잡아 번제 헌물로 드리게 했다(창 22:11-13). 이것이 대신 속죄이다. 원래는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숫양을 예비하셔서 그 숫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 이 사건 안에 이미 갈보리의 복음이 완벽한 모형으로 새겨져 있다.

여호와이레의 의미

여호와이레(Jehovah-jireh)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이레'(yireh)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아야 한다. 여호와이레에서 '이레'는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순간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다보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곧 하나님께서 내다보신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르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고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에서 태어나며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두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는 과거를 아는 것과 미래를 아는 것이 동일한 차원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보다'라는 개념은 곧 '미리 보다'라는 의미로 확장된다. 영어에서도 단순히 '시'(see, 보다)와 '포어시'(foresee, 미리 보다)가 구분되지

만, 하나님께는 이 둘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신다. 여기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생긴다. 미리 내다보는 것을 '포어사이트'(foresight, 선견·미리 봄)라 하고, 그렇게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일을 '프로비전'(provision, 예비·공급)이라 한다. 프로비전(provision)은 라틴어 '프로비데레'(providere, 미리 보다·미리 준비하다)에서 유래한 말이다. 바로 이 프로비전, 곧 예비하심이라는 개념이 창세기 22장의 핵심이다.

더 나아가 이 단어에서 나온 또 하나의 중요한 신학 용어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번역되는 '프로비던스'(providence)이다. 프로비던스는 단순한 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며,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 미리 예비하고 다스리시는 섭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창세기 22장 8절의 "주께서 예비하시리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한 마리 숫양을 준비하셨다는 뜻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생명, 더 나아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까지 미리 보시고 자신의 구속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섭리의 선언이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섭리(providence)는 하나님의 예비(provision)를 낳는다. 하나님은 먼저 보시고 나중에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보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예비는 우연한 대응이나 사후 대책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된 섭리의 결과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심'은 곧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곧 하나님의 '섭리'의 표현이다. 창세기 22장의 숫양은 단순한 공급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만들어 낸 하나님의 예비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라고 말했을 때, '예비하시리라'(히브리어 '이레')는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보시리라" 또는 "미리 보시리라"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를 미리 내다보시고 그 필요에 맞게

예비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14절의 "**주**의 산에서 *그들이* 그것을 보리라."라는 말씀에도 동일한 히브리어 '이레'가 사용된다. 개역 성경은 이를 '준비하리라'로 번역하였지만 이것의 본래 의미는 '보다'이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보심'에서 '예비하심'이라는 뜻이 파생된 것이다. 하나님은 필요가 발생한 뒤에 대책을 마련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그에 따라 예비하시는 분이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이레'라는 이름에 담긴 핵심 의미이다.

이 개념은 구약의 '선견자'라는 호칭과도 연결된다. 구약 시대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선견자'라고 불렸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선견자를 찾아가 미래를 알아보려는 경향이 강해졌고, 그 결과 호칭이 점차 '대언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본질적인 사명이고, 미래를 말하는 것은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 호칭의 변화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기상 9장 9절에 나타난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 여쭈려 할 때에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사람들이* 지금 대언자라 부르는 자를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

결국 '여호와이레'라는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그 보심에 따라 정확하게 예비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보고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그에 따라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는 분이시다.

모리아 산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다(창 12:8; 13:4). 그러나 구약 성경이 보여 주는 핵심은, 이 모든 희생 제사가 실체가 아니라 장차 올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다는 사실이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한다. 구약 시대의 희생물은 죄를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니라 덮어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양으로 오심으로,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 점에서 창세기 22장의 이삭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 이삭은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물로 바쳐졌지만,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니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 말하듯 이 사건은 모형적인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이삭 대신 숫양이 죽었기 때문에, 이삭은 더 큰 희생을 가리키는 예표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실체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미가서 6장 6-7절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해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은 짐승의 희생물로도, 심지어 자기 자식을 드리는 것으로도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희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어야 한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희생물이 되실 때에만 참된 속죄가 이루어진다.

이제 모리아 산의 위치와 의미를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다. 역대기하 3장 1절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한다.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 산 위에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하고 있었다(창 21:33-34; 22:19).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 80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되며, 창세기 22장 4절은 아브라함이 셋째 날에 그곳을 멀리서 보았다고 기록한다. 이는 아브라함이 단순한 충동이나 순간적인 결심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아들을 하나님께 드

려야 한다는 명령을 마음에 품고 걸어갔음을 보여 준다. 그 여정의 끝에 있었던 장소가 바로 훗날 성전이 세워질 모리아 산이었다.



모리아 산 위치

그렇다면 그 땅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역대기상 21장에 그 배경이 나온다. 다윗이 교만하여 인구 조사를 하였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역병이 임하였고,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백성과 자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바로 그곳이 모리아 산이다.

따라서 모리아 산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대신 속죄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영적 의미를 가진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숫양을 드렸던 곳, 다윗이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물을 드렸던 곳, 그리고 그 위에 성전이 세워져 수많은 희생물이 드려졌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다.

성전이 완성된 후 역대기하 7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 성전을 채우시며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단순히 짐승의 희생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자신의 영광을 두시겠다고 하신 것은 장차 그곳에서 이루어질 참된 속죄를 미리 보셨기 때문이다.

그 참된 속죄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다. 바로 그 사건이 모리아 산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역시 이 모리아 산 지역에 속한다.

결국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시작하여 다윗의 회개를 거쳐 성전의 희생 제사로 이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 무대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일을 미리 보시고 준비하셨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이레의 실체이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보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구약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과 인류의 모든 기원을 다룬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타락하고, 그 결과 죽음과 수고를 짊어진 채 에덴동산에서 쫓겨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를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신다.

타락 이후 인류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 믿음과 불신의 두 길로 갈라지고,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방주를 예비하고 가족과 생물들을 보존하며, 홍수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다.

이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 이름을 높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을 온 세상으로 흩으신다. 이처럼 창세기의 첫 열한 장은 창조와 타락, 홍수 심판과 은혜, 바벨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질 토대를 마련한다.보기를 원했다는 명시적인 기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날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짚어야 한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인격,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구체적 내용을 신약 성도들처럼 명시적으로 알고 믿었다는 뜻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1장 10-1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구약의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 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라고 기록한 사실과 모순된다. 구약 성도들은 자기들이 받은 약속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살피며 탐구하였을 뿐, 그 내용을 신약 성도들처럼 분명히 알지는 못하였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아브라함이 자기 시대까지 주어진 계시의 분량 안에서 장차 자기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창 12:3; 22:18)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며, 특히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이레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물을 예비하신다는 깊은 진리를 경험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는 그 약속과 그 경험을 통해 장차 오실 구원의 날을 어렴풋이 바라보고 기뻐한 것이다. 그가 본 것은 신약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보는 것처럼 명확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과 예표 안에서 어렴풋이 인식된 메시아의 날이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신약 시대 수준의 명시적 복음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대의 계시 안에서도 그가 메시아의 날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과 예표가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한 그 약속의 성취이심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다.

그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희생물로 드려진 숫양의 궁극적인 실

체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린양을 예비하시리라"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예비하신 것은 숫양이었다. 어린양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숫양은 장차 오실 참된 희생물을 예표로 보여 주는 그림자에 불과하였으며, 그 약속은 수천 년 뒤 갈보리에서야 비로소 완전히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선포하였다. 베드로전서 1장 18-19절과 요한계시록 5장 11-13절 역시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참된 희생물이심을 증언한다.

마침내 그 실체가 역사 속에 드러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리아 산 일대인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선포하셨다. 이는 단순한 죽음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다.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여호와이레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예비하신 그 희생물이 실제로 드려진 것이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보았던 그 어린양의 그림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침내 실체로 나타난 것이다.

모리아 산과 이스라엘의 꿈

모리아 산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1948년 5월 14일,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하루 만에 국가를 선포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루살렘 구시가지와 성전 산은 이스라엘의 손에 있지 않았다. 그 땅은 요르단이 점유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성전 산을 되찾은 것은 1967년 6일 전쟁을 통해서였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성전 산에 올라 국기를 세웠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약 2,000년 만에 되찾은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그곳에는 이슬람의 황금 돔 사원과 알아크사 모스

크가 서 있다. 이스라엘이 성전 산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종교 갈등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은 겉으로는 영토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성전 산이 있다.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슬람은 이곳을 무함마드가 승천한 장소로 여기고 있으며, 유대인들은 이곳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자리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믿는다. 이 두 입장은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갈등은 외교나 군사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단순한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많은 유대인들의 소망은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로 이어지고 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연구소(Temple Institute)라는 단체가 존재하며, 이 단체는 오랜 기간 성전 재건을 준비해 왔다. 제사장이 입을 예복을 이미 제작해 두었고, 금 등잔대와 분향 제단, 제사장의 관, 악기와 각종 성전 기구들을 성경의 규격에 따라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 또한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 후



예루살렘의 성전연구소

글자가 너무 작아져
일단 1쪽 전면 배치합니다

손들을 찾아 훈련시키는 일도 진행하고 있으며, 성전 제사에 사용될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이 모든 준비는 성전이 다시 세워질 날을 대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바로 그 모리아 산이어야 한다.

성경은 이 모리아 산에 앞으로 또 하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고한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고, 그 중간에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환난기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는 천년 왕국 시대에 세워질 성전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 성전은 이전의 어떤 성전보다도 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시대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모리아 산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자리에서, 다윗이 속죄를 드렸던 자리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완성하신 그 지역에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마침내 천년 왕국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의 산에서 *그들이* 그것을 보리라."라고 하셨을 때, 그 모리아 산은 단순한 지명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다. 인류 구속의 역사가 집중되어 전개되는 중심 무대를 가리킨 것이다. 여호와이레(Jehovah-jireh),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신다는 그 이름이,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산 위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이레 사건에서 드러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숫양이 대신 희생물로 등장한다. 이 사건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를 이루실 그 장면을 여호와이레라는 호칭을 통해 미리 보여 주고 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곧 그의 유일한 아

들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친히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이 사건은 단순히 그의 믿음을 시험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동시에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 주는 예표였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은 갑자기 등장한 계시가 아니다. 그 진리는 이미 창세기 22장의 여호와이레 사건 속에 예표로 담겨 있었으며,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침내 그 실체로 성취되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후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미리 보시고 계획하시며 준비하고 계셨다. 그 목적은 단 하나, 대신 속죄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여호와이레의 그 약속이 마침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전한 실체로 성취되었으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의 정점이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역사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땅과 씨와 복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 약속으로부터 한 민족이 탄생하였고, 그 민족을 통해 인류의 구속 역사가 전개되었으며, 그 민족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왔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왔으며, 야곱의 열두 아들로부터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형성되었다. 이집트의 종살이와 광야의 방랑, 가나안 정복과 왕국의 영광, 분열과 멸망과 포로 생활, 귀환, 침묵의 400년,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과 거절,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 1948년의 건국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과 은혜가 교차하는 드라마이다. 이 민족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민족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순서대로 살펴보려 한다.

유대인은 누구인가?

창세기 22장 이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성경의 초점은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열두 지파로 자연스럽게 옮겨간다. 야곱이 열두 지파를 축복하고 죽은 뒤, 그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으로 창세기는 막을 내린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계보가 한 민족으로 확장되는 과정이 이어진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본래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메시아가 나오는 그 계통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었다(왕하 16:6; 에 2:5). 왕국 시대에 이르러 르호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나뉘게 되는데, 남왕국 유다에는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였고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다.

이후 바빌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살던 히브리 사람들을 가리켜 '유대인'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단수 '유대인' 구약 10회, 신약 22회, 총 32회; 복수 '유대인들' 구약 82회, 신약 175회, 총 257회).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보여 주는 역사적 증거이기도 하다. 이 민족은 오랜 세월 세계 각지로 흩어져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왔지만,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웠다. 한 번 흩어진 민족이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뒤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한 채 같은 땅으로 돌아와 국가를 재건한 사례는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았다는 사실이다(롬 3:1-2).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해 이 민족을 사용하셨고, 구약 성경은 그들을 통해 전수되었다. 신약 성경 역시 대부분 유대인 저

자들을 통해 기록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으로 오셨다.

그러나 유대인의 사명은 단순히 말씀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셨다. 이는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민족은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흩어지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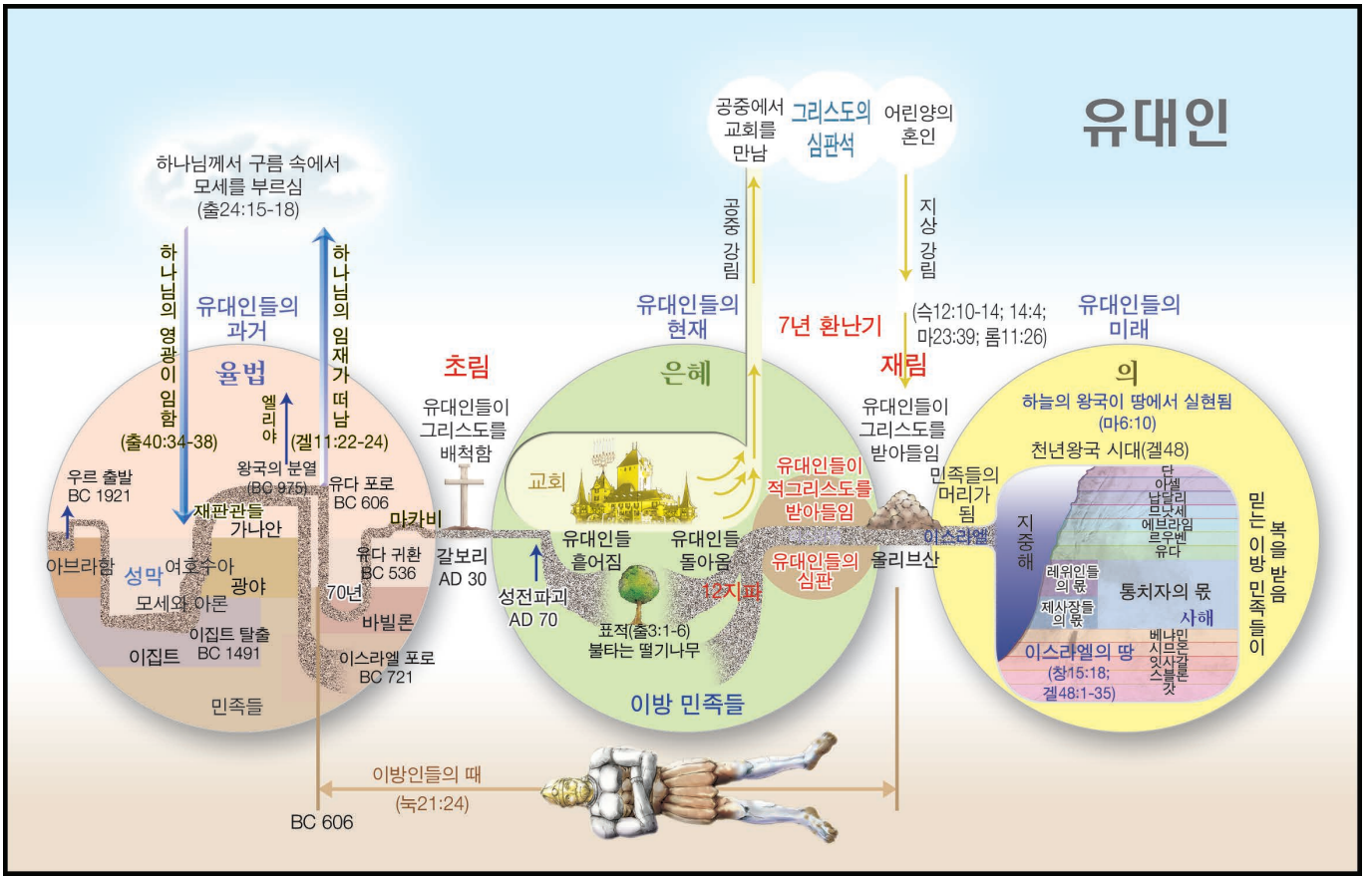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롬 11:29)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민족은 거절과 흩어짐과 회복의 긴 과정을 지나, 마침내 천년 왕국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본래 사명을 완전히 성취하게 된다.

히브리 사람은 누구인가?

히브리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간 민족이다.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은 창세기 14장 13절에 처음 등장하며, 거기에는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명칭은 단순한 민족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기원과 정체성을 함께 담고 있는 말이다.

'히브리'(Hebrew)는 히브리어 '이브리'(Ivri)에서 나온 말로, 기본적으로 '건너온 자', '넘어온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는 동사 '아바르'(abar, 건너다)에서 파생된 말로, 지리적 이동과 삶의 방향 전환을 함께 나타내는 표현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곧 큰 강(유프라테스)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따라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에는 단순한 혈통 이상의 의미, 곧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전 삶의 영역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유대인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심 (출24:15-18)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 (출40:34-38)
하나님의 임재가 떠남 (겔11:22-24)
유대인들의 과거
율법
엘리야
우르 출발 BC 1921
왕국의 분열 (BC 975)
유다 포로 BC 606
재판관들
가나안
마카비
아브라함
성막
여호수아
광야
유다 귀환 BC 536
갈보리 AD 30
70년
모세와 아론
바빌론
이집트 탈출 BC 1491
이집트
이스라엘 포로 BC 721
민족들
초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
교회
유대인들 흩어짐
유대인들 돌아옴
성전파괴 AD 70
표적(출3:1-6) 불타는 떨기나무
이방 민족들
공중에서 교회를 만남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양의 혼인
공중 강림
지상 강림
유대인들의 현재
은혜
7년 환난기
(슥12:10-14; 14:4; 마23:39; 롬11:26)
재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임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임
민족들의 머리가 됨
유대인들의 심판
12지파
이스라엘
올리브산
유대인들의 미래
의
하늘의 왕국이 땅에서 실현됨 (마6:10)
천년왕국 시대(겔48)
지중해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레위인들의 몫
제사장들의 몫
통치자의 몫
사해
베냐민
시므온
갓
이스라엘의 땅 (창15:18; 겔48:1-35)
믿는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음
이방인들의 때 (눅21:24)
BC 606

나아간 사람이라는 신앙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히브리'라는 명칭은 족장 에벨(Eber)의 이름과도 연결된다(창 10:24). 에벨은 셈의 후손 가운데 중요한 인물로, 성경은 셈을 '에벨의 모든 자손들의 조상'이라고 표현한다(창 10:21). 아브라함 역시 이 에벨의 계보에 속하며, 여러 세대를 거쳐 그 계통이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 사람'은 곧 에벨의 후손을 가리키는 계보적 명칭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에벨이 매우 장수하여 아브라함과 상당 기간 같은 시대를 살았고 이삭과 야곱의 초기 시대까지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는 창세기의 족보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 겹쳐 살아간 인물들의 역사적 연결임을 보여 준다. 곧 아브라함의 믿음과 부르심은 추상적인 전통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계보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결국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은 두 가지 의미가 결합된 표현이다. 하나는 에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 정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으로 나아간 사람이라는 역사적·신앙적 정체성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히브리 사람들은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구별하신 백성으로 이해된다.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은 문맥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본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이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힘을 겨루며 사람들과 힘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을 통해 그의 삶이 전환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 이

름은 단순한 개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규정된 정체성을 나타낸다.

이후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이름에 머물지 않고, 그의 후손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확장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은 곧 야곱의 후손 전체, 즉 한 민족 공동체를 의미하게 된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고, 이 열두 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형성된다.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잇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가운데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두 지파로 나뉘어 계승되므로, 실제 지파 구성에서는 요셉 대신 이 두 지파가 포함되기도 한다. 또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무를 맡아 땅을 분배받지 않는 특별한 지파로 구별된다. 이런 이유로 상황에 따라 열두 지파의 구성 명단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전체 구조는 항상 '열둘'이라는 틀을 유지한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 사람 야곱에게서 시작되어 열두 아들을 통해 지파로 확장되고 그 지파들이 모여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구조를 가진다.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곧 야곱의 후손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오 이스라엘아!"와 "오 야곱아!"가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이라는 명칭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라기보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다른 표현들이다. 초기에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이후 민족적 정체성이 확립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명칭이 중심이 되었으며, 바빌론 포로 이후에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유다 민족과 히브리 민족의 뿌리는 아브라함에게 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에게서 시작되지만, 야곱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므로 결국 아브라함이 이 민족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Father Abraham)이라고 부른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아버

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단순한 가족 관계가 아니라 민족의 조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아브라함은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목자였다.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 채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러한 삶의 흐름 속에서 야곱의 열두 아들이 태어나 열두 지파가 형성되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먼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기근이 임했을 때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러들였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이집트 노예 생활과 가나안 정복 및 재판관들의 시대

창세기 15장 13-16절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과, 그 이후 네 번째 세대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미리 알려 주셨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라고 분명히 밝히신다. 여기에서 '네 번째 세대'는 야곱의 아들 레위로부터 시작하여 레위 → 고핫 → 아므람 → 모세·아론에 이르는 4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족장 시대의 긴 수명을 고려할 때 한 세대를 100년 가까이 잡으면 약 400년이라는 기간과 자연스럽게 부합한다.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

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와 맞지 않는 해석이다. 레위기의 규정에 따르면, 새를 드릴 때는 원래 쪼개지 않는 방식이 정상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불순종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두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충분히 번성하여 하나의 큰 민족으로 형성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둘째는 가나안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그 기간 동안 점점 쌓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큼 충만해지도록 기다리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공의가 충만해질 때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 걷는 남자만 약 60만 명이었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300만-400만 명에 이르는 큰 무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집트를 탈출한 첫 세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모세 역시 그 과정에서 죽었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이스라엘은 재판관들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무엘이 마지막 재판관이 될 때까지 이어진다. 이 시기의 특징은 반복되는 영적 타락과 회복의 순환이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워 구원하셨다. 그러나 그 재판관이 죽으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이 시대를 이렇게 요약한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때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그 왕을 버리고 각자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다. 이러한 혼란과 반복되는 실패의 끝에서, 백성들은 결국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된다.

왕정 시대와 왕국의 분열

사무엘이 마지막 재판관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왕정이 시작되었다. 초대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통치하여 약 120년 동안 세 사람이 연속하여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였다. 백성들이 세금과 노역의 짐이 너무 무겁다며 가볍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르호보암이 이를 거절하였고, 그 결과 왕국은 둘로 분열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넘어가고,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었다.

열두 지파 가운데 북쪽에서는 요셉의 지파인 에브라임이 중심 세력이었고,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었다. 가나안 정복 당시에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다.

남왕국 유다는 아달랴라는 여왕이 잠시 등장한 것을 제외하면 바빌론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바뀌며 통치되었고, 성경의 평가에 따르면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면서 결국 BC 722년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으며, 그 멸망의 이유는 열왕기하 17장 6-23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아시리아는 북왕국을 멸망시킨 뒤 인구를 강제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고, 대신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켰다. 그 결과 남아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이 섞이게 되었고, 신앙도 혼합되기 시작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옛 신들을 섬기는 혼합 종교가 형성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족적 혼합도 일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이스라엘 혈통과 이방 혈통이 섞인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이 요한복음 4장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남왕국 유다는 약 100년 이상 더 존속하였다. 그러나 유다 역시 우상 숭배로 인해 결국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BC 606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다. 다니엘이 잡혀간 것은 첫 번째인 BC 606년이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고, 그 멸망의 과정은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되어 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은 약 70년 동안 이어졌다. 이는 대언자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한 기간이었으며(렘 25:11-12),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그 기간을 깨닫게 되었다. 이 포로 기간 동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났다.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회당을 형성하게 되었다.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예배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배경이 되었다.

70년이 차자 바빌론 제국은 무너지고 메대-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였다. BC 53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 바빌론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집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대하 36:22-23).

포로들의 귀환 역시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다윗 왕의 후손인 스룹바벨의 인도로 BC 536년에 이루어졌으며, 이들에 의해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여 BC 516년경에 완성되었다(에스라 1-6장). 두 번째는 에스라의 인도로 BC 458년에 이루어졌고(에스라 7-10장),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인도로 BC 444년에 이루어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느헤미야기). 에스더기는 이 세 차례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남아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대언자는 말라기였다. 말라기가 BC 430년경에 기록을 남긴 이후,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간은 흔히 '침묵의 400년'이라고 불린다. 이 시기에 외경이라 불리는 여러 역사적 문서들이 기록되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침묵의 400년과 열강의 각축

침묵의 400년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무너졌다. 그는 BC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BC 330년경 페르시아 제국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BC 323년에 갑자기 죽자, 그의 제국은 여러 장군들에 의해 분열되었고 결국 네 개의 왕조로 나뉘었다. 그 가운데 특히 강력했던 두 세력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레우코스 왕조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였다.

지리적으로 보면 시리아가 북쪽에 있고, 팔레스타인이 그 중간에 있으며, 이집트가 남쪽에 위치한다. 이 구조 속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세력을 확장하려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했고, 셀레우코스 왕조가 강성해지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두 세력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은 양 세력 사이의 통로가 되었고, 끊임없는 전쟁과 약탈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졌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기대, 곧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점점 강하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BC 168년,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들어가 돼지를 희생물로 바치는 신성모독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극도의 모욕이었고, 결국 맛다디아와 그의 다섯 아들을 중심

으로 독립 운동이 일어났다. 이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란을 마카비 반란이라 하며, 이로 인해 하스모니아 왕조가 형성되어 일정 기간 유대인들의 자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자치는 오래가지 못했다. BC 63년에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외세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약 60년 전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방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깊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대가 더욱 강해졌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이 시기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종교 집단이 형성된 것이다. 사두개인들은 기록된 성경만을 권위로 인정하며 부활이나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이들은 주로 제사장 계층과 권력층에 속해 있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더하여 자신들의 전통과 해석을 함께 강조하였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가말리엘, 사도 바울, 니고데모와 같은 인물들이 이 바리새인 계통에 속해 있었다.

이러한 종교적 흐름은 바빌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신앙의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포로 이전에는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악이었으나,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그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간의 전통과 규례가 점점 더해지는 문제가 생겨났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규정들이 덧붙여지면서 신앙은 점차 형식화되고 외식으로 흘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집단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신약 시대의 종교적 상황을 이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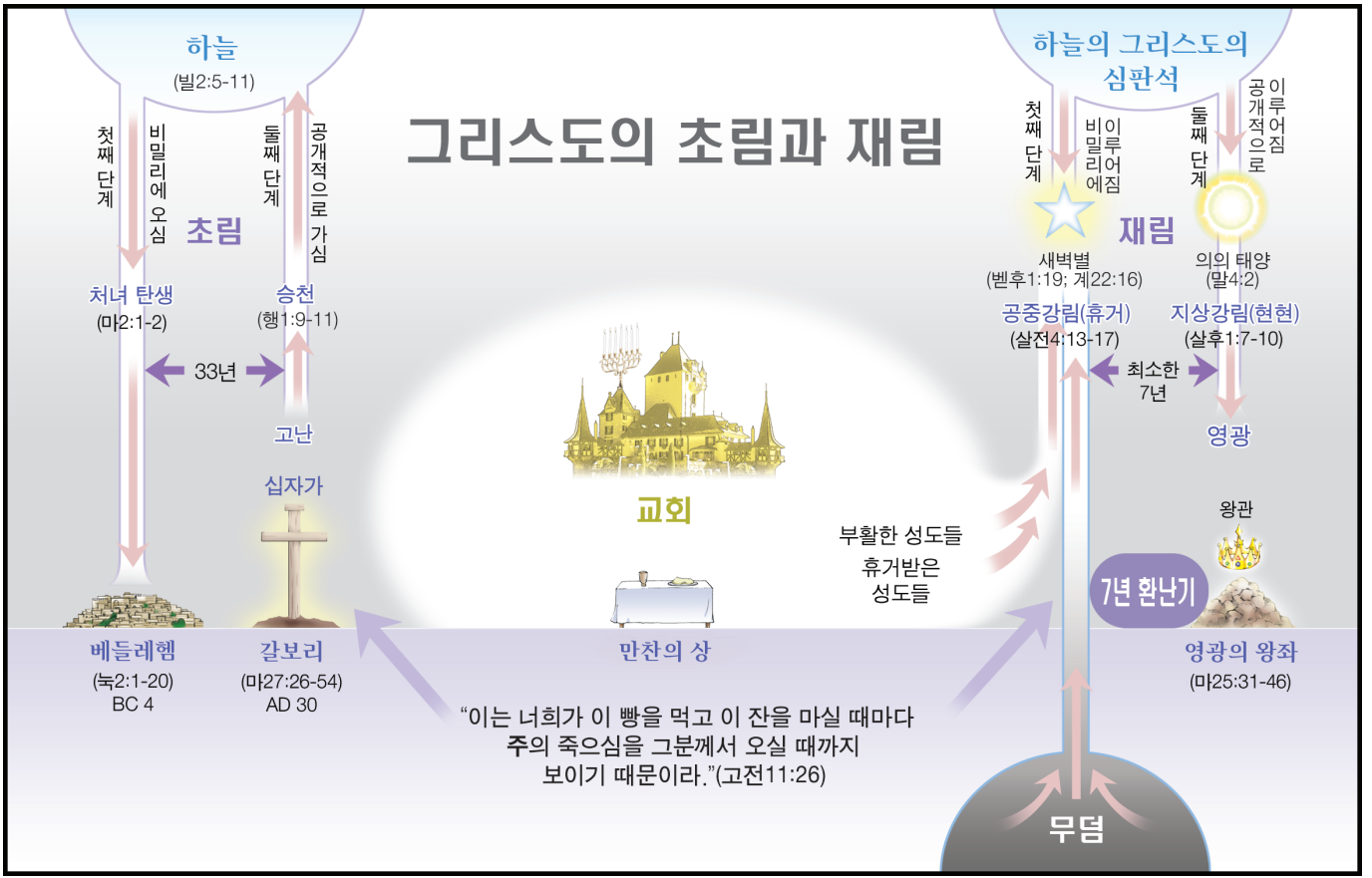
예수님의 초림과 이스라엘의 거부

침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칠 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온 사람들은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 바로 그런 시대적 긴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13절이 보여 주듯이,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서 '그분의 백성'은 유대인을 가리킨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오셔서(롬 15:8)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지만, 그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이 주어졌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 하셨으나, 백성이 그 왕을 거절함으로써 왕국의 실현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연기되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마 23:37-39).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올리브 산에서 승천하셨다. 그분께서는 사도행전 1장 9-12절의 기록대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에 싸여 올라가셨고,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라고 증언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하늘
(빌2:5-11)
첫째 단계
비밀리에 오심
초림
둘째 단계
공개적으로 가심
처녀 탄생
(마2:1-2)
승천
(행1:9-11)
33년
고난
십자가
베들레헴
(눅2:1-20)
BC 4
갈보리
(마27:26-54)
AD 30
교회
만찬의 상
부활한 성도들
휴거받은 성도들
하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첫째 단계
비밀리에 오심
재림
둘째 단계
공개적으로 이루어짐
새벽별
(벧후1:19; 계22:16)
의의 태양
(말4:2)
공중강림(휴거)
(살전4:13-17)
지상강림(현현)
(살후1:7-10)
최소한 7년
영광
왕관
7년 환난기
영광의 왕좌
(마25:31-46)
무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고전11:26)

그분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며, 올리브 산에서 승천하셨으므로 다시 그곳으로 오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다.

그러나 그 승천 이후 약 40년이 지난 AD 70년경, 로마 군대가 티투스 장군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예루살렘에 거하던 유대인들은 쫓겨나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로써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겪었으며, 그 절정이 20세기 히틀러에 의해 자행된 홀로코스트였다.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이 사건은 단순한 인종 차별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관련된 깊은 영적 전쟁의 한 단면이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메시아가 오셨고, 그 씨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 씨를 끊으려는 시도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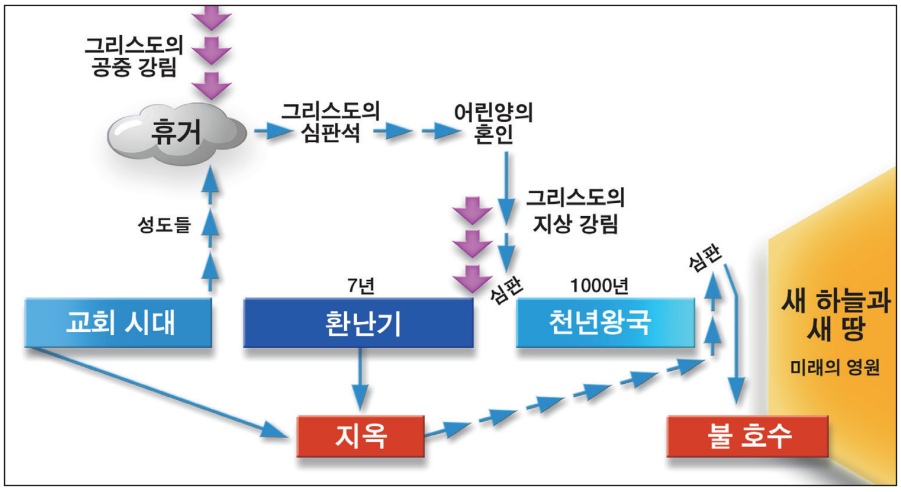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홀로코스트의 잿더미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강해졌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948년 5월 유대인들은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되었다.

유대인들의 미래

1948년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다. 그리고 1967년, 6일 전쟁을 통해 구예루살렘을 회복하였다. 이 구예루살렘 안에는 앞서 살펴본 모리아 산이 포함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던 바로 그 산, 다윗이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장소가 다시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 들어온 것이다. 구예루살렘을 회복함으로써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그 자리에 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순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7년 환난기

〈미래 일들의 개요〉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 이후에 7년 환난기가 시작된다. 다니엘서 9장 27절의 기록대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게 된다.

그러나 그 언약의 중간인 3년 반이 되었을 때 언약이 파기되고,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들어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게 된다.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이 환난기를 살아가게 될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 시점에서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 이 땅에 없는 상태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16절에서 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또한 24장 20절에서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상황을 전제로 한 말씀이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안식일 준수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은 환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

판과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겪게 될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 마지막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환난을 겪게 된다. 그러나 바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다. 로마서 11장 26절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킨다. 오랜 세월 메시아를 거절해 온 이 민족이 마침내 그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라는 말씀이 성취된다. 비로소 이때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들이 기다려 온 메시아이셨음을 깨닫고 깊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을 심판하시게 된다. 스가랴서 14장 4절은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요."라고 기록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올리브 산에 다시 발을 딛고 오신다. 올라가신 그곳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도행전 1장의 천사들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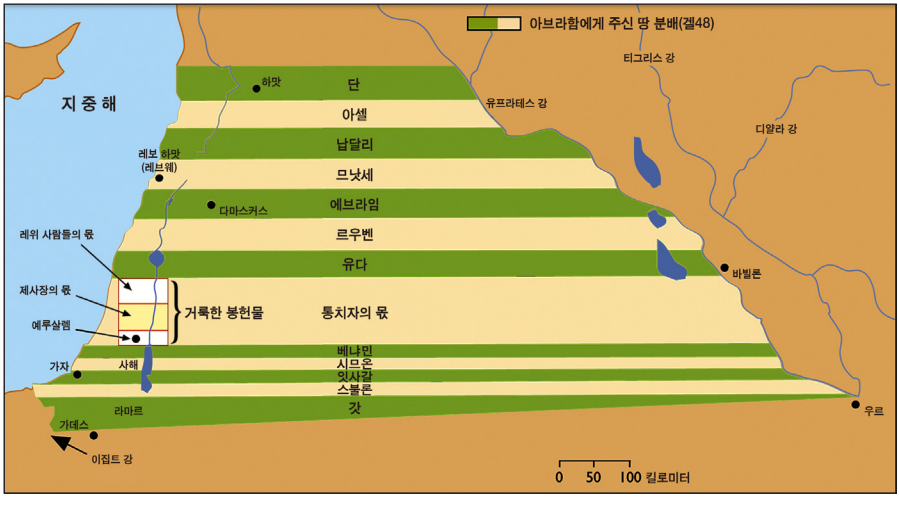
예수님의 재림 이후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민족 심판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나누신다. 여기에서 양은 7년 환난기 동안 이스라엘을 도운 민족들이며 염소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외면한 민족들이다. 양에 해당하는 자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염소에 해당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심판은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기를 통과하는 동안 믿음으로 행동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다. 천년 왕국에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

남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가게 된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최종적인 성취에 이르게 된다.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다.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 살아나는 것을 보여 주는 이 환상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일차적으로 성취되었고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성취된다. 에스겔서 37장 21-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그들이 가서 *함께 거하*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리라. 또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11장에는 그 왕국의 모습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분께서 천 년

〈천년 왕국의 땅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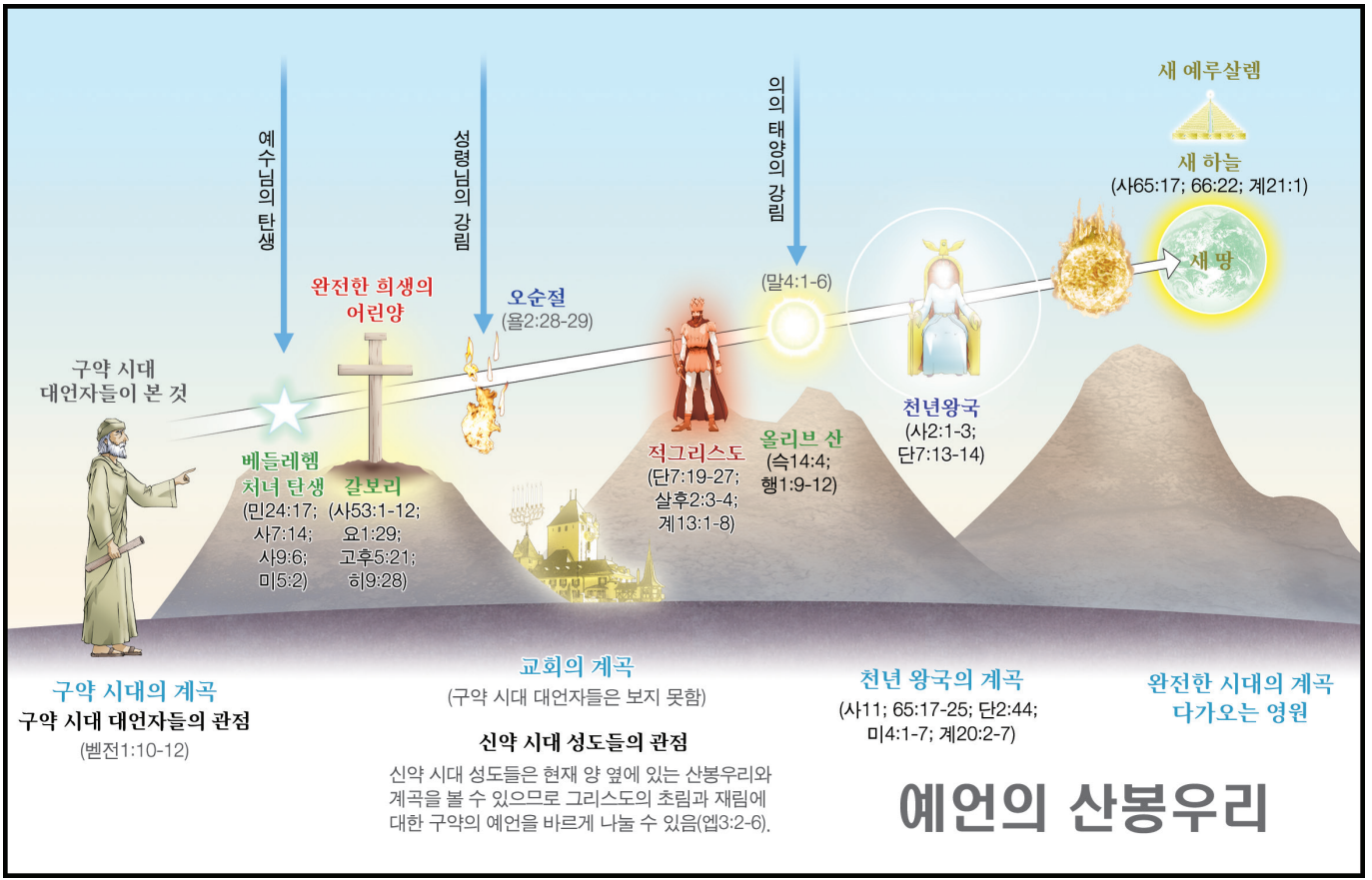


동안 온 땅을 다스리신다. "이리도 어린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 뗀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사 11:6-8).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있었던 창조 세계의 평화가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에스겔서 40-48장에는 천년 왕국에 세워질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대한 토지 분배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크고 웅장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 년 동안 통치하시는 시대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다. 에스겔서 48장에는 열두 지파가 팔레스타인 땅을 각각 나누어 분배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단 지파부터 시작하여 각 지파가 동서로 뻗은 일정한 구역의 땅을 받게 되며, 그 중앙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구역이 있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는 그 도시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천년 왕국에서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때 완전하게 성취된다. 이때에는 이사야서 19장에 있는 대로, 이집트에서 나오는 큰길이 생기고 아시리아에서 나오는 큰길이 생기며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 세상 속에서 복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씨와 복에 대한 약속은 처음부터 이 천년 왕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들을 약속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미 그 끝을 보고 계셨다. 여호와이레의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탄생
성령님의 강림
의의 태양의 강림
(말4:1-6)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사65:17; 66:22; 계21:1)
새 땅
완전한 희생의 어린양
오순절
(욜2:28-29)
구약 시대 대언자들이 본 것
베들레헴 처녀 탄생
(민24:17; 사7:14; 사9:6; 미5:2)
갈보리
(사53:1-12; 요1:29; 고후5:21; 히9:28)
적그리스도
(단7:19-27; 살후2:3-4; 계13:1-8)
올리브 산
(슥14:4; 행1:9-12)
천년왕국
(사2:1-3; 단7:13-14)
구약 시대의 계곡
구약 시대 대언자들의 관점
(벧전1:10-12)
교회의 계곡
(구약 시대 대언자들은 보지 못함)
신약 시대 성도들의 관점
신약 시대 성도들은 현재 양 옆에 있는 산봉우리와 계곡을 볼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바르게 나눌 수 있음(엡3:2-6).
천년 왕국의 계곡
(사11; 65:17-25; 단2:44; 미4:1-7; 계20:2-7)
완전한 시대의 계곡
다가오는 영원
예언의 산봉우리

Part.3

이삭의 생애

창세기 24-28장

Exposition of Genesis

Creation, Fall, Flood, Promise of Redemption, and Israel



창세기 24장부터 28장까지는 이삭의 생애와 그의 가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아브라함은 늙어 나이가 많아지자 종을 보내 자기 고향 친족 가운데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리브가가 택함을 받아 이삭에게로 온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사랑하며, 어머니 사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속에서 위로를 얻는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다. 하나님께서는 태 속에서부터 두 아들이 두 민족을 이루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 예언하신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 한 그릇의 팥죽과 바꾸고, 이는 훗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건으로 이어진다. 리브가와 야곱의 계략으로 눈이 어두운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고, 이를 뒤늦게 안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려 한다. 이에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하던 길에 벧엘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환상을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에게도 이어짐을 확증받는다. 이로써 이삭의 생애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되는 과도기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삭의 생애

이삭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모리아 산 제단 위에 올려졌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살아 돌아온 뒤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언약의 계승자로 등장한다. 창세기 24-28장까지는 이삭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극적인 사건들이 많은 인물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다리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씨와 복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다음 세대로 흘러갔다. 이제 이삭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어 가는지 함께 살펴보자.

1. 리브가와의 결혼(창 24장)

아브라함은 이삭의 혼인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자신의 종을 불러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맹세하게 하면서 한 가지를 간곡히 당부하였다. 이

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 여인들 가운데서 구하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자신의 친족 중에서 데려오라는 것이었다(창 24:3-4). 이것은 단순한 민족적 배타성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지만 그 땅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약속의 씨가 이어지는 문제였기 때문에 배우자의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결혼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열 마리에 주인의 재물을 싣고 메소포타미아로 길을 떠났다. 하란에 이르렀을 때는 저녁이었고, 마침 여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시간이었다. 종은 우물 곁에 낙타를 꿇어앉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자기가 물을 청할 때 물을 마시게 할 뿐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정해 달라는 기도였다.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타났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였다. 종이 물을 청하자 리브가는 기꺼이 물을 주어 마시게 하였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주었다. 낙타 열 마리가 배불리 마실 때까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창 24:15-20). 리브가는 단순히 말로만 친절을 보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성품을 드러냈다. 참된 믿음과 성품은 언제나 삶 속에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든 것을 맡은 자였다(창 24:2). 그는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구하였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셨다. 이 종의 모습은 중요한 결정일수록 인간적인 계

산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구해야 함을 잘 보여 준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 전체에서 이 종은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 않는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인과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만 말한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

종의 참된 자세이다.

종은 리브가의 집에 머물며 아브라함의 종임을 밝히고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상세히 이야기하였다.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아버지 브두엘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인정하고 리브가를 보내기로 하였다. 리브가도 기꺼이 동행하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고향을 떠나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삭에게로 길을 떠났다(창 24:51-58). 믿음으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도 믿음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향해 길을 떠난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이 리브가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다.

이삭은 라해로이 우물 근처에 살고 있었다. 저녁 무렵 그가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을 때 낙타 행렬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리브가도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종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종이 우리 주인이라고 대답하자 리브가는 너울로 자신을 가리고 낙타에서 내렸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리브가를 맞이하여 사랑하게 되었고 그 슬픔이 위로를 받았다(창 24:62-67). 하나님은 단순히 영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삶의 깊은 정서적 필요까지도 채워 주시는 분이시다. 이삭의 슬픔을 리브가를 통해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신다.

2. 에서와 야곱의 출생(창 25:19-34)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결혼하였을 때 그는 사십 세였다. 그런데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하였다. 이삭은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삭이 사십 세에 결혼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육십 세 때였다(창 25:20, 26). 이십 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오랜 기다림 끝에 이삭을 얻었듯이, 이삭도 동일한 기다림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또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쳤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 속에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걸어가는 길이다.

태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 같아 리브가는 하나님께 이것이 어찌된 것이냐고 물었다. 하나님께서는 태 안에 두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창 25:23). 태 안에서의 이 싸움은 단순한 형제 갈등이 아니었다. 두 아이는 두 길, 두 민족, 두 삶의 방식을 대표하고 있었다. 한쪽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계보이고, 다른 한쪽은 육적인 삶을 대표하는 계보이다. 이것은 이후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육신과 영의 대립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이후 이스라엘과 에돔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예언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한다.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다(롬 9:11-13).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이 선택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미리 정해지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도록 정해졌다는 의미의 선택이 아니다. 야곱과 에서의 선택은 구원의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어떤 계보와 민족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이것은 개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더 나아가 메시아의 계보를 위한 역사적이고 언약적인 선택이다. 따라서 바울이 이 사건을 인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도구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려는 것이

다. 선택은 사명의 문제이고, 구원은 믿음의 문제이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 주는 균형이다.

때가 차서 쌍둥이가 태어났다.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아 에서라 불렸고, 뒤따라 나온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어 야곱이라 불렸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 곧 빼앗는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이다. 이 이름 자체가 이미 야곱의 성품과 앞으로의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다(창 25:25-26).

에서와 야곱은 자라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에서는 날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이 편애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곧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그 말씀을 사실상 무시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되었다. 반대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 하였다. 두 사람 모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가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지는 않았다.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도 연약함과 실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과 실수마저도 자신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몹시 지쳐 있었다. 에서는 야곱에게 그 붉은 것을 달라고 하였다.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자권을 먼저 팔라고 하였다. 에서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며 맹세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버렸다(창 25:29-33).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에서를 가리켜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장자권을 판 속된 자'라고 기록한다. 에서의 문제는 단순히 충동적이었다는 것이 아니다. 장자권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었다. 재산의 두 몫을 상속받는 권리, 가문의 제사장 역할을 맡는 권리,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즉 메시아의 씨가 자



야곱과 에서

신을 통해 이어지는 권리였다. 에서는 이 세 가지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버린 것이다. 에서의 죄의 본질은 배고픔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긴 태도였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의 현실보다 덜 중요하게 여겼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였다.

한편 야곱 역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야곱은 장자권의 가치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얻는 방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과 기회를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올바른 것을 원한다고 해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을 변화시키시지만, 그 과정에는 오랜 연단이 필요하였다.

이 두 사람의 대비가 가르쳐 주는 것은 분명하다. 믿음의 본질은 언제나 현재의 필요와 미래의 약속 사이의 선택에 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실제적으로 여기는 것이고, 불신앙은 보이는 것을 더 실제적으로 여기는 것이

다. 에서는 눈앞의 팥죽을 선택하고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포기하였다.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 안에서도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요구받는다.

3. 이삭의 개인적 삶(창 26장)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그랄 지방에 거하던 시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장에는 놀랍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과 매우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된다.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자신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땅과 씨와 복의 약속을 이삭에게도 그대로 확인해 주셨다(창 26:2-5).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언약은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야곱에게서 열두 지파에게 이어지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사라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었다(창 12:10-20). 그러나 이삭은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렀다. 아버지의 실패가 아들에게 반복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순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믿음의 삶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점진적인 성장의 과정이다.

그런데 이삭은 그랄에 거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리브가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므로 그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두려워하여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다(창 26:7). 아버지 아브라함도 사라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인 적이 있었다(창 12:13; 20:2). 아버지의 실수가 아들에게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실제 모습이다. 한 부분에서는 순종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신앙은 자동으로 유전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였다 해도 이삭이 그 믿음을 자동으로 물려받는 것은 아니었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서야 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씨름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지키셨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삭을 꾸짖었지만 리브가는 보호받았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에 백 배나 거두었다(창 26:12). 이것은 이삭의 농사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다. 이삭이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에 형통하였던 이유도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이다. 복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삭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부터 파 놓은 우물들을 막아 버렸다. 이삭은 그때마다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운 우물을 팠다. 여러 차례 우물을 빼앗기고 계속 이동한 끝에 마침내 싸움 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곳에 이르렀고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은 곳을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다(창 26:22). 넓은 곳은 한 번의 선택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인내와 양보를 통해 주어진 것이었다. 믿음의 삶은 단번에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이다.

이삭이 다투지 않고 양보한 것은 단순히 온유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싸우신다는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신뢰가 옳았다는 것이 곧 드러났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총대장 비골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와 먼저 화친을 요청하였다(창 26:26-31). 이것은 이삭이 스스로 싸워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셔서 얻은 승리였다.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일어나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삭의 삶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셨다(창 26:24).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순종과 인내의 과정을 지나온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

증해 주신 것이다.

믿음의 삶에는 이런 재확인의 순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지난 사람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약속을 다시 붙들어 주신다.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삭도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34-35절을 보면 이삭의 가정에 큰 근심의 씨앗이 심어진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여인 둘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한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불편함이 아니었다.

에서의 결혼은 그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그는 이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고, 이제는 실제 삶에서도 언약과 상관없는 길을 선택하였다. 내면의 가치관이 외적인 선택으로 드러난 셈이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이 아닌 친족 중에서 구하라고 엄명하였던 그 뜻이 에서로 인해 무너졌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을 뿐 아니라 가나안 족속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스스로 멀어지는 선택을 거듭하였다.

4. 야곱을 보내는 이삭(창 28:1-5)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들은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보내어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거기 머물게 하자고 하였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삭에게 한 가지 이유를 더 내세웠다. 에서가 헷 족속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야곱도 가나안 족속 여인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이한다면 자신은 삶에 유익이 없겠다고 말한 것이다(창 27:46). 이처럼 에서의 결혼 문제가 야곱을 공식적으로 보내는 명분이 되었다.

겉으로 보면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가지만 실제로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원칙, 곧 언약의 계보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친족 가운데서 이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정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와 갈등마저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밧단아람(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며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과 그의 씨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상속받게 되기를 빌었다(창 28:1-4). 여기에서 이삭의 축복 내용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잘 되라는 축원이 아니었다. 그 핵심은 땅과 씨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곧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이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번영을 비는 축복이 아니라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 주는 축복이었다.

이 장면에서 이삭의 변화된 모습이 눈에 띈다. 이삭은 원래 에서를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삭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야곱에게 언약의 복을 넘겨준다. 이것은 단순히 속아서 축복한 것과는 다르다. 이것은 이삭의 신앙적 성숙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장면이다.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마지막으로 한 일이 축복이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삭은 속임을 당하였고, 가정은 분열되었으며, 아들은 목숨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야곱은 지금 축복을 받고 떠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집도 없고 재산도 없이 쫓기는 신세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떠났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비참하였지만 보이지 않는 약속은 완전하였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재산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그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언약을 물려준 것처럼, 이삭은 야곱에게 그 언약을 물려주었다. 그리고 야곱

은 그 언약을 가슴에 품고 홀로 긴 여정을 떠났다.

이 장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까지는 가정 안의 이야기였다면, 여기에서부터 야곱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여정이 시작된다. 바로 이어지는 벧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

이것으로 이삭의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이삭은 사건을 만들어 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흐르게 한 사람이었다. 그는 조용하고 때로는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를 통해 끊어지지 않고 흘러갔다. 이 언약의 계보는 야곱에서 열두 지파로, 열두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른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신 약속(창 12:3; 22:18)이 바로 이 계보를 통해 성취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분명히 밝힌 것처럼, 그 약속의 궁극적 성취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음의 역사는 화려한 영웅들만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 이삭처럼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며 언약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어진다.

Part.4

야곱의 생애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창세기 28-50장

Exposition of Genesis

Creation, Fall, Flood, Promise of Redemption, and Israel



창세기 28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생애와 그의 열두 아들을 통해 형성되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기원을 다룬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고, 두 여종을 통해서도 자녀를 얻어 열두 아들과 딸 디나를 낳는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이십 년 동안 지내며 큰 재산을 축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길에 얍복 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는다. 이후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지만, 딸 디나 사건과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시기로 가정의 아픔을 겪는다. 특히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어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일이 잘 되게 하시며, 마침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 큰 흉년이 들자 형제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오고, 요셉은 자신을 형들에게 밝히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앞서 보내셨음을 증언한다. 그 후 야곱의 온 가족은 이집트로 이주하여 고센 땅에 정착하고, 야곱은 죽기 전에 열두 아들을 축복하며 각 지파의 미래를 예언한다. 이로써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기초가 마련되고, 구속사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는 시대로 이어진다.





야곱의 생애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삭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창세기의 중심은 이제 야곱에게로 옮겨 간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이스라엘 신앙의 세 조상 중 한 사람이다. 그러나 야곱은 세 사람 중 가장 복잡한 인물이다. 그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속이는 자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 하였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을 어떻게 빚어 가시는가를 보여 주는 가장 생생한 이야기이다. 야곱에게서 열두 아들이 나왔고, 그 열두 아들로부터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뿌리이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여 주는 핵심 이야기이다.

이제 야곱의 생애를 창세기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함께 살펴보자.

1. 벧엘의 하나님(창 28:10–22)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홀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길을 나섰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속임수로 얻어 낸 장자권의 복은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쫓기는 신세로 광야를 혼자 걸어가는 야곱의 처지는 비참하였다. 해가 지자 야곱은 광야 한가운데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다.

그 밤 야곱은 꿈을 꾸었다. 땅에서 하늘에까지 닿는 사다리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 위에 주님께서 서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28:13 나는 **주**니 곧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니 14 네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질 것이며 너와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15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친히 다 행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며 "이곳은 어찌 그리 두려운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창 28:17)라고 말하였다.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 길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받은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였다(창 28:20–22).

이 짧은 장면 안에 매우 깊은 것들이 담겨 있다. 먼저 사다리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다리는 단순한 신비로운 꿈의 장면이 아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시 길이 열렸음을 보여 주는 계시이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통로가 열린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바로 창세기 28장의 사다리를 자신에게 적용하신 것이었다. 그 사다리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수천 년 전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다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 주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신 때와 장소를 주목해야 한다. 야곱은 지금 가장 낮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 홀로 누워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되고 성공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낮아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에서 찾아오신다.

본문의 순서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뒤에 야곱이 서원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고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약속하시고 그 이후에 야곱이 반응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인간의 응답은 그다음이다. 이것이 구원의 순서이다.

이 사건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개인적 경험이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셨다. 신앙이 부모에게서 전수받은 전승에서 개인적 만남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바로 이 벧엘 사건이었다. 믿음은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야곱이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그곳은 아무 건물도 없는 광야였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나중에 성막과 성전 개념으로 이어지고 신약 시대에는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것으로 확장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바로 이것을 말한다.

야곱이 베고 자던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부은 것도 의미가 있다. 아무 가치 없어 보이던 돌 하나가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는 예배의 표지가 되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평범한 것들을 거룩하게 구분하기 시작한다.

야곱의 서원은 분명히 조건적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계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믿음이 부족하다고만 말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 야곱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다. 믿음의 여정은 완전한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곳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야곱을 그대로 받으셨다.

야곱의 서원 가운데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을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내용도 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분의 일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 감사의 서원이었다. 그러나 이 장면을 근거로 신약 성도들에게 십일조를 율법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다. 야곱의 십일조는 율법 이전의 자발적 서원이었다. 신약 성경은 헌금에 대해 억지로 하지 말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이 드리라고 가르친다(고후 9:7). 신약 시대 헌금의 원칙은 강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자발적 드림이다.

이 벧엘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 진정한 출발점이다. 야곱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라반의 집에서 보낸 이십 년, 얍복 강의 씨름, 이름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변화의 여정이 바로 이 벧엘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다.

2. 라반의 집에서(창 29:1-30)

야곱이 하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우물 곁에서 라헬을 만났다. 라헬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다. 여기에서 우물이라는 장소가 눈에 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곳도 우물이었고, 모세도 훗날 우물에서 아내를 만난다. 성경에서 우물은 단순히 물 길러 오는 장소가 아니라 생명과 만남의 장소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중요한 만남들이 우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하게 되었고 라반에게 가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하였다. 라반은 야곱에게 칠 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하였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으므로 칠 년을 며칠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한다(창 29:20). 이것은 야곱의 라헬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 주는 표현이다.

그런데 칠 년이 지나 혼인 잔치를 베풀고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에게 보냈다. 날이 밝아 야곱이 레아인 것을 알고 라반에게 항의하였다. 라반은 우리 지방에서는 맏딸보다 작은딸을 먼저 시집보내는 풍습이 없다고 하면서 레아와의 혼인 주간을 마치면 라헬도 주겠다고 하였다. 그 대신 칠 년을 더 일해야 했다(창 29:26-27).

이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의 복을 빼앗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다. 야곱이 형 대신 아버지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라반은 동생 대신 레아를 야곱에게 보냈다. 그 구조가 정확히 반복되고 있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것이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와 형에게 행한 것이 이제 그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야곱은 속임과 계산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제 라반 아래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야곱이 아무리 계산해도 라반이 한 수 위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기 시작하시는 첫 단계였다. 자신의 힘과 꾀로 살아가던 야곱이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자리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 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벌하시되 버리지는 않으셨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일하면서 두 아내를 얻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불공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야곱과 함께하셨다. 14년의 시간은 단순한 노동의 시간이 아니었다. 속임과 계산으로 가득하였던 야곱의 성품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서서히 깎여 가는 연단의 시간이었다. 믿음은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긴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레아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 야곱이 원한 사람은 라헬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돌아보셨고, 그 레아에게서 유다가 태어났다. 그 유다의 계보를 따라 다윗 왕이 나오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인간의 방식과 다르며, 사람들이 낮게 여기는 자를 사용하신다. 인간은 라헬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일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훈련은 파괴가 아니라 빚어 가는 과정이다. 불공정한 상황이었고 억울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다. 벧엘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라반의 집에서도 그대로

유효하였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언약의 신실하심이다.

3. 열두 지파의 탄생(창 29:31-30:24)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인의 여종인 빌하와 실바에게서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과정이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두 자매 사이의 치열한 경쟁과 갈등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 자녀를 낳았다(창 29:31).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였는데, 그 고백의 흐름을 주의 깊게 보면 레아의 마음이 점점 변해 가는 것이 드러난다. 처음에는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다고 하며 르우벤을 낳았고, 주께서 들으셨다고 하며 시므온을 낳았으며,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고 하며 레위를 낳았다. 세 아들을 낳는 동안 레아의 시선은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 레아는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라." 라고 말하였다. 남편의 사랑과 위로를 바라보던 레아의 시선이 마침내 하나님에게 향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전환이었다. 고통 속에서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던 레아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리로 이동한 것이다.

반면 라헬은 자녀를 얻지 못하자 야곱에게 "내게 아이들을 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라고 하였다(창 30:1). 그러자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헬과 레아는 여종들까지 동원하며 경쟁하였다. 그러나 자녀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다.

이 경쟁의 치열함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장면이 합환채 사건이다.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환채를 가져오자 라헬이 그것을 달라고 하였다(창

30:14). 합환채는 임신에 효험이 있다고 믿어지던 식물이었다. 자녀를 얻지 못하는 라헬에게 합환채는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던 것이다. 라헬은 합환채를 얻는 대신 그날 밤 야곱을 레아에게 양보하였다. 그런데 정작 합환채를 얻은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고, 야곱과 동침한 레아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인 잇사갈을 낳았다.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였던 라헬의 계획은 빗나갔고 하나님께서 태를 여신 레아가 아들을 낳은 것이다. 이 장면은 자녀는 인간의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진리를 매우 생생하게 보여 준다.

라헬도 결국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치워 주셨다'고 고백하였다(창 30:23). 경쟁과 조급함과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인정하는 자리로 이동한 것이다. 인간의 욕망과 조급함도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서 다루어진다.

이 이야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핵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고 닫으신다는 것이다. 생명과 번성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사람들은 경쟁하고 빼앗고 계산하였지만 실제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인간은 애쓰지만 열매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열두 아들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인물은 유다이다.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야곱이 그토록 사랑한 라헬의 아들 중에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져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를 통해 구속사의 핵심 계보를 이어 가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이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열두 아들이 태어난 환경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질투와 경쟁과 편애로 가득 찬 가정에서 태어났다. 두 아내와 두 여종에게서 태어난 열두 아들, 이것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출발이었다. 완벽한 환경이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매우 불완전한 출발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출발을 사용하여 한 민족을 세우셨

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상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 역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이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완전하지 않았다. 이삭의 가정도 편애와 갈등으로 얼룩졌다. 야곱의 가정은 더욱 복잡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완전한 가정들을 통해 자신의 언약을 이어 가셨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흠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약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야기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27절에 말한 것을 늘 기억하자.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고전 1:26-27).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의 기준으로 완전한 것을 통해 일하지 않으신다. 이 가정에는 질투와 경쟁과 편애가 가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되지 않았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 우리의 가정이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흠투성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에서 계속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함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 속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그 증거이다. 그들의 출발은 불완전하였지만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졌고 그 민족을 통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 주는 진리이다.

4. 라반과의 갈등과 귀환(창 30:25-31:55)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일하여 두 아내를 얻은 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라반에게 말하였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야곱을 붙들었다. 야곱은 라반과 품삯 협상을 하였고 그 뒤 야곱의 재산은 크게 불어나기 시작하였다. 겉으로 보면 야곱이 가축 번식 방법을 통해 재산을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창 30:37–42),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직접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실상이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의 재산을 야곱에게로 옮기신 것이었다(창 31:9–12). 성공의 원인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을 시기하고 대적하기 시작하였다. 라반은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며 야곱을 착취하려 하였다(창 31:7). 열 번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적된 불의를 다 알고 계셨고 라반이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보호는 복을 주시는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막으시는 방식으로도 나타난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을 때 두 사람의 반응이 주목할 만하다. 이전에는 경쟁과 감정 중심으로 살던 두 자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백하였다(창 31:14–16).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감정에서 신앙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라헬과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고백하였다. 벧엘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불완전한 믿음으로 조건부 서원을 하였던 야곱이 이제는 이십 년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다. 벧엘에서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이해와 믿음은 삶의 경험을 통해 깊어지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조상들의 땅으로,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창 31:3)라고 말씀하셨다. 이 명령은 단순한 이동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의 땅으로 다시 부르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언약의 자리로 다시 부르신다.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다. 야곱은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였다. 믿음은 방향뿐 아니라 타이밍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다. 그는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떠났다(창 31:20). 그런데 떠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드러났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형상(드라빔), 즉 가정 신상을 몰래 훔쳐 간 것이다(창 31:19). 라반이 야곱의 진영을 샅샅이 뒤졌을 때 라헬은 형상들을 낙타 안장 아래 숨기고 그 위에 앉아 생리 중이라 일어날 수 없다고 하여 발각을 피하였다(창 31:34-35). 라헬은 야곱과 함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지만 아직 자기 아버지 집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야곱이 가족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명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된다(창 35:2).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인간적인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야곱 가정 전체의 모습이었다. 믿음의 사람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식과 하나님 의존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다. 야곱이 몰래 떠난 것을 알게 된 라반이 형제들(친족)을 이끌고 뒤쫓아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창 31:24). 야곱의 불완전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결국 라반과 야곱은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맺었고 라반은 그 장소를 미스바라고 불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신다는 뜻이었다(창 31:49). 이 돌무더기는 경계선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증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불의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십 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야곱은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두 아내와 열한 아들과 큰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5. 얍복 강의 씨름(창 32장)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앞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는 형 에서였다. 이십 년 전에 속임수로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간 야곱이 이제 돌아오고 있었다. 야곱이 전령을 보내 에서에게 소식을 알렸더니 에서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돌아왔다(창 32:6). 야곱은 매우 두렵고 답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32:10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 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기 때문이니이다. 11 원하건대 내 형의 손에서 곧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출하옵소서.

이 기도는 벧엘에서 조건부 서원을 드리던 야곱의 기도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십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야곱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모두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남았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하다(창 32:24). 사람과 재산과 가족을 다 보내고 혼자 남은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반드시 홀로 서는 자리로 데려가신다. 홀로 남은 그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날이 새도록 둘이 씨름하였다. 호세아서 12장 3-4절은 이 씨름 상대가 하나님이셨다고 기록한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과 씨름하신 것이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서 그것을 어긋나게 하였다(창 32:25). 그러나 야곱은 그를 놓지 않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창 32:26)라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이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얼마든지 꺾으실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넓적다리의 힘줄을 치심으로 야곱의 힘을 빼셨다.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이 깨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상태에 이른 것이 참된 승리였다. 이 씨름의 핵심은 끈질기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자리로 내려오는 의지의 전환이었다.

넓적다리의 힘줄이 어긋난 것도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다. 야곱은 평생 계산과 속임수와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의 중심을 건드리셨다. 야곱은 씨름이 끝난 후 절뚝거리며 걸어 나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약해졌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면에서는 강해졌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야곱이 절뚝거릴 때마다 그것은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였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흔적이 있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이것은 정보를 확인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야곱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는 야곱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라

는 고백이었다. 변화는 자기 인식에서 시작된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힘을 겨루며 사람들과 *힘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니라"(창 32:28).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핵심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다.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께 붙잡힌 자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이다.

야곱은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뜻이었다(창 32:30).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야곱은 그 은혜를 장소의 이름에 새겨 놓았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32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날까지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 이는 그 *사람*이 오그라든 힘줄에 붙은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더라."라고 기록한다.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날 밤의 사건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방식이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을 기억하고 전수한다.

씨름이 끝난 뒤 해가 떠오를 때 야곱이 그 장소를 지나갔다(창 32:31). 이것은 단순한 시간 표현이 아니다.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보여 준다. 밤새 씨름하던 옛 사람이 해가 돋는 새벽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 걸어 나간 것이다.

이 사건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일어났다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외적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사람 자체를 다루셨다. 에서 문제가 아니라 야곱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하신다.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그 상황을 마주하는 사람을 바꾸신다. 야곱은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절뚝거리면서도 하나님께 붙잡힌 자로서 에서를 향해 걸어 나갔다.

6. 에서와의 화해(창 33장)

얍복 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 날 야곱은 드디어 에서를 만났다. 전날 밤 사백 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두려워하며 기도하였던 야곱이 이제 그 에서와 마주 선 것이다. 야곱은 자녀들을 여종들과 레아와 라헬의 순서로 앞에 세우고 자신은 그들 앞을 지나가며 일곱 번 땅에 엎드렸다. 그러나 야곱의 우려와 달리, 에서는 달려와 그를 부둥켜안고 목을 껴안으며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함께 울었다(창 33:4).

야곱의 행동을 이전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전의 야곱은 계산하고 속이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앞에 나가고 일곱 번 땅에 엎드려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보인다. 과거에 형을 속여 위에 서려 하였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자신을 낮춘 것이다. 이것은 얍복 강에서 꺾인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에서를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뀐 것이다.

그러나 야곱에게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자녀들을 순서대로 세우는 모습을 보면 아직 계산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야곱 자신이 맨 앞에 섰다. 이것이 중요하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변화였다. 하나님과의 씨름은 야곱을 한순간에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이것이 성화의 현실이다.

이십 년의 세월이 지났다. 에서는 이미 그 분노를 내려놓았다.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에서의 복수는 없었다. 오히려 에서는 진심으로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야곱이 밤새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속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쪽만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함께 준비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하시는 분이시

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일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용서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야곱이 에서에게 준 선물도 주목할 만하다. 야곱은 에서에게 주는 예물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베라카'(berakhah), 즉 '복된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창 33:11). 이것은 단순한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었다. 과거에 속임수로 빼앗았던 복을 이제는 자발적으로 돌려주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는 모습이었다. 외면적인 화해가 아니라 내면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고 "이런 까닭으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같이 형의 얼굴을 보았으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창 33:10)라고 고백하였다. 이 고백은 전날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고 고백한 것과 연결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진다. 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오늘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사람의 얼굴을 통해 나타난다.

화해 이후 에서는 야곱에게 함께 세일로 가자고 하였다. 야곱은 가축과 아이들이 있어 천천히 가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고 숙곳을 거쳐 세겜으로 향하였다(창 33:17–18). 야곱이 한 말과 실제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본문은 이것을 명확히 속임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가축과 아이들의 상황 때문에 방향을 바꾼 것일 수도 있고 아직 옛 성품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이해하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얍복 강에서 변화된 야곱도 아직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변화는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숙곳을 거쳐 세겜으로 이동한 것이 단순한 회피만은 아니었다. 야곱은 세겜에서 땅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안으로 내딛는 실제적 발걸음이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안에 야곱이 발을 딛고 뿌리를 내

리기 시작한 것이다. 야곱이 그 제단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었다(창 33:20).

이 고백은 벧엘에서의 서원과 비교할 때 그 깊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벧엘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조건부로 서원하였다. 그러나 이제 세겜에서 야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선언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을 조건으로 붙잡던 단계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단계로 이동한 것이다. 야곱의 신앙은 장소마다 단계적으로 자라왔다. 벧엘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얍복 강에서 자아가 꺾이는 전환을 경험하였으며, 세겜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정착에 이르렀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 여정이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7. 디나 사건과 세겜(창 34장)

야곱의 가정이 세겜 땅에 정착한 후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다.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의 경계가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가 세상과 섞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 준다.

세겜은 그 후 디나를 사랑하여 아버지 하몰에게 야곱에게 가서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하였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였다는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먼저 저지른 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이후에 결혼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해서 이미 행해진 불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하몰은 야곱에게 찾아와 서로 혼인 관계를 맺고 함께 살자고 제안하였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반응이 주목할 만하다. 그는 처음에 침묵하였다(창 34:5). 가장이 제때 책임 있게 대응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결국 아들들이 스스로 나서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가정의 머리가 제때 바른 방향을 제

시하지 않으면 그 공백을 다른 방식이 채우게 된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였다. 그 분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디나에게 행해진 일은 분명히 불의한 일이었다.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는 그 분노를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였다. 그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하였다. 세겜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 아직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여 버렸다(창 34:25). 정당한 분노가 속임수와 집단 학살로 이어진 것이다. 정당한 동기가 잘못된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특별히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시므온과 레위가 속임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바로 할례였다는 점이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었다. 그 거룩한 언약의 표징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였다.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악용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꾸짖었다. 그런데 야곱의 꾸짖음을 보면 야곱이 이 사건의 도덕적 문제보다 외부적 위협을 더 먼저 걱정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내가 이 땅 거주민들 가운데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느니라"(창 34:30). 그는 사건의 죄보다 결과를 더 걱정한 것이다. 이것도 야곱의 영적 미성숙의 한 모습이었다. 시므온과 레위는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해야 하겠느냐고 반박하였다(창 34:31). 두 아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방법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이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잊히지 않았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 예언한 내용이 이 사건과 직접 연결된다. 야곱은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고 잔혹하였다고 하며 그들이 야곱 안에서 나뉘고 이스라엘 안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하였다(창 49:5–7). 죄의 결과는 오래도록 남는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훗날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됨으로써 이 흩어짐의 예언이 심판이 아니라 섬김으로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도 자신의

목적 안에서 다루어 가신다.

이 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세상과의 섞임이 죄를 불렀고 죄가 분노를 불렀으며 분노가 잘못된 해결을 불렀고 잘못된 해결이 더 큰 죄를 낳았다. 이것이 언약 백성이 세상과의 경계를 잃어버릴 때 일어나는 일이다.

8. 다시 벧엘로(창 35장)

세겜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서 벧엘로 올라가 거기에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 도망할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창 35:1)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 이동 명령이 아니었다. 세겜에서의 실패와 혼란 이후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의 출발점으로 되돌리시는 명령이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처음 만나셨던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신다.

그런데 벧엘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라고 하였다(창 35:2).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이방 신들과 귀에 달린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창 35:2-4).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것이 드러난다. 그들이 이방 신들뿐 아니라 귀고리까지 버렸다는 것이 눈에 띈다. 귀고리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이방 종교와 연결된 상징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타협의 흔적까지 제거한 것이다. 또한 야곱이 그것들을 땅에 묻었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치워 놓은 것이 아니라 다시 꺼내지 않겠다는, 과거와의 단절 선언이었다.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명령도 단순한 외적 정리가 아니었다. 옷을 바꾸는 것은 삶의 방향과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버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버림과 정결을 동반한다.

야곱의 가정이 이방 신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라헬이 라반의 형상(드라빔)을 훔쳐 온 것이 그 시작이었다. 오랫동안 야곱의 가정 안에 이방 신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다. 신앙의 사람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 벧엘로 올라가기 전에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였다.

야곱이 벧엘을 향해 출발하자 하나님께서 그 사방 성읍들 위에 하나님의 공포를 두셨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창 35:5). 세겜 사건으로 인해 인간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주변의 가나안 족속이 언제든지 야곱을 공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완전함에 근거하지 않는다.

야곱이 벧엘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35:9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며 10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11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12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 뒤를 이을 네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얍복 강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벧엘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확인된 것이다. 얍복 강에서는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면 벧엘에서는 공식적인 언약 선언으로 그 이름이 확정되었다.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은 반복하여 확인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야곱의 신앙 여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된다. 첫 번째 벧엘에서 야곱은 조건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얍복 강에서는 자아가 꺾이는 전환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벧엘에서 야곱은 확정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있다. 처음 벧엘이 시작이었다면 두 번째 벧엘은 정착이었다.

그러나 이 장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였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다(창 35:16-20).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사람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실 때 반드시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있다. 야곱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었다.

라헬의 죽음 이후 창세기 35장 22절에는 충격적인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함께 누웠다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단 한 줄로 기록하고 넘어가지만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이다. 야곱의 가정이 벧엘에서 정결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받은 직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정이 선언되었다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 예언할 때 다시 언급된다. 야곱은 르우벤이 물처럼 불안정하여 탁월함을 잃을 것이라고 하였다(창 49:3-4). 그는 장자였지만 그 특권을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다. 죄의 결과는 오래도록 남는다.

창세기 35장은 이삭의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야곱이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이삭은 거기 살고 있었다. 이삭은 백팔십 세에 죽었고 에서와 야곱이 함께 그를 장사하였다(창 35:27-29). 오랜 세월 갈라져 있던 두 형제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함께 선 것이다. 이삭의 죽음은 단순히 족장 한 사람의 마무리가 아니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진 언약의 계보가 이제 완전히 야곱에게로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창세기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로 이동하는 전환점이었다. 이제부터 창세기는 야곱의 아들들, 특히 요셉의 이야기로 나아간다.

9. 형들이 요셉을 팔다(창 37장)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그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였다. 늘그막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만들어 주었다. 채색옷은 단순히 예쁜 옷이 아니었다. 장자권 혹은 가문의 후계자적 위치를 암시하는 옷이었다. 형들의 미움은 단순한 감정적 질투가 아니었다. 상속과 지위에 대한 위협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였고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였던 것처럼, 야곱도 요셉을 편애하였다. 이 반복되는 패턴은 편애가 가정에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지 보여 준다. 편애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정을 분열시킨다.

요셉이 팔릴 때 나이가 십칠 세였다(창 37:2). 청소년기의 끝에서 고난이 시작되었다. 이 나이를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요셉은 이후 서른 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그 사이 13년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긴 시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 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끝을 보고 계신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핵심은 자기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었다. 요셉이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미숙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 꿈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고, 그 미움은 더욱 깊어졌다(창 37:3-8).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는 도단으로 보냈다. 도단은 아버지의 눈이 미치지 않는 먼 곳이었다. 죄는 흔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획된다.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였다. 르우벤이 말려서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빼내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유다가 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제안하였고 형들은 요셉을 은 이십 개에 팔아 버렸다(창 37:18-28).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를 보니 요셉이 없었고, 르우벤은 옷을 찢으며 "아이가 없도다. 나는,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하였다(창 37:29-30). 르우벤은 소극적으로나마 요셉을 구하려 하였지만 결국 막지 못하였다.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결단력이 없었던 것이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악을 막을 수 없다.

르우벤과 유다의 역할을 비교해 보면 흥미롭다. 르우벤은 죽이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유다는 죽이는 대신 파는 것을 제안하였다. 악은 때로 더 부드러운 형태로 나타나며, 완전한 악보다 더 위험한 것이 타협적인 악이다. 요셉을 판 값은 은 이십 개였다. 이것은 당시 노예의 값이었다. 한 생명을 노예의 몸값으로 환산한 것이다. 훗날 예수님께서 은 삼십 개에 팔리신 것과 연결되는 그림이기도 하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 야곱에게 가져갔다. 야곱은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오래도록 슬퍼하며 위로를 거부하였다. 여기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야곱은 과거에 염소 털과 가죽으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창 27장).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들이 염소의 피로 야곱을 속이고 있다. 속인 자가 속임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인생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야곱이 위로를 거부하며 슬퍼한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야곱은 요셉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였고 그 집착의 대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지나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다. 그 사이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가 파라오의 신하인 호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창 37:36).

이 사건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편애가 미움을 낳았고 미움이 음모를 낳았으며 음모가 배신을 낳았고 배신이 고통을 낳았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분명한 죄였다. 그 죄의

책임은 여전히 형들에게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 훗날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고 하였다(창 45:5). 사람은 악을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신다.

10. 유다와 다말(창 38장)

창세기 38장은 요셉 이야기 한가운데 갑자기 삽입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장이 여기 놓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유다는 요셉을 파는 데 중심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창세기 38장은 그 유다의 내면과 상태를 드러내는 장이다. 그리고 창세기 44장에서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유다로 변화된 모습이 나온다. 37장의 배신, 38장의 타락과 드러남, 44장의 변화와 희생, 이것이 유다라는 한 사람의 변화 과정이다.

유다의 이야기는 그가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것이 이후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다. 언약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였던 것이다. 유다는 그 여인에게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 엘이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당시 관습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과 결혼하여 형의 씨를 이어야 했지만 오난이 그것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셨다. 오난의 죄는 단순히 형의 씨를 이어 주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형의 이름을 이어가는 언약적 책임을 거부한 것이었다. 더 깊이 보면 메시아 계보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기도 하였다.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도 죽을까 두려워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세월이 흘러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다말은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유다가 자신을 셀라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다말은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창녀처럼 꾸며 유다의 길목에 앉아 있었다. 유다는 그녀를 창녀로 알고 동침하였다. 다말은 유다의 도장과 팔찌들과 지팡이를 담보로 받았다. 도장과 팔찌들과 지팡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유다의 신분과 권위의 증표였다. 다말은 결국 유다의 죄의 증거를 손에 쥔 것이었다.

세 달 후 다말이 임신한 것이 알려졌을 때 유다는 그녀를 불태워 죽이라고 하였다. 이 장면은 유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자신은 창녀로 알고 동침하였으면서 다말은 불태워 죽이려 한 것이다. 같은 죄에 대해 자신과 타인을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위선이었다. 그때 다말이 이 물건들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고 하며 유다의 도장과 팔찌들과 지팡이를 내놓았다. 유다는 그녀가 나보다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창 38:26).

이 고백이 중요하다. 유다가 처음으로 자기 죄를 인정한 이 순간이 이후 유다의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 다말의 방법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표는 언약 계보를 이어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녀를 완전히 정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다 자신이 그녀가 나보다 옳다고 고백하였다.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다. 해산할 때 세라의 손이 먼저 나왔다. 산파가 그 손에 홍색 실을 매어 이가 먼저 나왔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손이 도로 들어가고 그의 형제 베레스가 먼저 나와 장자가 되었다(창 38:27–30). 이 장면은 창세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패턴과 연결된다.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에서보다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듯이, 여기에서도 나중에 나온 자가 먼저가 된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 홍색 실이 먼저라고 표시된 세라가 아니라 베레스를 통해 메시아 계보가 이어진 것이다.

베레스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의 이름이 기록된다(마 1:3). 베레스에서 보아스로, 보아스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계보가 이어진다. 흥미롭게도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룻기의 대속 이야기와 구조적으로 연결된다. 두 이야기 모두 끊어질 뻔한 계보가 예상치 못한 방식

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 가장 어둡고 불미스러운 사건 속에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진 것이다.

이 장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구조가 있다.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창세기 39장의 요셉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유다는 유혹에 넘어갔고 요셉은 유혹을 거부하였다. 같은 인간이지만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상황 앞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 놓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 가는 사이 유다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타락과 드러남과 고백의 과정이 유다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자신의 구속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다.

11. 요셉의 고난과 형통(창 39–40장)

이집트로 팔려 간 요셉은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으므로 그가 매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한다(창 39:2).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형통은 반드시 환경이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셉은 종이 되었다.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는 매사에 형통하였다. 형통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데 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여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다.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이까?"(창 39:9)라고 말하여 단호히 거절하였다. 여기에서 요셉의 거절 근거가 중요하다. 단순히 보디발의 신뢰를 저버리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요셉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였다. 이처럼 죄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보디발의 아내는 매일 요셉을 유혹하였지만 요셉은 거절하였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으며 유혹하자 요셉은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쳤다. 요셉은 싸우지 않고 도망쳤다.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방식이다. 보디발의 아내는 도리어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죄 없이 거짓 증거로 정죄받은 것이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증인들의 고발로 정죄받으신 것과 연결되는 그림이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고난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미리 보여 주는 그림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요셉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옷의 모티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겼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겉옷을 빼앗았다. 그러나 나중에 파라오는 요셉에게 왕의 옷을 입힌다. 사람은 옷을 빼앗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입히신다. 옷을 빼앗길 때마다 요셉의 상황은 더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짐을 통해 높임을 준비하고 계셨다.

성경은 감옥에서도 '주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고 기록한다(창 39:21). 간수장이 감옥 안의 모든 일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 창세기 39장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난다. 주님께서 함께하심, 일을 맡음, 매사에 형통함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장소가 바뀌어도 결과는 같았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이다. 감옥은 실패의 장소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다음 단계로 가는 준비 장소였다.

감옥에서 요셉은 파라오의 잔 맡은 우두머리와 빵 맡은 우두머리를 만났다.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서로 해석하지 못하여 근심하고 있었다. 요셉은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 왜 오늘 안색이 좋지 않으냐고 먼저 물었다(창 40:6-7). 자신이 억울하게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먼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 형제들

저 살핀 것이다. 고난이 사람을 쓴 뿌리로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 열린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요셉에게 고난은 쓰라림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였다.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꿈을 해석해 주었다(창 40:8). 해석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태도였다. 그는 잔 맡은 우두머리는 삼 일 후에 복직되고 빵 맡은 우두머리는 처형될 것이라고 하였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요셉은 잔 맡은 우두머리에게 복직되거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잔 맡은 우두머리는 요셉을 잊어버렸다(창 40:23). 사람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잊힘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에게는 잊혔지만 하나님께는 잊힌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다. 옳은 일을 해도 손해를 볼 수 있고 기억해 달라고 부탁해도 잊힐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

창세기 39장과 40장을 통해 흐르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 배신, 종, 유혹, 누명, 감옥, 잊힘.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었다. 매사의 형통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12. 꿈의 해석과 총리가 된 요셉(창 41장)

잔 맡은 우두머리가 요셉을 잊어버린 지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살진 암소 일곱 마리를 야윈 암소 일곱 마리가 먹어 버리는 꿈과 좋은 곡식 이삭 일곱 개를 마른 이삭 일곱 개가 삼켜 버리는 꿈이었다. 이집트의 어떤 지혜자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다. 그때에야 잔 맡은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고 파라오에게 아뢰었다(창 41:9-13).

2년이나 지연되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다. 사람의 때가 아

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기 위한 지연이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이 아니라 파라오 앞에 서야 하는 그 순간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것이었다. 우리가 답답하게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정확한 준비의 과정이다.

파라오는 요셉을 급히 불러오게 하였다(창 41:14). 요셉은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에 섰다. 이것은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었다. 감옥의 죄수에서 왕 앞에 서는 사람으로의 신분 전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랜 기다림이 한순간에 뒤집힌다.

파라오가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고 하자 요셉은 "그 일은 내 능력 안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라고 답하였다(창 41:16). 요셉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기회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요셉은 두 꿈이 같은 것이며 일곱 해의 풍년 이후에 일곱 해의 흉년이 올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요셉은 꿈 해석에서 멈추지 않고,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 흉년을 준비하라는 국가 운영 전략까지 제시하였다. 영적 선물과 실제적 지혜가 함께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단순히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제로 사람을 섬기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파라오는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다(창 41:38). 이방 왕 파라오가 하나님의 영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다. 파라오는 요셉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고 아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다(창 41:42). 반지는 권위를, 아마포 옷은 지위를, 금 사슬은 영광을 상징하였다. 완전한 신분 전환이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집트식 이름도 주었다.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이 부여된 것이었다.

요셉은 삼십 세에 파라오 앞에 서서 총리가 되었다(창 41:46). 십칠 세에 종으로 팔려 온 이후 십삼 년 만의 일이었다. 서른 살은 의미 있는 나이로, 다윗도 삼십 세에 왕이 되었고 예수님도 삼십 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요셉은 풍년의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였다. 그 기간에 요셉은 이집트 제사장의 딸 아스낫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다(창 41:50-52). 그는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을 내가 잊게 하셨다'는 뜻이다.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나를 다산하게 하셨다'는 뜻이다.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요셉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 고난을 부정하거나 잊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일하셨다는 고백이 아이들의 이름에 새겨진 것이다.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이집트만이 아니라 온 땅에 미쳤다. 각국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왔다(창 41:57).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신 것은 이집트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모든 민족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흉년이 가나안 땅에도 미쳐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오는 길이 열린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다른 민족들을 향한 것이었다.

13. 형제들의 첫 번째 방문(창 42장)

일곱 해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었다. 흉년은 가나안 땅에도 미쳤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내려가 곡식을 사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베냐민만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요셉을 잃은 이후 라헬의 자식으로 남은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이다(창 42:4).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에 이르러 요셉 앞에 엎드렸다. 이 장면을 창세기 37장과 연결하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진다. 요셉은 열일곱 살에 꾼 꿈에서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다. 그 꿈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지만 그것이 꿈의 성취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비록 이십 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 주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십칠 세에 팔려 온 요셉이 삼십 세에 총리가 되었고 일곱 해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된 때이니 이미 삼십칠 세가 넘었을 것이다. 이십 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 있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다. 이것은 감정적 복수가 아니었다. 형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특히 막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는 것이었다.

과거에 형들이 요셉을 제거하려 하였다면 이제는 그들이 의심받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다. 요셉은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창 42:17). 그곳에 갇혀 있는 동안 형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겠는가? 바로 그 사흘의 시간은 형들이 과거의 죄를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을 막힌 자리에 두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다.

사흘 후 요셉은 조건을 바꾸어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하였다. 형들은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그들은 열두 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였다. 요셉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었다. 시므온을 남겨 둔 것은 형제 공동체를 다시 묶어 두는 장치였다. 동시에 그들에게 책임을 느끼게 만드는 압박이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요셉은 형들과 대화할 때 통역을 세웠다(창 42:23).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요셉은 그들의 말을 다 알아들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척하였다. 이것은

형들의 진심을 듣기 위한 장치였다. 사람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진심을 드러낸다. 형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에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쳤도다"(창 42:21).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돌아서서 울었다(창 42:24). 겉으로는 단호하게 형들을 대하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이미 용서와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린 후 다시 돌아와 시므온을 그들 앞에서 잡아 결박하였다. 외면과 내면이 다른 이 장면은 요셉이 얼마나 깊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이십 년이 넘도록 잊힌 듯하였던 죄가 이제 기억으로 돌아와, 형들은 이집트에서 당하는 곤경이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죄 때문임을 알았다. 죄는 잊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기억으로 돌아온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형들은 이십 년이 지나서야 그 죄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기억이 곧 회개와 변화의 시작이었다.

요셉은 형들이 돌아갈 때 그들의 자루에 곡식값으로 낸 은을 다시 넣어 두었다. 그들은 숙소에서 자루를 열다가 은을 발견하였을 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였다(창 42:28). 요셉이 은을 돌려준 것은 그들을 시험하면서도 동시에 은혜를 베푸는 행동이었다. 형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과거에 형들이 두려워한 것은 사람이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이 회개의 초기 단계이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들에게서 사정을 들은 야곱의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야곱은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지고 베냐민까지 빼앗으려 한다고 하였다(창 42:36). 야곱은 여전히 상황을 상실 중심으로만 해석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모든 것 뒤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상실만 보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 그

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실 뒤에서 더 큰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때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소서. 내가 그를 다시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이다"(창 42:37). 이것은 르우벤이 책임을 지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하였다. 르우벤의 제안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 것이었다. 이것을 나중에 유다가 자신을 직접 내어놓는 것과 비교하면 두 사람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르우벤은 외적인 담보를 제시하였지만 유다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다. 이것이 창세기 44장에서 유다의 변화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보여 주는 복선이다.

14. 형제들의 두 번째 방문과 요셉의 정체(창 43-45장)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하는 수 없이 그들에게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 곡식을 사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다가 아버지에게 베냐민 없이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유다는 베냐민의 안전을 자신이 보장하겠다고 하며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이 영원히 죄를 지겠다고 하였다(창 43:9). 첫 번째 방문 때 르우벤은 자기의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았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다.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였다.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하였다.

요셉이 베냐민을 통해 다른 형제들을 시험했다는 점을 이해하면 이 이야기의 구조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과거에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버림받았다. 이제 베냐민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요셉이 확인하려 한 점은 형들이 과거와 같은 모습을 반복할 것인지, 곧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또 다른 아들을 다시 버릴 것인지였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이르렀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감동하여 몰래 나가 울었다(창 43:30). 요셉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용서로 기울어 있었다. 겉으로는 형들을 시험하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사랑이 넘치고 있었던

것이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이 식사 자리에서 요셉은 형들을 장자부터 막내까지 나이 순서대로 앉혔다(창 43:33). 어떻게 이방의 총리가 자신들의 나이 순서를 알 수 있겠는가 싶어 형들이 서로 놀랐다. 이것도 요셉이 형들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이 사람이 자신들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그들에게 들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또한 요셉은 자기 앞에서 베냐민에게 다른 형들보다 다섯 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었다(창 43:34). 이것도 시험이었다. 과거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 중 하나가 야곱의 편애였다. 이제 요셉이 베냐민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상황에서 형들이 또다시 시기하고 미워할 것인가를 보려 한 것이었다. 형들은 시기하지 않았다. 이것도 형들의 변화를 보여 주는 증거였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갈 때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 놓았다. 형들이 출발한 후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쫓아가 그들이 은잔을 훔쳤다고 말하게 하였다.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계략이 아니라 형들의 양심과 책임을 최종적으로 드러내는 마지막 검증이었다. 과거에 형들은 요셉을 버렸다. 이제 그들은 베냐민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지킬 것인가? 요셉은 은잔을 훔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하였다. 쉬운 길이 열려 있었다. 베냐민을 두고 돌아가면 그만이었다.

그때 유다가 나섰다. 유다는 요셉 앞에서 길게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만일 베냐민이 없이 돌아가면 아버지가 슬픔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하였다(창 44:33–34). 한때 요셉을 팔자고 제안하였던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은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책임감 이상의 의미가 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이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대속의 구조이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유다의 이 행동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구조를 미리 보여 주는 그림이었다. 형들의 변화는 진짜였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어 소리 내어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컸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창 45:3). 이것은 단순한 신분 공개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감춰졌던 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순간이었다. 형들은 그 모든 시간 동안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요셉은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과 닮아 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다.

형들은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였다(창 45:3). 이 침묵은 깊은 것이었다. 이십 년이 넘도록 쌓아 온 죄의 자각, 두려움, 심판 앞에 선 느낌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은혜를 받기 직전의 상태였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며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창 45:5, 7).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팔았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분께서 보내셨다'였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해석이 달랐다. 이것이 섭리의 핵심이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감정이 풀렸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해석하였기 때문이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사건을 보는 관점의 변화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

요셉은 형들에게 빨리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하였다(창 45:9–11). 아직 흉년이 다섯 해나 남아 있었다.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 전체를 이집트로 데려와 고센 땅에 살게 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재결합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칠십 명으로 내려간 이 가족이 이집트에서 큰 민족으로 자라나 이집트 탈출의 주인공이 될 것이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들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처음에 야곱은 그 말을 믿지 못하였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들을 보았을 때 야곱의 마음이 소생하였다(창 45:27). 이십 년이 넘도록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있을 뿐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야곱이 말하였다.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창 45:28). 이 말 한마디에 야곱 평생의 슬픔과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마지막 막이 남아 있었다.

15. 야곱의 이집트 이주와 요셉과의 재회(창 46–47장)

요셉의 소식을 들은 야곱은 가족 전체를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46:2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므로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4**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요, 또한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떠나는 중대한 결정이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방향을 확인해 주신 것이었다.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는가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라고 하신 말씀도 깊이 새겨야 한다. 이 약속은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한다. 개인적으로는 야



형제들과 재회한 요셉

곱이 죽은 후 가나안 땅에 장사될 것을 가리키고 민족적으로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탈출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가리킨다. 이 말씀은 이집트 탈출 전체를 포함한 장기적 약속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하신 것이다. 같은 이집트이지만 때가 달랐으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이다.

야곱의 가족 전체가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그 수가 칠십 명이었다(창 46:27). 칠십 명은 매우 작은 숫자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씨였다. 이 칠십 명이 훗날 수백만의 민족으로 자라게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작게 시작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작은 시작에서 큰 성취로 이어진다.

요셉은 수레를 이끌고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왔다. 요셉은 야곱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한참 울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가 아직 살아 있어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좋도다"(창 46:30).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다. 잃었다고 생각하였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셨다는 약속 성취의 확인이었다. 죽은 줄로 알았던 것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것은 부활의 모형적 흐름까지 연결되는 장면이었다.

요셉은 자기 가족을 이집트 고센에 정착시키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였다(창 47:11-12). 고센은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의 경계에 위치한 땅으로 목축에 적합한 비옥한 지역이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땅 배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 거하도록 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문화 속에 동화시키지 않으시고 구별된 공동체로 보존하셨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의 민족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구별된 정착에서 비롯되었다.

야곱은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다. 파라오가 네 나이가 얼마냐고 묻자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라고 하였다(창 47:9).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였다. 정착이 아니라 통과였고, 소유가 아니

라 순례였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 역시 자신의 전 생애를 나그네의 삶으로 이해하였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을 영원한 거처로 여기지 않고, 잠시 지나가는 길로 여긴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세상 왕 파라오 앞에 선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초라한 노인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였다고 기록한다(창 47:7, 10). 히브리서 7장 7절이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라고 기록한 것처럼, 축복하는 자가 받는 자보다 높다.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이것이 신앙의 관점 전환이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요셉과 함께 십칠 년을 더 살았다(창 47:28). 요셉을 잃어버린 후 이십 년 넘게 슬픔 속에 살았던 야곱이 이집트에서 요셉과 함께 십칠 년을 보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마지막을 잃어버린 아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채워 주셨다. 하나님의 위로는 늦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온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였다. 요셉의 손을 자신의 넓적다리 아래 놓게 하고 이집트에 자신을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고 하였다(창 47:29-31). 이것은 단순한 마지막 소원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이 야곱이 죽을 때 믿음으로 행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야곱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

야곱의 이집트 이주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자리로 그를 옮기고 계셨다. 이집트는 기근에서 살아남는 보호의 장소였고 큰 민족으로 자라나는 준비의 장소였으며, 훗날 이집트 탈출이라는 구속 사건의 무대가 될 장소였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땅을 구속의 무대로 바꾸신다.

16. 야곱의 축복과 죽음(창 48-49장)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왔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음으로써 요셉에게 두 몫의 상속 유업이 돌아가게 되었다(창 48:5).

이것은 지파 구조를 바꾸는 사건이었다. 원래 열두 아들에게서 열두 지파가 나와야 했지만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독립된 지파가 됨으로써 실제 지파 명단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대체된다. 또한 레위 지파는 나중에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구별되어 가나안 땅에서 별도의 영토를 받지 않고 열두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된다. 그 결과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을 이루어 열두 지파의 수가 유지된다. 이것은 훗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독립된 영토를 받는 근거가 된다(수 16-17장).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은 그 선언 하나가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 구조 전체를 결정한 것이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야곱은 자기의 오른손을 작은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요셉이 손을 바꾸어 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거부하면서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겠지만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많은 민족들을 이루리라."라고 하였다(창 48:19). 야곱이 손을 엇갈리게 얹은 것은 단순한 개인적 판단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을 인식한 행위였다. 이 패턴은 창세기 전체에서 반복된다.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에서보다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출생 순서나 기대를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다.

그다음으로 야곱은 열두 아들을 불러 모아 각자에게 예언적 선포를 하

였다(창 49장). 야곱은 이것을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였다(창 49:1).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아니라 열두 지파 전체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었다.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탁월함을 잃을 것이라고 하였다(창 49:3-4). 그것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 때문이었다(창 35:22).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 사건에서 저지른 폭력 때문에 흩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르우벤은 도덕적 실패로,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으로 인해 특권을 잃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만 책임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레위는 흩어짐의 예언을 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된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었다. 같은 흩어짐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사명이 될 수도 있다. 심판이 사명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사례이다.

유다에 대한 예언이 가장 중요하다. 야곱은 유다에게 네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고 하였다(창 49:8). 또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창 49:10). 실로는 그에게 속한 자,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홀은 통치권을, 실로는 메시아를,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은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가리킨다.

이것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다. 창세기 49장 10절은 메시아 왕국의 씨앗이다.

49:10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笏)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입법자가 그의 발들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라.

이 예언은 수천 년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라는 히브리서 7장 14절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도 주목해야 한다.

49:22 요셉은 열매 많은 가지 곧 우물 옆의 열매 많은 가지인데 그것의 작은 가지들이 담을 넘는도다. **23**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심히 괴롭게 하고 그를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24** 그의 활이 강하게 지속되었고 그의 손의 팔들이 야곱의 강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강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25** *그것들이* 곧 너를 도우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에 의해 *강하게 되었고* 또 전능자 곧 네게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놓인 깊음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을 주실 분에 의해 *강하게 되었도다.* **26** 네 아버지의 복들이 내 조상들의 복들보다 나아서 영존하는 산들의 가장 먼 경계에 이르렀는데 그것들이 요셉의 머리에 내리고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내리리라.

열두 아들 가운데 요셉에 대한 축복이 가장 길고 풍성하다.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에게 가장 풍성한 복이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깊이만큼 복을 주신다. 활 쏘는 자들이 미워하였다는 표현은 요셉이 당한 모든 핍박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활이 굳건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자의 손 때문이었다. 요셉이 매사에 형통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야곱이 마지막으로 확인해 준 셈이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을 이집트에 묻지 말고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당부하였다(창 49:29-31).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이집트를 거부하고 약속의 땅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미래 회복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었다. 야곱은 죽을 때에도 약속의 땅을 붙들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야곱이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였다고 기록한다. 야곱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행하였다.

야곱은 열두 아들에게 예언적 선포를 마친 후 발을 침상 안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창 49:33). 마지막 힘을 다해 자기 아들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눈을 감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야곱의 마지막 행위는 자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다.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야곱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야곱의 생애 전체를 돌아보면 이렇게 정리된다. 속이는 자로 시작하여 도망자가 되었고, 씨름하는 자를 거쳐 마침내 믿음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마무리되었다. 야곱의 생애는 선택으로 시작하여 연단을 거쳐 마침내 믿음으로 완성된 삶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빚어 이스라엘로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17. 요셉의 용서와 창세기의 마무리(창 50장)

마침내 야곱, 곧 이스라엘이 죽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몸에 향 재료를 넣도록 하였고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을 위하여 애곡하였다(창 50:2–3).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옮길 때 파라오의 신하들과 이집트 땅의 장로들과 병거들과 기병들이 함께 올라갔다(창 50:7–9). 이집트가 이방 나라인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을 위해 국가적 예우를 갖춘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야곱의 마지막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생각하였던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진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대로 야곱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창 50:12–13).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산 땅이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제 야곱도 그 자리에 묻혔다. 세 족장이 모두 같은 땅에 묻힌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세 사람을 통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 하나의 계보로 완성되고 있었다.

야곱이 죽은 후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요셉이 자신들을 해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요셉이 자기들을 복수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당신의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명하였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형들이 직접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형들의 두려움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주목해야 한다. 그들의 문제는 요셉이 아니었다. 자기 양심이었다.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용서하였다. 그러나 형들은 아직 자기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용서를 받아도 양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두려움은 계속된다. 죄의 무게는 그것을 지은 사람 안에서 오래도록 남는다.

요셉은 울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니었다. 형들이 아직도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영적 안타까움의 눈물이었다. 요셉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창 50:19). 이 한 문장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 문장 중 하나이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인간은 보복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이기에 앞서 자리의 문제, 곧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라는 로마서 12장 19절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요셉은 계속하여 말하였다.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 일*을 이루사 많은 사람을 살려 두셨나니"(창 50:20).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그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같은 사건이지만 목적이 달랐다. 이것이 섭리의 정의이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재해석하였기 때문이었다. 섭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진다.

요셉은 110세에 죽었다. 그는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들을 가지고 올라갈지니



세겜에 장사된 요셉의 무덤

라"(창 50:25). 이것은 믿음의 절정이었다. 이집트에 묻히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집트 탈출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붙든 믿음이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은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라고 기록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갔다(출 13:19).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는 요셉의 뼈가 세겜에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요셉의 마지막 말은 죽음이 아니라 약속을 향하고 있었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다. 창세기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여 칠십 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한 사람에서 한 가족으로, 한 가족에서 한 민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칠십 명이 이집트에서 큰 민족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항상 작게 시작하셔서 크게 이루신다.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약속으로 이어진다. 아담의 실패로 시작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 열두 지파의 기초가 놓였으며,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인간의 죄와 고난을 초월하여 일하시는가가 드러났다. 야곱과 열두 아들의 이야기 전체를 통해 한 가지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속이는 자 야곱을, 시기하여 형을 팔아 버린 열 형제를,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형들은 자신들의 죄와 마주하였으며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연단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창세기는 인간의 실패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 실패 위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다.



창세기 강해

부록

간극 이론의 오류와 교리적 위험

안식일과 안식교

영과 혼과 몸

천사들과 영의 세계

믿다와 믿음에 대한 오해

성경 연대기



| 부록 1 |

간극 이론의 오류와 교리적 위험

간극 이론의 역사적 기원과 한계

1. 19세기 이전: 전통적 6,000년 연대관

19세기 중반 진화론 등장 이전까지, 유대·기독교 전통은 창세기 족보에 근거하여 지구와 우주의 연령을 약 6,000년으로 이해하였다. 아일랜드 대주교 제임스 어셔(James Ussher, 1581–1656)는 창조 시점을 BC 4004년으로 산출하였고, 케임브리지의 존 라이트풋(John Lightfoot, 1602–1675)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젊은 지구' 관점은 단순한 신앙적 편견이 아니라 당시 알려진 모든 고대 문명의 역사 기록과도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판단이었다.

흥미롭게도 18–19세기 초까지 비신앙인 자연철학자들조차 '종은 변하지 않고 고정적이다'라는 견해를 공유하였다. 칼 린네(Carl Linnaeus, 1707–1778)는 종 분류 체계를 종의 고정성 위에 세웠고, 장바티스트 라마르크

(Jean-Baptiste Lamarck, 1744-1829)의 용불용설은 학계 주변부에 머물렀다. 찰스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이 1859년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을 출판하기 전까지, 젊은 지구와 종의 고정성은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가 공유한 지적 공통분모였다.

2. 계몽주의, 균일론, 그리고 '수억 년'의 등장

18세기 후반부터 인본주의와 이성주의가 부상하면서 이 공통 인식에 균열이 생겼다. 제임스 허턴(James Hutton, 1726-1797)과 찰스 라이엘(Charles Lyell, 1797-1875)이 주장한 균일론은 "현재 관찰되는 서서히 진행되는 자연 과정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작용하였다."라는 전제 위에 섰다. 허턴은 1788년 "지구의 역사에는 시작의 흔적도, 끝의 전망도 없다."라고 선언하였고, 라이엘은 「지질학의 원리」(*Principles of Geology*, 1830-1833)에서 수억 년의 시간 척도를 체계화하였다.

균일론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철학적 세계관이었다. '모든 것이 항상 동일한 자연 법칙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는 전제는 초자연적 창조와 홍수를 처음부터 부정하는 논리를 담고 있었다. 다윈은 비글호 항해에서 라이엘의 책을 들고 다니며 깊은 영향을 받았고, 균일론이 제공한 장구한 시간 없이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이 성립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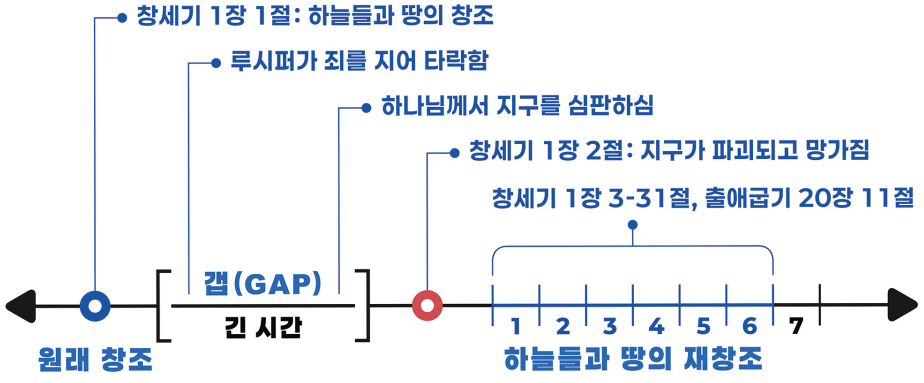
베드로후서 3장 3-4절은 이미 마지막 날들에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같이 그대로 계속된다."라고 주장하는 비웃는 자들을 예언하였다. 이것이 정확히 균일론의 핵심 명제였으며, 이제 그 사고가 교회 안팎에서 동시에 힘을 얻게 되었다.

3. 간극 이론의 등장: 타협의 시도

균일론과 진화론의 충격 앞에서 19세기 신학자들은 세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 성경을 그대로 고수하는 길, 창세기를 신화로 재해석하는 길, 그리고 중간 타협의 길이다. 간극 이론은 세 번째 길에서 태어났다.

이 이론을 처음 체계적으로 제안한 인물은 스코틀랜드 신학자 토머스 찰머스(Thomas Chalmers, 1780–1847)였다. 그는 1814년 강의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광대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영국의 조지 펨버(George H. Pember, 1837–1910)는 「지구의 초기 시대들」(*Earth's Earliest Ages*, 1876)에서 이 이론을 신학적으로 정교화하였다. 그는 창세기 1장 2절의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상태가 사탄과 천사들의 반역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결과라고 주장하였으며, 더 나아가 '선(先)아담 인류'와 그들의 문명이 존재하였을 가능성까지 제시하였다. 신약의 마귀 들림 현상이 몸을 잃은 '선(先)아담 영들'의 활동이라는 설명도 여기에서 나왔다. 성경에 명시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 신비롭고 극적인 서사가 이 이론이 대중적 호소력을 얻게 된 원천이었다.

〈재창조식 성경 해석(추측과 상상)〉



4. 20세기 미국에서의 확산

20세기 초 찰머스와 펨버의 씨앗은 미국 근본주의 진영 전체로 퍼져 나갔다. C. I. 스코필드(C. I. Scofield, 1843–1921)의 「스코필드 주석 성경」(1909)은 창세기 1장 각주에서 간극 이론을 명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평범한 성도들도 이 이론을 '성경을 진지하게 믿는 보수 신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해

석'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다만 1967년「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은 이 입장을 상당히 후퇴시켰는데, 이는 간극 이론이 절대적 교리가 아닌 수정 가능한 해석 제안임을 스스로 보여 준다.

클라렌스 라킨(Clarence Larkin, 1850–1924)은「세대주의 진리」(*Dispensational Truth*, 1918) 등에서 정교한 도표로 '창조–파멸–재창조' 구조를 시각화하였다. 그의 체계에서 간극 이론은 '루시퍼 홍수', '선(先)아담 시대 문명', 마귀론, 천사론, 우주론을 아우르는 거대한 신학 체계로 발전하였다.

피터 럭크만(Peter S. Ruckman, 1921–2016)은 이 흐름의 직접적 계승자였다. 그는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와 간극 이론, 극단적 세대주의를 하나로 결합하였고, 이 이론의 '수용 여부'를 진정한 성경 신자의 판별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간극 이론은 하나의 해석 제안에서 신앙의 판별 기준으로 굳어졌고, 미국 근본주의 진영 안에 깊은 분열과 상처를 낳았다.

5. 1960년대 이후: 창조과학의 부상과 쇠퇴

1961년 존 휫컴(John C. Whitcomb, 1924–2020)과 헨리 모리스(Henry M. Morris, 1918–2006)의「창세기 홍수」(*The Genesis Flood*) 출간으로 상황은 급변하였다. 이 책은 수억 년의 지질학적 시간이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철학적 가정임을 논증하며, 지구 대부분의 퇴적층과 화석이 노아의 전 지구적 홍수 기간 약 1년 동안 형성되었다는 홍수지질학을 제시하였다. 1963년 창조연구학회, 이후 창조과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젊은 지구 창조론'이 보수 진영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더 이상 오래된 지구를 수용하기 위해 성경을 재해석할 필요가 없어졌고, 오래된 지구라는 전제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간극 이론과 '날–시대 이론'은 19세기 세속 과학의 압력에 굴복한 타협의 산물로 재평가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창세기 1장 2절의 히브리어 문법, '토후 와보후'의 의미, replenish의 17세기 영어 용례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이론의

언어학적 기둥들이 하나씩 무너졌다.

그 결과 21세기 미국과 영국의 근본주의·복음주의 진영 대부분에서 간극 이론은 사실상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6. 한국 교계에서의 수입과 변형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럭크만의 영향을 받은 일부 목회자와 출판 단체를 통해, 간극 이론이 '정통 킹제임스 성경 신앙'의 필수 요소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말씀보존학회는 럭크만 주석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급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의 replenish를 '다시 채우라'로 번역하여 이 이론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이 번역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주요 언어 성경 번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 단체와 관련 인사들은 '창조–파멸–재창조'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성경 신자가 아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공격적으로 비판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영국에서 영향력이 약화되었던 이 이론이 한국에서는 번역과 출판을 통해 시간차를 두고 유입되면서 오히려 새롭게 부각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7. 평가: 역사적 산물로서의 간극 이론

간극 이론은 하늘에서 떨어진 '성경적 교리'가 아니라, 18–19세기 균일론·진화론과 문자적 6일 창조 이해를 동시에 유지하려는 신학적 타협의 산물이다. 창세기 1장 1–2절의 히브리어 문법과 어휘 분석, replenish의 17세기 영어 용례 연구, 창조와 홍수에 대한 성경 전체의 일관된 증언, 노아의 전 지구적 홍수를 지지하는 과학적 자료들이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킨다. 간극 이론은 '성경을 지키기 위한 방어선'이 아니라, 성경 본문 위에 후대의 과학 담론과 오해된 언어학 자료를 덧입힌 가설이다.

한국 교계가 이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것은 특정 인물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나 감정적 비난이 아니다. 히브리어·그리스어 본문의 정밀한 주해, 킹제임

스 성경 시대 영어에 대한 역사적 연구, 지질학·천문학·생명과학 자료의 공정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을 취할 때 간극 이론은 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설득력을 상실한 과도기적 타협 모델로 그 역사적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간극 이론의 주요 성경적 오류

간극 이론에는 다음과 같은 열한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문제 1: 창세기 1장 2절의 was는 became이 아니다
문제 2: 창세기 1장의 '그리고'(And)는 간격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문제 3: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은 파괴를 뜻하지 않는다
문제 4: '창조하다', '만들다', '짓다 혹은 형성하다'는 동의어이다
문제 5: 창세기 1장 28절의 replenish는 '다시 채우라'가 아니다
문제 6: 이사야서 24장 1절과 45장 18절은 재창조와 아무 관련 없다
문제 7: 예레미야서 4장, 이사야서 34장은 추측 해석의 전형이다
문제 8: 시편 82편과 욥기 본문들은 간극의 증거가 아니다
문제 9: 에스겔서 28장의 에덴은 에덴동산이 아니다
문제 10: 베드로후서 3장은 루시퍼 홍수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이다
문제 11: 세 구절에 의해 간극 이론은 무너진다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이 글에서는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 곧 문제 1, 문제 5, 문제 11만을 요약해서 다루려 한다.[1]

「재창조는 없다 – 간극 이론의 오류와 교리적 위험」 무료 PDF 책 QR 코드

1. 나머지 여덟 가지 오류와 본서에서 다루는 세 문제, 그리고 재창조 문제 전반에 관해서는 「재창조는 없다: 간극 이론의 오류와 교리적 위험」 무료 PDF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keepbible.com/Pds1/View/67F

재창조 간극 이론 문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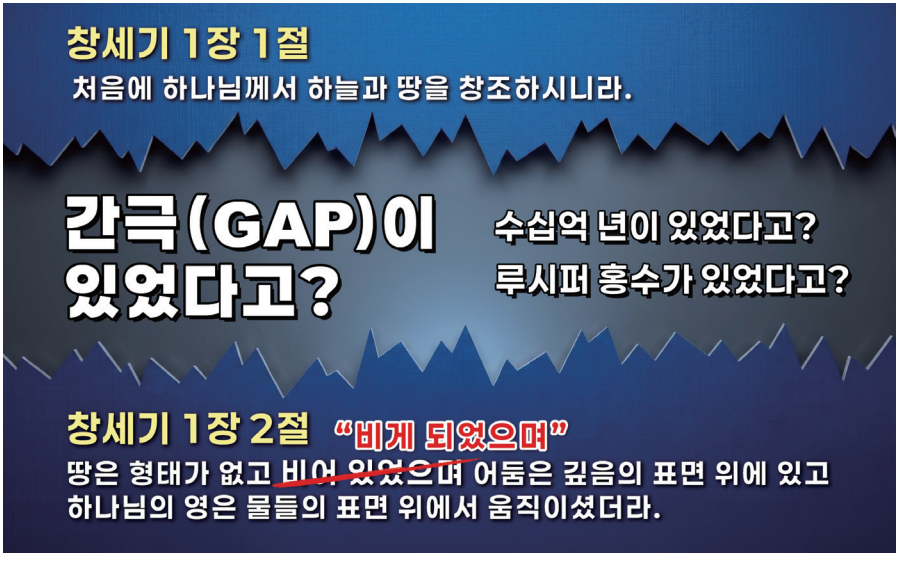
창세기 1장 2절의 was는 became이 아니다

간극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 있다. 창세기 1장 2절의 첫머리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에서 'was'를 'became'으로 번역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간극 이론의 전체 구조가 사실상 이 번역 하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의 논리는 이렇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 완전한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서는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상태로 묘사된다. 이것을 단순히 최초 창조 직후의 상태로 읽으면(was) 간극 이론은 설 자리가 없다. 따라서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became)로 읽어야만 완전했던 창조와 공허 사이에 심판과 파괴를 끼워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언어학적으로도,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내세우는 입장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재창조의 간극과 루시퍼 홍수(추측과 상상)〉



1. 킹제임스 성경의 증언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으면서도 그 번역을 'became'으로 수정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동사 하야(hayah)를 정밀하게 다룰 줄 알았던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었다. 그들이 'became'이 아니라 'was'를 선택한 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문맥과 문법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었다.

지지자들은 창세기 19장 26절에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became)처럼 하야(hayah)가 'became'으로 번역되는 사례를 든다. 그러나 어떤 단어가 특정 문맥에서 특정 의미로 쓰인다는 사실이, 모든 문맥에서 동일하게 번역해야 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결정적인 문제는 실제 히브리어 문법이 간극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명사절과 동사절의 결정적 차이

간극 이론이 성립하려면 창세기 1장 2절은 시간의 흐름과 사건 전개를 보여주는 동사절이어야 한다. 그러나 1장 2절은 동사절이 아니라 명사절(noun clause)이다. 명사절은 주어와 명사 성격의 서술어로 구성되며, 사건의 발생이 아니라 상태를 보여 줄 뿐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 13장 13절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심히 큰 죄인들이었더라."는 그들이 어느 순간 악하게 '되었다'는 변화를 말하는 문장이 아니라, 그들의 원래 상태를 설명하는 기록이다. 창세기 1장 2절도 같은 구조로서,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는 상태를 서술할 뿐이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waw)이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를 '그다음에'라는 시간적 의미를 가진 '연속적 와우'로 이해하지만, 문법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의 와우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 '땅'(eretz, 에레츠)에 붙어 있는 '분리적 와우'(disjunctive waw)이다. 이는 시간의 흐름을 끊고 앞선 내용에 대한 보충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이다. 브루스 K. 월트키, 폴

조우온, 타카미츠 무라오카 등 권위 있는 히브리어 문법학자들 모두 이 구절을 배경 상태를 설명하는 절로 분석한다.

웨스턴 W. 필즈(Weston W. Fields)의 결론은 명확하다. "창세기 1장 2절이 주동사와 동시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설명적 상황절, 곧 명사절이라면, 그 구절을 주동사의 행동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건이나 변화를 묘사하는 절로 이해하기란 문법적으로 불가능하다."

3. 성경 본문의 용례

성경 전체에서 동일한 구조의 '이접적 구절'(disjunctive clause)은 일관된 기능을 수행한다. 행동 서술이 잠시 멈추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기 전, 관련 인물이나 장소의 상태를 독자에게 미리 알려 주는 기능이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한 뒤 도시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당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라는 설명이 삽입된다. 여기에서 아무도 'was'를 'became'으로 읽지 않는다. 사무엘기상 4장 15절에서도 소식 전달자가 엘리에게 도달하기 직전 "엘리는 구십팔 세여서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더라."라는 배경 설명이 삽입된다. 이는 엘리가 갑자기 눈이 어둡게 '되었다'는 변화가 아니라 당시의 상태를 알려 주는 설명이다.

창세기 1장 2절도 동일한 구조이다. 1절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된 후, 2절에서 그 땅의 상태가 설명되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는 첫 번째 창조 명령으로 이어진다.

4. 소결

언어는 임의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was'를 'became'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단순한 번역 선호 이상의 문제이다. 이는 문법 구조를 무시하고, 성경 전체의 일관된 용례를 거스르며, 킹제임스 번역자들의 신중한 판단을 뒤집는 행위이다. 더 본질적으로는 본문에서 의미를 길어 올리는 '바른 해석'(exegesis)이 아니라, 이미 세워 둔 결론을 정당화하려 외부에서 만든 의미를

본문 안으로 밀어 넣는 '자의적 해석'(eisegesis)이다.

창세기 1장 2절은 문법과 구조와 성경 전체의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창조 직후 땅의 초기 상태를 묘사하는 이접적 명사절이다. 이 명백한 읽기를 거부하고 'became'을 도입하는 순간, 성경 본문이 말하지 않는 수억 년의 간극과 루시퍼의 반역, 전 지구적 파멸이 두 절 사이에 삽입된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절을 따라 읽어야지, 절 사이의 빈 공간을 상상으로 채우며 읽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무줄이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있었다'(was)는 '있었다'(was)일 뿐이며, 결코 '되었다'(became)가 될 수 없다.

재창조 간극 이론 문제 5:

창세기 1장 28절의 replenish는 '다시 채우라'가 아니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1장 28절의 'replenish the earth'이다. 그들은 이 표현이 '다시 채우라'라는 뜻이므로 아담 이전에 이미 인류가 존재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1. 문제의 출발점

창세기 1장 28절의 '채우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동사 말레(male')이다. 이 동사는 구약 전체에서 249회 사용되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다시 채우다'(refill)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간극 이론을 옹호하는 학자 아서 커스턴스(Arthur C. Custance)조차도, 히브리어 자체는 '다시 채우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지 않다고 인정한다.

문제는 영어 단어 replenish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학창 시절에 're-는 다시'라는 공식을 배운 탓에 무의식적으로 'replenish = 다시 채우다'로 단정한다. 그러나 라틴어 계통의 영어 단어들에서 접두사 're-'는 반드시 '다시'를 의미하지 않는다. replete(가득 찬), resplendent(눈부시게 빛나는),

revere(깊이 경외하다), resolute(단호한) 등에서 're–'는 '완전히, 충분히, 강하게'라는 강조의 의미로 쓰인다. replenish 자체도 라틴어 plenus(가득 찬)에서 유래하여 '완전히 채우다'를 뜻한다.

2. OED와 웹스터 사전의 증언

「옥스퍼드 영어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 OED)은 replenish에 대해 '가득 채우다'의 의미가 1340년대부터 등장하였음을 보여 준다. 반면 '다시 채우다'(to fill up again)라는 의미는 1612년에야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나며, 그것도 시(poetry)에서 사용된 예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출판된 1611년 시점에는 '다시 채우다'라는 의미가 영어에 존재하지 않았다.

노아 웹스터의 1828년 영어 사전 초판은 replenish의 첫 번째 뜻을 '채우다'(To fill; to stock with numbers or abundance)로 정의하면서, 대표 예문으로 창세기 1장 28절을 직접 인용하였다. 킹제임스 성경 출판 후 2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영어권 학자들은 이 구절의 replenish를 '채우다'로 이해하고 있었다.

3. 다른 언어 성경들의 증언

킹제임스 성경 이전의 모든 영어 성경이 예외 없이 'fill'을 사용하였다. 1380년대 위클리프 성경은 'fille ye the erthe', 1530년 틴데일 성경은 'fyll the erth', 1535년 커버데일 성경은 'fyll the earth', 1560년 제네바 성경은 'fill the earth'로 번역하였다.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이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füllet die Erde', 스페인어 레이나 발레라 성경은 'llenad la tierra', 프랑스어 올리베탕 성경은 'remplissez la terre'로 옮겼다. 모두 '채우라'이지 '다시 채우라'가 아니다.

4. 성경의 '내장 사전' : 1장 22절과 28절의 비교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성경 자체 안에 있다. 창세기 1장 22절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들의 물들을 채우고(fill)"라고 말하고, 1장 28절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replenish)"라고 말한다. 두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완전히 동일한 동사 연속 구조 "페루 우르부 우밀우"(다산하고, 번성하고, 채우라)를 공유한다.

22절의 fill은 '처음 채움'이고 28절의 replenish는 '다시 채움'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문맥도 같고, 히브리어 단어도 동일하며, 영어 단어조차 17세기 용례로 보면 둘 다 '채우다'의 의미 범주에 속한다. 더욱이 KJV 역자들은 같은 히브리어 동사 말레(male')를 fill로 107회, full로 48회 번역하였고, replenish로는 7회만 번역하였다. 이들이 이 단어의 기본 의미를 '채우다'로 분명히 알고 있었음이 통계로도 입증된다.

5. 소결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은 "다산하라, 번성하라, 땅을 가득 채우라, 정복하라, 지배하라."라는 다섯 가지 명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청지기 사명의 선언이다. '땅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에서 '다시 채움'이나 이전 인류의 멸망 후 재충원이라는 개념을 읽어 내는 것은, 언어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후대에 달라진 영어 단어의 뜻을 17세기 본문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덧씌운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재창조 간극 이론 문제 11:

세 구절에 의해 간극 이론은 무너진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증을 차치하고서라도, 간극 이론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세 구절이 있다. 이 구절들은 고도의 신학적 훈련이나 원어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표현이 단순하고 의미가 명확하여, 어떤 선입견도 없이 성경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나 즉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구절: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하였기 때문이니

이는 십계명의 안식일 준수 명령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선언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적 창조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표현이며, 어떤 예외 단서도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엿새 이전에 별도의 최초 창조가 있었음을 알리고자 하셨다면, 바로 이 구절에서 그것을 밝히셨을 것이다.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최초 창조는 제외"라고 단서를 붙이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 '만들다'(asah)와 '창조하다'(bara)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엿새는 최초 창조가 아닌 재정비 기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동사를 동일한 창조 사건에 자유롭게 교차 사용한다(창 1:26–27; 사 43:7; 45:18). 또한 안식일 준수 명령은 창조의 모방에 그 신학적 기초를 둔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도 엿새 동안 일한다는 것이다. 엿새가 단지 '재정비 기간'이라면 이 신학적 기초가 흔들린다.

두 번째 구절: 마가복음 10장 6절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선언이다. 인간의 창조가 '창조의 시작부터' 있었다는 사실, 즉 재창조가 아니라 최초의 창조였다는 점을 주님께서 친히 확인해 주신다.

간극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창조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창조의 시작 → 수십억 년의 역사 → 루시퍼의 타락과 심판 → 전면적 파괴 → 재창조의 여섯째 날 → 인간 창조. 이 구조에서 인간은 '창조의 시작'과 수십억 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라고 하신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지지자들은 이 '창조'를 '재창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창조'라는 개념을 언급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 창조'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도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라고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신다. 두 복음서에 걸쳐 반복된다는 점은 이것이 우연한 표현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언임을 보여 준다.

예수님의 권위는 결정적이다. 창조의 역사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신 분은 창조자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이 인간의 창조 시점을 '창조의 시작'으로 규정하셨다면, 우리는 그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 번째 구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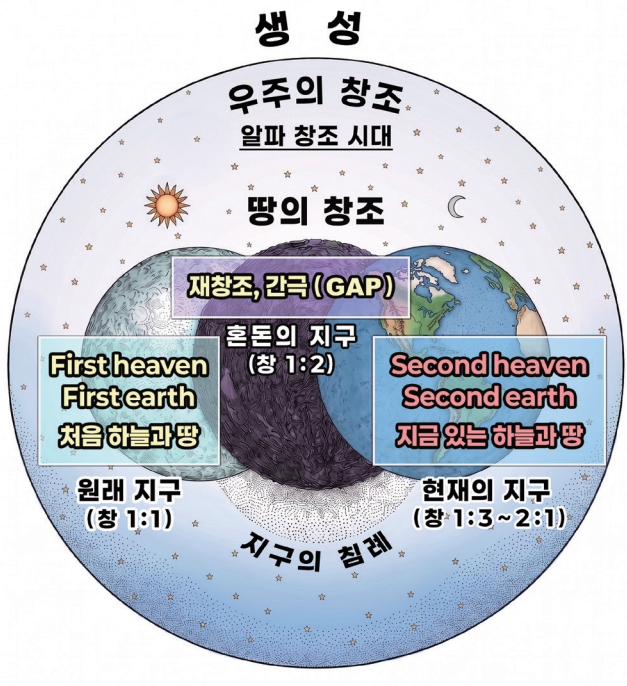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에서 '처음'은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곧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을 의미한다. 만일 두 번째가 이미 존재했다면, 그것을 '처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구조는 단순하다. 첫 번째 하늘과 땅 → 사라짐 →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에는 두 번째 하늘과 땅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간극 이론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이미 두 번째 것이다. 첫 번째 하늘과 땅(루시퍼의 홍수로 소멸) → 두 번째 하늘과 땅(재창

조) → 세 번째 하늘과 땅(새 창조). 이 체계가 옳다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두 번째 하늘과 두 번째 땅이 사라졌고"라고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처음(첫 번째)'이라고 말한다.

〈상상과 추측의 재창조 결국 무너지다〉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창조가 서로 대응한다. 처음 창조와 최종 갱신의 대응이다. 이 두 사건은 성경의 시작과 끝을 형성한다. 만약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완전한 창조와 완전한 우주적 소멸이 있었다면, 그 이후의 창조를 '처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간극 이론이 무너뜨리는 복음의 기초

앞에서는 간극 이론이 의지하는 성경 본문들을 직접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 이론이 의지하는 언어학적 전제들은 히브리어 및 영어 문법 앞에서 무너졌고, 동원되는 본문들은 문맥 안에서 읽을 때 이 이론과 무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 간극 이론의 문제는 본문 해석의 기술적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간극 이론이 전제하는 세계관은 죄와 사망의 기원, 그리스도의 속죄, 창조의 선함, 천사론과 인간론 등 성경의 핵심 교리 전반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첫 번째 모순: 창조 서술 비중의 약화

간극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원래 창조는 수백만, 수십억 년에 걸쳐 번성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세계였다. 일부 지지자는 선(先)아담 종족과 그들의 문명까지 포함시킨다. 그런데 이토록 방대한 창조에 관한 서술이 고작 창세기 1장 1절 한 절에 그친다는 점은 성경의 서술 원리와 맞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중요한 사건일수록 자세히 기록된다.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6–9장 네 장에 걸쳐 방주의 치수와 짐승의 수, 홍수의 진행 과정과 날짜까지 세밀하게 기록된다. 성막 건축에도 출애굽기의 여러 장이, 솔로몬 성전 건축에도 열왕기상 두 장이 배정되었다. 그런데 수십억 년에 걸친 최초 창조와 전 우주적 격변이 단 두 절에 압축되어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며 "그것이 매우 좋았다."라고 선언하신다. 만일 간극 이론이 옳다면, 이 세계는 이미 루시퍼의 반역으로 황폐화된 첫 창조의 잔해 위에, 거대한 죽음과 멸종의 화석층 위에 세워진 세계이다. 그런 세계를 "매우 좋았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반면 문자적 6일 창조 관점에서는 이 선언이 죄와 사망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완전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전면적 승인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두 번째 모순: 노아의 홍수 의미 훼손

전통적 간극 이론은 지구의 화석 기록과 지질학적 형성물이 아담 이전의 루

시퍼 홍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이는 노아의 홍수가 지질학적으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일부 지지자는 노아의 홍수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국한된 지역적 사건으로 격하한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의 홍수를 '물들이 땅 위에 크게 넘치므로 온 하늘 아래 있던 모든 높은 산들이 덮였고' 공기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죽은 전 지구적 사건으로 명확히 기술한다(창 7:19–20). 만일 홍수가 지역적이었다면 노아가 방주를 건조할 이유도, 모든 종류의 짐승을 실을 이유도 없었다.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홍수를 미래의 보편적 심판의 역사적 사례로 인용하셨다(마 24:37–39; 눅 17:26–27). 만약 노아의 홍수가 지역적이었다면, 장차 모든 인류에게 임할 심판의 사례로 제시하시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베드로 역시 이 홍수를 창조 당시 세계가 실제로 소멸된 사건으로 묘사하며, 장차 있을 불의 심판의 유형으로 제시한다(벧후 3:5–7). 노아의 홍수를 격하하면 무지개 언약(창 9:11–17)의 의미도 상실되고, 종말론적 심판의 신뢰성도 흔들린다.

세 번째 모순: 천사론과 인간론의 충돌

간극 이론은 최초의 지구가 루시퍼와 천사들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인간은 이미 천사들의 지배 질서가 확립된 세계로 뒤늦게 등장한 존재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의 서술 구조는 인간이 창조의 정점이며, 창조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았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간극 이론을 옹호하는 시도는 잘못이다. 사탄이 에덴동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지구의 원래 지배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최종적으로 결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한 사탄 권세의 무너짐을 가리키지, 수십억 년 전 사건의 회상이 아니다.

이 문제는 구속론의 핵심 구조와 직결된다. 로마서 5장의 '아담–그리스도

평행 구조'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명이 회복된다는 상실과 회복의 대칭 위에 성립한다. 그런데 간극 이론에서는 사탄의 지배가 아담의 범죄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해진다.

네 번째 모순: 죄와 사망의 기원 교리 훼손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충돌이다. 간극 이론은 아담의 존재 이전에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방대한 지질학적 연대 동안 질병과 부패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계가 존재했음을 전제한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라고 선언한다. 죄가 먼저 들어왔고, 그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다. 아담 이전에 죄가 없었다면 사망도 없었어야 한다. 그런데 아담 이전에 사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일부가 된다. 창세기 1장 29–30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짐승에게 채소와 푸른 풀을 음식으로 주신 기록은, 최초의 창조 세계에 포식도 죽음도 없었음을 보여 준다.

만일 사망이 처음부터 창조 질서의 일부였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의 삯인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복음의 논리 구조가 그 근거를 잃는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사망을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라고 부르는데, 이는 사망이 하나님의 원래 설계가 아니라 죄로 인해 침입한 낯선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에덴동산의 저주(창 3:17–19)의 의미도 무너진다.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라는 선언은 아담 이전에는 저주가 없었음을 전제한다. 로마서 8장 22절은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른다."라고 말하는데, 간극 이론에서는 이 신음이 아담 이전 수억 년 전부터 이미 존재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회복하려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창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새 창조에서 완성되는 위대한 구속사의 서사가, 그 출발점부터 흐려진다.

재창조 이론에 대한 결론: 성경적 교리로 성립할 수 없는 이론

어떤 교리가 성경적으로 건전하다고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그 교리를 지지하는 명확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그 교리가 성경의 다른 명확한 진술들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간극 이론은 이 두 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

재창조 지지자들이 제시하는 모든 본문을 면밀히 검토하면, 그 본문이 간극 이론과 무관하거나 전혀 다른 사건을 가리키고 있음이 드러난다. 더욱이 이 이론은 출애굽기 20장 11절, 마가복음 10장 6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같이 단순하고 명확한 성경의 선언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선언,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지어졌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요한의 증언, 이 세 구절은 간극 이론과 양립할 수 없다. 이처럼 명확한 성경 구절들을 비틀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는 교리라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글이 다룬 세 차원의 평가는 모두 한 방향으로 수렴한다. 역사적으로 간극 이론은 19세기 균일론과 진화론의 압력 앞에서 '오래된 지구'를 수용하려는 신학적 타협의 산물로 등장하였다. 언어학적으로 이 이론의 핵심 기둥, 곧 창세기 1장 2절의 'was'를 'became'으로 읽으려는 시도와 1장 28절의 replenish를 '다시 채우라'로 읽으려는 시도는 히브리어 문법과 17세기 영어의 실제 용례 앞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신학적으로 이 이론은 창조의 선함, 노아 홍수의 보편성, 천사론과 인간론, 그리고 무엇보다 죄와 사망의 기원에 관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과 충돌한다. 사망이 아담의 죄 이전에 이미 수억 년 동안 창조 질서의 일부였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의 삯인 사망을 정복

하셨다는 복음의 논리는 그 토대를 잃는다. 간극 이론이 치르는 대가는 단순히 창세기 몇 절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논리 구조 그 자체이다.

한국에 재창조 간극 이론을 보급한 럭크만 자신도 이 이론이 성경에서 '유추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유추는 "이것을 모르면 성경 신자가 아니다."라는 절대 기준으로 굳어졌다. 한 사람의 추론이 성경 전체의 전제가 될 수는 없으며, 한 학교의 체계가 성경의 기준이 될 수도 없다. 간극 이론은 '오래된 지구'라는 진화론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 외부의 요구에 따라 성경 안으로 끼워 넣은 해석 체계일 뿐, 성경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교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성경은 간극 이론 없이도 충분히 아름답고 완전하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읽을 때, 창세기 1장은 간극 이론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하나의 완결된 창조 서사이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매우 좋았으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왔다. 창조에서 타락으로, 타락에서 구속으로, 구속에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이 단순하고 장엄한 복음의 서사는 재창조 같은 자의적 해석의 삽입 없이도 완전하고 아름답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만들어진 '인간의 추론과 학파의 체계'에 매이지 않고,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단순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 부록 2 |

안식일과 안식교

이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신 데서 시작된다. 이후 이 안식일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주신 명령으로 나타나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성취된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안식일은 종말에 이르러 영원한 안식으로 완성된다. 이처럼 안식일은 단순히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쉬는 문제가 아니라 창조와 구속과 종말을 하나로 잇는 성경적·신학적 핵심 주제이다.

그런데 이 안식일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은 혼란을 낳고 있다. 어떤 이들은 주일을 율법적 안식일과 동일시하여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처럼 가르치고, 어떤 이들은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토요일 예배를 강요한다. 안식교(Seventh-day Adventist Church)는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예로, 토요일 안식일 준수를 구원의 표지로까지 격상시키며 자신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친다. 이런 가르침은 외형적으로는 성경에 충실한 듯 보이지만, 그 본질을 살펴보면 율법주의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안식일의 의미를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안식일은 누구에게 주어졌으며, 그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안식일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주일은 어떻게 안식일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그 차이는 무엇인가?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참된 안식은 어떤 안식인가? 그리고 안식교의 가르침은 왜 성경적이지 않은가?

이 글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차례로 다루며 안식일에 관한 성경적 이해를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율법 수여 이전과 이후의 안식일을 살펴보고,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더 큰 안식의 주기를 검토한 뒤,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참된 안식의 본질을 풀어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안식교의 형성 과정과 그 핵심 교리가 가진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 때의 안식일

안식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 친히 세우신 질서이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자신의 일을 끝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창 2:2-3).

여기에서 '안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바트'(Shabbat)는 단순히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멈추다, 그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피곤하여 휴식을 취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 사역을 완전히 마치셨음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므로 지쳐서

쉬실 필요가 없으시며,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을 만큼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음을 선언하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식은 '일의 중단'이 아니라 '완성에 따른 종료'를 뜻한다. 그리고 안식일(Sabbath)이라는 단어 역시 바로 이 샤바트에서 유래하여,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그치신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창세기 2장 3절은 성경 전체에서 '거룩히 구별하다'라는 의미의 '생크티파이'(sanctify)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처음부터 장소나 사람이 아니라 시간에 부여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거룩히 구별하심으로써, 시간 자체를 구별된 영역으로 설정하셨다. 이로써 창조 질서 안에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레째에 그치는 리듬이 처음으로 확립되었다.

이 안식은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사실을 기억하고, 그 완성된 사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날이다. 따라서 안식의 본질은 행위의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데 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니라."(마 12:8)라고 선언하셨다. 이는 창조 때 안식하신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된 존재가 아님을 드러낸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안식일의 주로서, 참된 안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안식일 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며, 현재 요일로는 토요일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거나 주일이 일곱째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첫째 날이고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다. 영어의 요일 배열 역시 선데이(Sunday)부터 새터데이(Saturday)까지 이어지며 이 순서를 반영한다.

창세기에 나타난 안식의 원리는 결혼 제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창조 질서 속의 기본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안식일이 율법적 명령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며 안식일을 계명으로 명문화하셨다. 이 시점은 주전 1491년경으로, 오늘날을 기준으로 약 3,500여 년 전이다.

율법 수여 이전의 안식일

그렇다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안식일이 전혀 없었는가? 사람들이 안식일 개념을 전혀 알지 못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 즉 아담의 시대부터 안식일을 지켜 온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내 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일주일 단위의 주기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난다. 노아가 대홍수 이후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새를 내보내는 장면에서도 '이레'의 개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 또 다음 이레를 더 머무른 뒤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매… 그가 다음 이레를 더 머무른 뒤 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창 8:10, 12)

이 말씀은 이미 그 시대에 일주일 단위의 시간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약 1,000년 뒤의 인물이므로, 이 기록을 통해 창세기 초기부터 7일 주기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음을 보여 준다.

또한 족장 시대의 기록을 보면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지역에서 일주일, 즉 '이레'가 시간 단위로 사용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결혼식 이후 자신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항의하자 라반은 이렇게 말한다.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라. 우리가 이 딸도 *너의* 섬김으로 인해 네게 주리니 네가 다른 칠 년을 여전히 나와 함께하며 섬길지니라"(창 29:27). 이 말씀은 당시 결혼 의식이 일주일, 곧 '이레' 단위로

진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출애굽기에는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안식일과 관련된 원리를 미리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온다(출 16:22-30). 그들은 여섯째 날에 두 배의 빵을 거두었는데(22절), 하나님께서는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 **주**에게 거룩한 안식*일*이니라."(출 16:23)라고 말씀하시며, 그날을 위해 굽고 끓일 것을 미리 준비하고 남은 것을 보관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장면은 시내 산에서 율법이 공식적으로 주어지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안식일의 개념과 원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러나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명령은 주전 1491년경 시내 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공식적으로 주어졌다. 이때부터 안식일을 어길 경우 사형에 처하는 엄격한 율법이 시행되었다(출 31:14-15; 35:2; 민 15:32-36). 출애굽기 16장에서 이미 여섯째 날에 두 배를 거두라는 지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에 나가서 거두려는 사람들이 있었다(출 16:27).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그 시점은 아직 율법이 공식적으로 주어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규정이 명확히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성경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안식일의 기초가 되는 '이레'의 개념이 율법 수여 이전부터 이미 사람들의 삶 속에 시간 질서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식일은 단순한 노동의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리듬 속에서 주어지는 쉼의 원리로 이해될 수 있다.

율법 수여와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출 31:13)

이 말씀은 신약 시대 교회나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명백히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어졌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다른 민족과 구별하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표적을 주신 것이다.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한 사실이 거듭 확인된다.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겔 20:12)

이 구절에서 '거룩히 구별하다'라는 표현은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떼어 놓는다', '구분 짓다'라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여 선민으로 삼으셨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안식일을 표적으로 주신 것이다.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겔 20:20)

이 구절에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 표적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 교리적으로 안식일, 즉 일곱째 날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에게 해당한다. 신약 시대 교회에서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며 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주일에 쉼을 가지는 것이 유익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율법처럼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율법

주의에 빠지는 것이며 옳지 않다. 창조 질서에 따라 일주일 중 하루를 쉬는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지만, 이는 율법적 의미가 아니라 삶의 리듬과 안식의 원리로 주어진 것이다.

안식일은 바뀐 적이 없다

유대인들만의 규례인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거나 이방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성경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다른 민족이나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책망받은 사례는 성경에 단 한 번도 없다.

> 네가 만일 네 발을 돌려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네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기쁜 날이라, 주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고 그를 공경하며… (사 58:13)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한국 교회, 특히 장로교 전통이 강한 교회들에서는 이 말씀을 주일에 적용하여 주일에 놀지 말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들을 만들어 적용하곤 한다.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쾌락을 피하고, 영혼을 평안하게 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그것을 율법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으로 여기는 것은 성경적 해석이 아니다. 이사야서 58장 13-14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본래 유대인에게 해당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즉 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날을 안식일로 율법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천년 왕국에서 회복될 안식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 즉 토요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어 토요일 저녁에 끝난다. 하나님께서는 행음

하는 유대 민족에게서 안식일을 비롯한 명절을 그치게 하셨으나(호 2:11),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갈 때 다시 회복된다(사 66:23; 겔 44:24; 46:1-3).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경배하려고 내 앞에 올 것이요. (사 66:23)

이 구절에서 '월삭'은 달의 첫날, 즉 음력 초하루를 뜻한다. 이사야서 6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 천년 왕국을 이루고, 그 안에서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회복된 모습을 예언한다. 이 구절은 마지막 심판과 더불어, 회복된 이스라엘이 다시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을 보여 준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교회나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기록된 것이다.[1]

또한 에스겔서 40-48장은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다룬다.

또 그들은 시비가 있을 때에 일어나 재판하되 내 판단의 규범들대로 그것을 재판하고 내 모든 집회에서 내 법들과 내 법규들을 지키며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겔 44:24)

이 구절에서 '거룩하게 하다'는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로서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라는 의미이다. 이 대언이 성취되는 시기는 천년 왕국 때이다.

현재 이스라엘과 미래의 회복

현재 이스라엘은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는 약

1. 참고로 이어 나오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사 66:24)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옥 불을 설명하실 때 인용하신 내용이다(막 9:44, 46, 48).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던 유대인들을 기적적으로 그들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들은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성전 터 문제로 팔레스타인과 갈등을 겪고 있다. 성전이 건축되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는 때가 온다(살후 2:3-4). 그 시기가 지나고 마지막 7년 환난기가 끝난 후 유대인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에스겔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천년 왕국 때에도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영원히 지켜야 할 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대인이 존재하는 어느 시대와 장소에서나 그들은 안식일뿐 아니라 장막절과 같은 절기들도 지키게 된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동쪽을 바라보는 안뜰의 문을 닫되 안식일에는 그것을 열고 월삭인 날에도 열지니라.… 그 땅 백성도 그와 같이 안식일과 월삭에 이 입구 문에서 **주** 앞에 경배할지니라. (겔 46:1-3)

이 말씀은 천년 왕국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을 보여 준다. 월삭과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절기적 규례로서, 장차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시행될 것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안식일 준수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회당(synagogue)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유대인들은 흩어진 이후에도 회당에 모여 토요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특히 전통적인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기 때문에, 운전이나 불을 켜는 일, 음식 조리와 같은 활동도 제한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유대인들은 회당 가까운 곳에 거주하려 하며, 회당과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 직접적인 노동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안식일 동안에는 가능한 한 이동과 활동을 최소화하며, 정해진 규례를 엄격히 지키려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안식일에 차량을 이용해 회당에 오는 것조차 율법적 해석에 따라 안식을 범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안식일의 성전 봉사와 거룩한 삶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봉사하였다. 그들은 성전 안에 '보여 주는 빵'(shewbread)을 준비하여 놓았는데, 이 빵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 빵은 일주일 동안 진열되었다가 안식일에 치우고 새 빵으로 교체되었다(레 24:8). 또한 안식일에는 어린양 두 마리와 함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드리는 특별 희생물 제도가 정해져 있었다(민 28:9–10).

율법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명령한다(출 20:8; 신 5:12). 이에 따라 유대인들은 사랑의 행위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안식일을 구별하고, 사적·공적 예배를 드리며 율법을 묵상하고 마음을 평안히 하는 날로 삼았다. 이처럼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삶을 돌아보는 날로 이해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유대인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러한 안식일 전통을 언급하기도 한다. 쉼 없이 계속 일하면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사고가 나오기 어렵지만, 정기적으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사색과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은 사고의 깊이를 더해 준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동안 일상적인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러한 습관이 삶의 균형과 지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통해 배울 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을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다. 비록 안식일 자체는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이지만,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의 리듬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원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하루만큼은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시간이 지속될 때 개인과 가정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정돈되고, 신앙은 더욱 깊어진다.

온 가족이 함께 이러한 삶의 리듬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은 물론 삶의 균형과 지혜 또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 다시 말해, 안식일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이지만, 쉼과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원리는 시대와 민족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따 먹는 장면이 나온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사례를 들어 그들의 율법적 해석을 바로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막 2:27–28)

이 말씀은 안식일의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안식일은 사람을 얽매는 규례가 아니라 쉼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 원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주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

일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의무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한다. 예배 자체는 매우 중요하지만, 일에 쫓겨 하나님을 만날 여유조차 없다면 그것은 안식의 정신과 거리가 멀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안식의 본질이다.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 주일을 지켜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주신 참된 목적이다.

율법 아래의 사회법과 오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그것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적 규범들도 부여하셨다. 이러한 규정들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법의 일부였으며, 오늘날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모든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무슨 일이든 하면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해도 되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무슨 일이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 31:14–15)

지금은 주일에 일한다고 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지만,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범하다가 실제로 죽임을 당한 사례가 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를 거두는 사람이 발견되었다(민 15:32).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왔으나,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민 15:35)라고 명령하셨고, 이에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서 죽였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가능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가 구현된 사회, 곧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공동체였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였으며,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가 죽음에 해당하는 죄로 간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규정은 모세 율법 안에서 사회법의 일부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을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의 시대와 은혜 아래의 시대를 구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

1. 주일은 일곱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이다

주일은 일곱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이다. 일요일(Sunday)은 첫째 날이므로,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과는 동일한 날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일 하루를 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날을 쉬는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히 구별하심으로써 사람에게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반드시 쉼의 리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셨기 때문이다(창 2:2–3).

이 안식일의 원리가 영적으로 적용되면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질서가 형성되었고, 오늘날에는 온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가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삼는 사회적 관례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율법에서 비롯된 규정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서 나온 원리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창조 질서에 따른 리듬 속에서 주일을 지킨다.

2. 왜 하필 주일인가

그렇다면 굳이 왜 주일이어야 하는가? 다른 날에 쉬어도 되지 않는가? 원칙

적으로는 다른 날에 쉬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주일에 쉼의 리듬이 형성되도록 섭리하셨고, 그 결과 오늘날의 사회적 구조가 자리 잡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 곧 주의 첫째 날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주일에 모이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전통이 점차 확산되면서 주일이 휴식의 날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일요일에 쉰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몸과 영혼이 함께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다.

3. 초대 교회의 주일 모임

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요 20:19). 이후 초대 교회의 제자들은 주의 첫날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의 만찬을 기념하였다(행 20:7-12).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밤중까지 말씀을 전했을 때도, 그들은 빵을 떼는 주의 만찬을 행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빵을 뗀다'는 표현은 단순한 식사뿐 아니라 주의 만찬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초대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한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고전 11:20)라는 말씀은 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렸음을 보여준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중요한 의식이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할 때에도, 그는 주의 첫날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따로 모아 두어 자신이 갈 때 따로 모을 필요가 없게 하라고 하였다(고전 16:1-2). 이처럼 주의 첫날에 모여 주의 만찬을 행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는 일은 초대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우리가 주일을 '주의 날'로 지키는 성경적 근거가 된다.

4. 주의 날이라는 명칭

사도 요한이 밧모 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 1:10)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이를 '주일',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보는 것이다. '주의 날'이라는 표현 자체가 주님께 속한 날, 곧 주님의 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5. 이방인에게 안식일이 요구되지 않은 이유

복음이 처음 전파되던 시기에 유대인 제자들은 자신들 가운데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을 유지했으나, 이방인들에게 안식일이나 유대인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았다(행 15:28-29; 골 2:16).

예수님께서 주후 30년경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후 승천하신 이후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되었다(행 1:8). 이 과정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확장되는 점진적인 흐름을 보여 준다.

초기 약 10년 동안 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다(행 1-10장). 베드로의 첫 설교 때 약 3,000명이 회개하였고, 이어 5,000명이 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다.

이후 복음은 유대인 중심에서 점차 확장되기 시작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행 8장), 이어 에티오피아 내시가 등장하는데, 그는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과 혼혈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 마침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는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

원을 받게 되었다(행 10장). 이 사건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으며, 이를 목격한 유대인 신자들은 크게 놀랐다.

6.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

초기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과 할례를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율법과 할례, 안식일 준수를 요구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혼란이 생기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공동체였으므로, 그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는 이방인인데 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며 불안해하였다(행 15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고, 사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우상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권고하되, 안식일과 율법 준수, 할례는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행 15:19, 28). 이처럼 신약 교회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안식일 준수를 강요하지 않았다.

7. 안식일은 그림자, 그리스도는 실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권면한다.

>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골 2:16–17)

구약 시대 사람들이 지켰던 안식일과 거룩한 명절, 초하루 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오기 전까지의 그림자였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림자의 역할이 완성되고 실체가 나타났으므로, 이 말씀은 그러한 날들을 지키는 문

제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한다.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주일을 구별하여 경배의 날로 삼았다. 이는 특정 시점에 제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전통이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로마 제국이 일요일(Sunday)을 따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일요일(Sunday)이라는 요일 명칭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날이 주의 날로 불리게 되었을 뿐이다.

이미 주후 2세기 초의 디다케(Didache)와 이그나티우스(Ignatius), 그리고 주후 150년경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의 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첫날에 모여 예배드리는 관습이 명확히 증언된다. 특히 그는 "우리는 일요일에 함께 모이는데, 이는 그날이 첫째 날이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이후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주의 첫날에 모이는 관습이 널리 퍼졌고, AD 321년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을 통해 일요일이 공식적인 휴일로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약 3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행해져 온 관습을 사회적 휴일로 추인한 것이다. 이처럼 주일은 교회 안에서 먼저 형성된 예배의 날이었고, 이후 사회적으로 확장된 것이다. 성경기록과 초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의 첫날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 그 정신이란, 하루를 구별하여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을 추구하고 성도들과 교제함으로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태도이다.

8. 한국 교회의 율법주의 경향

한국 교회에는 주일을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이해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당시, 노름과 술과 같은 좋지 못

한 풍속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 비교적 엄격한 규범을 적용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어디에 가면 안 된다'는 식의 규정이 주일에 관한 규범으로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신과 형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날로 주일을 구별하는 정신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온전히 세상일에만 시간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율법적인 강요는 경계해야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본래의 의미와 목적은 존중해야 한다.

마가복음 2장 23-28절은 신약 시대에 적용되는 안식일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막 2:27)

이 말씀은 안식일이 사람을 얽매는 규례가 아니라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

해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안식일의 본래 가르침이다.

안식년

하루를 기준으로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을 안식일이라 하고, 해를 기준으로 일곱째 해에 쉬는 것을 안식년이라 한다. 안식년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간과 노동에 주기적인 쉼을 명령하심으로써 창조 질서 안에 리듬을 두셨고, 그 안에서 사람과 땅이 함께 회복되도록 계획하셨다.

안식년 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다.

> 너는 여섯 해 동안 네 땅에 *씨*를 뿌려 그것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되 일곱째 해에는 그것이 안식하며 가만히 있도록 두어서 네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들이 남기는 것은 들의 짐승들이 먹으리라. 너는 네 포도원과 올리브밭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출 23:10–11)

이 명령은 단순한 농업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두신 쉼의 원리를 보여 준다. 사람이 땅을 계속 경작하여 이모작이나 삼모작을 반복하면 결국 땅의 영양분이 고갈되고 지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섯 해 동안 경작하고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레 25:1–7).

안식년 동안에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더라도 그것을 거두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했다. 경작하지 않고 저절로 자라는 것만을 두어야 땅이 스스로 힘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쉼을 통해 회복된 땅은 다시 여섯 해 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배려하시는 분이시다.

안식년의 신앙적 의미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제정하신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며, 둘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안식년 동안 곡식을 재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신뢰하라'는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고자 하셨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동안 땅에서 저절로 자란 소산을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 들의 짐승들도 그것을 먹게 하셨다. 이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실 뿐 아니라 연약한 자들과 짐승들까지도 긍휼로 돌보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

안식년 불순종과 바빌론 포로

이스라엘에 왕정 정치가 시작되면서 사울과 다윗, 솔로몬 왕이 세워졌고, 이후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되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점차 타락하였고, 결국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되었고, 남왕국은 바빌론에 의해 정복되어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주전 약 606–536년).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데 있었다(렘 25:11–12; 대하 36:21; 스 1:1; 단 9: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곱 해 중 한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도록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명령에 불순종하였다. 약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지키지 않은 안식년이 모두 합해 70년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

께서는 이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그 땅을 70년 동안 황폐하게 하여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이로써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주**가 말하노라. 칠십 년이 찰 때에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벌하고 그곳을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렘 25:11–1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빌론의 손에 넘겨 징계하셨으나, 동시에 바빌론의 죄악 또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다.

희년

희년은 특별한 해이다. 일곱 해 가운데 마지막 해는 안식년이며, 이 안식년이 일곱 번 반복되어 49년이 지나면, 그다음 해인 50년째가 희년이 된다. 희년 역시 안식년과 같이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어야 했다(레 25:8–17).

영어로 희년을 '주빌리'(Jubilee)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으며, 희년이 시작될 때 양뿔 나팔을 불어 이를 알리는 전통에서 유래하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희년에는 씨를 뿌리거나 곡식을 거두지 않고, 땅이 저절로 내는 소산을 먹으며 지내야 했다. 이러한 규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쉼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희년에 대한 오해

희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구약 시대에 주어진 희년 제도를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회도 희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희년을 마치 특별한 복이 넘치는 환상적인 시기로만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희년은 구약 시대 신정 정치하에서만 가능했던 제도였다. 희년에 이루어지는 세 가지 회복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진다.

첫째, 희년은 개인의 자유가 회복되는 해였다. 희년이 되면 각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였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 종이 되었던 이들도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다시 자유를 얻었다(레 25:39–41, 47–55). 이것은 사람이 얽매임에서 풀려나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희년은 재산이 회복되는 해였다. 땅을 잃었던 사람들이 원래 자신의 땅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각 지파와 가족에게 땅을 분배하셨다. 이후 생활이 어려워 땅을 팔게 되더라도, 그 땅이 영원히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희년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하셨다(레 25:13). 이는 땅의 궁극적인 소유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백성에게 맡기셨으므로, 희년에는 반드시 원소유주에게 되돌려져야 했다. 따라서 땅값 역시 희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결정되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적은 값을, 길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고 땅을 매입할 수 있었다(레 25:15).

셋째, 희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해였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땅이 스스로 내는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도록 하셨고(레 25:19), 안식년 바로 전 해인 여섯째 해에는 세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소산을 주셔서 염려 없이 지낼 수 있게 하셨다(레 25:20–21). 이처럼 희년은 사람의 노력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제도였다.

희년의 신학적 의미

희년 제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제도로서, 오늘날의 시대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희년은 속죄일인 일곱째 달 십일에 나팔을 불어 선포되었으며(레 25:9),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 제도는 하나님의 긍휼이 반영된 법이었으며, 이를 통해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일정한 평등이 유지될 수 있었다. 또한 땅은 각 지파별로 구분되어 지속적으로 보존되었고, 각 가문 역시 자신의 계보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유대인들은 땅과 재산의 궁극적인 소유자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으며,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레 25:23).

히브리서의 안식

히브리서는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는 신약 성경의 책이다. 특히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단락은 시편 95편을 중심으로 안식의 의미를 풀어내며, 광야의 이스라엘과 가나안 입성이라는 구약의 사건을 모형으로 삼아 성도가 들어가야 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광야 세대의 불신앙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며 논증을 시작한다.

>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 즉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검증하며 사십 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나니) (히 3:7–11)

11절의 '내 안식'은 일차적으로 광야의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안식을 가리킨다.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지적한다.

>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아노라. (히 3:18–19)

광야의 이스라엘 세대가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행위의 부족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이었다.

약속이 여전히 남아 있음

그들의 가나안 입성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의 약속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선언한다.

>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히 4:1)

이 말씀은 가나안 안식이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라 그것의 모형에 불과했음을 보여 준다. 본문은 그 근거를 다윗 시대의 시편에서 찾는다. 만일 여호수아가 이룬 가나안 입성이 완전한 안식이었다면, 약 400년 뒤 다윗 시대(시 95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이라며 안식을 약속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는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그리스식 이름이다. 따라서 참된 안식은 가나안 너머에 있다.

>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히 4:8)

안식의 본질: 자기 일을 그침

본문은 이를 창조의 안식과 연결하여 정의한다.

>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들에서 떠나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하셨고 (히 4:4)

그리고 성도의 안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같이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도

자기 일들을 그쳤기 때문이라. (히 4:10)

이것이 안식의 본질이다. 안식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 일을 그치는 것이다. 곧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된 사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의 상태이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마 11:28)라고 부르신 그 안식이 바로 이것이다.

'남아 있는 안식'의 미래적 의미

동시에 본문은 안식의 미래적 차원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나니 (히 4:9)

여기에서 사용된 그리스어는 신약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사바티스모스'(sabbatismos)로, '안식일의 휴식'을 의미하며, 창조 때 하나님께서 누리신 안식을 본으로 하여 장차 완성될 종말론적 안식을 가리킨다.

따라서 신자의 안식은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 안식은 믿음으로 지금 들어가는 안식이지만(히 4:3), 그 완성은 종말에 이루어진다. 창조 때 시작된 하나님의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에게 적용되며,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으로 완성된다.

권면: 불신앙의 본을 따르지 말라

본문은 이 모든 가르침을 한 가지 권면으로 마무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불신의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 4:11)

여기에서 '힘쓰라'는 권면은 행위로 안식을 얻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본문

자체가 그 이유를 밝힌다. “아무도 불신의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은 곧 광야 세대처럼 불신앙으로 안식 밖에 머무르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촉구이다. 따라서 ‘힘쓰라’라는 말의 반대는 게으름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안식은 한마디로 자기 일을 그치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의지하는 신뢰의 상태이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행위의 부족이 아니라 불신앙이었던 것처럼, 신자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다.

이 안식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안식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누리는 안식이고, 종말에 완성될 안식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광야 세대의 불신앙을 본받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안식일과 안식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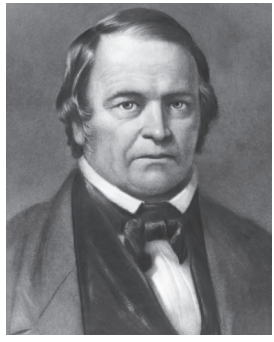
안식교(Seventh-day Adventist Church)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로도 알려져 있다. 이름 그대로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파이다. 외형적으로는 성경을 믿는 보수적 교파처럼 보이지만, 그 형성 배경과 교리의 뿌리를 살펴보면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시한부 종말론 운동과 한 여성 예언자의 환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안식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본 뒤, 그들의 핵심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어떤 점에서 충돌하는지를 항목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안식교의 형성 과정

안식교는 한 사람에 의해 단번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여러 인물의 영향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밀러, 1844년 사건 이후 하늘 성소 교리와 조사 심판 교리를 정립한 에드슨, 제칠일 안식일 준수를 강조한 베이츠, 그리고 예언자적 환상을 통해 교리적 권위를 형성한 화이트 등 네 인물을 중심으로 그 사상이 단계적으로 축적되었고,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오늘날의 안식교 교리 체계가 형성되었다.

1.1 윌리엄 밀러와 시한부 종말론


윌리엄 밀러

안식교의 출발점에는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 1782-1849)가 있다. 그는 매사추세츠 주 피츠필드에서 태어난 인물로, 한때 회의론자였으나 1816년에 회심하였다. 이후 성경 연구에 몰두하면서 종말에 대한 독특한 해석에 이르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식교인이 아니라 '밀러파'(Millerites)로 불렸다.

밀러는 약 2년간 성경을 연구한 끝에 시한부 종말론에 도달하였다. 그는 1818년을 기준으로 약 25년 후인 1843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몇 년을 더 연구하여 자신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많은 추종자가 그를 따랐다. 우리나라에서 1992년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다미선교회의 종말론도 이와 유사한 논리에 기초한다. 1800년대 미국은 회의주의와 다양한 종교적 운동들이 확산되던 시기였으며, 이후 등장한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집단도 이러한 종말론적 흐름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안식교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밀러의 날짜 계산은 다니엘서에 근거한다. 그는 단 9:24-27의 이른바 '70이레' 대언에 주목하였다.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단 9:24)라는 말씀에서 70이레는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 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붓기 위한 기간'이다. 이 가운데 예

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 곧 69이레가 있고 그 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기록되어 있다(단 9:25).

밀러는 예루살렘 회복 명령이 주전 457년에 내려졌다고 보고, 이를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단 8:14)라는 구절과 연결하였다. 그는 이 구절의 '일'을 '년'으로 해석하여 2,300년으로 환산하고,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주전 457년에 2,300년을 더하면 주후 1843년이 되므로, 그해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1843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다. 일부 추종자들은 시점을 다시 계산하여 1844년 10월 22일로 수정하였으나, 그날에도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종자들은 이 사건을 '대실망'(Great Disappointment)이라 부른다.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모든 것을 바치며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이는 엄청난 충격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밀러를 떠났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새로운 해석을 통해 자신들의 실패를 정당화하려 하였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안식교 형성의 다음 단계가 시작된다.

1.2 히람 에드슨과 하늘 성소 교리

밀러의 추종자였던 히람 에드슨(Hiram Edson, 1806–1882)은 1844년 대실망 이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 새로운 해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환상을 통해 그 답을 깨달았다고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1844년에 이 땅에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첫째 방(성소)에서 둘째 방(지성소)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구약의 성막 구조에 근거한다. 구약 시대 성막에는 뜰, 성소, 지성소가 있었고, 제사장들은 매일 백성과 자신을 위해 희생물을 드렸으며,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성소 전체를 정결케 하였다. 즉, 제사장의 사역은 매일 사역과 연중 한 번의 사

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에드슨은 이 구조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입하였다. 수세기에 걸친 기독교 시대 동안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매일 사역을 행하셨기에 죄가 용서되기는 하였으나 근원적으로 제거되지는 않았고, 1844년 10월부터는 죄를 제거하는 연중 사역, 곧 지성소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사역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안식교의 핵심 교리인 '조사 심판'(Investigative Judgment) 교리, 곧 성도들의 삶을 조사하여 최종적인 심판을 진행한다는 개념이 형성되었다.

1.3 조셉 베이츠와 안식일 준수

세 번째 인물은 조셉 베이츠(Joseph Bates, 1792–1872)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주일 예배는 카톨릭교에서 유래한 제도이므로 성경적 근거가 없으며,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안식일(토요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안식일 준수를 신앙의 결정적 기준으로 삼았으며, 1846년 자신의 저서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같다고 단정하였다. 이 사상은 후에 엘렌 화이트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어 안식교의 종말론적 핵심 교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베이츠는 요한계시록 7장의 봉인 교리를 독특하게 해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였다. 본래 그 본문에서 봉인받는 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서 각 1만 2천 명씩, 총 14만 4천 명이며, 이들은 환난기에 온 세상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 유대인 성도들이다. 그러나 안식교 초기 운동에서는 이 봉인을 안식일 준수의 표로 해석하고, 14만 4천 명을 자신들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 명을 자신들로 해석하는 것과 유사한 패턴이다. 두 집단 모두 문자적으로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본문을 영적으로 자신들에게 적용하려 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성경은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표적임을 분명히 가르친다.

1.4 엘렌 화이트와 예언자적 권위

네 번째 인물은 엘렌 화이트(Ellen White, 1827–1915)로, 안식교 역사상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9세 때 돌에 머리를 맞은 사고로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다. 그녀는 1842년 밀러의 강연을 들은 후 가족과 함께 밀러주의 운동에 참여하였다.

1844년 대실망 사건 이후 화이트는 환상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1844년 12월 첫 환상을 본 이래 1915년 사망할 때까지 약 70년 동안 환상과 꿈을 통해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횟수는 수백수천 회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초기 재림 운동 내에서 점차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안식교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은 그녀의 환상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두 가지 환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첫째, 1845년 2월 화이트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환상은 에드슨이 제시한 하늘 성소 교리와 조사 심판 교리에 예언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였다. 둘째, 1847년 4월 화이트는 지성소 안의 언약궤와 십계명을 보았으며, 그 가운데 네 번째 명령인 안식일 명령에만 특별한 빛이 비추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환상은 안식일 준수가 종말 시대 신자의 결정적 표지라는 베이츠의 주장에 신적 인증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초기 안식교의 신앙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2. 안식교의 현황

2024년 말 기준으로 안식교는 전 세계적으로 약 2,370만 명의 신도를 두고 있다.[2] 한국에서도 삼육재단, 삼육대학교, 의료 기관, 건강 관련 세미나 등을 통해 교육·의료·건강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일반 대중에게

2. Seventh-day Adventist Church, Annual Statistical Report 2025 (Advance Edition), Office of Archives, Statistics, and Research, General Conference of Seventh-day Adventists, 2025. https://www.adventiststatistics.org

는 종교 단체라기보다 건강과 교육의 이미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한때 이상구 박사가 건강 강연을 통해 널리 알려진 안식교 인물이었으나, 현재는 안식교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의 외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교를 일반 기독교의 한 분파로 오해하지만, 그 교리의 본질은 성경적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제 그들의 핵심 교리를 하나씩 검토해 보자.

3. 안식교의 비성경적 교리

안식교 교리 가운데 성경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영혼 멸절설로 성경의 부활 신앙을 왜곡한다.

둘째, 조사 심판 교리를 내세워 구원받은 이후에도 행위에 따른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이는 결국 행위 구원으로 귀결된다.

셋째, 안식일 준수를 종말 시대 신자의 충성의 표지로 강조하여 사실상 구원과 결부시키고, 결과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진다.

넷째, 채식주의와 카페인 금지 등 화이트의 환상에 근거한 인위적 규율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 신약 성도들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외에도 십일조 준수에 따른 구원 강조 등 다양한 율법주의적 요소들이 있으나, 위의 네 가지가 안식교 교리의 가장 근본적인 오류이다.

3.1 영혼 멸절설과 부활 신앙 왜곡

안식교는 영혼 불멸을 부인한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이 무의식 상태로 잠들어 있다가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 머문다고 가르친다. 또한 둘째 부활 때 부활하는 악인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소멸된다고 주장한다. 곧 영원한 형벌로서의 지옥 개념을 부정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성경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자. 두 사람은 죽은 뒤에도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

다. 부자는 지옥의 뜨거움을 느끼며 말을 하였고,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며 물 한 방울을 요청하였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눅 16:23–24)

부자는 뜨거움을 느끼고 서늘함을 갈구하는 의식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 본문 하나만으로도 영혼 수면설과 멸절설은 무너진다.

사람이 죽을 때 무엇이 의식을 잃는가? 영, 혼, 몸 가운데 의식을 잃는 것은 몸뿐이다.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 부활을 기다리지만, 영과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즉시 주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며(빌 1:23; 고후 5:8), 믿지 않은 사람의 혼은 지옥 불 속에서 의식이 또렷한 상태로 남는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민족들을 심판하시며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 불에 들어갈 자들을 나누신다.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 25:41, 46)

여기에서 '영존하는'(everlasting)은 끝없이 계속된다는 뜻이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 준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계 20:10)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라는 표현 앞에서 영혼 멸절설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안식교를 정통 기독교로 인정하지 않는다.

〈영원의 상태〉



3.2 조사 심판 교리와 행위 구원

안식교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안식일 준수와 율법적 순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또한 공동체에서 제명되면 구원을 상실한다고도 한다. 이는 신자를 지속적인 긴장과 두려움 속에 묶어 두는 강력한 통제 장치로 작용한다.

이런 교리의 근저에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해가 깔려 있다. 엘렌 화이트의 사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고 계신다.[3] 그러므로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는 동안 우리는 완전해지려고 노력해야만 한다.[4]

3. Manuscript 21, 1895
4. 「각 시대의 대쟁투」(*The Great Controversy*), 623쪽

그리스도의 피는 회개하는 죄인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려나게는 해도 죄를 말소하지는 않는다.[5]
그분께서는 현재 조사 심판을 하고 있으며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속죄하고 계신다."[6]

이 진술에 안식교 구원관의 핵심이 담겨 있다. 죄가 용서되었으나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는 것, 예수님께서 1844년부터 죄를 제거하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며 완전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안식교에서 구원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 중인 과정이며, 그 결과는 성도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말소하지는 않는다'는 화이트의 진술은 충격적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가르친다.

>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일 1:7)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말소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신약 성경 전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또한 1844년이라는 시점 자체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 날짜는 밀러의 잘못된 다니엘서 해석에서 비롯되었으며, 1843–1844년의 반복된 예언 실패 후 추종자들이 만들어 낸 뒤늦은 해석에 불과하다. 인간이 만든 날짜에 인간이 만든 해석이 덧붙여졌고, 화이트의 환

5. 「부조와 선지자」(*Patriarchs and Prophets*), 357쪽
6. 「각 시대의 대쟁투」(*The Great Controversy*), 480쪽

상이 그 위에 신적 권위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 인해 안식교 신자들은 '구원은 나중에 가 봐야 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과 충돌한다.

성경은 구원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임을 거듭 가르친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엡 2:8–9)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딛 3:5)

또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되었음을 분명히 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히 9:12)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 없느니라. (히 10:18)

특히 히브리서는 조사 심판 교리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린다.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히 10:12)

여기에서 '앉으셨다'는 표현이 핵심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일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일이 결코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헌물을 드리신 후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는 속죄 사역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만일 안식교의 주장대로 1844년부터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어서서 일하셔야만 한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요 1:29)라고 외쳤다. 여기에서 핵심은 '제거하시는'이라는 표현이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죄를 가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제거하시는 분이다. 구약 시대에 희생 헌물은 죄를 임시로 덮는 예표의 조치였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죄는 용서되었다'는 수표를 써 주시는 것과 같았고, 그 수표가 실제로 현금화된 시점이 바로 십자가였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이 한 사건으로 완전히 제거되고 용서되었다.

물론 이 은혜는 선물이기에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사람이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순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태어난다. 한 번 다시 태어난 영혼은 영원히 다시 태어난 상태로 남는다. 또다시 태어날 필요도, 죄가 다시 말소될 필요도, 예수님께서 또다시 속죄 사역을 행하실 필요도 없다.

성경은 또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롬 8:16)라고 말한다. 따라서 믿는 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3.3 안식일 준수의 율법주의

안식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토요일 안식일 준수이다. 그들은 주일 예배가 카톨릭교에서 만든 적그리스도의 제도이며 짐승의 표라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첫째, 안식일은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인가? 안식일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다. "또 [주께서]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 주시고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훈계들과 법규들과 법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으며"(느 9:14)라는 말씀에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

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표적으로 삼으셨다(겔 20:12, 20). 이때가 주전 1491년경이다.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예는 성경에 없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죽이신 일도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가운데 안식일을 율법적 명령으로 지킨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일곱째 날에 쉬었을 수는 있으나 결코 율법으로 그것을 지키지는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기록도 없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처음 아담에게 명령하셨을 때조차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없었다(창 2:15–17). 아담은 저주 이전에는 수고로운 노동을 하지 않았으며, 저주 이후에야 땀 흘리며 일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창 3:19). 따라서 안식일은 창조 질서에 보편적으로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민족적 표적이다.

둘째, 안식교는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 명령만을 유독 강조하지만, 이는 율법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되나니 (약 2:10)

율법은 통째로 지켜야 하는 것이며,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다.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려면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35장 3절은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거처 전역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라고 명령한다. 따라서 정통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안식일에 전등을 켜거나 불을 피워 밥을 짓거나 버스를 타지 않으며, 이동 거리도 약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한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의 안식교인들은 토요일에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전기를 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안식일 규정이 매우 엄중하게 적용되었다(민 15:32–36). 만일 안식교의 주장이 옳다면, 안식일을 어기는 모든 신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안식교 자신도 이 율법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안식일 율법 가운데 자신들에게 편한 부분만 골라 강조할 뿐이며, 이것이 그들의 자기모순이다.

셋째, 신약 성경은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님을 분명히 가르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권면한다.

>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골 2:16–17)

안식일은 다가올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으며,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림자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명령이 신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자들'을 책망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염려하며 너희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노라."(갈 4:10–11)라고 탄식하였다. 안식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책망한 바로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그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롬 6:14)라고 분명히 선언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첫째 날, 곧 주일에 모여 예배드렸다. 그리고 주후 150년경에 이르면 주일 예배는 교회의 일반적인 규례로 자리 잡게 되었다.[7]

---

7.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 「제1변증서」(*First Apology*), 제67장.

로마 카톨릭교회가 정치 권력과 결합하여 제도화된 것은 그로부터 약 160년이 지난 주후 4세기의 일이다. 따라서 '주일 예배는 카톨릭이 만든 제도'라는 안식교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안식일 규례를 깨는 행위를 통해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 아님을 보여 주셨다(요 5:18). 이러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면, 안식일 준수는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명령된 사항이 아님이 분명하다.

3.4 음식 규례와 인위적 규율

안식교는 육식과 커피, 차 등을 금지하는 규율을 강조한다. 이는 엘렌 화이트의 환상에서 비롯된 가르침으로, 채식과 절제를 거룩함의 표지로 삼는다. 그러나 이런 음식 규례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에서 친히 육식을 허락하셨다(창 9:3). 신약에 와서는 더욱 분명하다.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모든 짐승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것들을 잡아서 먹으라고 명령하셨고(행 10:13) 베드로가 그것들은 부정하므로 먹을 수 없다고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행 10:15)라고 하시며 친히 책망하셨다. 엘렌 화이트의 환상은 채식을 거룩함의 표지로 삼지만, 베드로의 환상에서 주님께서는 친히 모든 짐승을 잡아서 먹으라고 명령하셨다. 어느 쪽 환상을 따라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신약 성경은 음식 자체가 신앙의 기준이 아님을 거듭 가르친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는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전 8:8). 또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다고 말한다(딤전 4:1-3). 음식을 율법적으로 금하는 것이야말로 말세의 배교적 가르침의 특징이며, 안식교의 음식 규례가

바로 이 범주에 해당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음식이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적당하게 먹으면 된다. 성경은 음식으로 구원이 결정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음식을 신앙의 척도로 삼는 것은 복음을 율법으로 변질시키는 행위이며, 사도 바울이 '마귀들의 교리'라고까지 부른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4. 결론

안식교는 19세기 미국의 시한부 종말론에서 출발하여 대실망 사건 이후 환상과 자의적 성경 해석을 통해 자신들의 실패를 정당화하고 하나의 종파로 성장한 집단이다. 그 핵심 교리—영혼 멸절설, 조사 심판 교리, 안식일 구원, 음식 규례—는 모두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과 충돌한다.

특히 그들의 구원관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역을 부정하고 사람을 두려움에 가두는 율법주의로 귀결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선언을 안식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이 안식교가 정통 기독교가 아닌 결정적 이유이다.

성경은 명백하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다. 행위는 구원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일 뿐 결코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구원의 확신 안에서 살아간다.

안식교의 외형적 활동—건강 강좌, 의료 사역, 교육 기관—은 일견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뿌리에 있는 교리는 복음을 변질시킨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의 가르침을 성경의 빛에 비추어 검토해야 한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살전 5:21)



| 부록 3 |

영과 혼과 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창 1:26-27).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그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라는 삼분 구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구조이므로, 이 장에서 사람의 구성을 다루기에 앞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 학생, 남편, 아버지, 목사 등으로 불린다고 하면서 이를 삼위일체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한 인격체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양태론에 해당하며, 성경적으로 이단이다. 삼위일체는 한 인격체가 여러 역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별되는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며, 이 세 분은 서로 다른 인격체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세 인격체가

각각 완전히 구별되면서도, 이 셋이 함께 한 하나님을 이루신다. 이 세 인격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삼위일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만 있거나, 아들과 성령님만 있거나, 아버지와 성령님만 있어서는 삼위일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드시 세 인격체가 함께 계셔야 하며, 이 세 인격체가 곧 한 하나님이시다.

이 개념은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을 통해 어느 정도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할 수 있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현재는 지금 이 순간이며, 미래는 앞으로 올 시간이다. 이 셋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시간이라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며, 이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시간이라 할 수 없다. 물체 역시 X와 Y와 Z의 세 방향으로 길이를 가져야 존재할 수 있다. 이 세 방향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은 물체라 할 수 없다. 이런 예시들은 비록 불완전하나, 서로 구별되는 셋이 하나의 본질을 이룬다는 삼위일체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음 페이지 그림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는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도 이와 비슷하게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삼분 구조(tripartite structure)로 존재한다(창 2:7). 그러나 사람의 경우, 영과 혼과 몸이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요소가 함께 하나의 인격체를 형성한다. 바로 이 점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으되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다.

사람의 삼분 구조를 하나님과 비유적으로 연결하자면, 사람의 영은 성령님에, 혼은 아버지 하나님에, 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응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고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요 14:9)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며 행하시는 것이 모두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몸이라고 표

현할 수 있다.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되며, 이 구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한다.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히 4:12)라고 기록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영과 혼을 구별하지 못하고 '영혼'이라고 묶어서 말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과 혼이 서로 다른 구성 요소임을 분명히 알려주신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한다.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살전 5:23). 이 구절에서도 영과 혼과 몸이 분명히 구별되어 언급된다. 이 셋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어 말씀한다.

1. 영 – 히브리어 루아흐

창세기는 기원에 대한 책이며 믿음의 기초가 되는 책이므로, 이 장에서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영'에 대해 살펴본다. '루아흐'(ruach)는 창 1:2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6:17에서는 '숨'으로, 8:1에서는 '바람'으로 번역된다. 겔 37:1에는 '영'으로, 37:5에는 '숨'으로, 37:9에는 다시 '바람'으로 번역된다. 모두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인 루아흐이다.

a. 그리스어로는 '프뉴마'(pneuma)라 하며, 킹제임스 성경 신약에서 약 385회 사용된다. 그중 대문자로 기록된 Spirit은 성령님을 가리키며 111회 번역되고, Holy Ghost로는 89회, 'Spirit (of God)'(하나님의 영)으로는 13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요일5:7).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특이한 것이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확연히 서로 구분되는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삼위일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며 이 세 인격체 중 하나가 없으면 한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예가 있다.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이 셋은 각각 다 시간이고 이 셋 중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시간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면서 반드시 길이, 너비, 높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셋 중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물체가 아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며 각 인격체가 완전하고 동등한 분이시며 이 세 인격체 중 어느 인격체도 다른 인격체에게서 나오지 않고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럿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근본 속성은 그분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은 죄를 보면 즉시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므로 죄인은 그분 앞에 설 수 없다. 이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생물은 죄가 없으신 아들 하나님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되어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켜 완전한 대신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와 거룩함이다(벧전1:15-16). 따라서 성도들이 사랑이라는 엔진이 달린 기차를 운행할 때 반드시 공의와 거룩함이라는 레일 위에서 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받지 않은 사랑으로 인해 교회와 사회에 혼란과 무질서가 생긴다. 따라서 교회에서 공의와 사랑이 갈등을 일으킬 때에는 공의를 택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근본 속성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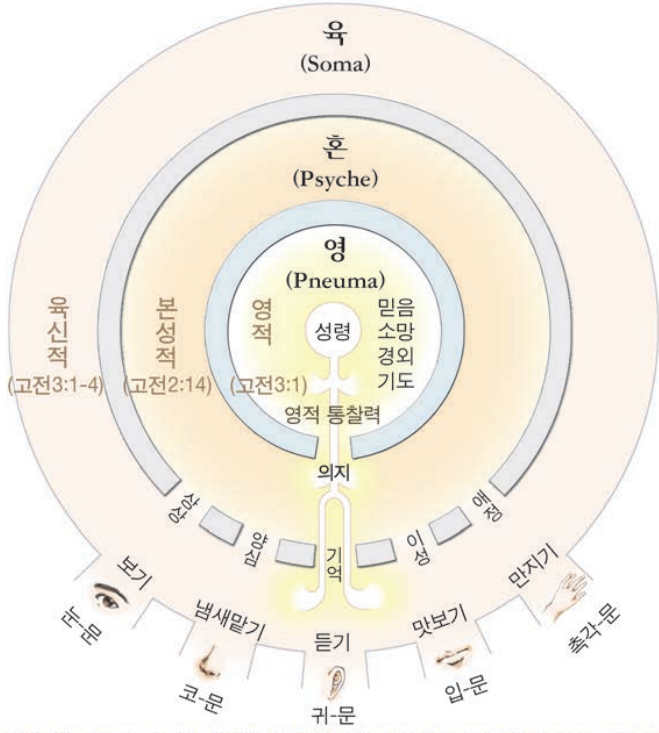
회, 'Spirit (of the Lord)'(주의 영)으로는 5회, '(My) Spirit'(내 영)으로는 3회, 'Spirit (of truth)'(진리의 영) 3회, 'Spirit (of Christ)'(그리스도의 영) 2회, 'human (spirit)'(사람의 영) 49회, '(evil) spirit'(악한 영) 47회, 'spirit (general)'(영, 일반적) 26회, spirit(영, 문맥적 용례) 8회, '(Jesus' own) spirit'(예수님의 영) 6회, '(Jesus' own) ghost'(예수님의 혼이 떠남을 표현) 2회, 기타 21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b. 구약 성경에서 루아흐는 총 약 378회 등장하며, 그중 Spirit이나 spirit(영)으로 232회, wind(바람) 92회, breath(호흡, 숨) 27회, side(옆, 방향) 6회, mind(마음) 5회, blast(거센 바람, 돌풍) 4회, vain(헛됨) 2회, air(공기) 1회, anger(분노) 1회, cool(서늘함) 1회, courage(용기) 1회, 기타 6회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c. 영(루아흐)의 본래 의미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영향을 받는 힘을 가리킨다. 루아흐는 앞뒤 문맥을 살펴 적절하게 번역해야 하므로 용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신구약 성경을 통해 볼 때 루아흐나 프뉴마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의미할 수 있다. 삼위일체의 한 인격체이신 성령님께서는 대언자들을 움직이시는 영(벧후 1:21),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시는 분(요일 2:27), 그리고 죽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요 3:5-6; 고전 15:45) 기록되어 있다. 성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며 복을 받는다(마 28:19; 고후 13:14). 루아흐나 프뉴마가 등장할 때 성령님으로 번역되는 한편, '거룩한 영'이라 하면서도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기록된 경우가 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holy spirit'으로 표기된 구절이다. '거룩하다'(holy)와 '영'(spirit)이 함께 있으면 성령님으로 이해해야 한다. "나를 주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 51:11).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로 번역했다.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시므로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이다. 개역 성경의 이 표현은 복음성가 가사로 사용되면서 신약 시대 성도들도 이런 기도를 해

사람의 세 요소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살전5:2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히4:12)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 역시 하나님처럼 영과 혼과 육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적 존재이다. 다만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각각 개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인 것과는 달리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은 개별적으로 각각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몸은 세상을 의식하고 혼은 자기를 의식하며 영은 하나님을 의식한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서 오는 믿음을 받아 자기의 의지의 문을 열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들일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마귀는 주로 보는 것을 통해 사람의 혼에 접근하며(창3:6; 수7:21; 삿14:2; 삼하11:2; 요일2:16) 하나님은 주로 듣는 것을 통해 사람의 혼에 접근하신다(롬10:17).

야 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 구약 시대에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한 것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런 간구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영원히 내주하신다. 따라서 시편 51편을 근거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노래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시대 구분을 혼동하는 것이며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성경에 'Spirit'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기록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The Spirit'과 같이 대문자 S로 시작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이해해야 한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Spirit of God)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창 1:2)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영'으로 번역되어 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Spirit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의미한다(삿 3:10; 마 4:1). 대문자 Spirit이 사용된 경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인격체이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the Spirit'에서 Spirit 앞에 정관사 the가 붙은 경우에도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영어 원문에는 없는 정관사 the가 이탤릭체로 삽입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별개로 Holy Ghost라는 표현도 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Holy Ghost)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밴 것이 드러나매"(마 1:18)라는 구절을 예로 살펴보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Holy Ghost로 표기되어 있다. 성령님이라는 인격체에 의해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는 단순히 어떤 '영향'을 받

은 것이 아니다. "성령님을 대적하여"(against the Holy Ghost, 마 12:31), "성령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the Holy Ghost, 마 28:19) 등에서도 Holy Ghost라는 표현이 나온다. Holy Ghost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인격체 자체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성령님께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는 점을 나타낸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Holy Spirit'이든 'Holy Ghost'든 모두 '성령'으로 번역하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Holy Ghost로 표기된 경우에는 성령님의 인격체적 역할이 강조된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Holy Ghost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없고 오직 신약 성경에만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교리가 아직 명시적으로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히브리어에서 '우리'는 단순히 둘 이상을 나타내는 복수형으로도 사용되므로 이 한 표현만으로 삼위일체를 직접 입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이 구절은 하나님이 복수로 나타나신다는 점은 보여 주지만 그 자체로 삼위일체 교리를 온전히 드러내지는 않는다. 요컨대 루아흐는 성령님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그리스어 프뉴마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루아흐는 '숨'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숨은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호흡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숨을 주실 때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생명이 끝난다.

>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이라. 즉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이것이 죽는 것같이 저것도 그렇게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 숨을 가지고 있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 (전 3:19)

이 말씀은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며, 여기에서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셋째, 루아흐 또는 프뉴마라는 단어는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 즉 몸과 혼과 영 중에서 영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이 영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은 존재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즉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기능인 영이 바르게 기능을 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것을 우스운 이야기나 어리석은 이야기로만 듣는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의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엡 2:1).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너희를 살리기 전까지 너희는 죄와 법들 가운데서 죽어 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한다. 이는 육신적으로 살아 있지만 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 또한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벧전 3:19)라는 말씀의 배경은 노아의 시대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노아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벧후 2:5).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에베소에 직접 가시지 않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셨으나, 그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성경 기록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엡 2:17). 그 당시 돌이키지 않고 심판을 받은 자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성경은 이들을 '영'이라고 표현한다. 한편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지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다시 복음을 선포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 시대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연옥에 갇힌 영들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카톨릭교회의 가르침은 성경에 없다.

넷째, 또한 '영'이라는 단어는 천사를 가리킬 때도 사용된다. 천사는 '영'이다. 천사는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영이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나타난다. "그들은[모든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히 1:14)라고 말씀한다. 부정한 영(마 10:1)도 있는데 이 영들은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말한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영을 부인했는데(행 23:8),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있다. 이들은 영과 천사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부활도 영체로만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한다.

다섯째, '영'이라는 단어는 기질이나 성품을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질투의 영'(민 5:14), '행음의 영'(호 4:12), '간구하는 영'(슥 12:10), '병약하게 하는 영'(눅 13:11), '지혜와 명철의 영'(사 11:2), '주의 두려움의 영'(사 11:2)과 같은 표현들에서 루아흐나 프뉴마가 사용된다. 이런 경우 영은 어떤 기질이나 성품을 의미한다.

여섯째, '영'은 다시 태어난 신자의 새로운 본성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다. 이런 본성은 육신 혹은 육체와 대조되며, 영으로 사는 삶을 강조할 때 등장한다. 요한복음에는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요 3:6)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롬 8:15),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갈 5:24). 성경은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 즉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일곱째, 신약 성경에는 '영을 분별하라'라는 명령이나 '영을 분별하는 선물(은사)'에 대한 내용도 나타난다. 영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는가, 마귀에게 속하는가를 구분하는 것이며 이로써 성도들은 진리와 오류를 판단할 수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

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요일 4:1–3).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초기에 사도들에게 영을 분별하는 선물(은사)이 주어졌음을 밝히고, 사도들이 행한 권능을 기준으로 참 사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하였다(고전 12:10; 고후 12:12).

d. 가장 중요한 용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경우이다. 성경은 성령님을 대하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경고한다.

첫째는 성령님을 억누르는 것이다.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살전 5:19)라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는 'quench not the Spirit'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성령님께서 불처럼 일하시려는 것을 우리가 물을 끼얹어 꺼뜨리는 것과 같은 행위, 즉 '성령님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죄와 무지, 욕심 등으로 인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음을 뜻한다. 성경은 이런 행위를 '성령의 불길을 끈다'고 말한다.

둘째는 성령님을 '신성모독 하는 죄'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며 또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그는 용서받지만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마 12:31–32). 은사주의 교회 등에서 이 구절을 근거로 "성령 훼방죄 혹은 성령 모독죄를 지으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어떤 비정상적이거나 비성경적인 일을 성령님의 일이라고 주장할 때, 누군가가 "그것은 성경에 없는 일이다." 혹은 "그런 일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면 그들은 이것을 성령 훼방죄 혹은 성령 모독죄라고 하며 위협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는가? 그런 죄는 없다. 목회

자가 설교할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죄든지 예수님께 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3장은 성령 훼방(모독)죄의 문맥을 명확히 보여 준다.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그들이 신성모독 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 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며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막 3:28–30)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이런 일을 한다."라고 비방했다(마 12:24).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성령님의 일로 보지 않고, 부정한 영에게 사로잡힌 것으로 보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시대에만 일어난 일이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누구도 예수님께 "당신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성령 모독죄라는 개념을 잘못 적용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 이들을 위협하는 행위는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며 성령 모독죄를 오용하는 것이다.

e. 성경은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고 한다.

>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오? (전 3:21)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문맥에 따라 '영'이나 '바람'으로 번역되는 루아흐이며, 사람과 짐승의 영을 직접 비교하는 자리이므로 반드시 '영'으로 번역해야 한다. 그러나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짐승의 혼'으로 번역했다. 이는 '짐승이 영을 가질 수 없다'는 동양적·샤머니즘적 사고방식이 번역에 반영된 결과다. 다만 개역 성경 각주에는 원어가 '영'이라고 밝혀 두었으니, 당시로서

는 원어를 정직하게 반영하려는 흔적이 남아 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숨, 즉 영을 가지고 있다(전 3:19). 노아의 대홍수 때에도 코에 생명의 숨을 지닌 모든 육체가 죽임을 당했다(창 6:17; 7:15, 22). 또한 하나님께서는 짐승도 영을 가졌기에 특별히 허락을 받으면 말할 수 있음을 보여 주시려고, 나귀가 말하는 기사를 영감으로 단 한 번 기록해 주셨다(민 22:28, 30). 그러나 짐승의 영은 사람의 영과 본질이 다르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영은 죽으면 땅 아래로 내려가 소멸된다(전 3:21). 짐승은 영을 가지고 있으나 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무관하다.

한편 사람에게는 짐승이 가지지 못하고 사람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진 또 다른 단어가 있다. 그것은 '네샤마'(neshamah)이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이 바로 이 네샤마이다. 네샤마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친히 불어넣으신 숨이며, 짐승에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잠언 20장 27절은 사람의 영(네샤마)이 주의 등잔불이라고 말하여, 이 숨이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영적 등잔불임을 보여 준다. 욥기 32장 8절은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앞의 '영'은 루아흐이고 '영감'에 해당하는 단어가 네샤마이다. 곧 네샤마는 사람에게 명철과 분별력을 부여하는 근원이며 사람을 짐승과 본질적으로 구별 짓는 결정적 요소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어 루아흐와 그리스어 프뉴마는 문맥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과 짐승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숨을 의미하기도 하며,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 중 하나인 영, 본질이 영인 천사, 어떤 기질이나 성품, 다시 태어난 신자의 새로운 본성, 그리고 분별해야 할 영적 실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영'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앞뒤 문맥을 살펴 그 의미를 정확히 분별해야 한다.

존재론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며, 사람은 본래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을 때 영적으로 살아나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 천사는 본질이 영이며 영원한 존재이다. 짐승도 영을 가지고 있으나 죽으면 그 영은 소멸된다. 이처럼 모든 영이 동일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아나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

2. 혼 – 히브리어 네페쉬

한국 땅에서는 오랫동안 샤머니즘이 유행했고, 성경이 번역될 때 이런 요소가 영향을 미쳐 '혼'을 '영'과 동일하게 여기거나 '영혼'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혼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은 사람 자체(self)를 혼이라고 부른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용례가 대부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사람 자체를 혼으로 보신다는 의미이다. 또한 혼은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 중 하나로 성경에 나타난다. 사람은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며, 그중 혼은 자기를 의식하는 기관으로 나타난다. 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쉬'(nephesh)는 구약 성경에 약 755회 등장한다. 이 중 428회는 '혼'으로, 117회는 '생명'으로 번역된다. 신약 성경에서 혼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프쉬케'(psyche)이며, 이 역시 '혼' 또는 '생명'으로 번역된다. 즉, 이 말은 네페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누군가 묻는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 혼의 구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혼의 이런 특성은 보통 '혼의 불멸'이라 한다. 혼의 불멸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도 혼이 불멸한다는 진리를 확신하며 이 땅에서 살았고 다가오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히 11:13–16).

사무엘기상에는 사울이 엔돌로 찾아가 영을 부리는 여인에게 요청해 사무

엘을 불러올리는 장면이 나온다(삼상 28:13–15). 여자가 "신들이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며, 사무엘의 외모를 묘사하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임을 알아보고 엎드려 절한다. 이후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하는 장면은 사무엘이 육신적으로는 죽었으나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 준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이 말한다.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삼하 12:23)

이는 다윗 자신이 죽은 후에 그 아이를 다시 만난다고 확신했다는 뜻이다. 이것은 구약의 개념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으로 간다는 의미이며 아이의 육체는 죽었어도 혼은 살아 있다는 성경적 증거이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 단순히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님을 거듭 강조하며, 혼은 사람의 실체 그 자체이자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의 부분임을 명확히 드러낸다.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아노라. 내 살갗이 *없어진* 뒤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 19:25–26)

욥은 자신의 몸이 썩어 없어질지라도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믿으며 죽은 뒤의 부활을 확신하였다. 이 고백은 욥의 몸은 썩어 없어지더라도 그의 혼, 즉 욥이라는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 주는 성경적 증거이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마 22:32)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며, 이들이 예수님 당시 약 2천 년 전에 죽었음에도 그들의 혼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음을 알려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혼의 불멸과 혼의 중요성을 친히 가르쳐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마 10:28)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직접 가르쳐 주신다(고전 15:45-47; 딤후 1:10).

>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마 16:26)

성경은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요소가 혼이라고 말하며, 사람이 죽으면 숨과 함께 혼도 떠난다고 가르친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며 죽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창 35:18)

사람이 죽으면 숨과 혼이 떠나며, 영도 역시 떠난다. 성경에서 '죽음'은 항상 분리를 뜻한다. 사람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있던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올라감을 뜻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크고 흰 왕좌 앞에서 심판을 받은 후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 즉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망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게헨나(Gehenna)라 불리는 불 호수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영원히 살아

감을 말한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존재의 사라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한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성경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혼'은 종종 '생명'이나 '호흡'으로 번역되기도 한다(창 7:15; 시 104:29; 행 17:25).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생명이 있으나 사람 속에는 생각과 사랑과 사고를 주관하는 불멸의 혼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불멸의 혼이 영원한 불 호수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혼의 구원을 받는다. 사람의 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 분명히 구별되며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닮았다(창 1:26; 2:7).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어진 사람은 단순히 물질적이거나 육적인 요소를 넘는 존재이다. 혼은 영적인 실체로서 생각하고 기억하며 소멸하지 않는다. 앞에서 말한 대로 짐승은 영을 가졌으나 사람과 같은 불멸의 혼은 가지지 않으므로, 죽으면 그 존재가 소멸된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된다. 여기에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눅 16:22-23). 부자의 몸은 무덤 속에 있으나, 부자는 지옥에서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본다. 나사로가 아무 형태가 없는 유령 같은 존재라면 아브라함이 그를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유령처럼 떠다니는 존재라면 나사로 역시 그를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부자의 혼, 아브라함의 혼, 나사로의 혼이 등장한다. 이로써 혼들이 대화하고 고통을 느끼며 말하고 듣고 감각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혼이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불멸한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 요한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는 장면이 나온다. 이 구절에는 요한이 혼

들을 '봤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혼들은 큰 음성으로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시리이까?"(계 6:10)라고 외친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신다. 옷은 입을 수 있는 존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혼들은 형태를 지니고 혼적인 몸(soulish body)을 입은 상태로 부르짖고, 듣고, 보고, 말하며, 예복을 입는다. 이것은 혼이 불멸의 존재요, 실체적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 주는 증거이다. 성경은 혼이 이처럼 실재하며 사후에도 감각과 자각을 지닌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 준다.

성경에서 혼은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매우 많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혼이라 부르신다. 이 표현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으나 한국적 혹은 동양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사람을 가리킬 때 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당시 하나님께서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바로 그 첫째 날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출 12:15). 여기의 '혼'은 히브리어 '네페쉬'(nephesh)이다. 번역할 때 이를 분명히 혼으로 번역해야 하지만 개역 성경은 '자(者)'로 번역했다. 이로 인해 성경이 사람 자체를 혼이라 부른다는 사실을 한국어 성경 독자들이 알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번역은 성경 본래의 의미를 가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번역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포피 살을 베어 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않은 사내아이 곧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창 17:14)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에서도 '그 혼은'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사람'이나 '자(者)'가 아니라 '혼'이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 428회 쓰인 혼을, 개역 성경은 대부분 사람이나 자(者)로 번역했다.

오순절 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삼천 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행 2:41)

이 구절에서도 삼천 '명'이 아니라 삼천 '혼'이다. 한국어로는 이것이 다소 생소하게 들리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 전도하는 것을, 영어로는 '혼을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소울 위닝'(soul winning)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소울(soul)은 혼이며, 혼은 사람 자체를 의미한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잠 11:30)라는 구절은 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을 말한다. 이 구절에는 '혼들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를 '위너스 소울스'(winneth souls)라고 번역했다.

영어 성경에서는 soul 또는 복수형 souls라는 단어가 총 536회 등장한다. 그러나 개역 성경에서는 혼과 영을 명확히 구분해 번역한 경우가 드물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히 4:12)라는 구절처럼 반드시 혼으로 번역해야 하는 구절에서만 혼으로 옮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혼 혹은 자(者) 등으로 바꾸어 혼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영과 혼과 몸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자신을 혼이라고 하신다.

내 혼이 너희를 혐오하지 아니하리니 (레 26:11)

내 혼이 너희를 혐오하리라. (레 26:30)

내 혼이 기뻐하는 자 (사 42:1)

3. 몸(Body)

몸은 영과 혼이 거하는 곳이다(살전 5:23). 모든 사람에게는 영이 있지만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즉,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그 사람이 설득되어 "제가 믿습니다."라고 반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께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그 사람의 영을 치시면 그 영은 바르게 작동한다. 영이 제 기능을 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셔서 그 몸을 성령님의 전으로 삼으신다. 이로써 구원받은 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셨으나 구약 성도들 안에는 영원히 거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신약 시대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하나님의 영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게 되었다.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그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 구원받은 자의 몸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므로 그 사람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 된다(고전 6:19; 벧후 1:13-14). 이런 몸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으므로 하나님의 소유이다(고전 6:20).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 헌물로 내어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우리 몸을 마땅히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롬 6:13, 19).

사도 바울은 신약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른다.

>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엡 1:23)

이 구절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그 몸을 의미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전 우주적인 교회'라고 부른다.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역 교회를 의미할 수는 없다. '지역 교회'에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몸은 예수님께 속한 참된 성도들로 구성된 '전 우주적인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 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고전 12:13)

이 말씀에 따라 성령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된다. 성령님의 침례 사역이 있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순절 날 성령님의 침례가 처음 시행되어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었고, 이때부터 성령님의 침례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사람이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서로 연합하게 된다(롬 6:3-4; 갈 3:27). 이 몸 안에서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서로 지체이다. 지체는 영어로 멤버(member)라고 한다. 손가락, 발가락, 머리카락 등 모든 신체 구성 요소가 몸의 지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멤버들이며, 서로 교통할 수 있고 예수님과도 교통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본성에 속한 몸(natural body)과 영에 속한 몸(spiritual body)이 있다고 말한다.

>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전 15:44)

우리가 태어날 때는 모두 본성에 속한 몸을 입고 태어난다. 그러나 휴거를 받거나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때는 이 본성의 몸으로는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없다. 본성의 몸은 썩고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천한 몸을 벗고 예수님께서 입혀 주시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빌 3:21). 그 영화로운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가지셨던 몸과 같

은 몸이다. 성경은 이 몸을 '영에 속한 몸'(고전 15:44)이라 부른다. 이 몸은 벽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고,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으며,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

영에 속한 이 몸을 입으면 더 이상 자연의 법칙, 즉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과학적으로는 열역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는 필연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지만,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은 엔트로피가 보존되는 세계이다. 그것은 에너지도 보존되고, 부패하거나 낡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될 때는 반드시 본성의 몸을 벗어야 하며,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입혀 주시는 몸, 즉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어야 한다. 그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

4. 의지의 문과 들음의 믿음

지금까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가? 그 과정을 이해하려면 사람의 영에 주어진 '의지'라는 문지기를 알아야 한다.

사람의 영에는 의지라는 문지기가 있다. 이 의지가 열려야 성령님께서 들어오신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닫아 두면 성령님께서는 결코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신다. 사람에게 자유 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의로 일하신다면 선악과 사건조차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로봇처럼 조종되는 존재였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고,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신다. 성령님께서는 온유하신 영이시므로 결코 무력으로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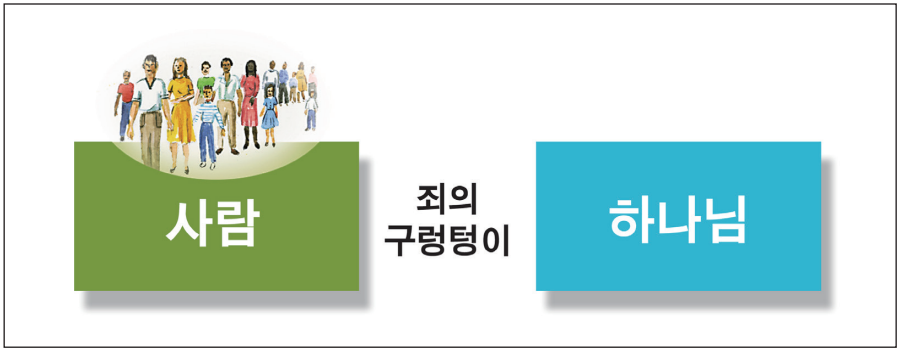
그러면 이 의지는 어떻게 열리는가? 믿음을 통해 열린다. 그리고 믿음은 우

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롬 10:17)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신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순간이다.

〈사람의 문제〉



〈하나님의 해결책〉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사람의 육신적 감각 기관은 눈과 코와 귀와 입과 피부, 이 다섯 가지이며, 이를 통해 시각과 후각과 청각과 미각과 촉각이 작용한다. 마귀는 이 가운데서도 특히 눈을 통해 일한다. 곧 '보는 것'을 통해 유혹하고 조작한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안목의 정욕'(요일 2:16)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도 눈을 통해서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주로 '듣는 것'을 통해 일하신다. 곧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일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시니, 그분의 이름이 곧 '말씀'이시다(요 1:1, 14).

하나님께서는 대개 '들으라'고 말씀하시지 '보라'고는 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타락 사례를 보아도 '보는 것'이 늘 문제의 원인이었다. 이브와 아간과 다윗의 경우가 모두 그러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점점 시각적 자극과 볼거리에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다. 보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며, 기도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듣고 의지적으로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이 임한다.

이처럼 사람의 본질과 구조를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다는 이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성경 해석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이해이다.



| 부록 4 |

천사들과 영의 세계

이 책의 본문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안식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적 오해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천사에 대한 이해이다. 안식교는 엘렌 화이트가 본 환상에 큰 권위를 부여하는데, 그녀가 성소와 지성소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환상에는 천사의 안내와 계시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한국 교회 안에서도 비성경적인 천사의 이미지—아기 천사, 여성 천사, 날개 달린 천사, 나아가 보호 천사를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가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오해들은 대부분 성경이 천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카톨릭교회의 성화나 뉴에이지 영성, 동방 신비주의에서 묘사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천사는 본래 '심부름꾼'을 뜻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일을 수행하는 영적 존재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 곧 청년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날개 달린 아기

나 여성의 형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마귀들도 본래 천사였다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으나, 번역상의 문제로 인해 한국 교회에서 이 사실이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천사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정리하고자 한다. 천사의 존재 방식과 모습, 그들의 창조 시기와 능력, 그리고 수행하는 역할을 성경 본문을 따라 살펴보면, 우리는 천사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나 그릇된 신뢰에서 벗어나 성경이 가르치는 분별력을 얻게 될 것이다.[1]

천사의 존재와 모습

천사는 능력과 지혜 면에서 사람보다 고등한 인격체, 즉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존재를 지칭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사역자로 사용하시며 세상사를 집행하시고 개인이나 국가의 복지를 증진하신다(마 1:20; 행 7:30).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이지만 천사는 영 그 자체이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듯이 천사도 영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때에 한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난다. 그때는 항상 남자로 나타나며 사람과 동일한 모습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그가 사람인지 천사인지 구별하지 못한다.

>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히 13:2)

이 구절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천사가 일반 남자와 다름없는 모습이었기에 알아보지 못하였음을 알려 준다.

「천사들의 미스터리」 무료 PDF 책 QR 코드

1. 여기에서는 천사들에 대해 간략히 기본적인 사실을 제공할 것이며 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은 「천사들의 미스터리」 무료 PDF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keepbible.com/Pds1/View/5UL

사람처럼 먹고 걷는 천사

저녁때 소돔에 나타난 두 천사가 성문에 앉아 있던 롯을 만나는 장면이 있다(창 19:1). 롯은 그들을 나그네라 여겨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매 그들이 먹더라. (창 19:3)

이 구절은 천사들이 사람처럼 먹기도 하고 걸어 다녔음을 보여 준다. 한편 시편은 만나가 천사들의 음식이었음을 가르친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그들이 그리하였도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시 78:24–25)

날개 달린 천사는 성경에 없다

만일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누구나 그들이 천사임을 즉시 알아보지 않았겠는가. 카톨릭교회나 뉴에이지, 동방 신비주의 종교 등에서는 아기 천사, 여자 천사, 날개 달린 천사, 금발 머리 천사 등을 말하지만, 성경에 그런 천사는 없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모두 사람의 모습, 즉 남자로 나타나며 대체로 30세 정도의 젊은 청년의 모습이다. 천사들이 소돔에 나타났을 때 매우 아름답고 준수하게 보였기 때문에 소돔의 남자들이 모두 몰려와 동성애를 시도하려 했다.

이 밤에 네게 들어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창 19:5)

이 장면에서 소더마이트(sodomite, 남색자)라는 단어가 동성애와 연결된 유래를 확인할 수 있다.

항상 남자로 나타나는 천사

고넬료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다.

하루는 낮 아홉 시쯤 되어 그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행 10:3)

나흘 후에 고넬료가 이 일을 베드로에게 전하면서,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행 10:30)라고 묘사하였는데, 이는 천사가 분명히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이때 사용된 '남자'는 성경 원문에서 히브리어, 그리스어, 영어 성경 모두 명확하게 man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여성으로 나타난 천사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 재앙을 가진 천사가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 주는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한다.

그[천사]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였는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백사십사 큐빗이더라. (계 21:17)

여기에서 '사람의 치수'라고 번역된 말은 원문 그대로 옮기면 '남자의 치수'(measure of a man)이다. 이는 사람의 치수이면서 동시에 천사의 치수라는 의미이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와 관련된 구절들을 살펴보면 항상 남성 단수 대명사 '그'(he)로 표현되고, '남자'(man)라는 단어로 기록된다.

그룹과 스랍: 천사와 다른 천상의 영적 존재

날개 달린 모습으로 묘사되는 천상의 존재가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angel)가 아니라 그룹(cherubim)과 스랍(seraphim)이라는 별개의 천상의 존재들이다. 성경은 이 둘을 천사와 구분하여 따로 기록한다.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지키는 존재이다. 이들은 처음 에덴동

산에서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산에서 쫓아내신 뒤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창 3:24).

또한 그룹은 언약궤의 긍휼의 자리 양쪽에 새겨진 형상으로 나타난다. 두 그룹은 위로 날개를 펴서 긍휼의 자리를 덮고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다(출 25:18-20). 에스겔은 환상 중에 그룹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았는데,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왕좌의 형태로 묘사된다(겔 10:1, 21). 이처럼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호위하는 권위 있는 창조물이다.



언약궤의 그룹

스랍은 하나님의 왕좌 곁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존재이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바에 따르면, 스랍들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응답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군대들의 주여."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선포하였다(사 6:2-3). 스랍은 '불타는 자'를 뜻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들의 본성을 나타낸다.

이처럼 그룹과 스랍은 모두 날개를 가지고 있으나 천사와는 구별되는 존재이다. 성경은 이들을 천사와 구분하여 각각 다른 명칭과 역할로 기록한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람에게 보내지는 심부름꾼이지만, 그룹과 스랍은 주로 하나님의 왕좌 주위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호위하고 찬양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날개 달린 천사'의 이미지는 사실 천사의 모습이라기보다 그룹이나 스랍의 형상에 가깝다. 그러나 이마저도 성경의 묘사를 정확히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후대 미술과 종교적 상상에 의해 변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사의 창조 시기와 능력, 종류

천사의 창조

하나님께서 욥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시점을 회상하시며 다음과 같이 물으신다.

>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욥 38:7)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킨다. 곧 천사들은 천지 만물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에 창조된 존재였다.

루시퍼, 곧 사탄의 타락도 창세 이전의 일이다(사 14장; 겔 28장). 루시퍼의 반역 당시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 그와 함께 하나님께 반역하여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다(계 12장).

천사의 수

천사의 수에 대해 성경은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an innumerable company of angels, 히 12:22)라고 말한다. 이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음을 뜻한다(단 7:10; 마 26:53; 눅 2:13). 곧 천사의 정확한 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성경은 사람에게 '무수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천사의 능력

천사의 능력은 매우 강력하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시는 장면에서, 단 한 천사가 하룻밤에 십팔만 오천 명을 죽였다.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쳤으므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저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왕하 19:35)

또한 이집트를 탈출하던 첫 유월절 날에도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의 처음 난 자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죽임을 당했다(출 12:29). 이 일을 집행한 존재가 바로 파멸시키는 천사였다(출 12:23).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처음 난 자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처럼 천사의 능력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시 103:20; 벧후 2:11; 계 5:2; 18:21; 19:17).

천사의 심판 사역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실제로 수행하는 존재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천사들이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13:49-50). 또한 7년 환난기 이후의

심판을 집행하며 저주받은 자들에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 25:41)라고 명하실 때도 천사들이 그 사악한 자들을 불에 던지는 일을 수행한다(삿 13:20; 단 9:21-23; 마 26:53; 행 27:23; 계 8:13).

마귀들의 정체: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마 25:41)이라는 구절은 성경에서 마귀들의 정체를 천사라고 분명히 규정한 결정적인 구절이다. 마귀가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지만 성경은 그들을 천사라고 명확히 말한다. 그들은 본래 루시퍼와 함께 하늘에 있던 천사들이었으나, 타락함으로써 마귀가 되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1절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등의 본문에서도 천사를 '사자'로 번역해 버렸다. 그 결과 마귀가 본래 천사였다는 사실이 한국 교회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고, 마귀를 샤머니즘의 '귀신'과 동일시하는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졌다. 한국에서 흔히 떠올리는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된다'는 사상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마귀는 본래 천사였던 영적 존재이며, 사람의 혼이 변하여 된 존재가 결코 아니다.

다양한 천상의 존재들과 등급

천상에는 천사들 외에도 그룹과 스랍이라는 별개의 영적 존재들이 있다(사 6:2-6; 겔 10:1).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따로 살펴보았다. 또한 천사들 가운데 대장을 '천사장'이라 부르며, 대표적으로 미가엘 천사장이 있다(계 12:7). 성경은 천상의 영적 존재들이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좌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골 1:16)

이 구절에서 언급된 왕좌(throne), 통치(dominion), 권력(principality), 권능(power)은 천상의 영적 존재들의 다양한 등급을 가리킨다.

섬기는 영: 성도를 섬기는 존재

성경은 천사를 한마디로 '섬기는 영'이라고 정의한다.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 1:14)

이는 마귀의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한다.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곧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이다. 천사들의 능력은 매우 강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 두셨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존재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는 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가 우리를 도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천국에 간 후 지난 삶을 돌아볼 때, '그때 천사가 나를 도와주었구나!'라고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천사를 섬기지 말 것

그러나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천사들을 신뢰하거나 경배하거나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계 19:10; 22:8-9).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일대일로 붙어 다니는 보호 천사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만 따로 붙어서 보호해 주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라는 사실이다.

천사들은 우리의 삶을 주시하며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마 18:10; 눅 16:22; 히 1:14). 특히 천사들은 사람의 구원에 큰 관심을 가진다

(눅 2:10–12; 15:7, 10; 벧전 1:12).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눅 15:10)

이 말씀은 천사들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의 구원을 바라보는지를 보여 준다.

이 천사들은 훗날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히 12:22).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 이전에 만드신 수많은 천사들 중 일부는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 사탄의 천사들이 되었고 하늘에서 쫓겨났다(마 25:41; 계 12:9).



| 부록 5 |

'믿다'와 '믿음'에 대한 오해

성경은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히 11:3)라고 말한다.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연필이나 기둥 등을 만드는 것은 이미 나타나 있는 나무로 연필이나 기둥 등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들, 곧 없는 것들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이를 한마디로 창조라고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는 오직 믿음을 통해 깨달아 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을 여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창세기를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어도 끝내 믿지 않으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 결국 창세기를 어떤 태도로 읽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사람들이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인가? 그렇지 않다. 믿음에 관하여 가장 흔히 일어나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긴다. 많은 사람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고백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까닭은 그들의 믿음이 피상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 낸 가정 위에 세워진 믿음일 뿐, 예수님에게 속한 믿음 곧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믿음은 단지 역사적 믿음에 불과하다.

역사적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를 들어 "나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의 믿음이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사 교과서나 수업을 통해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것은 단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동의일 뿐,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성경은 그런 믿음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은 마귀들의 믿음처럼 죽은 믿음이 된다.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약 2:19)

분명히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그분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존재가 바로 마귀들이었다.

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라. (마 8:29)

마귀들이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는가? 그렇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원자로 신뢰하였는가? 아니다. 어떤 존재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존재를 믿고 자신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마귀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지만, 그분을 신뢰하거나 복종하지는 않는다.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동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신뢰이며 내어 맡김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곧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다.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내어 맡김이 결코 일어날 수 없으며, 오직 전적으로 그 존재를 신뢰할 때에만 참된 내어 맡김이 가능하다.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 맡길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친히 거하시며 그분의 생명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살아 있는 믿음이며, 이런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하였다. 그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그 믿음은 굳이 알리지 않아도 온 그리스 지역에 퍼져 나갔다(살전 1:8). 살아 있는 믿음은 이렇게 스스로를 드러낸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누군가는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그것이 죽은 믿음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산 믿음일 수 있다면, 도대체 '믿는다'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말이 동사 '믿다'와 명사 '믿음'을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다 보니 마치 둘이 별개의 것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둘은 본래 하나의 실재를 가리키는 말이며, 동사로 표현되느냐 명사로 표현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을 둘러싼 오해는 우리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어 성경을 깊이 다루는 이들 사이에서도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을 가리키

는가를 두고 적지 않은 혼란이 있어 왔다. 특히 과거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 등에 나오는 'faith of Jesus'라는 표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가지신 믿음'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이 책의 저자 역시 한때 그러한 견해에 영향을 받아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쳤다.

그러나 오랫동안 성경 전체의 용례와 문맥을 거듭 검토한 끝에 그 해석이 옳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법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가 하는 칭의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believe와 faith의 관계, 그리고 'faith of Jesus'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believe와 faith의 관계

우리말에서는 동사 '믿다'를 believe, 명사 '믿음'을 faith로 표현하지만,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두 단어가 각각 동사 '피스튜오'(pisteuo)와 명사 '피스티스'(pistis)로서 '신뢰하다'를 뜻하는 동일한 어근 피스트(pist-)에서 나온 단어들이다. 따라서 believe와 faith는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실재를 동사형과 명사형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장 안에서의 기능과 형태만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faith)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믿음은 내가 억지로 쥐어짜거나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마귀들의 예가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지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지는 못했다. 인간의 지적 노력이나 의지적 결단만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살아 있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롬 10:17)

바로 이 말씀이 그 답을 준다. 여기에서 '온다'는 표현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마음 안에서 생겨난다는 뜻이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오다'는 이탤릭체로 '*cometh*'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믿음이 '들음에 의해', 즉 '들음을 통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전달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 결과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겨난다는 데 있다. 로마서 10장 9-13절 자체가 바로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며, 복음 전도가 중요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그리스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롬 10:14)

그렇다면 faith와 believe는 어떤 관계인가? 이 둘은 동일한 그리스어 어근에서 나온 명사형과 동사형이므로, 시간적 선후 관계를 설정하여 "먼저 faith가 온 뒤에야 believe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약 성경 전체의 용례와 맞지 않는다. 신약 성경에서 '믿다'(believe)는 약 241회 등장하며, 그중 약 98회가 요한복음에 나온다. 또한 그 용례의 대부분은 구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반면 '믿음'(faith)은 약 243회 등장하며, 특히 바울 서신에 집중되어 있다. 이 두 단어를 합하면 신약 전체에서 약 480여 회에 이르는데, 이 압도적인 다

수의 용례에서 '믿음'과 '믿다'는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인간의 인격적 신뢰와 의탁을 가리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31)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롬 10:9)

이처럼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구원은 믿는 행위(believe)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성경은 어디에서도 faith가 먼저 와야 believe가 가능하다는 식의 순서를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과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faith와 believe를 선후 관계로 나누어 "faith가 오지 않으면 believe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지 않는 이유를 그에게 faith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인간의 인격적인 응답과 믿음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게 된다.

이 점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구절에는 매우 중요한 대구 구조가 등장한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works of the law)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faith of Jesus Christ)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works of the law)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faith of Jesus Christ)은 서로 대응되는 표현이다. 'works of the law'에

서 전치사 of는 율법을 행하는 것, 곧 율법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라는 의미와 율법에 속한 행위들이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며, 문맥상 동일한 내용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구조로 볼 때 'faith of Jesus Christ'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그분을 대상으로 하는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한다. 즉,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며 그분을 향하는 믿음을 가리킨다. 이처럼 두 표현이 이루는 대구적 구조는 'faith of Jesus Christ'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신약 성경에는 'faith of'의 형태로 된 구절들이 여럿 등장한다. 이 구절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faith of'를 '예수님 자신의 믿음'으로 읽는 것이 매우 무리한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faith of'의 1차적인 형태가 목적격임을 보여 주는 근거는 of 다음에 나오는 대명사의 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예가 에베소서 3장 12절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the faith of him)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 있는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대명사 of 다음에 he의 목적격인 him이 사용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영어에서 'faith of him'은 일반적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그분 자신이 소유한 믿음'으로 이해하려면 문맥적 설명이 추가로 요구된다. 이는 'fear of the LORD'가 보통 '주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읽히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faith of'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him이든, Jesus Christ든, the Son of God이든, 목적격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큼을 분명히 보여 준다.

로마서 3장 22절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faith of Jesus Christ)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한다."라고 말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faith of Jesus Christ'에서 of는 목적격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 구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어져 나타나면서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흐름을 보인다.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며, 그 통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따라서 문맥상 이는 예수님 자신의 믿음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간의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faith of Jesus Christ)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도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믿는 자들'이 동일한 문장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만약 'faith of Jesus Christ'를 예수님 자신의 믿음으로 이해한다면, 이 문장은 약속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인간의 믿음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이중 구조가 된다. 즉, 예수님의 믿음이 약속의 근거가 되고, 여기에 더하여 인간의 믿음이 또 하나의 조건으로 추가되는 형태가 된다.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이중 구조를 전혀 설명하거나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구절은 믿음과 믿는 자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며, 그 약속이 전달되는 통로 역시 동일한 믿음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문맥상 'faith of Jesus Christ'와 'them that believe'를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믿음으로 나누기보다, 동일한 실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여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믿음(faith of Christ)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이것이 율법에서 나는 자신의 의가 아님을 강조한다.

[내가]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기에서는 문맥이 결정적이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율법 아래서 쌓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자신이 얻고자 하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즉, 율법에서 나는 자신의 의와 대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인격적 믿음의 고백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는 믿음을 가리키며,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야고보서 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faith of our Lord Jesus Christ)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여기에서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 표현을 예수님 자신이 소유하신 믿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문맥을 보면 성도들의 실제 삶과 행위가 함께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야고보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가진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함을 전제한다. 따라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권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faith of Jesus)을 지키는 자들'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지킨다'는 동사가 결정적이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성도들이 그 명령들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구조로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유지한다는 뜻이다. 만약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 자신의 믿음이라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문맥상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지 성도들이 지키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

님을 향한 성도들의 인격적 믿음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 주는 구절 중 하나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faith that is in me)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근거를 둔 믿음, 곧 예수님을 향한 믿음임이 분명하다. 죄들의 용서와 상속 유업을 받는 주체가 이방인들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faith of' 형태의 구절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 주시는 말씀이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faith of' 형태의 구절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구절도 '예수님 자신의 믿음'으로 읽는 해석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믿음', 즉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믿음이라고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이 구절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믿음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낳는지 신약 성경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믿음과 관련된 두 단어는 합쳐서 약 480회 등장하는데, 이 중 '예수님 자신의 믿음'이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구절은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 등의 극소수 구절에 불과하다. 480여 회는 모두 '인간이 믿는다', '인간의 믿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은 소수의 구절이 다수의 명확한 구절을 뒤집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극소수의 구절을 근거로 신약 전체의 압도적인 용례를 거슬러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른

해석 원칙을 벗어난다.[1]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정리해 준다.

>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히 12:2)

여기에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 믿음'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지, 우리를 대신하여 믿음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참된 믿음의 원형이 되시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 불리신다.

따라서 갈라디아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faith of the Son of God)을 우리의 믿음과 무관한 예수님 자신의 믿음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란 믿음의 길을 먼저 여시고 그 믿음을 완성으로 이끄시는 분이지,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

1. 과거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faith of Jesus'가 다른 역본들의 'faith in Jesus'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의 믿음'을 가리킨다고 해석되며,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만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책의 저자 역시 한때 그러한 견해에 영향을 받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히브리서 12장 2절, 로마서 10장 17절 등을 그 관점에서 이해하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 전체의 용례와 문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그러한 해석은 옳지 않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다. 특히 'faith of him'과 같은 표현에서 목적격 의미의 him이 사용된 사실은 이러한 해석의 문제를 분명히 보여 준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works of the law'와 'faith of Jesus'가 서로 대비되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도 'works of the law'와 'hearing of faith'가 대비되는 구조는 여기의 of가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도 'hearing of faith'를 문자적으로 '믿음의 들음'이라고 번역할 수 없어 결국 '믿음에 관하여 들음' 혹은 '믿음에서 난 들음'과 같은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존 해석의 한계를 잘 드러낸다.

라고 할 때에도 그는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가진 믿음의 대상과 내용과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였다. 바울의 믿음은 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신뢰였지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믿음이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 믿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뜻이다. 믿음의 창시자도 예수님이시고,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님이시며, 믿음의 대상도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살아간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마음 안에서 생겨나며, 그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는 인격적 행위로 나타난다. 영어 성경을 원문에 가깝게 읽으려는 노력은 귀하나, 그 노력이 신약 성경 전체의 문맥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처럼 말씀 안에 뿌리를 둔 인격적인 믿음이 바로 역사적 믿음과 구별되는 살아 있는 믿음이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지녔던 그 믿음이다.



| 부록 6 |

성경 연대기

본 연대기는 존스 박사가 저술한 「구약 성경의 연대기」(*The Chronology of the Old Testament*, F. N. Jones, March 2005, New Leaf Press Edition, Master Book)에서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 AD(Anno Domini): 주후 525년 스키티아 출신의 연대사가/신학자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저술한 「부활제의 서(書)」에서 그리스도의 기원(Anno Domini)이 비롯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는 BC 4년에 출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시므로 AD는 보통 주후(主後)로 표기된다.
- AM(Anno Mundi): 창조가 시작된 해, 즉 아담의 출생을 기원으로 계산한 연도이다.
- BC(Before Christ): AD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이전을 뜻한다. BC는 보통 주전(主前)으로 표기된다.
- Co-rex: 공동 왕, 어떤 이유에 의해 두 왕이 공동으로 다스릴 경우에 쓰인다.
- Pro-rex: 대리 왕, 새 왕이 나이가 어린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다스릴 경우에 쓰인다.
- Sole-rex: 유일 왕, 어떤 왕이 공동 왕이나 대리 왕 이후에 홀로 다스릴 경우에 쓰인다.

AM	BC	사 건
	4004	아담과 이브, 우주의 창조
1	4003	가인 출생
129	3875	가인이 아벨을 죽임
130	3874	셋 출생
235	3769	에노스 출생
325	3679	게난 출생
395	3609	마할랄레엘 출생
460	3544	야렛 출생
622	3382	에녹 출생
687	3317	므두셀라 출생
874	3130	라멕 출생
930	3074	아담 사망
987	3017	에녹 승천
1042	2962	셋 사망
1056	2948	노아 출생
1140	2864	에노스 사망
1235	2769	게난 사망
1290	2714	마할랄레엘 사망
1422	2582	야렛 사망
1556	2448	야벳 출생
1558	2446	셈 출생
1651	2353	라멕 사망
1656	2348	므두셀라 사망
1656	2348	노아의 대홍수
1658	2346	아르박삿 출생
1693	2311	살라 출생
1723	2281	에벨 출생
1757	2247	벨렉 출생

AM	BC	사 건
1787	2217	르우 출생
1819	2185	스룩 출생
1822	2182	니므롯의 왕국 시작
1849	2155	나홀 출생
1878	2126	데라 출생
1996	2008	벨렉 사망
1997	2007	나홀 사망
2006	1998	노아 사망
2008	1996	아브라함 출생
2018	1986	사라 출생
2026	1978	르우 사망
2049	1955	스룩 사망
2083	1921	데라 사망
2083	1921	아브라함 우르 출발(떠도는 일 시작)
2094	1910	이스마엘 출생
2096	1908	아르박삿 사망
2107	1897	할례 시작
2107	1897	이삭의 약속
2108	1896	이삭 출생
2113	1891	이삭의 젖을 뗌
2126	1878	살라 사망
2141	1863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바침
2144	1860	사라 사망
2148	1856	이삭과 리브가 결혼
2158	1846	셈 사망
2168	1836	야곱과 에서 출생
2183	1821	아브라함 사망
2187	1817	에벨 사망

AM	BC	사 건
2208	1796	에서의 첫 번째 결혼
2231	1773	이스마엘 사망
2238	1766	야곱이 라반에게 도피함
2245	1759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함
2246	1758	르우벤 출생(레아)
2247	1757	시므온 출생(레아)
2248	1756	레위 출생(레아)
2249	1755	유다 출생(레아)
2249	1755	라헬이 야곱에게 빌하를 줌
2249	1755	단 출생(빌하)
2250	1754	납달리 출생(빌하)
2250	1754	레아가 야곱에게 실바를 줌
2251	1753	갓 출생(실바)
2252	1752	아셀 출생(실바)
2252	1752	잇사갈 출생(레아)
2253	1751	스불론 출생(레아)
2254	1750	디나 출생(레아)
2259	1745	요셉 출생(라헬)
2265	1739	베냐민 출생(라헬 사망)
2265	1739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남
2272	1732	디나의 강간 사건
2276	1728	요셉이 종으로 팔림
2286	1718	요셉이 두 이집트 관리의 꿈을 해석함
2288	1716	이삭 사망
2289	1715	요셉의 승진(30세)
2296	1708	7년 풍년의 마감
2297	1707	족장들의 1차 이집트 방문
2298	1706	야곱과 족장들의 이집트 거주
2315	1689	야곱 사망
2369	1635	요셉 사망
2433	1571	모세 출생
2473	1531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주함
2475	1529	갈렙 출생
2513	1491	이집트 탈출(율법 수여)
2514	1490	성막을 세움
2552	1452	이스라엘이 가데스로 되돌아옴
2552	1452	미리암과 아론 사망
2552	1452	헤스본 왕 시혼 정복
2552	1452	모세 사망(여호수아 새 지도자)
2553	1451	이스라엘 요르단 통과
2559	1445	가나안 족속들과의 7년 전쟁 완료
2559	1445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배분 시작
2560	1444	성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김
2560	1444	마지막 7지파에게 가나안 땅 배분 완료
2580	1424	여호수아 사망
2599	1405	미가의 제사장(삿17-18)
2601	1403	레위 사람 첩 사건(삿19-21)
2604	1400	구산리사다임의 압제
2612	1392	옷니엘의 구출
2644	1360	에글론의 압제
2662	1342	에훗의 구출
2724	1280	야빈의 압제
2744	1260	삼갈 재판관
2744	1260	바락과 드보라의 구출

AM	BC	사 건
2764	1240	미디안의 압제
2771	1233	기드온의 구출
2804	1200	아비멜렉의 권력 찬탈
2807	1197	돌라 재판관
2830	1174	야일 재판관
2834	1170	암몬의 압제
2842	1162	엘리 재판관
2852	1152	입다의 구출
2858	1146	입산 재판관
2863	1141	블레셋의 40년 통치 시작
2865	1139	엘론 재판관
2875	1129	압돈 재판관
2882	1122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음(엘리 사망)
2883	1121	삼손 재판관
2883	1121	언약궤가 기럇여아림에 옴
2903	1101	삼손의 다곤 신전 파괴
2903	1101	사무엘의 40년 블레셋 통치 종료
2909	1095	사울의 등극
2909	1095	사울이 암몬을 패주시킴
2911	1093	사울과 블레셋의 싸움
2919	1085	다윗 출생
2934	1070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
2937	1067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
2939	1065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피함
2939	1065	다윗이 가드 등으로 피신
2944	1060	사무엘 사망
2945	1059	다윗이 사울을 두 번 살려 줌
2946	1058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름
2948	1056	사울과 요나단 사망
2949	1055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됨
2951	1053	다윗과 이스보셋의 싸움
2956	1048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됨
2956	1048	다윗이 예루살렘을 취함
2957	1047	다윗이 블레셋을 패주시킴
2957	1047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옴
2964	1040	다윗이 므비보셋을 환대함
2967	1037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2968	1036	솔로몬 출생
2969	1035	암논이 다말을 강간함
2977	1027	압살롬의 반역
2988	1016	르호보암 출생
2989	1015	아도니야의 권력 찬탈
2989	1015	솔로몬 유다의 Pro-rex
2989	1015	다윗 사망(솔로몬 Sole-rex)
2992	1012	솔로몬이 성전 기초를 놓음
3000	1004	솔로몬 성전 봉헌
3029	975	르호보암 등극
3029	975	여로보암의 주도로 왕국이 분열됨
3033	971	시삭의 침공
3046	958	아비야 유다 왕 등극
3048	956	아사 유다 왕 등극
3050	954	나답 이스라엘 왕 등극
3051	953	바아사 이스라엘 왕 등극
3054	950	여호사밧 출생

AM	BC	사 건
3074	930	엘라 이스라엘 왕 등극
3075	929	시므리의 7일 통치
3075	929	오므리 이스라엘 왕 추대
3075	929	디브니와 오므리의 전쟁
3079	925	유다의 여호람 출생
3079	925	오므리의 이스라엘 통치(디브니 사망)
3086	918	아합 이스라엘 왕 등극
3087	917	아사의 발에 병이 생김
3090	914	여호사밧 유다 왕 등극
3096	908	유다의 아하시야 출생
3098	906	엘리사가 엘리야의 종이 됨
3106	898	여호람 유다의 Pro-rex
3107	897	아하시야 이스라엘 왕 등극
3107	897	요람 이스라엘 왕 등극
3107	897	엘리야 승천
3111	893	여호람 유다의 Co-rex
3115	889	여호람 유다의 Sole-rex
3115	889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씀
3117	887	아하시야 유다의 Pro-rex
3118	886	아하시야 유다의 Sole-rex
3118	886	예후 이스라엘 왕 등극
3118	886	아달랴의 유다 왕국 찬탈
3125	879	요아스 유다 왕 등극
3141	863	유다의 아마샤 출생
3147	857	여호아하스 이스라엘 왕 등극
3147	857	성전이 아직 보수되지 않음
3161	843	여호아스 이스라엘의 Pro-rex
3164	840	여호아스 이스라엘의 Sole-rex
3165	839	아마샤 유다 왕 등극
3167	837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Pro-rex
3177	827	유다의 웃시야 출생
3179	825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Sole-rex
3194	810	웃시야 유다 왕 등극
3218	786	대지진(암1:1)
3220	784	유다의 요담 출생
3220	784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망
3220	784	사가랴의 이스라엘 통치
3232	772	살룸의 이스라엘 통치(한 달)
3232	772	므나헴 이스라엘 왕 등극
3241	763	유다의 아하스 출생
3243	761	브가야 이스라엘 왕 등극
3245	759	베가 이스라엘 왕 등극
3246	758	요담 유다의 Sole-rex
3252	752	히스기야 출생
3262	742	아하스 유다 왕 등극
3265	739	베가 사망
3274	730	호세아 이스라엘 왕 등극
3278	726	히스기야 유다 왕 등극
3281	723	살만에셀 사마리아 포위
3283	721	아시리아의 이스라엘 정복(사르곤 즉위)
3291	713	산헤립(사르곤의 총사령관)의 1차 침공
3291	713	히스기야의 생명 15년 연장
3291	713	사르곤의 아스돗 포위(사20:1)
3292	712	므로닥발라단의 사절단

AM	BC	사 건
3293	711	사르곤에게 아스돗이 넘어감
3295	709	산헤립(사르곤의 Co-rex)의 2차 침공
3295	709	천사가 아시리아의 185,000명을 죽임
3295	709	유다의 므낫세 출생
3295	709	희년 주기의 15년째 해 시작(사37:30)
3307	697	므낫세 유다 왕 등극
3355	649	유다의 요시야 출생
3362	642	아몬 유다 왕 등극
3364	640	요시야 유다 왕 등극
3370	634	유다의 여호야김 출생
3371	633	요시야의 회심
3372	632	유다의 여호아하스 출생
3375	629	요시야의 1차 개혁
3376	628	예레미야 대언 시작
3381	623	요시야의 성전 보수(율법 발견)
3386	618	유다의 시드기야 출생
3388	616	여고니야(여호야긴) 출생
3392	612	바빌론의 니느웨 정복
3394	610	바빌론의 하란 정복
3395	609	요시야가 여고니야에게 기름을 부음
3395	609	파라오느고가 요시야를 죽임
3395	609	아시리아의 반격 실패
3395	609	여호아하스 유다 왕 등극
3395	609	여호야김 유다 왕 등극
3398	606	느부갓네살(Co-rex)의 유다 침공
3398	606	1차 바빌론 포로 생활(단1)
3399	605	갈그미스 전투: 느고 사망
3399	605	느부갓네살의 등극
3400	604	느부갓네살(Sole-rex)의 첫째 해
3400	604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꿈 해석
3406	598	소규모 포로들(왕하24:2)
3406	598	여고니야 유다 왕 등극
3407	597	2차 바빌론 포로 생활
3407	597	시드기야 유다 왕 등극
3411	593	에스겔 대언 시작
3411	593	시드기야 바빌론 방문
3412	592	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남
3416	588	예루살렘 최종 포위 시작
3416	588	파라오의 개입
3418	586	바빌론 사람들의 약탈
3418	586	3차 바빌론 포로 생활
3422	582	소규모 포로들
3443	561	바빌론에서 여고니야가 석방됨
3465	539	메대 사람 다리오의 바빌론 정복
3468	536	고레스의 유대인 귀환 선포
3468	536	스룹바벨의 인도로 유대인 귀환(1차)
3469	535	둘째 성전의 기초를 놓음
3484	520	성전 재건 시작
3485	519	아하수에로가 와스디와 이혼함
3488	516	둘째 성전 완공
3489	515	에스더가 왕비가 됨
3494	510	하만의 유대인 멸절 음모
3495	509	왕의 불면증
3495	509	하만의 교수형

AM	BC	사 건
3495	509	모르드개의 승진
3496	508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유대인 구출
3527	457	성전 미화 법령 선포(*)
3527	457	에스라의 예루살렘 도착
3527	457	유대인들이 이방인 아내들을 버림
3540	446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태를 인지함
3541	445	아닥사스다의 칙령(제20년)
3541	445	다니엘의 70 이레 시작
3541	445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옴
3541	445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및 봉헌
3553	433	느헤미야의 페르시아 귀환
3554	432	말라기(구약 성경의 끝)
3673	331	알렉산더 페르시아 정복
3681	323	알렉산더 사망
3833	170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성전 훼손
3836	167	안티오쿠스가 돼지를 제단에 드림
3836	167	마카비 전쟁
3839	164	성전 예배 복원(하누카 성전 봉헌절)
3941	63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취함
3964	40	로마의 헤롯 대왕 임명
3967	37	헤롯이 예루살렘을 취함
3984	20	헤롯의 성전 복원 시작
4000	4	그리스도와 침례자 요한 출생
4000	4	헤롯 사망
4004	AD 1	기독교 기원(AD) 시작
4012	9	예수님이 12세에 성전을 방문함
4015	12	티베리우스(Co-rex)의 첫째 해
4017	14	아우구스투스사망(티베리우스 Sole-rex)
4029	26	빌라도의 유대 총독 임명
4029	26	침례자 요한의 침례
4030	27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4032	29	헤롯 안디바가 침례자 요한을 죽임
4032	29	변화산 사건

AM	AD	사 건
4032	29	장막절(요7)
4033	30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4033	30	스데반의 순교
4035	32	바울의 회심
4040	37	칼리굴라 로마 황제 등극
4042	39	헤롯 안디바의 골 지방 유배
4044	41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 등극
4044	41	고넬료 회심(행15)
4047	44	야고보의 순교(행12)
4047	44	헤롯 아그립바의 사망(행12)
4048	45	1차 선교 여행(행13)
4049	46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음(행14)
4053	50	예루살렘 공회(행15): 할례 문제
4055	52	벨릭스 총독 부임
4056	53	2차 선교 여행(행15)
4057	54	네로 로마 황제 등극
4059	56	3차 선교 여행(행18)
4062	59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힘
4062	59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섬
4063	60	베스도 총독 부임
4064	61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립바 앞에 섬
4065	62	바울이 로마에 도착함
4067	64	바울이 석방됨
4067	64	네로의 기독교 박해
4070	67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4073	70	티투스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
4082	79	티투스 로마 황제 등극
4084	81	도미티안 로마 황제 등극
4099	96	사도 요한이 밧모 섬에 유배됨
4099	96	네르바 로마 황제 등극
4099	96	사도 요한의 석방
4101	98	트라얀 로마 황제 등극

(*) 성전 미화 법령 선포부터 말라기까지의 연대는 학자들의 견해 차이로 인해 존스의 연대보다 9-10년 늦음

King James Bible 1611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륜)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깁,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흠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전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해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잭슨 외/ 고정인 역
모든 것을 끝낸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찬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묵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제,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베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흠정역
한영대역/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흠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터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깁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깁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사랑침례교회 무료 요청)
9.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K. 파이퍼 저, 이황로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0.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2.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3.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5.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 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헌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뵈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웅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자!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넬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 (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윌밍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윌밍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디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I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성경바로보기

요한계시록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9 788995 158784

ISBN 978-89-951587-8-4

03230

값 8,000원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 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 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 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창세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실제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신화나 문학적 상징으로 보기 시작하면, 죄의 기원과 사망의 기원,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까지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동성 결혼의 합법화, 낙태의 확산,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같은 오늘날의 사회적 혼란 역시 그 뿌리를 찾아 내려가면 결국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데서 나옴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는 사실,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단지 성경의 첫 책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과 가정과 사회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성도들과 교회들만이 이러한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학문적 주석서가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바로 서도록 돕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 저자 서문 중에서

제1부 | 창조에서 바벨탑까지(창세기 1-11장)

제2부 | 아브라함의 생애와 이스라엘(창세기 12-25장)

제3부 | 이삭의 생애(창세기 24-28장)

제4부 | 야곱의 생애와 이스라엘 열두 지파(창세기 28-50장)

부록 : 간극 이론의 오류와 교리적 위험/ 안식일과 안식교/ 영과 혼과 몸/
천사들과 영의 세계/ '믿다'와 '믿음'에 대한 오해/ 성경 연대기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킹제임스 성경
무료 PDF와 앱

정동수 목사
주요 설교·강해

값 25,000원

9 788992 485760
ISBN 978-89-92485-76-0